

Contents

• 1. 운문 문학 (시)

	page
1. 개관	5
2. 내용	6
1) 소재, 제재, 주제	
소재	
제재	
주제	
2) 화자, 청자, 대상	
화자	
표면에 직접 드러난 화자 /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상황 (처지, 정황)	
태도 (자세, 대응 방식)	
정서 (심리, 감정, 내면, 마음, 심정, 감회)	
어조	
청자	
대상	
3) 심상, 형상화	
심상 (이미지)	
형상화	
3. 형식	160
1) 형태, 시상 전개 방식	
형태	
시상 전개 방식	
2) 운율	
4. 표현	195
1) 비유법	
2) 변화법	
3) 강조법	
4) 기타 표현법	
5. 기타	258
1) 시적 긴장	
2) 낯설게 하기	
3) 관습적 표현 (관용 어구 사용)	

Contents

	page
● II. 산문 문학 (소설)	
1. 개관	265
2. 내용	266
1) 인물	
인물의 종류	
인물의 성격	
2) 사건	
3) 갈등	
갈등의 종류	
갈등의 고조와 해소	
4) 배경	
3. 형식	325
1) 서술자, 시점	
서술자	
시점	
2) 문체, 제시 방법	
문체	
장면 제시 방법	
3) 구성	
4. 기타	376
1) 병치	
2) 복선, 암시	
3) 의식의 흐름 기법	
● III. 기타 문학 (수필, 희곡, 시나리오)	
1. 수필	383
2. 희곡	388
1) 대사	
2) 지문	
3) 사건	
4) 연기 지시, 무대 구성	
5) 장면 전환	
6) 소도구	
3. 시나리오	405
1) 장면, 장면 전환	
2) 플롯	
3) 대사, 지시문	
4) 촬영 지시, 촬영 기법	
● IV. 문학 일반	
1. 문학의 장르 (문학 I)	418
2. 문학 감상법	419
3. 한국 문학의 범위와 특질 (문학 II)	428

교재 구성 안내

① 소 재

- (가)의 '원망'과 (다)의 '무엇'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5년 9평 29번]
- (나)의 ㉠과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6년 수능 17번]
-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08년 수능 19번]
- 옛 노래를 알리기 위해 (가)와 (나)를 소재로 영상물을 만들고 있다.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년 6평 39번]
-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07년 수능 51번]
- ㉠, ㉡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08년 9평 24번]
- 대표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2년 수능 31번]
- (나)는 (가)와 달리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12년 수능 33번]
-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13년 6평 13번]
- (가)-(다)의 소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년 9평 36번]
- 고창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13년 수능 34번]

마인드 맵

얇은 사(紗) 하얀 고깔은 고이 겹쳐서 나뭇바라.	까만 눈동자 삼보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파르라니 맑은 머리 박사(博士) 고깔에 감추오고	복사꽃 고운 밤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다.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장으로 교와서 서러워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겹쳐 받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창인 양하고
빈 대(臺)에 황홀(恍惚)함이 많았어 녹는 밤에 오동일 일새마다 달이 지는데	이 밤사 귀뜨리도 자라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얀 고깔은 고이 겹쳐서 나뭇바라.

조지훈, '승무' [10년 수능 / 찬재(정1)]

-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O, X) [10년 수능 32번 ①]

개념 +

적용 문제

기출로 확인하기

1. (가)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년 6평 38번]

대명(大命)이 부딪힌 창에 육인 금채(肉人金鎗)* 비졌으니
이삼 백발승(百發승)은 거문고와 노래도다
이우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리라

빙자울질(氷冢遺蹟)이어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할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직 고질(固執)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칙송(黽送)인가 투견화(투견화)인가
건곤(建坤)이 눈이눈게 어찌 길히 피리
일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대화밖에 뭐 있으리

안만정, '백발승' [07년 6평 / 해설 11]

* 초인 음차 : 미인의 음어. / * 칙송 : 칙송. / * 백설 양춘 : 흰 눈이 내리는 춘란 정물

- ① '백발승'은 매화를 찬상하는 주체이다.
- ②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 ③ '아치고결'은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 속성이다.
- ④ '투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 ⑤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존재이다.

기출 문제와 선지에서 해당 개념이 나오는 부분만 따로 모아 두어 배우고자 하는 개념이 쓰인 실제 예를 기출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인드 맵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개념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계를 잡을 수 있다.

실제 기출문제를 O, X 문제로 풀어봄으로써 개념의 이해를 확인하고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

배운 개념보다 좀 더 심화되거나, 관련 있는 유사 개념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개념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배운 개념을 교과서 수록 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도있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배운 개념을 실제 기출 문제의 틀로 확인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고, 이해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 개관

1. 정의 : 시인이나 작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심상, 운율, 함축으로 표현한 언어 예술

2. 특성

- 1) 형상성 : 이미지로 표현
- 2) 음악성 : 리듬이 있는 언어로 표현
- 3) 함축성 : 가능한 적은 언어로 사상과 감정 표현

3. 요소

- 1) 내용
- 2) 형식
- 3) 표현

(가) 문학의 수용

①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이 내용은 문학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상하고 평가하면서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작품 자체를 하나의 언어예술로서 심미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어야 온전한 수용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문학 작품은 작가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언어예술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및 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내용은 인간 및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 의식에서 나오고, 형식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문학 고유의 체계와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다. 표현은 관습을 따르기도 하면서 발상의 참신함과 표현 과정에서의 창의성을 추구한다. 내용, 형식, 표현 세 요소는 모두 관습과 그것의 변형과 파괴라는 관계 속에서 심미적 가치를 얻게 된다.

이 내용은 작품의 구성 요소로서 내용·형식·표현의 의미 이해하기,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작품의 형식 이해하기, 작품의 표현상 특징 이해하기, 하나의 미적 구조물로서 작품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이해하기 등을 세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을 학습할 때에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되 내용의 진지성, 형식과 표현의 새로움, 상호 유기성 등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중

2. 내용

1 소재, 제재, 주제

1. 소재(素材) :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는 재료.
2. 제재(題材) : 소재들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소재.
3. 주제(主題) :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마인드 맵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훑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14년 예비 시행 A형]

위 시의 소재는 '당신', '꿈', '침묵', '외로움', '슬픔', '그리움', '눈', '겨울', '사랑', '기다림' 등등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핵심 소재, 즉 제재는 '그리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제재는 제목을 통해 드러나거나 여러 번 반복되어 쓰이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제재+서술'의 구조를 취하는데, 위 시의 경우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의 소망'이라고 파악 가능하다.

① 소재

- (가)의 ‘원광’과 (다)의 ‘무엇’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5년 9평 23번]
- (나)의 ㉔와 (다)의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6년 수능 17번]
-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06년 수능 19번]
- 옛 노래를 알리기 위해 (가)와 (나)를 소재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한다.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년 6평 39번]
-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07년 수능 51번]
- ㉔, ㉕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08년 9평 24번]
-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2년 수능 31번]
- (나)는 (가)와 달리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12년 수능 33번]
-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13년 6평 13번]
- (가)~(다)의 소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년 9평 36번]
- 고향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13년 수능 34번]

한 편의 시를 ‘된장찌개’에 비유한다면, 된장찌개를 만드는 재료인 된장, 호박, 두부, 양파 등등을 각각의 소재라 할 수 있다. 시를 읽을 때는 각각의 소재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06년 수능 / 신사고 1]

- 계절감을 주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O, X) [06년 수능 19번 ㉔ 변형]

‘계절감을 주는 소재’란 어떤 계절에 대한 느낌을 주는 소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나리나 진달래 등은 봄이라는 계절감을 주는 소재가 된다. 또한 장맛비나 부채 등은 여름을, 낙엽이나 국화 등은 가을을, 눈이나 매화 등은 겨울을 나타내는 소재가 된다.

이화우(梨花雨)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계량의 시조 [07년 수능 / 해냄 I]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촉루(空山觸露)*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기나
윤회 만겁(輪回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연은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조위, '만분가(萬憤歌)' [07년 수능 / 미래앤 II]

- * 공산 촉루 :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 * 만장송 :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 * 침변 : 배갯머리.
- * 월중 소영 :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 (두 시 모두)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O, X)
[07년 수능 51번 ㉔]

'일상적 소재'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소재를 의미한다. '지우개, 수건, 비누, 분필, 축구공 [06년 6평 10번 참고]'등이 그것의 예라 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때로는 구체적인 소재의 의미를 묻기도 한다. 대부분의 소재는 '상징'으로서 각각의 의미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출 등을 통해, 또 공부를 하면서 반복되는 소재의 의미들은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다음은 역대 기출¹⁾ 선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지의 의미를 몇 가지 정리한 것이다.

1) 본 교재에서 역대 기출이란 05년 6평에서 13년 수능까지를 말한다.

㉠ 부정적 상황이나 고난, 시련 등을 나타내는 소재 : 겨울, 밤, 바람, 거미집

- 1938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가난’, ‘겨울’과 같은 시어를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읽을 수도 있겠어. [05년 수능 17번]
-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06년 수능 16번]
- ‘낮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07년 수능 30번]
-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08년 6평 18번]
-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09년 6평 23번]
-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12년 6평 22번]

‘겨울’과 ‘바람’은 차갑다는, ‘밤’은 어둡다는, ‘거미집’은 ‘거미’라는 생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저분하다는 속성으로 인해 주로 고난이나 시련과 같은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보기]

[백과사전]

이육사 :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경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 (『육사 시집』 발문)

푸른 하늘을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 ‘교목(喬木)’ [07년 수능 / 해냄Ⅱ]

- ‘낮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O, X) [07년 수능 30번 ㉠]

위의 시에서 '교목'을 시인과 동일시한다면, 그러한 교목을 휘두르고 있는 '거미집'은 부정적 의미로 쓰일 수 밖에 없다. 특히 '낮은'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이 '거미집'의 성격을 분명하게 한다.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낮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김동명, '파초' [12년 6평]

* 파초 :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O, X) [12년 6평 22번 ⑤]

위 시는 원산지가 '남국'인 파초가 겨울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과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에 처한 '나'의 상황을 동일시하고 있다.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면서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08년 6평 / 미래엔 II, 교학(윤) II, 천재(고) II, 해냄 II]

A.

간밤에 부던 바람 만경 도화(桃花) 다 지켰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08년 6평 18번 <보기> / 두산 II]

- ㉠와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O, X) [08년 6평 18번 ①]

㉠의 '바람'은 누이의 죽음의 원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면 A에서 '바람'은 '도화'를 지게 하는 요소이지만, 떨어진 꽃은 화자에게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이다.

㉔ 지향 대상을 나타내는 소재 : 하늘, 미타찰

-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08년 6평 15번]
-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 군. [11년 수능 14번]

옛날부터 ‘하늘’은 인간에게 우려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상향, 또는 지향 대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미타찰’은 불교에서의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적 의미의 지향 대상으로 나타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자화상’ [11년 수능 / 천재(김)Ⅱ, 천재(정)Ⅰ]

[보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화상(自畫像)’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화상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 내고 있는 그림이다.

-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O, X) [11년 수능 14번 ②]

2연에서 우물에 비친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를 의미한다.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08년 6평 / 비상(유) 1]

(다)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것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08년 6평 / 미래엔 11, 교학(윤) 11, 천재(고) 11, 해냄 11]

-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O, X) [08년 6평 15번 ④]

(나)에서의 '하늘'은 지향 대상의 의미와 함께 '삶의 윤리적 절대 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㉔ 소통의 차단이나 자유를 나타내는 소재 : 구름

-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07년 9평 33번]
- (나)의 '구름'과 (다)의 '구름'은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12년 수능 32번]
- ㉔(무서운 검은 구름)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13년 6평 15번]

'구름'은 하늘에서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속성으로 인하여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하였듯 일반적으로 '하늘'은 지향 대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름'은 그 대상을 가리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단절이나 차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 날으는 새여
뫼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어
피만이 흐르네 /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어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뫼인 이 가슴

김지하, '새' [07년 9평]

- 5연의 경우 '새'와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이 강조된다. (O, X)
[07년 9평 33번 ㉔ 변형]

'떠나가는 새'와 '눈부신 구름'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세계를 상징한다.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중략)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니

꿇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12년 수능]

* 영 : 고개

(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너 상시(常時)과저*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찾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묻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요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이광명, '북찬가' [12년 수능]

* 꿈을 둘너 상시과저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학발자안 : 머리가 하얗게 센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 (나)의 '구름'과 (다)의 '구름'은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O, X) [12년 수능 32번 ㉔]

(나)의 '구름'의 화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으며, (다)의 '구름'은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㉔ 자연과 속세를 나타내는 소재 : 자연 - 강산, 달, 백구 / 속세 - 흥진

- ‘먼 뉘’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07년 9평 34번]
- ‘다툼 이 없는 강산’은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07년 9평 34번]
- ‘월백’은 ‘흥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10년 9평 26번]
- (나)의 ‘백구’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13년 9평 36번]

고전시가에서 ‘달, 강, 산, 백구(갈매기)’등은 주로 자연친화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흥진’은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속세를 나타내는데, 긍정적 의미를 지닌 자연과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흥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이현보, ‘어부단가’ [10년 9평 / 미래엔 II]

- * 청하 : 푸른 연잎. / * 노적 화총 : 갈대와 물억새의 덩굴.
- * 일반 청의미 :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 * 제세현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 ‘월백’은 ‘흥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O, X)
 [10년 9평 26번 ㉔]

자연친화적 의미를 지닌 ‘달’과 속세의 의미를 지닌 ‘흥진’은 대비를 이룬다.

천심절벽(千尋絶壁) 첫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13년 9평]

* 어조 생애 :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 백조 : 모든 새. / * 내곳 : 내가.

- '백구'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O, X) [13년 9평 36번 ㉔]

고전시가에서 '백구'는 관습적으로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면서 벗하고 싶은 대상, 또는 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의 의미를 지닌다. 위 시에서 화자는 '백구'를 친구로 삼아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누리고자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소재들이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겨울’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봄’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이육사의 ‘교목’에서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푸른 하늘을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이렇듯 이육사의 ‘교목’에서의 ‘봄’은 ‘차라리’라는 부사어와 ‘말아라’라는 부정 서술어를 통해 화자에게 거부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재의 뜻을 무조건 암기하기 보다는 앞뒤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그 소재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만 파악한다면 시 해석과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된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결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짹 짹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09년 6평]

-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O, X) [09년 6평 23번 ㉔]

‘얼음’은 ‘겨울’이나 ‘바람’처럼 차가운 속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위 작품에서는 ‘얼음’의 의미가 ‘아버지의 사랑’과 결합되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

< 기타 소재의 의미 정리 >

- 가난 : 죽

• (가)의 '죽'은 화자의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13년 9평 36번]

- 고상, 순결 : 잉어

• (다)의 '잉어'는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 [13년 9평 36번]

- 부정 세력 : 이리떼, 잔나비떼, 솔개

•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솔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0년 6평 15번]

- 생명력 : 꽃, 매화

•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07년 6평 38번]

•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10년 9평 22번]

- 서러움 : 귀뚜라미(귀뚜라미), 철쭉

•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10년 수능 34번]

- 속세와의 거리감 : 수 표현, 만첩

• 속세와의 거리감을 수(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05년 6평 39번]

• '만첩'은 ㉠와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10년 9평 26번]

• **순진, 순수 : 나비, 박꽃**

- (가)의 '나비' : 저는 너무 순진하게 덤벼들었다가 큰 상처만 입었습니다. [06년 6평 19번]
-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10년 9평 22번]
-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원 모습을 연상시킨다. [12년 6평 23번]

• **역사 : 강**

-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10년 9평 24번]

• **외로움 : 공산촉루, 외나무**

- '공산 촉루',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 [07년 수능 54번]

• **자아성찰 : 우물**

-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11년 수능 14번]

• **절개 : 교목, 만장송**

- 이 시의 제목(교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07년 수능 30번]
-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임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07년 수능 54번]

• **지속 : 물**

-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10년 수능 37번]

개념+

1. 매개물(매개체) : 소재들 중 '어떠한 것'과 '어떠한 것'을 연결시키는 소재.

- 시상의 극적 전환을 유도하는 매개물이다. [05년 9평 23번]
-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이다. [06년 6평 18번]
-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11년 6평 20번]
- (나)의 '남풍'과 (다)의 '추풍'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와 화자를 매개한다. [12년 수능 32번]
-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년 6평 18번]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떼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잔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오장환, '고향 앞에서' [06년 6평]

-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이다. (O, X)
[06년 6평 18번 ③]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화자의 상황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상감 등을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너 상시(常時)과져*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잣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가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고

이광명, '북천가' [12년 수능]

- * 꿈을 둘너 상시과져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 학발자안 : 머리가 하얗게 센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 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 (나)의 '남풍'과 (다)의 '추풍'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와 화자를 매개한다. (O, X)
[12년 수능 32번 ④]

(나)의 1~2연에서 화자는 이상 세계를 상징하는 '남촌'에서 불어오는 '남풍'을 통해 풍요로움과 흥겨움, 평화로움 등을 노래하고 있다. (다)는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 작품이다.

②

제 재

-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07년 6평 17번]
-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11년 9평 16번]

‘제재’는 소재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소재를 말한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한 편의 시를 된장찌개에 비유한다면, 된장찌개를 만드는 다양한 재료 중에서 ‘된장’이 제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재의 경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나 제목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소재(素材) / 제재(題材)

일반적으로 소재는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적 문장 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들, 즉 자연, 사회 현상, 인물의 행동, 감정, 관념 등을 가리킨다. 미학자 하르트만은 소재를 물(物, Ding), 생(生, Lebens), 심(心, Seels), 정신 세계(Geistwelt)로 나눈다. …… 소재 가운데 주된 것, 즉 제목이나 글의 중심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제재이다. 서정주의 시 <국화 옆에서>에 등장하는 봄, 소쩍새, 먹구름, 천둥, 무서리, 누님 등은 소재이고, 국화는 제재인 것이다. 이것을 할라이트는 특성 시의 주도적 이미지로 파악하여 상징(象徴, symbol)의 첫 단계에 편입시키고 있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433-434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 ‘국화 옆에서’

(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관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도.

김소월, '길' [11년 9평 / 신사고 1]

-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타내고 있다. (O, X) [11년 9평 16번 ①]

일반적으로 시의 제목은 핵심 소재, 즉 제재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화자인 '나'는 '길'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섬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김상옥, '사향(思鄉)' [07년 6평]

-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O, X) [07년 6평 17번 ③]

'병렬적'이라는 말은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는 뜻이다. 위 시의 제재는 '고향'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

1. 시상 유발 = 시의 발상 :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내어 그것을 시로 옮기는 것. 시 창작의 시작. 시상을 유발하고 시의 발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곧 제재가 됨.

-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05년 수능 15번]
-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09년 6평 21번]
-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12년 9평 33번]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려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12년 9평]

- 일상 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O, X) [12년 9평 33번 ②]

어머니가 '그릇'을 '그릇'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시상 유발의 계기가 되어 삶에 대한 경건성과 시인으로서의 자세를 성찰하고 있다.

날로 밤으로
왕거미 출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공실이에 늙은 동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이 뇌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높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릅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 꿈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핥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이용악, '낡은 집' [05년 수능 / 천재(경) 1]

* 짓두광주리 : '반질고리'의 방언. / * 글거리 : '그루터기'의 방언.

-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O, X) [05년 수능 15번 ④]

시의 제목이기도 한 '낡은 집'은 일제의 핍박으로 인해 몰락한 농촌의 모습과 그로 인해 유랑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상황을 드러낸다.

③

주 제

- (나)와 (다)는 각각 ‘독’과 ‘신발’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5년 6평 41번]
- (가)는 상승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5년 9평 21번]
- (나)의 주제 의식과 관련지어 볼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06년 6평 17번]
-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06년 9평 20번]
-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07년 9평 28번]
-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08년 6평 13번]
-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08년 9평 20번]
-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11년 9평 16번]
-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12년 9평 31번]
-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2년 9평 41번]
-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13년 6평 13번]
-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5번, B형 34번]
-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14년 예비 시행 B형 40번]
- 제1수의 화자의 의도를 제5수에서도 드러내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3년 수능 49번]

‘주제’란 시인이 시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한다. 시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이러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다.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험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김영랑, ‘독(毒)을 차고’ [05년 6평]

- ‘독’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O, X) [05년 6평 41번 ②]

시의 제재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위 시는 암울한 시대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를 ‘독’이라는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 한 자욱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옷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량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4년 예비 시행 B형 / 두산Ⅱ, 비상(박)Ⅱ, 지학(권)Ⅱ, 지학(최)Ⅱ, 천재(고)Ⅱ, 천재(정)Ⅱ]

-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인다. (O, X) [14년 예비 시행 B형 40번 ②]

시의 배경과 분위기는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위 시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봄을 맞이해 생명력이 넘치는 국토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런 '봄'조차 빼앗길 처지에 놓인 현재 상황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출되는 작품들의 주제는 어느 정도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역대 기출 중 선지로 제시된 주제는 대략 15개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 '인생의 소중함', '학문에 대한 관점',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 '자연 친화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미래에 대한 긍정과 확신', '대상과의 조화와 합일추구',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 '의지 표출', '비판 의식', '내면 성찰과 반성', '이상 추구', '현실 포용', '인내', '현실 도피' 등이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다.

㉠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

•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09년 6평 46번]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현실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민족이나 국가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주제를 가진 시들의 경우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기보다는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대한 사회적, 민족적 인식을 드러낸다.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냐
 가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영킨 묵은 발도 쉽사리 갈련만은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랴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끈 지도 오래려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대도 하도할샤
 훌륭한 군자들이 뉘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박인로, ‘누항사’ [09년 6평 / 교학(윤)Ⅱ, 지학(최)Ⅱ, 해냄Ⅲ]

* 세정 : 세상 물정

•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O, X) [09년 6평 46번 ㉠]

화자인 ‘나’는 곤궁한 생활 중에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도(道)를 따르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민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高句麗) 같은 정신도 신라(新羅)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意味)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廣場).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休息)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 같은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 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민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박봉우, '휴전선' [지학(권) III]

-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O, X) [09년 6평 46번 ②]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퍼진 암울한 정서를 드러내고, 분단 극복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㉔ 인생의 소중함

-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06년 6평 15번]

주어진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을 때, '인생의 소중함'에 대하여 노래할 수 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06년 6평 / 창비Ⅱ]

-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O, X) [06년 6평 15번 ㉔]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오인하여 '바다'로 향했다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나비'의 모습을 통해 거대화되고 삭막한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㉔ 학문에 대한 관점

- 학문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12년 9평 38번]

고전시가의 경우 지은이가 학자일 때 학문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는 작품이 종종 있다.

이런들 어찌하며 저런들 어찌하리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찌하리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한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이황, '도산십이곡' [12년 9평 / 비상(박)Ⅱ, 비상(유)Ⅲ, 지학(권)Ⅱ, 지학(최)Ⅲ]

* 초야우생 :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 학문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O, X) [12년 9평 38번 ①]

화자는 자연 친화적 정서와 함께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㉔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

- 자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05년 9평 20번]
-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05년 수능 37번]
-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12년 9평 38번]

시인은 화자를 통해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나 태도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남녘 들판에 곡식이 뜨겁게 익고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지나해의 회오리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 소리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

김광규, '때' [05년 9평]

* 우듬지 : 나무의 꼭대기 줄기

- 자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O, X) [05년 9평 20번 ㉔]

가을의 이미지를 인생의 의미와 연결시키고 있다.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찮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솔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불가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 끝에 슬슬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슬슬 녹네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12년 9평 / 미래엔II, 천재(김) I]

* 황연대각 : 환하게 모두 깨달음.

* 화용월태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O, X) [12년 9평 38번 ㉔]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자연 친화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 자연 친화 의식이 드러나 있다. [07년 6평 37번]
-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07년 수능 28번]
-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12년 6평 19번]

자연 친화에 대한 주제는 주로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길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영킨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조오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커늘
 조물이 현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에 벌였어라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송순, '면양정가' [07년 6평 / 교학(조) 1]

* 산람 :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 경궁요대 :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옥해은산 : 눈 덮인 들판과 산.

- 자연 친화 의식이 드러나 있다. (O, X) [07년 6평 37번 ①]

면양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묘사하고, 그에 대한 예찬과 친근함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귀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12년 6평]

* 망령된 :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추성 진호루 :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 므음 호리라 : 무엇을 하려고.

-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O, X) [12년 6평 19번 ②]

작가가 유배 중에 지은 작품으로 그의 강직한 성품과 결백에 대한 하소연,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나타나 있다.

㉔ 미래에 대한 긍정과 확신

- (나)는 (가)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다. [05년 수능 15번]
-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08년 6평 13번]
-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08년 수능 13번]

주로 현재 상황이 부정적이지만, 그것을 의지적으로 극복하려는 데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과 확신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호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荻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라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08년 수능]

* 계교 : 서로 견주어 살펴봄. / * 부급동남 :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O, X) [08년 수능 13번 ㉔]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세속적 욕구와 자연에서의 은거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잎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뒤통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종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곽재구, '은행나무' [05년 수능]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다. (O, X) [05년 수능 15번 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던 화자는 은행나무의 곳곳한 모습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배우고 있다.



대상과의 조화와 합일 추구

-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08년 9평 13번]
-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10년 9평 21번]
-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2년 9평 38번]

시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이 긍정적일 경우 그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친화적 시의 경우 자연이라는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땀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떡라

이육사, '소년에게' [10년 9평]

* 진준가 : 진주인가.

* 한가 : 가장 끝 부분.

-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O, X) [10년 9평 21번 ①]

당당하고 의지가 넘치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 시인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에 굴하지 않는 당당함과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牀)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領)*을 다니면서까지 /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 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중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말에 엮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08년 9평 / 교학(윤) I, 지학(권) I]

* 노령 : 러시아의 영토. / * 자래운 : 키운.

* 아무을 만, 니코리스크 : 오후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 설렁한 : 춥고 차가운.

-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O, X) [08년 9평 13번 ③]

화자는 아버지의 임종에 대한 체험에 대하여 차분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회상하고 있다.

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간(草廬 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달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져 두고
강산(江山)을 들의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송순의 시조 [비상(유) II, 천재(김) II, 해남 II]

-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O, X) [10년 9평 21번 ①]

자연의 아름다움을 몰입한 경지를 노래하며, 자연과 하나가 된 삶과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

-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09년 6평 46번]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때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에 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鷺子初來時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喃喃語不休	지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語意雖未明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似訴無家愁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榆槐老多穴	느릅나무 해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何不此淹留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燕子復喃喃	제비 다시 지저귀며
似與人語酬	사람에게 말하는 듯
榆穴鸛來啄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槐穴蛇來搜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정약용, '고시(古詩)' [09년 6평 / 신사고 II]

-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에 내재되어 있다. (O, X) [09년 6평 46번 ②]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한 제비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당대의 백성들을, 황새와 뱀은 그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원순문(元淳文) 인노시(仁老詩) 공노스륙(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딘한림(陳翰林) 상운주필(雙韻走筆)
 통기딕칙(沖基對策) 광균경의(光鈞經義) 량경시부(良鏡詩賦)
 위 시당(試場)ㅅ 경(景) ㄱ 엇더하니잇고.
 엽(葉) 금혹스(琴學士) 옥순문싱(玉筍門生) 금혹스(琴學士) 옥순문싱(玉筍門生)
 위 날조차 몇부니잇고.

당한서(唐漢書) 장로즈(莊老子) 한류문집(韓柳文集)
 니두집(李杜集) 난딕집(蘭臺集) 백락던집(白樂天集)
 모시상서(毛詩尙書) 주역춘추(周易春秋) 주딕예기(周戴禮記)
 위 주(註)조쳐 내 외웁 경(景)ㄱ 엇더하니잇고.
 엽(葉) 대평광기(大平廣記) 슻억여권(四百餘券) 대평광기(大平廣記) 슻억여권(四百餘券)
 위 력람(歷覽) 경(景)ㅅ 경(景) ㄱ 엇더하니잇고.

당당당(唐唐唐) 당츄즈(唐楸子) 조협(皂莢)남기,
 흥(紅)실로 흥(紅)글위 킨요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덩소년(鄭少年)하
 위 내논 딕 늙 갈세라.
 엽(葉) 삭옥섬섬(削玉纖纖) 상수(雙手)ㅅ 길헤 삭옥섬섬(削玉纖纖) 상수(雙手)ㅅ 길헤
 위 휴슈동유(携手同遊)ㅅ 경(景)ㄱ 엇더하니잇고.

 현대어 풀이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록변려문
 이규보와 진화가 쌍운을 맞추어 거침없이 써 내려간 글
 유충기의 대책문, 민광균의 경서 뜻풀이, 김양경의 시와 부,
 아아, 과거 시험장의 모습이 어떠합니까?(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의가 배출한 죽순(竹筍)처럼 늘어선 제자들, 금의가 배출한 죽순(竹筍)처럼 늘어선 제자들
 아아, 나까지 몇 분이나 됩니까?(참으로 많습니다.)

당서와 한서, 장자와 노자, 한유와 유종원의 문집,
 이백과 두보의 시집, 난대영사의 시문집, 백난천의 문집,
 시경과 서경, 주역과 춘추, 대대례와 소대례,
 아아, 주석마저 줄곧 외는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태평광기 사백여 권, 태평광기 사백여 권,
 아아, 두루 읽는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호두나무, 쥐엄나무에,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맵니다.
 당기시라 미시라, 경소년이여,
 아아, 내가 가는 곳에 남이 갈까 두렵구나.
 옥을 깎은 것 같이 부드러운 양 손길에, 옥을 깎은 것 같이 부드러운 양 손길에,
 아아, 손을 마주잡고 같이 노는 정경, 그것이 어떠합니까?(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림 제유(翰林諸儒), ‘한림별곡(翰林別曲)’ [교학(윤) ㄱ, 두산 ㄱ, 비상(박) ㄱ, 비상(유) ㄱ, 지학(최) ㄱ]

-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에 내재되어 있다. (O, X) [09년 6평 46번 ㉔]

고려 고종 때 한림학사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을 제제로 삼아 문인들의 자부심과 호화롭고 향락적인 생활상을 나타내고 있다.

㉨ 의지 표출

-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인다. [05년 6평 38번]
- ‘노래할 수 없다’,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05년 수능 19번]
-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0년 수능 32번]
-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11년 6평 39번]
-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1년 9평 16번]

주어진 현실이 부정적이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의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의지’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조지훈, ‘승무’ [10년 수능 / 천재(정) 1]

-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O, X) [10년 수능 32번 ①]

화자는 여승의 승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를 읽어내고 있다.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말아 하라
 가을걷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라
 집은 내 지오마 움은 네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에 버를 년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별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짚거든 거치나 거친 울벼
 옥 같은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죽조반(粥朝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었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겠도다.

허전, '고공가' [11년 6평]

* 호수 : 고공(머슴)의 우두머리.

-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O, X) [11년 6평 39번 ④]

국가의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일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 채우기만 급급한 관리들을 게으른 머슴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다. 또한 도적들에 의해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화자의 극복 의지를 찾을 수 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걱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 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고정희, '상한 영혼(靈魂)을 위하여' [교학(조) I, 천재(김) II]

-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O, X) [10년 수능 32번 ①]

고통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단호하게 드러내고 있다.

㉔

비판 의식

-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05년 9평 20번]
-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05년 수능 37번]
- 현상에 얽매이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05년 수능 37번]
-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11년 6평 39번]
-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12년 9평 33번]
-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12년 9평 38번]

시에서 노래하는 대상이나 주어진 상황이 부정적일 경우, 그 대상과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나타날 수 있다.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뇌
이 중에 비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 흥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니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흔디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애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 흥고.

청산(靑山)은 옛제(古)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제(古)여 주야(晝夜)에 굿지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헝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헝거니 괴 아니 쉬온가
성인(聖人)도 못 다 헝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05년 수능 / 비상(박) II, 비상(유) II, 지학(권) II, 지학(최) II]

*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 * 순풍(淳風) :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함.

-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O, X) [05년 수능 37번 ㉔]
- 현상에 얽매이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O, X) [05년 수능 37번 ㉔]

위 작품은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생활과 학문에 대한 관점을 노래하고 있다.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 '새1' [12년 9평]

-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O, X) [12년 9평 33번 ①]

'새'와 '포수'를 대비하여 자연의 순수함을 파괴하는 문명의 폭력성 또는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등을 노래하고 있다.

개념+

1. 세태 풍자(우회적 비판) : 어떠한 것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나 상황으로 돌려 표현하거나 비꼬.

- 자연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05년 9평 20번]
-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08년 6평 13번]

‘비판 의식’의 경우 그 비판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풍자나 우회적 비판의 경우 그 비판의 내용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풍자(諷刺)

어떤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것에 대하여 재미있어하는 태도나, 경멸이나 분노, 조소의 태도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그 대상을 깎아 내리는 문학의 방법이다. 작가는 환상적이거나 부조리한 위트나 유머를 무기로 사용하여 어떤 대상을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풍자는 간접화된 공격이다. …… 풍자는 조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풍자는 대상을 격하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외경감 대신에 대상에 대한 희극적 반응을 유도한다. 풍자는 웃음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한다. 그 공격 대상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형이나 계급, 제도, 국가, 심지어는 <걸리버 여행기>처럼 전 인류일 수도 있다. 풍자는 희극과 달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불완전성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또한 풍자는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을 병치(並置)하려는 시도를 보여 줌으로써 단순한 독설보다 고차원적인 성격을 지닌다. 폴러드(A. Pollard)의 견해에 따르면 풍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문학 양식이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769-770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자.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자.

조지훈, '마음의 태양' [05년 9평]

- 자연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O, X) [05년 9평 20번 ①]

이상 세계 추구를 위해 고난과 현실의 시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영화(映畵)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죽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항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천재(김) 1]

[보기]

이 시는 극장 안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애국가가 울려나오는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장면을 배경 삼아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적화자는 화면속의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는 시적 화자 자신이 현실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의 욕망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즐거운 극장에서 애국가를 울리며 나라 사랑을 외쳐대는 그런 엄숙주의에 시적 화자는 냉소적으로 대응하면서 '낄낄대면서/ 깔죽대면서' 날아가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같은 욕망은 곧 좌절한다. 애국가가 끝나면 모두가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상황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좌절감과 체념이 함께 드러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체념적인 자세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강요된 의식의 경건함을 야유함으로써 얻어내는 비판적 의식의 출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 상

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O, X) [08년 6평 13번 ㉔]

여흥을 즐기는 영화관에서조차 국가 권력의 압제를 느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또 냉소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군사 독재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풍자와 좌절감이 나타난다.

㉔ 내면 성찰과 반성

- (나)는 (다)에 비해 **내면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 있다. [05년 6평 41번]
-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07년 수능 51번]
-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08년 수능 13번]
-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08년 수능 13번]
-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개선하고자 한다. [09년 6평 46번]
-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11년 6평 39번]
-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11년 9평 13번]

‘내면 성찰’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 ‘반성’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여 자신에게 잘못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의 경우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내면 성찰과 관련지을 수 있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회 치다라 안자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넨 널식만경 에헐*질 번 하괘라.
 작자 미상, 사설시조 [11년 6평 / 비상(유)Ⅱ, 해냄Ⅱ]
 * 에헐 :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O, X) [11년 6평 39번 ②]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다가가도, 자신보다 힘 있는 존재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모습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
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김영랑, '독(毒)을 차고' [05년 6평]

(다) 지상(地上)에는 /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칸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울린
여기는 /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 존재한다.
미소하는 / 내 얼굴을 보아라

박목월, '가정(家庭)' [05년 6평]

- (나)는 (다)에 비해 내면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 있다. (O, X) [05년 6평 41번 ③]

화자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날수록 내면 성찰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
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김광균, '와사등' [08년 수능]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들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수영, '사령' [08년 수능]

- (두 시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O, X) [08년 수능 13번 ④]
- (두 시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O, X) [08년 수능 13번 ⑤]

'와사등'에는 도시 문명 속에서 방향성을 잃은 화자 '나'의 모습이 나타나며 '사령'에서는 행동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반성이 나타난다.

㉞ 이상 추구

-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05년 9평 20번]
-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05년 9평 20번]
- 현실을 초월하려는 종교적 신념이 드러나 있다. [06년 9평 15번]
-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07년 6평 37번]
-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12년 6평 19번]
-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12년 9평 33번]
-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12년 9평 38번]

‘이상’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주어진 상황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 이상을 추구하게 된다.

겨울나무와 /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김남조, ‘설일(雪日)’ [05년 9평]

-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O, X) [05년 9평 20번 ②]
-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O, X) [05년 9평 20번 ④]

‘현실의 모순’이란 현실의 부조리함, 즉 부정적 요소가 있는 현실 상황을 의미하며, ‘초월적 세계’란 현실을 벗어난 세계를 의미한다. 위 시는 인생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해 새롭게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변화를 그리고 있다.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들었다.

김광균, '수철리*' [12년 6평]

* 수철리 :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O, X) [12년 6평 19번 ①]

'현실과 이상의 괴리'란 실제 현실과 '바라는 현실(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위 시는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은 뒤에 느끼는 감회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들리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풋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출을 안 그는.

유치환, '깃발' [천재(고) I]

-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 좌절로 인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O, X)

깃발이 바다를 향해 흔들리는 모습을 향수(鄉愁)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깃발은 깃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영원히 바다에 닿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㉞ 현실 포용

-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09년 6평 20번]

‘포용’은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실 포용’이란 현실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날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땡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 [09년 6평]

-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O, X) [09년 6평 20번 ③]

한 여인이 여승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보잘것없는 이 몸이 무슨 소원이 있으랴마는
 두세 이랑 되는 발과 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나의 빈천함을 싫게 여겨 손을 내젓는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짓을 한다고 오겠는가?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서 생겼겠는가?
 가난해도 원망하지 앓음이 어렵다고 하건마는,
 내 생활이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라.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이것도 만족하게 여기고 있노라.
 평생의 한 뜻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는 없노라.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 사이에 신의 있게 사귀는 것을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타고난 대로 살겠노라.

박인로, '누항사' [교학(윤) 11, 지학(최) 11, 해냄 11]

-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O, X) [09년 6평 20번 ③]

시의 화자는 가난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갈등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고 있다.

㉓ 인내

•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06년 수능 16번]

주어진 삶의 현실이 어렵고 부정적일 때, 그것을 참고 견디어 내려는 인내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킨*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06년 수능 / 천재(고) 1]

* 삼킨 : 삼킨. 물에 삶아 우려냄. / * 덩그럭 불 :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 책력 : 달력

•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O, X) [06년 수능 16번 ①]

이 시의 창작 시기는 '일제 강점기'이며, 제목이기도 한 '인동'은 차로 달여 먹는 한약재라는 뜻과 함께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다.

㉔ 현실 도피

•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08년 수능 13번]

부정적 상황일 때, 그러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이니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김광균, '와사등' [08년 수능]

• (위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O, X) [08년 수능 13번 ①]

화자는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의 절망감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이나 의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려는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돈나’ 오려무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眞珠)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 - 못 개가 짖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침실로 가자, 침실로!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 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촉(觸)불을 보라.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窒息)이 되어, 알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리메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볼는지 - 가슴이 뛰누나.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네 손에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 이도 없으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마돈나’ 가엾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음은…….
내 몸에 피란 피 - 가슴의 샘이 말라 버린 듯 마음과 몸이 타려는도다.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가자. 꼬을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 내 침실이 부활(復活)의 동굴(洞窟)임을 네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없는 꿈, 사람이 안고 궁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 물결도 찾아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이상화, ‘나의 침실(寢室)로’ [지학(晷) II]

[보기]

이상화가 1923년 《백조(白潮)》지에 발표한 시로 낭만주의적 수법으로 관능미를 노래하고 있다. <나의 침실로>는 1920년대의 시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꿈의 세계, 식민지 현실에 대한 심리적 도피처로 삼았던 밀실과 죽음의 관념적 유토피아의 통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 (위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O, X) [08년 수능 13번 ①]

1920년대는 일제 강점과 3·1 운동의 실패로 인해 퇴폐적이고 현실도피적인 경향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위 시에서는 ‘침실’로 나타난 현실도피적 장소로 가고자 하는 화자의 갈망이 나타난다.

적용 문제

한 줄의 ㉠ 시는커녕
단 한 권의 ㉡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 많은 돈을 벌었고
㉣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굳굳이 건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김광규, '묘비명' 중 [교학(윤) I]

(1) ㉠~㉣의 소재를 '정신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보자.



(2) 위 시의 제재를 적어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자.



(3) 위 시의 주제를 적어 보자.



<정답>

(1) 정신적 가치 : ㉠, ㉡ / 세속적 가치 : ㉢, ㉣

(2) 묘비명 :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질없는 욕망과 현실에 타협한 문인의 타락한 정신을 의미함

(3)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향단(香壇)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㉓ 바다로

배를 내어 밀 듯이, /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㉕ 풀꽃 더미로부터,

자갈한 ㉖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밀 듯이, 향단아

㉗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㉘ 달갈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波濤)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 향단아

서정주, '추천사(鞦韆詞)-춘향의 말1' [07년 9평 / 천재(고) I]

(1) ㉔~㉗의 소재 중 가장 그 의미가 이질적인 소재를 골라 보자.



(2) ㉗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소재를 찾아 적고, 그 두 소재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3) 위 시의 주제를 적어 보자.



<경답>

(1) ㉗

(2) 하늘 : '바다'와 '하늘'은 모두 이상향이나 지향점 등을 의미함

(3)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갈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윤동주, '참회록' [비상(박)Ⅱ, 신사고Ⅰ, 지학(권)Ⅱ, 천재(김)Ⅱ]

(1) '거울'이라는 소재의 의미가 무엇일지 적어 보자.

▶

(2) 화자가 '내 얼굴'이라는 소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인지 작품 속에서 찾아보자.

▶

(3)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할 때, '즐거운 날'과 '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적어 보자.

▶

(4) 위 시의 주제를 적어 보자.

▶

<정답>

- (1) 자아 성찰의 매개체
- (2) '녹이 낀 구리 거울'속에 남아 있으며 '이다지도 욱될까'라고 서술하고 있음
- (3) 즐거운 날 : 광복 / 밤 : 일제강점기
- (4)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순수성의 회복 의지

기출로 확인하기

1. (가)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년 6평 38번]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玉人金釵)* 비겼으니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억하니
 아마도 아치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안민영, '매화사' [07년 6평 / 해냄Ⅱ]

* 옥인 금차 : 미인의 금비녀. / * 척촉 : 철쭉. / * 백설 양춘 : 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

- ① ‘백발옹’은 매화를 완상하는 주체이다.
- ②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 ③ ‘아치고절’은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 속성이다.
- ④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 ⑤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존재이다.

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년 9평 33번]

<p>(가)</p> <p>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p> <p>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p> <p>3 —포수는 한 덩이 낱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박남수, '새1'</p>	<p>(나)</p> <p>어머니는 그럭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럭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럭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럭을 앞에 두고 그럭, 그럭 중얼거려 보면 그럭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럭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럭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럭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일근, '어머니의 그럭'</p>
--	--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2 화자, 청자, 대상

개념

1. 화자(話者) : 시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2. 청자(聽者) :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3. 대상(對象) : 화자가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물, 사람, 관념 등.

마인드 맵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흔어놓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이성복, '서해' [11학년도 6평]

위 시의 화자는 '나(내)'로 직접 드러나 있으며, 그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당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대상은 '서해'이다.
즉 화자 '나'는 청자 '당신'에게 '서해'라는 대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① 화 자

㉠ 표면에 직접 드러난 화자 /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6년 6평 15번]
-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06년 수능 15번]
-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10년 6평 16번]
-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12년 9평 33번]
- [B]와 [C]의 증장은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13년 9평 38번]

시에서 화자는 반드시 존재한다. 다만 시의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은닉된 경우도 있다. 시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나'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대명사가 나타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찾는 것이다.

시적 화자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를 형상화하는 데 작용하는 인물을 두고, 서정적 주체, 서정적 자아, 시적 자아, 시적 주체 등의 여러 용어를 같이 사용해 왔다. 또한 이러한 개념들 사이에 큰 변별성은 없는 가운데, 작은 차별성을 부각시킨 정도에서 개념을 구분하였다. 이런 점을 반성하면서, 부분적인 변별성을 부각시켜서 구분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적 화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기능이나 역할 등의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시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하나의 시각으로 '시적 화자'를 통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바를 알아 내거나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직접적인 진술을 하는 화자의 목소리에서 감정의 진솔함을, 간접적인 화자의 목소리에서 객관화된 시인의 사상을 읽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시인이 나름의 시적 화자를 선택하는 의도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적 화자가 시의 내용이나 시적 표현에 작용하는 의미를 구명함으로써 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시에나 각기 다른 모습을 지닌 시적 화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시적 화자의 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시적 형상 창조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라는 개념은 시를 감상하는 데 작용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시적 화자는 구체적으로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시의 내용을 재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적 장치로, 시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일 따름이다.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윤여탁, 최미숙, 유명희, 태학사, 2004) p.117, 129

시적 화자

시인은 시의 화자에게 일정한 성격을 부여하고, 알맞은 표정과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를 위하여 시인이 시의 화자로 직접 나서서 말하기도 한다. 반면에, 어른인 시인이 소년이나 소녀가 되기도 하고, 남자인 시인이 여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시의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도 있다. 이러한 시에는 대체로 시의 소재가 객관적으로 다루어지게 마련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1-2』, 교육부, 1997, 37면

시적 화자(詩的 話者)

시 속에서 시를 읊으며 독자에게 말을 해 나가는 인물. …… 시 속에는 작가의 목소리만이 아닌 다른 목소리도 들어 있다. 그 목소리가 바로 시적 화자의 목소리인데, 이는 다양한 양태로 존재한다. ……

시적 화자와 시적 자아는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적 자아는 시에 표면적으로 나타나 구체적으로 발화를 하는 1인칭의 인물이다. 그러므로 시적 자아는 시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언제나 시 전체를 통어하며 시 속에 나타나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독자에게 말을 건넨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470-471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 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뽀뽀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최승호, '북어(北魚)' [06년 6평 / 교학(윤)II, 천재(정)I]

-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O, X) [06년 6평 15번 ④]

화자는 자신과 초라한 북어의 처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북어를 통해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도시민의 나약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한 삶에 대한 반성을 노래하고 있다.

노주인의 장벽(陽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06년 수능 / 천재(고) 1]

* 삼긴 :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 덩그럭 불 :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 책력 : 달력

-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O, X) [06년 수능 15번 ③]

인동차를 마시며 겨울을 이겨내는 노주인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고자 하는 화자의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가)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 '새1'

(나)

어머니는 그럭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럭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럭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럭을 앞에 두고
 그럭, 그럭 중얼거리려 보면
 그럭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럭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럭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럭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나야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려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정일근, '어머니의 그럭' [12년 9평]

-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O, X) [12년 9평 33번 ④]

1인칭 대명사의 유무를 통해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㉔

상황(처지, 정황)

-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나타낸다. [05년 수능 19번]
- ‘행인’, ‘주인집 늙은이’, ‘장꾼들’과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하다. [06년 6평 18번]
- 작품 내의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개입한다. [06년 6평 57번]
-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06년 수능 24번]
- (나)와는 달리 (가)는 화자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07년 6평 15번]
-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07년 9평 32번]
- 3연 :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07년 9평 33번]
- 4연 :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07년 9평 33번]
-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07년 수능 28번]
-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08년 6평 13번]
-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08년 6평 13번]
-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08년 수능 13번]
-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10년 9평 21번]
-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3년 6평 13번]

상황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처지나 정황으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08년 6평 / 미래엔 II, 교학(운) II, 천재(고) II, 해냄 II]

-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O, X) [08년 6평 13번 ②]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지만 미타찰에서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의지로 슬픔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있다.

(가)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이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겟방도 피하려네
 두엄더미 수북한 쇠전마당을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든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닦기도 하리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신경림, '고향길' [07년 6평]

(나)

눈을 가만 감으면 굵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썩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람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김상옥, '사향' [07년 6평]

- (나)와는 달리 (가)는 화자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O, X)
 [07년 6평 15번 ④]

(나)의 경우 회상을 통해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 다음은 역대 기출에 나타난 구체적인 ‘상황’ 들의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a 대화로 주고받는 상황

-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작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을 것이다.
[05년 6평 42번]

기본적으로 대화는 ‘화자(말하는 사람)’와 ‘청자(듣는 사람)’이 나타날 때 가능하다. 시에 따라 직접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기보다, 대화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김영랑, ‘독을 차고’ [05년 6평]

[보기]

영랑의 시심(詩心)은 아름다운 남도(南道)의 자연과 소박하고 따스한 인정 속에서 싹튼 것이다. 세속의 명리(名利)를 탐하여 몸을 더럽히기보다는 고향 집 뜰에 곱게 피는 모란을 어루만지면서 시심을 가꾸는 것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그에게는 훨씬 뜻깊은 길이었다.

-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작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을 것이다. (O, X) [05년 6평 42번 ④]

‘벗’은 허무한 세상에 독을 차서 무엇하느냐고 만류하지만, 화자는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 독을 차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b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

-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07년 6평 37번]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눈 앞의 펼쳐진 상황이 그러한 바람을 이룰 수 없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玉人金釵)* 비겼으니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억하니
 아마도 아치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과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안민영, ‘매화사’ [07년 6평 / 해냄Ⅱ]

* 옥인 금차 : 미인의 금비녀. / * 척촉 : 철쭉. / * 백설 양춘 : 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

-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O, X) [07년 6평 37번 ⑤]

지조 높은 선비의 모습을 매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지금(至今)거울을안가졌소만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 외로된사업(事業)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
또꽤답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쩍섭섭하오

이상, '거울' [창비Ⅱ, 천재(김)Ⅱ]

* 골몰 :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힘.

- 화자의 의지나 소망과 상반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O, X) [07년 6평 37번 ⑤ 변형]

거울을 통해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즉, 거울 밖의 '나'는 현실적 자아이고 거울 속의 '나'는 본질적 자아인데, 화자에게 '거울속의나'는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이거나, '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로 이 둘은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과 모순을 통해 참된 자아를 잃고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c **암울한 처지(절망적 상황)**

- 2연 :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07년 9평 33번]
- ㉠ :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13년 수능 35번]

주어진 상황이 부정적이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판단될 때 암울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어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어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녀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김지하, '새' [07년 9평]

-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2연의 경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한다. (O, X) [07년 9평 33번 ㉠ 변형]

1연에서의 화자의 암울한 상황은 2연을 통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08년 6평 16번]

‘황량’은 황폐하여 거칠고 쓸쓸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대리인인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폐하거나 쓸쓸할 때, ‘황량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08년 6평 / 비상(유) 1]

-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O, X) [08년 6평 16번 ④]

화자는 ‘무엇’을 잃어버렸지만 그 ‘무엇’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리고 화자의 앞의 길은 돌이 연달아 있고, 담은 굳게 닫혀 있으며, 풀 한 포기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은 험난하고 고달픈 화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상황

•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08년 수능 17번]

평안한 생활이 주어진 경우, 더 이상의 도전이나 의지가 나타나지 않을 때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수영, ‘사령(死靈)’ [08년 수능]

[보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오래 가지 못했다. 출근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O, X) [08년 수능 17번 ㉢]

화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고 있다.

㉠-f

부정적인 상황

-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11년 6평 39번]

‘부정적인 상황’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번번히 실패한다든지, 어떠한 고난으로 힘들다든지 등등의 개별적인 상황을 통틀어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식만정 에혈*질 번 하괘라.

작자 미상, 사설시조 [11년 6평 / 비상(유)Ⅱ, 해냄Ⅱ]

* 에혈 :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O, X) [11년 6평 39번 ④]

두꺼비, 백송골, 파리 등을 의인화하여 힘 있는 자에게는 비굴하면서도 힘 없는 자 위에 군림하는 수렁이나
아전들의 행태를 비꼬고 있다.

㉠-g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

-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12년 6평 19번]

어떠한 대상을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갈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들었다.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12년 6평]

* 수철리 :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O, X) [12년 6평 19번 ③]

화자는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아 동생을 추억하며, 삶과 죽음이라는 절대적 갈림길에서 서러움에 젖어 있다.

㉠-h 시련과 고난의 상황

•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12년 6평 22번]

‘시련과 고난의 상황’의 경우 앞서 제시된 ‘부정적 상황’과 유사하지만 그 상황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낮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김동명, ‘파초’ [12년 6평]

•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O, X) [12년 6평 22번 ㉠]

원산지인 ‘남국’을 떠나 추운 곳에서 가련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파초와 화자의 상황을 동일시하여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㉔ 태도(자세, 대응 방식)

-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07년 수능 28번]
-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08년 6평 13번]
-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9년 9평 32번]
-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13년 9평 28번]

화자의 태도란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과 시적 상황에 대해 갖는 대응 방식을 말한다. '자세'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뒤에 나올 '정서'와 큰 관련이 있다. 참고로 태도는 화자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작품에 따라 정서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낱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흔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떤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오세영, '자화상·2' [13년 9평]

* 형형한 :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O, X) [13년 9평 28번 ④]

위 시는 일반적인 시어의 속성과 달리 '까마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고고한 '까마귀'의 모습을 통해 굶어 죽더라도 '까치'와 같은 삶은 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 다음은 역대 기출에 나타난 구체적인 ‘상황’ 들의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a 조화적 태도

- (나), (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06년 6평 55번]
-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10년 9평 21번]

‘조화’란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화적 태도’란 어떠한 대상과 어울리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 예어 사창(紗窓)
여윈 잠을 살뜰이도 깨우는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 동방(無人洞房)의 내 뜻 알 이는 저뿐인가 하노라
작자 미상, 사설시조 [06년 6평 / 미래엔 I]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O, X) [06년 6평 55번 ③]

어느 가을 밤 임과 이별한 여인이 ‘귀뚜리(귀뚜라미)’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햇빛고 영하 13도 /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별받는 자세로 서서
아 별받은 몸으로, 별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의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입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 피는 나무이다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10년 9평 / 지학(권) I, 창비II, 천재(고) I]

-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O, X) [10년 9평 21번 ①]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강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청산(靑山)도 절로 절로 녹수(綠水)도 절로 절로
 산(山) 절로 수(水) 절로 산수간(山水間)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절로

송시열의 시조 [천재(김) II]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O, X) [06년 6평 55번 ③ 변형]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삶에 수용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㉞-b 예찬적 태도

-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07년 6평 37번]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09년 수능 28번]

시에서 노래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날 때, 그 대상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예찬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길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은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영킨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조오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커늘 /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에 벌였어라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송순, ‘면양정가’ [07년 6평 / 교학(조) I]

* 산람 :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경궁요대 :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 옥해 은산 : 눈 덮인 들판과 산.

-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O, X) [07년 6평 37번 ②]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움을 계절에 변화에 따라 노래하고 있다.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김광규, '나뭇잎 하나' [09년 수능]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O, X) [09년 수능 28번 ③]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 (가)의 ‘강물 소리’와 (나)의 ‘노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12년 수능 32번]
- ㉠ : ‘파랑성’과 ‘진훤’을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준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6번, B형 35번]

대상을 예찬하고자 한다거나,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거나, 만나고자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일련의 태도들을 ‘긍정적 태도’라 묶어 말할 수 있다.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쑥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덕덜그덕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12년 수능]

- ‘강물 소리’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O, X) [12년 수능 32번 ㉠]

화자는 고향에 다녀온 뒤 고향의 ‘강물 소리’를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애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우는 것이 빠꾸긴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갈고 깊은 소(沼)에 온갖 고기 뛰노누나
 <춘(春) 4>

연잎에 밥 싸 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달 들어라 달 들어라
 청약립(靑藥笠)은 써 있노라 녹사의(綠簑衣) 가져오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하(夏) 2>

수국(水國)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달 들어라 달 들어라
 만경징파(萬頃澄波)*에 실컷 용여(容與)하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인간(人間)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추(秋) 2>

물가에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씩씩하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머흔*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世上)을 가리운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파랑성(波浪聲)*을 염(厭)치* 마라 진훤(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14년 예비 시행 A형 36번, B형 35번 / 미래엔Ⅱ, 비상(유)Ⅰ, 비상(박)Ⅰ, 천재(정)Ⅰ, 해냄Ⅰ]

- * 내 :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 * 만경징파 :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 * 용여하자 :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 머흔 : 험하고 사나운.
- * 파랑성 : 물결 소리. / * 염치 : 싫어하지. / * 진훤 : 속세의 시끄러움

- ㉠ : '파랑성'과 '진훤'을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준다. (O, X)
 [14년 예비 시행 A형 36번, B형 35번]

'파랑성'은 자연의 소리이며 '진훤'은 속세의 소리이다. 화자는 속세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는 자연의 소리를 긍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수염을 드리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덩불을 이룬 년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낌 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영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 없나니.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을 알라 오직 목숨의 유연과 천지와의 화합이 있거니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나비가 심방(尋訪) 오고 풍덩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 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벌이 다시 나고…… 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

유치환, '채전(菜田)' [비상(박) 1]

-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O, X)

한여름 풍성하게 빛나는 채소밭의 모습을 통해 만물의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d 회의적 태도

-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2년 6평 20번]
- ㉠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13년 6평 15번]

‘회의적 태도’란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태도를 말한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 듯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시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한용운, ‘알 수 없어요’ [13년 6평 / 비상(박) I, 신사고 II, 창비 I, 천재(김) I]

[보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O, X) [13년 6평 15번 ㉢]

위 시는 여러 자연 현상을 통해 그러한 자연 현상을 만들어 낸 존재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로 마무리되며 절대자의 숨결로 느껴지고 있다.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學費封套)를 받아

대학(大學) 노트 끼고
㉠ 늙은 교수(教授)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握手)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지학(최)II, 해남II]

* 속살거리다 :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질구레하게

자꾸 이야기하다.

* 육첩방 : 일본식 돗자리인 다디미를 여섯 장 깐 방.

- ㉠ : '늙은'을 '낡은 지식을 가르치는'이라고 해석한다면, 무기력한 지식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군. (O, X)

식민지 지식인인 시의 화자는 조국을 빼앗은 나라에서 현실에만 안주하여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㉔-e 비판적 태도

- [A], [B] 모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06년 수능 27번]
-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07년 수능 51번]
-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11년 수능 13번]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그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화우(梨花雨) 흠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계량의 시조 [07년 수능 / 해냄 1]

-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O, X) [07년 수능 51번 ④]

봄에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연관시켜 표현하고 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둘러붙어 있다 / 불현 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전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신사고 II]

-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O, X)

겨울 저물녘의 광화문 네거리의 풍경을 통해 화려한 도시 문명으로 인하여 자연의 생명력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㉔-f 수용적 태도

-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나타낸다. [05년 수능 19번]
-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06년 수능 24번]

주어진 어떠한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수용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이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의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잎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곽재구, ‘은행나무’ [05년 수능]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나타낸다. (O, X)
[05년 수능 19번 ㉔]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의 주체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구’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부정적인 세력을 지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부정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져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려고
 어와 너여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괴암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
 나도 임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리니
 내 몸의 지은 죄 죄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설위 풀쳐 헤니 조물의 탓이로다
 그란 생각 마오 맏힌 일이 있어이다
 임을 뵈셔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뉘라서 뵈셨는고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06년 수능 / 교학(윤) I, 두산II, 비상(박)II, 지학(최) I, 창비II, 천재(김)II, 천재(정)II]

-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O, X) [06년 수능 24번 ②]

위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통해 임과 이별한 사연을 말하고 있다. 임과 이별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여인의 지극한 사랑은 비록 관직을 잃었지만 변함없는 충성을 임금에게 다짐하는 작가의 모습으로 해석된다.

㉠-g 관조적 태도

-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08년 9평 16번]
-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09년 수능 28번]

‘관조적 태도’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비추어 보거나, 행동력 없이 무관심하게 보거나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화자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상을 관찰하는 상황 설정이어야 한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갹(坑) 속 같은 마을. 골각,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B]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밝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박용래, ‘월훈(月暈)’ [08년 9평 / 천재(정)Ⅲ]

* 월훈 : 달무리.

- [B]에서는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O, X) [08년 9평 16번 ㉠]

[B]에서는 귀뚜라미의 울음을 통해 노인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박목월, '산도화(山桃花)' [천재(경) 1]

-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O, X) [08년 9평 16번 ㉓ 변형]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상화된 '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참고

< 기타 태도(자세)의 의미 정리 >

• 겸손한 태도

• ㉠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11년 수능 16번]

•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태도

• ㉡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11년 수능 16번]

• 구도적 자세 : 도(道)나 종교적 이치를 찾고자 하는 자세

•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10년 9평 21번]

• 낙관적 태도 :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

• [A], [B]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06년 수능 27번]
•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11년 수능 13번]

• 낙천적 태도 :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

•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2년 6평 20번]

• 내면 성찰적 태도

•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09년 6평 21번]
• 제 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11년 수능 14번]

• 냉소적 태도 :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태도

•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10년 수능 36번]

• 단정적 태도 :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태도

•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2년 6평 20번]

•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

•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12년 6평 20번]

• 대상과의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

•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12년 6평 20번]

• 독단적 태도 :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태도

•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2년 6평 20번]

•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태도

•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13년 9평 28번]

•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

•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12년 6평 20번]

• 비관적 태도 :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태도

•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2년 6평 20번]

• 세속의 이익을 좇지 않는 자세

•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08년 9평 20번]

• 실천적 태도

•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08년 수능 17번]

• 유화적 태도 : 상대를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태도

•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2년 6평 20번]

• 자연친화적 태도

• 시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09년 6평 20번]

• 자조적 태도 : 자기를 비웃는 듯한 태도

• ㉞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7년 9평 31번]

• 자족적 태도 : 스스로의 처지와 상황에 만족하는 태도

• [C]의 '낙사(樂事) | 무궁(無窮)'에는 자족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 이는 [E]에 나타나듯이 '늙는 줄'도 잊고 학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봐. [05년 수능 41번]

•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

•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12년 6평 20번]

•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

• 꿈과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06년 수능 24번]

• 현학적 태도 :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태도

• [B]의 '허다영재(許多英才)'는 [A]의 '허물이나 업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현학적이라고 비판할 것 같아. [05년 수능 41번]

㉞ 정서(심리, 감정, 내면, 마음, 심정, 감회)

- 마지막 연에서 복잡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5년 6평 39번]
-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05년 9평 21번]
-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이다. [06년 6평 18번]
- ‘공연히’, ‘아직도’, ‘혹여나’ 등 부사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6년 6평 18번]
- ‘일지춘심’은 ‘이화’나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06년 6평 56번]
- ‘다정’은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부단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06년 6평 56번]
- 소리로서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06년 6평 57번]
- 화자의 마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06년 6평 57번]
- 회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6년 9평 15번]
- 설화적 인물과 사건을 빌려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06년 9평 20번]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6년 수능 15번]
- (가)에는 고향에 정착할 수 없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07년 6평 15번]
- ㉠~㉢에 내포된 화자의 정서가 가장 가까운 것끼리 묶은 것은? [07년 6평 16번]
- 화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07년 6평 40번]
- ‘바람에 뿌린 소리’, ‘두어 소리’는 입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07년 수능 54번]
-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의 변화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12년 수능 33번]

정서란 화자가 어떤 상황과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심리 상태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서(情緒)

기분이나 심정,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주관적(主觀的)인 심리적(心理的) 반응을 말하는데, 감정(感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정이 감각(感覺)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심리 작용이라면, 정서는 그것이 한 단계 복잡화, 체계화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정서가 감정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또 정서가 감정의 연장선상에 놓인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 일상 생활에서의 심리적 반응은 감정이고, 문학 속에 나타난 심리적 반응은 정서라는 구분 역시 꼭 적절하지는 않다. ……

정서의 특질과 기능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정서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정서란 정신의 영역에 속하며 심리적 작용이다. 정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작용이다. ② 정서는 감정의 영역에 속하되, 질서화되고 유기적인 모습을 띤 감정이다. 감정이 감각이나 지각에 의해서 촉발되지만 본능적이고 일차적인 것에 반해서 정서는 그 일차적 단계를 넘어선 정체의 단계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정서는 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의 결합이다. 이는 두 번째 특징인 질서·유기성 문제와 관련된다. 일차적으로 형성된 감정이 표현이나 정체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른바 상상력(想像力)의 세계를 경과하게 된다. 정서에 의해서 상상력이 촉발된다고 보든, 상상력에 의해서 정서가 형성된다고 보든, 정서와 상상력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이때 정돈과 정제를 가하는 힘은 지적·정적 요소가 된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677-678

감정(感情)

어떤 대상(對象)을 대할 때 느끼는 쾌감(快感), 불쾌감(不快感)을 주로 하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온갖 주관적 반응을 말한다. …… 감정은 그 주관성과 상대적인 자립성에도 불구하고 지각, 사고 내용 등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감정이란 일정한 지각의 결과이고, 사고 내용과 결부된 반응이기 때문이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13-14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더니 수북한 쇠전마당을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닭기도 하리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신경림, '고향길' [07년 6평]

- 고향에 정착할 수 없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O, X) [07년 6평 15번 ①]

위 시의 '고향'의 이미지는 평안과 안식의 공간으로서 보편적 모습이 아닌 아픔을 수반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면 만첩(萬疊) 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이현보, '어부단가' [05년 6평 / 미래엔 II]

* 만경파 : 넓은 바다 물결.

* 홍진 :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제세현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

- 마지막 연에서 복잡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 X) [05년 6평 39번 ③]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어부의 삶을 살면서도 한시도 속세의 삶을 잊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걱정을 떨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 다음은 역대 기출에 나타난 구체적인 ‘상황’ 들의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a 기쁨

• [A] : 구두 밑바닥에 녹아드는 살얼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군. [12년 수능 34번]

‘기쁨’이란 정서는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노래하고자 하는 대상이 긍정적인일 때 나타날 수 있다.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A]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먼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과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12년 수능]

• [A] : 구두 밑바닥에 녹아드는 살얼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군. (O, X)
[12년 수능 34번 ㉠]

작품 전체의 내용을 고려할 때, [A]에서는 고향에 대한 애뜻함이 잘 나타나 있다.

㉔-b 그리움

-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있다. [05년 6평 38번]
-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다. [05년 수능 37번]
-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06년 수능 16번]
-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07년 수능 51번]
-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11년 6평 20번]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12년 수능 31번]
-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13년 9평 27번]
-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내세워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13년 수능 34번]

‘그리움’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과 분리된 상황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도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촉루(空山觸露)* 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 만겁(輪迴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엾은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조위, ‘만분가(萬憤歌)’ [07년 수능 / 미래엔 II]

- * 공산 촉루 :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 * 만장송 :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 * 침변 : 베갯머리. / * 월중 소영 :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O, X) [07년 수능 51번 ㉔]

위 시에서 대상은 ‘임’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와 이별한 ‘임’과의 관계는 유배의 처지에 있는 작가 자신과 임금의 관계로 치환하여 해석할 수 있다.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넘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흑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김춘수, '강우(降雨)' [11년 6평]

(나)

어두운 방안엔 /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11년 6평]

-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O, X) [11년 6평 20번 ④]

(가)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허전함과 슬픔을 그린 작품이고,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㉞-c 외로움

- ‘공산 축루’,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 [07년 수능 54번]
-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년 9평 14번]

‘외로움’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과 분리되어 있거나, 그와 무관하더라도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서이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도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축루(空山鑿鑿)* 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 만겁(輪迴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엾은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조위, ‘만분가(萬憤歌)’ [07년 수능 / 미래엔Ⅱ]

- * 공산 축루 :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 * 만장송 :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 * 침변 : 베갯머리. / * 월중 소영 :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 ‘공산 축루’,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 (O, X) [07년 수능 54번 ㉞]

‘공산 축루’는 사람 없는 산중에 버려진 해골을 의미하고, ‘외나무’는 혼자 서 있는 나무를 뜻한다.

-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06년 9평 15번]
-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06년 수능 24번]

‘안타까움’은 화자가 바라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 파악이 가능한 정서이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06년 9평]

-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O, X) [06년 9평 15번 ㉠]

위 시에서 화자는 ‘너’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가, ‘너’가 쉽게 오지 않자 ‘너’에게 가고 있다.

霜天月照夜河明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客子思歸別有情	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
厭坐長宵愁欲死	긴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忽聞隣女擣衣聲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聲來斷續因風至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夜久星低無暫止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自從別國不相聞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今在他鄉聽相似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06년 수능]

-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O, X) [06년 수능 24번 ④]

작가가 발해의 부사(副使)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참고

<기타 정서 정리>

• 긍정

• 4연 :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07년 9평 33번]

• 대상을 아끼는 마음

• 파초를 위해 '종'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군. [12년 6평 22번]

• 동정심

•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11년 수능 13번]

• 변치 않는 마음

•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입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07년 수능 54번]

• 슬픔

• © :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나약한 아버지의 슬픔이 나타나고 있다. [05년 6평 43번]

• 아쉬움

•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07년 6평 37번]
• (가)와 (다)는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13년 수능 46번]

• 연민

• [B] : 귀가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를 강조하여 구두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12년 수능 34번]

• 원망

•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06년 수능 24번]

• 이별의 정한

• 자연물에 빗대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06년 수능 24번]

•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

•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12년 9평 38번]

개 념+

1. 정서 심화 = 정서 고조 :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의 정도가 더 깊어지는 것.

-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06년 6평 55번]
-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06년 수능 15번]
- ‘다듬이 소리’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06년 수능 25번]
-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07년 9평 28번]
-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07년 수능 29번]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08년 6평 17번]
-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08년 수능 14번]
-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10년 수능 32번]
-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11년 6평 19번]
-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년 9평 14번]
-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12년 9평 31번]

2.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 : ‘기쁘다’, ‘슬프다’라는 감정 표현의 시어나 시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을 넣는다. [06년 수능 19번]

3. 정서 표출 / 감정을 절제한 표현 : 화자의 정서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 구분 가능.

- 감정 표현이 절제되었다. [06년 9평 19번]
-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07년 수능 52번]
- (가), (나)는 모두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08년 9평 21번]
-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10년 수능 36번]
-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11년 수능 27번]
-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13년 9평 27번]
- (나)와 (다)는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3년 9평 35번]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오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김소월, '나의 집' [08년 6평]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O, X) [08년 6평 17번 ③]

일정한 시어나 시구, 시행이 반복되면 정서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위 시에서는 '그대'로 표현된 대상에 대한 기다림의 정서가 나타난다.

霜天月照夜河明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客子思歸別有情	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
厭坐長宵愁欲死	긴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忽聞隣女擣衣聲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聲來斷續因風至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夜久星低無暫止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自從別國不相關	고국을 떠난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今在他鄉聽相似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06년 수능]

- '다듬이 소리'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O, X) [06년 수능 25번 ②]

'다듬이 소리'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06년 수능 / 신사고 1]

-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이 나타나 있다. (O, X) [06년 수능 19번 ① 변형]

'그대'에 대한 화자의 사랑의 감정이 시어를 통해 직접 제시되어 있다.

천심절벽(千尋絶壁) 섰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벼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13년 9평]

* 어조 생애 :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 * 백조 : 모든 새. / * 내곳 : 내가

- 감정을 절제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O, X) [13년 9평 35번 ⑤]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대부의 삶을 그리고 있다. 또한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에서 '어조'란 시적 화자의 말투를 말한다. 사람의 감정이나 대상에 대한 태도는 말투를 통해 나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의 감정과 태도는 어조를 통해 드러난다. 어조는 일반적으로 서술어의 어미와 전체 내용을 통해 결정된다. 다음은 출제된 어조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어조(語調)

시 작품에서 제재(題材)나 청자, 때로는 그 자신에 대한 화자의 태도(態度)를 가리키는데, 리처즈가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로 정의한 이후 관심을 끌게 되었다. ……

한 편의 시 작품에서 태도는 어조를 결정하고, 어조는 태도를 반영한다. 시는 화자의 태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언어를 특수화(特殊化)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정한 시 작품에서 어조의 정확한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해설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이다. ……

덴지거와 존슨은 시의 어조로 딱딱한 어조와 부드러운 어조, 거만한 어조와 겸손한 어조, 냉정한 어조와 감정적(感情的) 어조, 직선적(直線的) 어조와 반어적(反語的) 어조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상섭은 조롱조, 농담조, 고백조, 분개조, 심각한 것, 우회적인 것, 단도직입적인 것 등으로 어조를 나누었다.

시의 여러 요소가 어조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만큼 시에서 어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의 어조를 파악하는 것은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일은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본 사항이 된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503

㉠-a 친근한 어조

•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09년 6평 21번]

일반적으로 문어체(文語體)보다는 구어체(口語體)가 친근한 느낌을 주고, 구어체 중에서도 ‘~습니다’로 끝나는 격식체 보다는 ‘~어’, ‘~어요’와 같은 비격식체가 더 친근한 느낌을 준다.

<p>(가)</p> <p>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날이 넷날처럼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p> <p>평안도(平安道) 어니 산(山)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p> <p>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p> <p>산(山)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백석, ‘여승(女僧)’ [09년 6평]</p>	<p>(나)</p> <p>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동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흠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후략)</p> <p style="text-align: right;">나희덕, ‘못 위의 잠’ [09년 6평]</p>
--	---

•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O, X) [09년 6평 21번 ④]

(가)의 경우 문어체를 사용하고 있고, (나)는 구어체 중 ‘하십시오체’라는 격식체와 ‘해요체’라는 비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다.

㉔-b 영탄적 어조

-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05년 수능 39번]
-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10년 6평 14번]
-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10년 9평 23번]
-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12년 9평 31번]

영탄적 어조는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는 어조를 말하는 것으로, ‘아아’ 등과 같은 감탄사와 ‘~구나’와 같은 감탄 어미를 통해 구현된다.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라.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정지용, ‘발열(發熱)’ [10년 6평 / 지학(최) II]

- * 박나비 :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 주사(朱砂) :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 위 시를 영상시로 제작한다면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해야 한다. (O, X)
[10년 6평 14번 변형]

열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감탄사의 반복과 감탄형 어미를 통해 나타난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약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12년 9평]

-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O, X) [12년 9평 31번 ④]

평서형 종결 어미를 통해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c 성찰적 어조(내면이 잘 드러나는 어조)

- (나)는 (가)에 비해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09년 6평 47번]
-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12년 수능 33번]

화자가 외부 상황에 대하여 노래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경우 성찰적 어조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가) 鶯子初來時
 喃喃語不休
 語意雖未明
 似訴無家愁
 榆槐老多穴
 何不此淹留
 燕子復喃喃
 似與人語酬
 榆穴鸛來啄
 槐穴蛇來搜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왜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왜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정약용, '고시(古詩)' [09년 6평 / 신사고 II]

(나)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
 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냐
 가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영킨 목은 밭도 쉽사리 갈련만은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랴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끈 지도 오래려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샤
 훌륭한 군자들이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박인로, '누항사'

[09년 6평 / 교학(윤) II, 지학(최) II, 해냄 II]

* 세정 : 세상 물정.

- (나)는 (가)에 비해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O, X) [09년 6평 47번 ㉠]

(가)에서는 제비의 하소연하는 듯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나)에서는 자신의 힘겨운 삶에서 느끼는 내면 심리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윤동주, '참회록(懺悔錄)' [비상(박) II, 신사고 I, 지학(권) II, 천재(김) II]

-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O, X) [12년 수능 33번 ③]

구리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d 독백적 어조

- (가), (나)는 화자의 독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06년 6평 55번]
-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11년 6평 19번]

‘독백’이란 자기의 속마음을 청자 없이 말하는 일종의 ‘혼잣말’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뺨 두 뺨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김춘수, ‘강우(降雨)’ [11년 6평]

-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O, X) [11년 6평 20번 ①]

아내가 죽고 난 뒤, 아내가 없는 집에서 느끼는 허전함과 슬픈 마음을 혼잣말로 표현하고 있다.

㉠-e 단정적 어조(단호한 어조, 담담한 어조)

- (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단정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06년 6평 55번]
-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07년 9평 28번]
-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07년 수능 52번]
-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08년 9평 13번]
- (나)와 (다)는 단정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10년 6평 31번]
-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0년 수능 32번]

‘단정적 어조’는 딱 잘라서 말하는 어조를 말한다. 보통 단정적 어조, 단호한 어조, 담담한 어조 등은 ‘~다’와 같은 딱딱한 문어체 평서형 종결어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나) 쇼항노 대항노 눈 아래 구버보고,
 경양스 진혈되 고터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 신면목이 여기야 다 뵈느다.
 어와 조화옹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갓논 듯 백옥(白玉)을 못갓논 듯,
 동명(東溟)을 박춘논 듯 북극(北極)을 괴왓논 듯.
 늣홀시고 망고되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 겁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느다.
 어와 너여이고 너 닻트니 쫓 잇느가.
 기심되 고터 올라 동향성 바라보며,
 만 이천 봉을 넉넉히 혀여흐니,
 봉마다 뵈쳐 잇고 곳마다 서린 괴운,
 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뽉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문돌고쟈.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텃디(天地) 삼기실 제 즈연이 되연마논,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홀샤.
 비로봉 상상두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 태산이 어느야 늣뵈든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논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텃하 엇씨호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호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호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정철, ‘관동별곡’ [10년 6평 / 천재(정)Ⅱ]

(다) 금강 일만 이천 봉이 눈 아니면 옥이로다
 혈성루 올라가니 천상인(天上人) 되었어라
 아마도 서부진 화부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안민영의 시조 [10년 6평]

* 서부진 화부득 : 글로 다 써 낼 수 없고 그림으로 다 그려 낼 수 없음.

- (나)와 (다)는 단정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O, X)
 [10년 6평 31번 ④]

(나)에서는 의문형 어조가 자주 나타난다. (다)에서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단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05년 6평 38번]

화자가 부정적이라고 인식한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날 때 비판적 어조 역시 나타날 수 있다.

지상(地上)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어나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박목월, '가정(家庭)' [05년 6평]

-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O, X) [05년 6평 38번 ㉠]

생활인으로서의 시인의 힘겨운 삶과 아버지로서의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기타 어조 정리>

-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 : 가볍고 활기가 넘치는 어조**

•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06년 수능 15번]

- **냉소적 어조 :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어조**

•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06년 수능 19번]

- **명령적 어조 : 명령을 하는 듯한 어조**

•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13년 수능 32번]

- **반어적 어조 :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게 말을 하는 어조**

•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40번]

-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 : 매우 찬찬하고, 따뜻한 어조**

•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09년 수능 28번]

- **설득적 어조 : 상대가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깨우쳐 말하는 어조**

• 서글프면서도 강렬한 설득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06년 9평 15번]

- **유장한 어조 : 급하지 않고 느릿한 어조**

•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9년 9평 28번]

- **완곡한 어조 :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어조**

• 부탁하는 내용을 완곡한 어조로 쓸 것. [쓰 : 05년 9평 11번]

- **정중한 어조 :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한 어조**

• (나)는 정중한 어조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13년 9평 35번]

개념+

1. 어조 변화 : 종결 어미의 변화나 화자의 감정 변화로 파악할 수 있음.

-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통해 어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06년 9평 20번]
-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07년 수능 29번]
-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12년 6평 21번]
- (나)는 (가)와 달리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12년 수능 33번]
-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13년 6평 13번]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 '교목(喬木)' [07년 수능 / 해냄Ⅲ]

-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O, X) [07년 수능 29번 ②]

'교목'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한결같은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沈黙)' [09년 수능 / 두산Ⅱ, 미래엔Ⅰ, 해냄Ⅱ]

-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O, X) [07년 수능 29번 ㉔]

'그러나'를 기준으로 화자의 슬픔과 절망은 재회의 확신과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

② 청 자

- 화자의 마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06년 6평 57번]
-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화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13년 6평 18번]

청자는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다. ‘너, 순이’ 같이 직접적으로 청자가 제시되어 시에서 청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시적 청자(詩的 聽者)
 시적 화자의 말을 들어 주는, 또는 들으리라고 가정되는 인물. 시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김준오(1991)의 연구에서는 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적(現象的) 청자와 시의 이면에 숨어 있는 함축적(含蓄的) 청자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469

동풍이 건 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스랭이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좇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떨다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걸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뜰스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열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낱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쳐(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썰꼬.

정철, ‘사미인곡’ [13년 6평 / 미래엔Ⅱ, 비상(유)Ⅱ, 신사고Ⅱ, 지학(권)Ⅱ]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보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청광’을 보내고자 하는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 할 수 있다. (O, X) [13년 6평 18번 ③]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 한낮같이 만드소서'는 대화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인 청자는 작품 속에서는 '임'으로 나타나는데, [보기]를 참고했을 때는 그 '임'은 곧 '임금'이 된다.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땃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 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 백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이용악, '오랑캐꽃' [비상(유) 1]

- * 오랑캐꽃 : '제비꽃'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 도래샘 : 빙 돌아서 흐르는 샘물.
- * 털메투리 : 털로 만든 미투리. 미투리는 삼 겹질로 만든 짚신처럼 생긴 신발

- 위 시의 청자는 '너' 곧 '오랑캐꽃'을 말한다. (O, X)

실제 오랑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억울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오랑캐꽃에게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개념+

1. 말을 건네는 방식 = 대화체 : 청자가 나타나거나, 청자가 실재하지 않더라도 상대 높임이나 명령형, 청유형 등의 문장이 나타날 때,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라고 할 수 있음.

- (나)는 대화를 인용하고 있고,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05년 6평 41번]
- 대화체를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06년 9평 20번]
-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08년 수능 14번]
-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09년 6평 20번]
-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09년 9평 28번]
- [B]의 중장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13년 9평 38번]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서경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09년 9평]

-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O, X) [09년 9평 28번 ②]

위 시의 청자인'너(꽃)'는 실제로 사람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의인화된 청자'라고 말할 수 있다.

천심절벽(千尋絶壁) 섯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13년 9평]

* 어조 생애 :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 백조 : 모든 새. / * 내곳 : 내가.

- 밑줄친 부분의 경우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O, X) [13년 9평 38번 ② 변형]

해당 부분의 경우 '백구'가 시적 대상이 된다.

③ 대 상

- (다)는 (나)에 비해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05년 6평 41번]
- ‘노오란 우산깃’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05년 수능 19번]
- ‘다정’은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부단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06년 6평 56번]
- [A], [B]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06년 수능 27번]
-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07년 9평 28번]
-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09년 수능 30번]
-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10년 6평 13번]
- (가)와 (다)는 물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10년 6평 31번]
- ㉠~㉢ 중, 표현하는 **대상**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10년 6평 32번]
- ‘만첩’은 ㉡와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10년 9평 26번]
- ㉡와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10년 9평 26번]
-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가)의 ‘두터비’, ‘파리’, ‘백송골’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11년 6평 41번]
-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11년 수능 13번]
-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12년 6평 19번]
-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12년 9평 31번]
- (나)의 ‘백구’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13년 9평 36번]

시에서 ‘대상’은 화자가 청자에게 또는 혼자서 말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관념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상’은 시의 제재 또는 그에 버금가는 중요한 소재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시적 대상(詩的 對象)

사물이란 그 자체로 미적인 것이 아니라 미적 태도를 취하는 주관에 대해서만 미적 대상으로 성립한다. …… 그런 의미에서 시적 대상은 시인의 미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인의 미의식이 발동된다면 삼라만상이 다 시적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작용 계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대상 계기가 조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임의의 대상이 아닌 특정의 성질을 가진 대상만이 미의식과의 상관관계에서 미적 대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도 명백하다.

시적 대상은 흔히 시의 소재나 내용과 혼동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인이 작품을 제작할 경우 원료가 되는 모든 자연적·외적 소여, 즉 미적 가치 원리에 의해 통일적으로 형성된 시 작품이 아니라 아직 시적 형성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재료는 소재가 되며, 내용은 그 소재를 갖고 시적 형식을 거쳐 비로소 성립되는, 표현된 대상적 세계, 즉 표현 내용 또는 대상적 내용을 말한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468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져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려고
 여와 녀여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 /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괴암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 / 나도 임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리니 / 내 몸의 지은 죄 죄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 설워 풀쳐 헤니 조물의 탓이로다
 그란 생각 마오 맏힌 일이 있어이다
 임의 뉘셔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뒤러셔 뉘셨는고.
 정철, '속미인곡' [06년 수능 / 교학(윤) I, 두산 II, 비상(박) II, 지학(최) I, 창비 II, 천재(김) II, 천재(정) II]

- 밑줄 친 부분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O, X)
 [06년 수능 27번 ① 변형]

밑줄 친 부분에서의 시적 대상은 '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자는 임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쓴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아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12년 6평 / 두산 III]

* 망령된 :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추성 진호루 :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 므음 호리라 : 무엇을 하려고.

-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O, X) [12년 6평 19번 ③]

화자는 북방에서 유배중이기 때문에 '어버이'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개념+

1. 거리감

- 속세와의 거리감을 수(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05년 6평 39번]
- 자연과 거리를 둬으로써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 [05년 9평 20번]
-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 준다. [05년 9평 23번]
-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일상적 삶을 반성하고 있다. [06년 6평 15번]
-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06년 수능 19번]
- 1연 :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07년 9평 33번]
- 화자는 '옥당'이라는 공간과 거리를 둬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군. [08년 9평 22번]
-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09년 6평 20번]
-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09년 6평 49번]
- 1~3연에서 '골짜기' → '길' → '대추나무' → '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09년 수능 32번]
-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10년 6평 16번]
-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11년 6평 19번]
- ㉡ : 세속에 '무심'한 '백구'를 동경하여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 준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6번, B형 35번]

시에서의 거리감을 일반적으로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리감은 다시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거리감'이란 화자와 대상 간의 실제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거리감'이란 화자가 대상에 대하여 감정을 드러내는지 단순히 관찰만 하는지에 따라 그 거리의 정도가 조절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에서의 거리감은 '심리적 거리감'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에 대해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관조'할 때 거리감이 멀게 나타난다. 또한 대상에 대해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거리감이 나타난다'는 표현은 그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것을 의미한다.

거리(距離)

예술 창조나 감상에 원용되는 비평 개념으로 심미적 거리(審美的 距離, aesthetic distance) 혹은 심리적 거리(心理的 距離, psychical distance)를 의미한다. 심미적 거리는 공간적 개념이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심리학적 개념이다. 즉, 한 개인이 대상을 관조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대상에 대해 허심탄회한 태도로 관점을 유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심미적 거리라고 한다. ……

시의 경우, 거리는 시인 혹은 화자가 제재로 삼은 대상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제재에 대해 심리적 거리가 짧을 경우 희로애락의 감정이 문면(文面)에 노출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어 국토를 소재로 시를 쓸 경우 시인의 조국애나 국토애가 대상에 착색되면 예찬과 미화로 일관된 시가 나오게 된다. 적절한 거리 조절을 거치게 되면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물 이미지가 중심을 이룬 시는 대상과의 거리가 멀게 유지된 것이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22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김광규, '나뭇잎 하나' [09년 수능]

- 1~3연에서 '골짜기' → '길' → '대추나무' → '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O, X) [09년 수능 32번 ㉔]

대상이 '골짜기, 길, 대추나무, 나뭇잎 하나'로 바뀌면서 대상과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데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D]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김영랑, '거문고' [10년 6평]

* 기린 :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일까.

[E]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 백색의 계엄령.

최승호, '대설주의보' [10년 6평 / 교학(조) I]

-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O, X)
[10년 6평 16번 ④]

[D]에서는 '기린(거문고)'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난 반면, [E]에서는 '눈보라'라는 대상에 대한 관찰과 '군단', '계엄령'으로 비유된 묘사가 나타난다.

적용 문제

남문 밖 뺱덕어미 천성(天性)이 저러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 데 없이 자라나서
 여기저기 무릎맞춤 싸움질로 세월이며
 남의 말 말전주*와 들면서 음식 공론
 조상(祖上)은 부지(不知)하고 불공(佛供)하기 위업할* 제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衣服)가지 다 내 주고
 남편 모양 불작시면 삽살개 뒤다리요
 자식 거동 불작시면 털 벗은 술개미라
 옛장사야 떡장사야 아이 핑계 다 부르고
 물레 앞에 선하품과 씨아 앞에 기지개라
 이 집 저 집 이간질과 음담패설 일삼는다
 모함(謀陷) 잡고 똥 먹이기 세간은 줄어 가고 걱정은 늘어 간다
 치마는 절러 가고 허리통이 길어 간다
 총 없는 현 짚신에 어린 자식 들쳐 업고
 혼인 장사(葬事) 집집마다 음식 추심(推尋)* 일을 삼고
 아이 싸움 어른 씌에 남의 죄에 매 맞히기
 까닭 없이 성을 내고 의뿐 자식 두다리며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홀아비라
 딸자식을 다려오니 남의 집은 결판이라
 두 손뼉을 두다리며 방성대곡 괴이하다
 무슨 꼴에 생트집에 머리 싸고 드러눕기
 간부(姦夫)달고 달아나기 관비정속(官婢定屬)* 몇 번인가
 무식한 창생(蒼生)들아, 저 거동을 자세 보고
 그른 일을 알았거든 고칠 개(改) 자 힘을 쓰소
 옳은 말을 들었거든 행하기를 위업하소

작자 미상, '용부가' [미래엔 1]

* 말전주 : 이간질. / * 위업할 : 일삼을

* 추심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 * 관비정속 : 죄인을 관가의 종으로 만드는 형벌

(1) 위 시에서 화자를 찾아 써 보자.

▶

(2) 위 시의 대상을 찾아 쓰고,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정서는 어떠한지 적어 보자.

▶

(3) 위 시의 청자를 찾아 적어 보고,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적어 보자.

▶

<정답>

(1)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음

(2) 뺱덕어미 : 비판적

(3) (무식한) 창생 : 뺱덕어미의 태도를 통해 잘못된 점을 깨달아 고치고, 옳은 일을 하라.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혀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위를 떠나자
몇십 년 동안 가진 것
몇십 년 동안 누린 것
몇십 년 동안 쌓은 것
행복이라던가
뫼이라던가
그런 것 다 넘마로 버리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이 소리친다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과녁이 달려온다
이윽고 과녁이 피 뿜으며 쓰러질 때

단 한 번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돌아오지 말자

오 화살 조국의 화살이여 전사여 영령이여

고은, '화살' [미래엔Ⅱ]

(1) 위 시에서 화자를 찾아 써 보고, 화자의 어조를 적어 보자.

▶

(2) 위 시에서 '말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적어 보자.

▶

<정답>

(1) 화자 : 우리 / 화자의 어조 : 청유적 어조와 영탄적 어조가 나타남

(2) 청유형 어미의 사용이 나타남('청유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함께 할 것을 권하는 형태임)

하이얀 모색(暮色) 속에 피어 있는
산협촌(山峽村)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아란 역등(驛燈)을 달은 마차(馬車)가 한 대 잠기어 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電信柱) 위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갈대밭에 묻힌 돌다리 아래선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안개 자욱한 화원지(花園地)의 벤치 위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었다.

외인묘지(外人墓地)의 어두운 수풀 뒤엔
밤새도록 가느단 별빛이 내리고,

공백(空白)한 하늘에 걸려 있는 촌락(村落)의 시계(時計)가
여윈 손길을 저어 열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古塔)같이 언덕 위에 솟아 있는
퇴색한 성교당(聖敎堂)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김광균, '외인촌' [지학(최) 1]

(1) 위 시에서 나타난 화자의 어조를 적어 보자.

▶

(2) 위 시에서 나타난 시적 대상을 찾아 보자.

▶

(3) 위 시에서 나타난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감에 대하여 적어 보자.

▶

<정답>

(1) 관조적이고 담담한 어조가 나타남

(2) 외인촌

(3) 화자는 대상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관조적 태도가 나타남)

기출로 확인하기

1. ㉔와 ㉕에 함축되어 있는 화자의 심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06년 6평 58번]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 예어 사창(紗窓)
 여원 잠을 ㉔ 살뜰히도 깨우는고야
 ㉕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 동방(無人洞房)의 내 뜻 알 이는 저 뿐인가 하노라

작자 미상, 사설시조 [06년 6평 / 미래엔 1]

- ① ㉔에는 '귀뚜리'를 찬미하는 심정이, ㉕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㉔에는 '귀뚜리'를 연민하는 심정이, ㉕에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③ ㉔에는 '귀뚜리'를 야속해 하는 심정이, ㉕에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④ ㉔에는 '귀뚜리'를 불신하는 심정이, ㉕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㉔에는 '귀뚜리'를 동경하는 심정이, ㉕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내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2.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년 6평 20번]

<p>(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p> <p>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낮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p> <p>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p> <p>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p> <p>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p> <p style="text-align: right;">김동명, '파초'</p> <p>* 파초 :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p>	<p>(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 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원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찾 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 —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원 모습 아올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연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 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 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p> <p style="text-align: right;">김광균, '수철리*'</p> <p>* 수철리 :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p>
--	--

- ①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③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개념

1. 심상(心象) : 이미지. 시를 읽을 때 마음 속에 떠오르는 빛깔,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의 감각적인 느낌
2. 형상화(形象化) : 추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마인드 맵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떼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오장환, '고향 앞에서' [06년 6평]

위 시의 1연의 1행은 냄새를 통한 감각적 이미지인 후각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2~3행은 청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연의 3행의 경우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마지막 연의 경우에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향'이라는 추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형상화'라고 한다.

① 심상(이미지)

- (나)와 (다) 모두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다. [05년 6평 41번]
-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06년 6평 15번]
-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08년 6평 14번]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09년 수능 28번]
- (가)와 (나)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10년 6평 31번]
-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10년 수능 32번]
-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11년 6평 19번]
- (나)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11년 수능 27번]
-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12년 6평 21번]
-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2년 수능 33번]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5번, B형 34번]
-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3년 수능 34번]

심상은 일반적으로 ‘감각적 심상’을 말하는데, 감각적 심상은 인간의 오감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한 심상과 공감각적 심상을 말한다.

이 중에서 역대에 걸쳐 기출된 것은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만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심상(이미지)

가을 알밤을 생각해 보자, 고슴도치와 같은 밤송이의 적당히 벌어진 틈으로 윤이 나는 갈색의 토실토실한 알밤이 머리 속에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알밤을 잘 드는 칼로 깨끗이 껍질을 벗긴 다음에 입에 넣고 씹는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몇 가지 감각적인 반응들이 나타날 것이다. 먼저 입에 군침이 돌 것이며, 하얀 밤알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또 싱싱한 알밤이 어금니에 씹힐 때의 아삭하는 소리도 연상된다. 이처럼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도 언어에 의해 마음 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심상(心象) 또는 이미지(image)라고 한다. ……

시어로 형상화된 여러 형태의 심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 감각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인은 심상을 통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거나 어떤 정서나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다. 또한 심상은 시적 상황을 구성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적 쾌감을 주는 역할도 한다.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윤여탁, 최미숙, 유영희, 태학사, 2004) p.89, 94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오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A]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김소월, '나의 집' [08년 6평]

-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O, X) [08년 6월 14번 ①]

[A]에서 아침의 시간은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가,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끝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12년 수능]

* 영 : 고개.

-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X)
[12년 수능 33번 ①]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 윤선도 :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시를 보면 푸른색, 흰색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05년 6평 40번]

-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05년 9평 21번]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6년 수능 15번]
-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07년 6평 40번]
-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09년 9평 30번]
- [C]의 초장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13년 9평 38번]

시각적 심상은 '푸르다, 높다'와 같이 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를 말한다.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랴.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면 만첩(萬疊) 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이현보, '어부단가' [05년 6평 / 미래엔 II]

- * 만경파 : 넓은 바다 물결. / * 홍진 :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제세현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

- 푸른색, 흰색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O, X) [05년 6월 40번 ㉠ 변형]

'청산'에서 푸른색의 이미지가, '월백'에서 흰색의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06년 수능 / 신사고 1]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 X) [06년 수능 15번 ②]

과거와 단절된 화자의 상황을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는 돌의 이미지를 통해, 이러한 상처를 깨어진 금을 통해, 불안한 화자의 내면을 떠다니는 눈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개념+

1. 색채어 : 빛깔을 표현하는 말.

-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07년 수능 29번]
-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8년 6평 17번]
-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09년 9평 28번]
-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13년 6평 13번]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신석정, '들길에 서서' [07년 수능]

-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O, X) [07년 수능 29번 ③]

암담한 현실 가운데도 밝고 희망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푸른'이라는 색채어가 반복되고 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뺨뺨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뺨뺨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뺨뺨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장석남, '배를 매며' [13년 6평]

-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O, X) [13년 6평 13번 ㉓]

갑자기 다가온 사랑의 시작과 그 사랑이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07년 6평 40번]
- (가)는 (나)에 비해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08년 9평 21번]
-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09년 9평 30번]
-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10년 9평 23번]
- 1연의 2행~3행은 '산'과 '밭'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11년 9평 15번]
- 2연과 3연은 '산'과 '밭'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1년 9평 15번]
- [C]의 초장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13년 9평 38번]

청각적 심상은 '웃음 소리, 노래 소리'와 같이 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를 말한다.

(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花杜鵑)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펴 놓은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裕餘)할사.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마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나)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삐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어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설장수, '어옹(漁翁)' [08년 9평]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옥당 : 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청의 별칭.

[08년 9평 / 미래엔Ⅱ, 신사고Ⅱ, 지학(권)Ⅰ, 해냄Ⅱ]

- (가)는 (나)에 비해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O, X) [08년 9평 21번 ㉞]

(가)에서는 화자가 '봉두에 올라 멀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며, (나)에서는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 풍경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와 '노랫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도 함께 나타난다.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백석, '적막강산' [11년 9평]

* 벌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 덜거기 : 늪은 장기.

- 1연의 2~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O, X) [11년 9월 15번 ②]
-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O, X) [11년 9월 15번 ③]

화자가 적막강산에서 느끼는 삶의 고독감이 나타나 있다. 1연의 '산에 오면 산 소리/벌로 오면 벌 소리'는 2연과 3연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㉔ 후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은 ‘향긋하다, 비리다’와 같이 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를 말한다.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솔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등 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뱀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뱀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06년 수능]

- 모든 연에서 후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O, X)

청산의 생명력과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시각적, 각적, 후각적 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각적 심상은 ‘짜다, 쓰다’와 같이 입(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를 말한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꿩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뉘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정지용, ‘고향’ [천재(정) I]

-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와 함께 미각적 이미지도 함께 나타난다. (O, X)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변해 버린 고향의 모습을 통해 받는 상실감을 다양한 심상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 촉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은 ‘따뜻하다, 부드럽다’와 같이 피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를 말한다.

<p>어두운 방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p>	<p>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 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p>
--	--

김종길, '성탄제' [11년 6평]

-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다. (O, X)

아픈 어린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눈 속에서 약을 구해온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화자의 이마에 느껴지게 되고, 화자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

㉞ 공감각적 심상

-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 [06년 6평 16번]
-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07년 수능 29번]
-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11년 수능 15번]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할 것 [쓰 : 09년 9평 9월]

공감각적 심상은 한 가지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전이된 이미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푸른 종소리’는 ‘종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푸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된 것이고, ‘따뜻한 향기’는 ‘향기’라는 후각적 이미지가 ‘따뜻한’이라는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된 것이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걸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06년 6평 / 창비Ⅱ]

-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 (O, X)
[06년 6평 16번 <보기>

‘청무우밭’은 생명성을 지닌 공간이고, ‘바다’는 무생명을 의미하는 공간임에도 색채의 유사성으로 인해 ‘흰나비’는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오해하게 된다.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겹쳐지면서 ‘바다(물결)’에 절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공감각적 표현(시각의 촉각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A]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골짜하게 짚어
댄다

이 개 짚으니 저 개도 짚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짚어댄다
이런 개 짚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뚝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짚는 소리 뚝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뚝
거린다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11년 수능 / 창비Ⅱ, 천재(정)Ⅱ]

[B]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
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김명인, '그 나무' [11년 수능]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
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O, X) [11년 수능 15번 ③]

[A]에서는 시각적, 청각적 심상이 함께 나타나고, [B]에서는 시각적 심상만이 나타난다.

개념+

1. 상승 이미지 / 하강 이미지 : 상승 이미지는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이고 하강 이미지는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임.

- (가)는 상승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5년 9평 21번]
- ㉔는 ㉓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08년 수능 15번]
-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10년 수능 33번]
-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10년 수능 33번]
-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13년 9평 29번]

예를 들어, '해가 높이 뜬다'는 상승 이미지가 되고, '해가 서산 너머로 진다'는 하강 이미지가 된다.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냇을 살게 하자.

괴로움도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은 떠오른다.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냇을 살게 하자.

조지훈, '마음의 태양' [05년 9평]

-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 X) [05년 9평 21번 ①]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푸른 하늘'로 나타난 이상향을 추구하는 정신이 위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낱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떤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오세영, '자화상·2' [13년 9평]

* 형형한 :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 ㉠은 하강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다. (O, X) [13년 9평 29번 ④ 변형]

위 시에서 '눈'은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을'을 하게 하는 것으로, 본질을 가리고 꾸미는 것을 가리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참고

<기타 이미지 정리>

• 계절적 이미지

•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7년 수능 52번]

• 밝고 환한 이미지

• '이화', '월백', '은한'은 서로 어울려 밝고 환한 이미지를 강화한다. [06년 6평 56번]

• 역동적 이미지

•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11년 9평 13번]

•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13년 9평 29번]

• 수직과 수평 이미지

• [B]의 초장은 수직과 수평 이미지를 통해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13년 9평 36번]

•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

•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10년 9평 26번]

②

형상화

- (나)와 (다)는 각각 ‘독’과 ‘신발’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5년 6평 41번]
-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05년 9평 21번]
- 유이민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털보네 가족의 삶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여. [05년 수능 17번]
- 함경도에서의 공간 체험이 시에 방언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05년 수능 17번]
- ㉠ : 화자의 한가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07년 6평 40번]
- ‘낮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07년 수능 30번]
- ‘원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07년 수능 32번]
-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07년 수능 32번]
- ㉡ : ‘한’과 ‘눈물’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여 **형상화**했군. [07년 수능 55번]
-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08년 6평 14번]
-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8년 9평 13번]
- 화자는 자신이 긍정하는 삶을 ‘도롱이’ 입고 ‘삿갓’ 쓴 어부로 **표상**하고 있군. [08년 9평 22번]
-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8년 수능 15번]
-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09년 6평 23번]
-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5번, B형 34번]

‘형상화’란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투리를 쓰는 얼굴이 검은 농부’는 ‘순박한 농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㉔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 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날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김광균, '와사등' [08년 수능]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荻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㉕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고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08년 수능]

* 계교 : 서로 견주어 살펴봄. / * 부급동남 :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 ㉔, ㉕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O, X) [08년 수능 15번 ㉕]

날개를 접는 것이나 물이 흐르는 것은 모두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뿔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 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09년 6평]

-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O, X) [09년 6평 23번 ③]

화자는 한강교를 지나면서 여린 물살을 품 안에 안고 흘러가는 한강의 물길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얼어붙은 잔등'과 '얼음'은 흑한이라는 시련을 막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형상화한 것이다.

적용 문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깃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향수(鄉愁)' [천재(김) I, 천재(정) I]

* 지줄대다 : 거침없으면서도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소리를 내다.

* 해설피 : ① 소리가 느릿하고 길며 약간 슬픈 느낌이 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 ② 해가 기울 무렵, 해질 녘.

* 함추름 : '함추름'의 사투리,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

(1) 위 시에 나타난 심상을 모두 적어 보자.

▶

(2) ㉠을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적어 보자.

▶

<정답>

(1)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2)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일 뿐,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바람. 앉았거니 하여 꼬치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山)새 걸음걸이.	여울 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멎은 듯 새삼 듣는 빗날 붉은 앞 앞 소란히 밝고 간다.
---	--

정지용, '비' [미래엔 I, 신사고 II]

- (1) 위 시에 나타난 심상을 모두 적어 보자.
▶
- (2) 위 시에 나타난 색채어를 모두 적어 보자.
▶
- (3) 위 시가 형상화한 것은 무엇인지 제목과 관련지어 적어 보자.
▶

<정답>
 (1)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2) 흰색, 붉은 색
 (3) 비가 내리는 풍경

관(棺)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 주고
 나는 옷자락에 흠을 받아
 좌르르 하직(下直)했다.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불렀다.
 오오나. 나는 전신(全身)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박목월, '하관(下官)'

(1) 위 시에 나타난 감각적 심상을 모두 적어 보자.

▶

(2) 위 시에 나타난 하강 이미지를 적어 보고, 하강 이미지의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적어 보자.

▶

<정답>

(1)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2)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좌르르 하직(下直)했다, 열매가 떨어지면 : 아우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슬픔이 더욱 강조됨

기출로 확인하기

1. [보기]를 참고하여 위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년 6평 38번]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이 밤사 귀도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며.	조지훈, '승무' [07년 6평 / 천재(정) 1]

[보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2. 위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년 수능 32번]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자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김종길, '고고(孤高)'

- ① '열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경황을 묘사하고 있어.
-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 ④ '원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이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 ⑤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3. 형식

1 형태, 시상 전개 방식

개념

1. 형태(形態) : 행이나 연의 배열의 의해 나타나는 짜임.
2. 시상 전개 방식(詩想 展開 方式) :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마인드 맵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뱀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쁜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뱀꼭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뱀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뒤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뱀꼭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뱀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송수권, '지리산 뱀꼭새' [10년 수능]

위 시에서 '산봉우리', '뱀꾸기', '울어', '알아냈다' 등 등은 시어라고 하며, '여러 마리의 뱀꼭새', '눈물 다 슬리어서' 등은 시구(구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체 작품은 총 26행, 5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 시는 '지리산 하' → '지리산 중' → '세석 철쭉꽃밭'으로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① 형 태

시의 형태는 행이나 연의 배열에 의해 나타나는데, '시어 → 시구(구절) → 행 → 연'으로 갈수록 그 범위가 큰 것이다.

㉠ 시어, 시구(구절)

- 윤선도 : 이 선생님의 시에 나타나는 '없으니', '있었거니', '더욱', '없으랴' 등의 **시어**에서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군요. [05년 6평 40번]
- (나)와 (다)는 각각 '독'과 '신발'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5년 6평 41번]
- '내 마음을 노리매'라는 **시어**에서 작가의 고통과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05년 6평 42번]
- 1938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가난', '겨울'과 같은 **시어**를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읽을 수도 있겠어. [05년 수능 17번]
-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시구**에서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했음을 알 수 있어. [05년 수능 17번]
- (다)에 사용된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년 6평 18번]
-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06년 6평 55번]
-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06년 9평 20번]
- '장벽에 /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06년 수능 16번]
-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07년 6평 17번]
- (가)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년 6평 38번]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7년 수능 52번]
- (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년 수능 54번]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08년 6평 17번]
- (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년 6평 18번]
-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08년 9평 15번]
-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08년 수능 16번]
-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09년 6평 47번]
-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9년 9평 29번]
- '만첩'은 ㉠아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10년 9평 26번]
-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11년 9평 16번]
-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년 6평 23번]
- '환-하고', '아득-한' 등의 '-는'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12년 6평 23번]
- **시어**와 표현 면에서 <1>과 <2>는 유사성이 크지만, <3>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12년 수능 35번]

'시어'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명사나, 띄어쓰기 단위를 의미한다. '시구'는 이러한 시어가 2개 이상 묶여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오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김소월, '나의 집' [08년 6평]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O, X) [08년 6평 17번 ③]

마지막 행에서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그대'를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함이 강조되고 있다.

날로 밤으로 / 왕거미 출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동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득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이 뇌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데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 저릅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지주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 중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 도토리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 사냥개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이용악, '낡은 집' [05년 수능 / 천재(정) 1]

* 짓두광주리 : '반진고리'의 방언. / * 글거리 : '그루터기'의 방언

[보기]

- 발표 연도 : 1938년
- 작가 소개 : 이용악의 고향은 함경북도 경성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소금 장사를 하였는데, 아버지의 객사(客死)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야 했다. 어려서부터 궁핍한 생활을 했던 이용악은 일본 유학 시절에도 품팔이로 학비를 조달했다. 그러면서도 방학 때면 으레 귀국하여 동포들이 모여 사는 간도 등지를 돌며 유이민(流移民)의 비극적인 삶을 살펴 보기도 했다.

1938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가난', '겨울'과 같은 시어를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읽을 수도 있겠어. (O, X) [05년 수능 17번 ①]

•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시구에서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했음을 알 수 있어. (O, X) [05년 수능 17번 ②]

일제강점기 고통 받는 식민지 백성들의 삶을 털보네 가족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위 시에서 털보네가 왜 고향을 떠났을까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현실과 연관지어야 한다. 그리고 위 시의 시적 화자는 털보의 아들이 아닌, 아들의 친구이며, 이 시에서 화자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㉔ 행

-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내음새'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06년 6평 18번]
-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 [06년 수능 19번]
-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07년 수능 30번]
-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10년 6평 13번]
-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13년 6평 14번]

행(行)은 글을 가로나 세로로 벌인 것을 말한다.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정지용, '발열(發熱)' [10년 6평 / 지학(최) II]

* 박나비 :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 주사 :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O, X) [10년 6평 13번 ㉔]

11행의 경우를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시행이 명사로 끝맺게 되면 시적인 여운이 형성된다.

㉔ 연

- 마지막 연에서 복잡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5년 6평 39번]
-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07년 수능 30번]
- 1연에는 화자의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10년 수능 35번]
- 2연의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10년 수능 35번]
-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위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10년 수능 35번]
-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10년 수능 35번]
-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10년 수능 35번]
-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12년 9평 33번]
-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12년 수능 33번]
- <1>, <2>, <3> 모두 세 연씩으로, 각 연은 두 행씩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12년 수능 35번]
- '산 너머 남촌에는' <1>, <2>, <3>의 각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 [12년 수능 35번]
-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13년 6평 14번]

연(聯)은 몇 행을 한 단위로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

푸른 하늘에 달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이육사, '교목(喬木)' [07년 수능 / 해냄 II]

[보기]

[백과사전]

이육사 :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육사 시집』 발문)

-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O, X) [07년 수능 30번 ㉔]

각 연은 3행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제된 형식미가 나타난다는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 가능하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쑥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들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12년 수능]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가,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니

꿇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12년 수능]

* 영 : 고개.

-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O, X) [12년 수능 33번 ㉓]
- (나)의 경우 <1>, <2>, <3> 모두 세 연씩으로, 각 연은 두 행씩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O, X) [12년 수능 35번 ㉑]

(가)의 경우 하나의 연으로 구성되어, 고향을 떠난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나)의 경우 <1>, <2>, <3>의 구성이 모두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은 2행씩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형식상의 특징이 있다.

② 시상 전개 방식

‘시상(詩想)’이란 시에 나타난 감정이나 정서로, ‘시상 전개 방식’은 이러한 시상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의 문제이다. 다음은 반복되어 기출 되고, 눈여겨보아야 할, 몇 가지 시상 전개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 수미상관

- (가)는 첫 연과 끝 연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05년 9평 21번]
-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07년 6평 17번]
-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07년 9평 28번]
-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08년 수능 14번]
-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3년 6평 14번]
-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40번]

수미상관은 머리와 꼬리 즉,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키는 것으로 끝 연을 첫 연과 동일하게 쓰거나 유사하게 관련짓는 것을 말한다.

<p>(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한용운, ‘알 수 없어요’ [13년 6평 / 비상(박) I, 신사고 II, 창비 I, 천재(김) I]</p>	<p>(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p> <p>사랑은, /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되는 것</p> <p>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떠 있는 배</p> <p>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p> <p>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 온종일을 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장석남, ‘배를 매며’ [13년 6평]</p>
---	---

-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내고 있다. (O, X) [13년 6평 14번 ㉠]

(가)와 (나)는 모두 자연현상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형식상의 특징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갈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서경주, '후천사' [07년 9평 / 천재(고) 1]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어
피만이 흐르네
더욱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어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낮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김지하, '새' [07년 9평]

-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경서를 심화하고 있다. (O, X)
[07년 9평 28번 ①]

(가)에서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이의 초월적 지향이 첫 연과 끝 연에 나타나 있고, (나)에서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와 달리 고통스러운 현실에 매어 있는 화자의 상황을 첫 연과 끝 연으로 대응시키고 있다.

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 [A]에는 공간적인 이동이, [B]에는 시간적인 경과가 나타나 있다. [06년 수능 27번]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07년 6평 17번]
-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7년 9평 28번]
-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09년 6평 20번]
-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09년 9평 30번]
-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10년 9평 23번]
- (가)~(다)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2년 6평 19번]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2년 9평 31번]

‘과거 → 현재 → 미래’나 ‘봄 → 여름 → 가을 → 겨울’ 등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말한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옆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12년 9평]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X) [12년 9평 31번 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구절이나 시행은 나타나지 않는다.

엿그제 저멋더니 흐마 어이 다 늘거니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 흐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습 흐자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흐야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侯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 흐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근치 만나 잇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흐기 살어름 디되는 듯,

[A]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오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흐앗더니,

연광(年光)이 홀홀 흐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 흐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필소냐.

스스로 참괴(慙愧)흐니 누구를 원망(怨望)흐리.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창비 1, 천재(정) 1]

* 소년행락 : 어린 시절에 즐겁게 지냄. / * 공후배필 :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 / * 군자호구 : 훌륭한 남자의 좋은 배필.

* 장안 유협 : 서울 거리의 풍류객. / * 천연여질 :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 * 다시 : 시기가 많아.

*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 세월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짐을 의미함.

• [A]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X) [07년 9평 28번 ② 변형]

소식이 끊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그리움과 원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A] 부분에서는 세월의 덧없음과 늙은 자신에 대한 화자의 한탄이 드러난다.

개념+

1. 시간의 역전(회상)에 의한 시상 전개 방식 : 일반적 시간에 흐름에 따르지 않고 '현재 → 과거' 등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 (다)는 시간의 역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05년 9평 21번]
- 회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6년 9평 15번]
-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07년 6평 17번]
-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08년 9평 13번]
-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11년 9평 13번]
-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13년 9평 27번]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 '또 다른 고향' [13년 9평 / 교학(조) I, 미래엔 II]

-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O, X) [13년 9평 27번 ④]

자아성찰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시간의 역전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찾기 어렵다.

이슬비 오는 날,
종로 5가 서시오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밤 열한 시 반,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 신은 운동화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등어리선 먼 길 떠난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
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땅 어촌 말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흉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눈녹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
종묘 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부은 한쪽 눈의 창녀가 양지쪽 기대 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때 묻은 긴 편지 읽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 건물 공사장,
자갈 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반도의 하늘 높아서 태양이 쏟아지고,
싸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엔 세 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의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둥굴고 있었다.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 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썩,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
변한 것은 없었다.
이조 오백 년은 끝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기껏해야 버스 길 삼백 리 서울로 왔지.
고층 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거머리
마을,
또 무슨 녀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
장,
도시락 차고 왔지.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신동엽, '종로 5가' [창비 1]

- 4연과 5연 사이에서 시간의 역전이 나타난다. (O, X)

위 시는 종로 5가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소년의 모습을 통해, 상경하여 창녀나 노동자로 전락해가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6년 6평 18번]
- [A]에는 공간적인 이동이, [B]에는 시간적인 경과가 나타나 있다. [06년 수능 27번]
- (나)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09년 6평 47번]

말 그대로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떼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구비 꿇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
새……

오장환, ‘고향 앞에서’ [06년 6평]

-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X)
[06년 6평 18번 ①]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상황과 그로 인한 회한과 그리움을 공간의 이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p>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 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냐 아까운 저 쟁기는 벼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영킨 묵은 밭도 쉽사리 갈련만은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p>	<p>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 두자 강호 한 꿈을 끈 지도 오래려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샤 훌륭한 군자들이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박인로, '누항사'</p> <p>[09년 6평 / 교학(윤)II, 지학(최)II, 해냄II]</p> <p>* 세정 : 세상물정.</p>
--	---

-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O, X) [09년 6평 47번 ②]

화자는 소박한 시골이라는 공간에서 농사를 짓고자하나 소를 빌리지 못하여 그리할 수도 없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빈낙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06년 수능 15번]
-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다. [07년 6평 17번]
-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07년 수능 29번]
-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3년 6평 14번]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박목월, '산도화(山桃花)' [천재(정) 1]

- * 구강산 :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공간으로서 산.
- * 버는데 : 식물의 가지 따위가 옆으로 번는데

-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O, X) [06년 수능 15번 ㉔]

1~2연은 원경(遠景)으로서 '구강산'의 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반면, 3~4연은 근경(近景)으로서 '구강산'의 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뺨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뺨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뺨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장석남, '배를 매며' [13년 6평]

-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O, X)
[13년 6평 14번 ㉔]

사랑이 시작되고 커 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㉔ 선경후정 또는 정경 묘사와 정서 표출을 통한 시상 전개 방식

- 각 연마다 선경후정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07년 6평 17번]
- (가), (나)는 모두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08년 9평 21번]
-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13년 9평 35번]
-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13년 수능 46번]

‘선경후정(先景後情)’은 시의 앞에서는 경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뒷 부분에서는 그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선정후경(先情後景)’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꼭 선경후정이나 선정후경을 엄두하지 않고 주변 정경에 대해 묘사하고, 그에 대한 정서를 표출하는 시상 전개 방식도 자주 나타난다.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고,
 봉두(峰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펴 놓은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사.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08년 9평 / 미래엔 II, 신사고 II, 지학(권) I, 해냄 II]

-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O, X) [08년 9평 21번 ㉔]

‘봉두’에 올라 바라보는 풍경과 더불어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섬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김상옥, '사향(思鄕)' [07년 6평]

- 각 연마다 선경후정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O, X) [07년 6평 17번 ⑤ 변형]

회상을 통해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참고

<기타 시상 전개 방식 정리>

• 극적 요소를 가미한 시상 전개 방식

• 제1수에서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 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3년 수능 49번]

• 대비를 통한 시상 전개 방식

•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0년 9평 21번]

•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11년 9평 13번]

•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13년 6평 14번]

• 묘사를 통한 시상 전개 방식

•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09년 9평 30번]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한 시상 전개 방식

•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09년 9평 30번]

• 시적 대상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09년 9평 30번]

• 이미지를 통한 시상 전개 방식

•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09년 9평 30번]

•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2년 수능 33번]

개념+

1. **시상 집약** : 시의 정서가 모여져 의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주로 제재와 관련 있거나, 강조되는 경우가 많음.

-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 [08년 9평 15번]
-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10년 9평 23번]
-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11년 6평 20번]

2. **시상 전환** : 시의 정서가 급격히 바뀌는 것으로 어조의 변화와 관련 있음.

- **시상의 극적 전환**을 유도하는 매개물이다. [05년 9평 23번]
-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13년 6평 14번]
-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13년 수능 34번]

3. **시상 마무리** : 시의 정서를 끝맺는 것으로 마지막 연, 행, 시구, 시어 등을 말함.

-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06년 6평 15번]
-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13년 9평 30번]
-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40번]
- 고향을 떠나올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13년 수능 34번]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골각,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공각지, 공각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숙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박용래, ‘월훈(月暈)’ [08년 9평 / 천재(경)Ⅱ]

* 월훈 : 달무리.

-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O, X) [08년 9평 15번 ④]

마지막 장면의 ‘월훈’은 노인의 시선이 머문 곳이자, 노인의 상황을 드러내는 제재라 할 수 있다.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김춘수, '강우(降雨)' [11년 6평]

-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O, X) [11년 6평 20번 ⑤]

비를 통해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였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이 떼어났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빛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E]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김기택, '멸치' [13년 9평 / 지학(권) 1]

-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O, X)
[13년 9평 30번 ⑤]

[E]는 멸치가 본래 지니고 있던 강인한 생명력을 환기하며, 그 생명력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 우리들의 사랑을 훑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14년 예비 시행 A형 / 신사고 1]

-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O, X)
[14년 예비 시행 A형 40번 ④ 변형]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과 같은 완전하지 못한 문장으로 종결하면 독자에게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

적용 문제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향균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비취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밧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박용철, '떠나가는 배' [천재(정) 1]

(1) 위 시는 총 몇 연 몇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적어 보자.

▶

(2) 위 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상 전개 방식을 적어 보자.

▶

<정답>

(1) 4연 16행

(2) 수미상관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 빛 얘기
 약장수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어디를 들어가 섰다라도 벌일까
 주머니를 털어 색시집에라도 갈까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어느새 긴 여름 해도 저물어
 고무신 할 켄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달이 환한 마창길을 절뚝이는 파장

신경림, '파장(罷場)' [천재(고) I]

(1) 위 시가 공간의 이동을 통한 시상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할 때, 그 공간의 이동 양상을 적어 보자.

▶

(2) 위 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나타난다고 할 때,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행을 찾아 적어 보자.

▶

(2) 위 시에서 시상을 집약하는 시어를 찾아 적어 보자.

▶

<정답>

(1) 이발소 앞 → 목로 → 학교 마당 → 마창길

(2) 어느새 긴 여름 해도 저물어

(3) 파장

기출로 확인하기

1. 다음 시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년 수능 35번]

<p><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p> <p>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p> <p>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p>	<p><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가,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냐</p> <p>끊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p>
<p><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p> <p>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p> <p>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p>	<p>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p> <p>* 영 : 고개</p>

- ① <1>, <2>, <3> 모두 세 연씩으로, 각 연은 두 연씩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 ② '산 너머 남촌에는'이 <1>, <2>, <3>의 1연마다 반복되어 시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1>, <2>, <3>의 각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
- ④ 시어와 표현 면에서 <1>과 <2>는 유사성이 크지만, <3>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 ⑤ <1>의 2연은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2>의 2연도 마찬가지이다.

2.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년 6평 14번]

<p>(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한용운, '알 수 없어요' [13년 6평 / 비상(박) I, 신사고 II, 창비 I, 천재(김) I]</p>	<p>(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p> <p>사랑은, /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되는 것</p> <p>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떠 있는 배</p> <p>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p> <p>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장석남, '배를 매며'</p>
--	--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2 운율 : 시에 쓰인 말의 가락

- 음악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06년 9평 19번]
-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08년 9평 15번]
-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10년 6평 13번]
-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10년 9평 23번]
-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11년 6평 19번]
-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11년 9평 16번]
-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11년 수능 15번]
-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12년 6평 21번]
-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12년 9평 31번]
-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13년 9평 27번]
- '~다면', '~ 끝에' 등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40번]
- 병 :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운율감이 느껴지게 만들면 어떨까요? [쓰 : 08년 9평 8번]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리듬으로, 음운이든 시어이든 시구이든 행이든 어떤 것을 반복할 때 생겨난다.

운율

운율(rhythm)은 우리의 생활, 감정과 밀착된 것이며, 생활 속에서 시간적인 지속성이나 질서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요소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삶의 양상이나 자연계 현상의 주기적 반복도 운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들리는 시계의 소리는 물론 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인간의 행동이나 자연 현상의 변화까지도 운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운율은 예로부터 시의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언어의 형상성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시에서 운율은 의미, 문맥, 어조 등 여러 요소와 결합하여 창조되는 음악적인 요소를 가리켰다. 이런 점에서 포우(E. A. Poe)는 시를 ‘미의 운율적 창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런 시의 음악적 효과는 시의 내용적 요소와 더불어 중요한 시적 자질로 평가되었다. 과장하여 말하면, 시의 형식적 요소 전체가 운율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운율은 ‘음의 재현이 반복되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진행되는 어떤 소리 패턴의 규칙적인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운율은 ① 소리(음성), ② 반복성, ③ 규칙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소리로 이루어진 형상성(물론 사물시, 산문시 등에서는 이 요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반복적, 규칙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운(韻, rhyme)은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소리를 가져오는 규칙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 동일한 기능을 가진 형태소에서 동일한 음의 반복이 나타나는 경우를 운이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율(律, metre) 또는 율격은 일정한 소리의 시간적 반복 규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음의 강약, 장단, 고저의 규칙적인 반복 등을 포괄한다. 또 음의 숫자 즉 자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율적인 자질을 갖게 되는 경우인 음수율(자수율)도 있다.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윤여탁, 최미숙, 유명희, 태학사, 2004) p.75~79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나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 '또 다른 고향' [13년 9평 / 교학(조) I, 미래엔II]

-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O, X) [13년 9평 27번 ②]

6연의 1행의 경우 한 시행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고, 3연의 3~5행의 경우 유사하지만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어제도 하룻밤 /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나)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오늘은 /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산으로 올라갈까 /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말 마소 내 집도 / 정주 객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열십자 북판에 내가 썼소.	
갈래갈래 갈린 길 /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백석, '적막강산' [11년 9평]
김소월, '길' [11년 9평 / 신사고 I]	* 벌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 덜거기 : 늪은 장끼.

-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O, X) [11년 9평 16번 ②]

시어나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면 리듬감이 조성된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춤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14년 예비 시행 A형 / 신사고 1]

- '~다면', '~ 끝에' 등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O, X)
[14년 예비 시행 A형 40번 ②]

비슷한 종결 어미로 끝맺거나 같은 시어, 시구들이 반복되면 운율이 형성되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개념+

1. 정형적 운율 - 음보율 : '정형적 운율'은 정해진 형태가 있는 운율로 주로 시조나 가사와 같은 고전시가에서 찾아 볼 수 있음.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음보율'이 있는데, 음보율은 시의 끊어 읽기 단위임.

-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09년 9평 28번]
-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10년 수능 36번]
-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5번, B형 34번]

2. 시적 허용 : 문법상 틀린 표현이지만 시적인 효과를 위해 허용하는 것으로 리듬감을 높임.

- '하얗다'를 '하이얗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06년 수능 16번]
-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07년 9평 31번]
-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08년 6평 17번]

음보율

서양 정통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우리 시가의 운율을 논의하기 위하여 음보(音步, foot) 개념을 도입하였다. …… 이 견해에 의하면 음보는 '발음 시간의 등장성(等長性)'에 해당하는 음의 단위(호흡의 단위)로, 음보간에는 음량상 균등성에 주목하여 부분적으로 장음과 단음이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윤여탁, 최미숙, 유명희, 태학사, 2004) p.82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서경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09년 9평]

-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O, X) [09년 9평 28번 ③]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뱀꾸기가
 울음 울어 /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똥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뱀꾹새임을 / 알아냈다.

지리산 하
 [A]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뱀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뱀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뱀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송수권, '지리산 뱀꾹새' [10년 수능]

무등산 한 활개 뒀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B]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흠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송순, '면양정가' [10년 수능 / 교학(조) 1]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 노화 : 갈대

- [B]와 달리, [A]는 음보울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O, X) [10년 수능 36번 ㉔]

[B]는 고전시가 중 '가사'라는 갈래에 속하는 작품이다. 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4음보의 운율이 나타난다.

적용 문제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김소월, '산유화(山有花)' [교학(윤) I, 비상(박) I, 지학(최) I, 창비 II, 천재(김) I]

(1) 위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을 찾아 모두 찾아 적어 보자.

▶

(2) 위 시에서 시적 허용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써 보자.

▶

<정답>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어와 시행의 반복, 1연과 3연의 형태적 유사, 시적 허용,

(2) 갈(가을)

빠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붉은 대공 하얀한 꽃이 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 하여
정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 두고
미진(微塵)*도 가까이 얹고 우로(雨露)* 받아 사느니라

이병기, '난초(蘭草) 4' [지학(최) 1]

* 벌고 : 벌어지고, 피고. / * 정한 : 깨끗한.

* 미진 : 작은 티끌이나 먼지. 세속(世俗)을 비유함. / * 우로 : 비와 이슬.

(1) 위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을 찾아 모두 찾아 적어 보자.

▶

(2) 위 시가 현대에 창작된 것임에도 음보가 나타나는 이유를 시의 형식과 관련지어 적어 보자.

▶

<정답>

(1)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대구)과 3·4조 음수율의 반복, 4음보

(2) 시조이기 때문에 4음보가 나타남

기출로 확인하기

1. 다음 시를 [보기 2]와 같이 읽는다고 할 때, [보기 1]의 ㉠와 같은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10년 6평 35번]

금강 일만 이천 봉이 눈 아니면 옥이로다
 혈성루 올라가니 천상인(天上人) 되었어라
 아마도 서부진 화부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안민영의 시조

* 서부진 화부득 : 글로 다 써 낼 수 없고 그림으로 다 그려 낼 수 없음.

[보기 1]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반복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리듬감을 느끼고, 그 리듬의 틀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간혹 전봇대 하나가 안 보이더라도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또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면 급한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 원래의 간격을 회복하면 기대감이 충족되어 편안함을 느낀다.

[보기 2]

|| 금 | 강 | 일 | 만 | 이 | 천 | 봉 | 이 | || 눈 | 아 | 니 | 면 || 옥 | 이 | 로 | 다 ||

①

|| 혈 | 성 | 루 | || 올 | 라 | 가 | 니 || 천 | 상 | 인 | || 되 | 었 | 어 | 라 ||

②

③

|| 아 | 마 | 도 | || 서 | 부 | 진 | 화 | 부 | 득 | 은 || 금 | 강 | 인 | 가 || 하 | 노 | 라 | ||

④

⑤

4. 표현

1 비유법

개념

1. 비유법(比喩法) :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기출에서는 직유법과 은유법을 통틀어 비유법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2. 의인법(擬人法) :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빗대는 것.
3. 활유법(活喩法) :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로 빗대는 것.

마인드 맵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굽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꿩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최승호, '대설주의보' [10년 6평]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은 눈 덮힌 산의 모습을 '해일'에 비유한 것으로 더 자세히 말하면 적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굴뚝새'는 '쪼그마한 숲덩이'에, '눈보라'는 '군단'에 비유되어 있는데, 이는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구 내리는 '눈보라'의 모습을 '군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비유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① 비유법

- ㉔ : 어미처럼 보살펴 주어야 할 어리고 귀여운 자식들을 비유한다. [05년 6평 43번]
- 자연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05년 9평 20번]
- ‘빛나는 눈썹’,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은 은행나무 잎을 비유한 것이다. [05년 수능 19번]
- ‘이화’, ‘월백’은 군주에 대한 시인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06년 6평 56번]
-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06년 수능 16번]
- 자연물에 빗대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06년 수능 24번]
- [A]는 반어적인 표현을, [B]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06년 수능 27번]
-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07년 6평 38번]
-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07년 수능 29번]
-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07년 수능 32번]
- ㉑ : ‘한’과 ‘눈물’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여 형상화했군. [07년 수능 55번]
- ㉒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08년 6평 18번]
- ㉓, ㉔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8년 수능 15번]
-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09년 6평 21번]
-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10년 9평 24번]
- ㉕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11년 수능 16번]
- 파초의 잎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임을 알 수 있군. [12년 6평 22번]
- [B]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2년 9평 41번]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다. [쓰 : 05년 수능 10번]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쓰 : 08년 수능 8번]
- 자연물을 이용해 비유하자. [쓰 : 10년 9평 7번]
- 비유법과 생략법을 활용하기 [쓰 : 11년 6평 9번]
- 비유를 써서 대조적으로 표현할 것 [쓰 : 11년 9평 8번]
- 비유와 대구의 표현 방법을 활용할 것 [쓰 : 12년 6평 9번]
- 비유와 대구를 활용할 것. [쓰 : 13년 6평 10번]

비유란 ‘사과 같은 내 얼굴’, ‘내 마음은 호수요’처럼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는 것이다. 앞선 예시에서 ‘내 얼굴’과 ‘내 마음’은 원관념이라고 하고, 그것이 비유된 대상인 ‘사과’와 ‘호수’는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비유

시인은 표현하려는 사상과 감정을 직접적인 설명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자신이 표현하려는 바를 다른 사물이나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며, 시에 이런 원리를 비유(比喩)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비유는 이질적인 요소를 서로 결합시키는 표현법으로, 원래 나타내려는 원관념(本意, 趣意, tenor)을 보조 관념(vehicle)을 통해 표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매개어로 결합하는 경우를 직유라고 하고, 매개어 없이 ‘A는 B이다’로 결합하는 형태를 은유라고 한다. ……

비유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직유(直喩, simile), 은유(隱喩, metaphor), 감정 이입 또는 의인화(personification), 제유(提喩, synecdochic :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거나 전체로 부분을 대표하는 경우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의 ‘괘이’나 ‘호미’, 환유(換喩, metonymy : 어떤 사물을 그 속성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명칭으로 대신하는 경우 셸리의 시 “왕홀(王笏)과 왕관은 굴러 떨어져서 / 먼지 속에서 불쌍한 굵은 낫과 삽하고”의 ‘왕홀’, ‘왕관’, ‘낫’과 ‘삽’) 등이 있다.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윤여탁, 최미숙, 유명희, 태학사, 2004) p.103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 같이
괘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결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 웃지요.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죽음이 그 얼음장 같은 손으로 제왕들을 잡으면.
왕홀도 왕관도
떨어져 내려 버리고,
흙먼지 속에서는 왕홀이나 왕관도
가난한 자의 구부러진 낫이나 삽과 똑같은 것이 되리라.

제임스 셸리, ‘에이작스와 올리시즈의 싸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잎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곽재구, '은행나무' [05년 수능]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 '빛나는 눈썹',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은 은행나무 잎을 비유한 것이다. (O, X) [05년 수능 19번 ①]

위 시에서 '은행나무 잎'은 '노오란 우산깃', '빛나는 눈썹', '아름다운 연서',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로 비유되어 나타난다.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날이 냇날처럼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山) 깊은 금뎀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 [09년 6평]

-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O, X) [09년 6평 21번 ⑤]

'냇날같이' 늙은 여승, '불경처럼' 서러워진 화자, '섭벌같이' 집을 나간 지아비 등의 표현이 나타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B]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한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이황, '도산십이곡' [12년 9평 / 비상(박)Ⅱ, 비상(유)Ⅱ, 지학(권)Ⅱ, 지학(최)Ⅱ]

* 초야우생 :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 [B]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X) [12년 9평 41번 ㉓]

영원히 푸르른 '청산'과 끊임없이 흐르는 '유수'에 빗대어 끊임없이 학문을 수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직유

-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10년 수능 36번]
-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14년 예비 B형 40번]
- 직유나 은유의 표현을 사용할 것. [쓰 : 05년 6평 11번]

직유는 ‘~처럼, ~같이, ~듯이’ 등을 통해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 비유하는 것이다.

무등산 한 활개 뵈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놓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B]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흠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뵈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굳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송순, ‘면앙정가’ [10년 수능 / 교학(조) 1]

-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 사정 : 모래톱. / * 노화 : 갈대

- [B]에서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O, X) [10년 수능 36번 ㉠ 변형]

‘~ 듯’을 통해 면앙정 앞의 시냇물을 ‘쌍룡’과 ‘비단’에, 물가에 펼쳐진 모래밭을 ‘눈’에 비유하고 있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녀도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최두석, '성에꽃' [14년 예비 시행 B형 / 교학(윤)II, 미래엔II]

-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여 대상의 모양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O, X)
[14년 예비 시행 B형 40번 ⑤]

11행에서 '~ 듯'을 통해 화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은유

• 직유나 은유의 표현을 사용할 것. [쓰 : 05년 6평 11번]

은유는 'A는 B이다'의 꼴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기출에서는 '은유'라는 단어의 언급이 쓰기 문제에서 단 한 차례 밖에 없고, '비유'라는 말로 통칭되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멍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김명인, '그 나무' [11년 수능]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 ㉠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O, X) [11년 수능 16번 ㉠]

㉠의 주체는 '그 나무'로, '그 나무'가 꽃을 성화(성스러운 불)처럼 피우면 좋겠다는 화자의 소망이 담긴 시구로 볼 수 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 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어,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 주오.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김동명, '내 마음은' [비상(박) I, 천재(정) II]

- '그대'를 향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호수, 촛불, 나그네, 낙엽' 등의 보조관념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O, X)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구체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② 의 인 법

-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군. [08년 9평 22번]
-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08년 수능 14번]
-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09년 9평 28번]
-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10년 6평 13번]
-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1년 6평 19번]
- [C]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11년 수능 29번]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13년 6평 13번]
-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13년 9평 35번]
- 대상을 **의인화**할 것. [쓰 : 06년 9평 10번]
- **의인화**와 대구를 활용함. [쓰 : 10년 수능 10번]
- **의인법**과 도치법을 활용할 것. [쓰 : 12년 9평 7번]
-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을 쓰되, 관용 표현과 **의인법**을 활용 [쓰 : 12년 수능 9~10번]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는 의인법은 사물이나 동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의인법

인간 이외의 사물이나 추상 개념에 인격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사법의 차원에서는 보통 의인법(擬人法)이라 한다. 의인화는 은유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은유가 대상과 대상의 융합이라면 의인화는 대상과 인간을 융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여 생명 현상으로 다루는 것을 따로 활유법(活喻法)이라고 하는데, 그 원리에 있어서는 의인화와 대동소이하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613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삐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어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설장수, '어옹(漁翁)' [08년 9평]

* 옥당 : 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청의 별칭.

[보기]

강호(江湖)에서 살아가는 어부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실제 어부, 이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자(隱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위 시의 화자의 경우에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다.

• 화

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군. (O, X) [08년 9평 22번 ①]

달이 배를 비추고 있는 풍경은 화자가 살고 있는 어촌의 평화로운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앞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아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09년 9평]

•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O, X) [09년 9평 28번 ②]

화자는 '나무'를 청자로 삼아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낙관적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활 유 법

- (다)는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05년 9평 21번]
- 활유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호소력을 높일 것 [쓰 : 11년 수능 10번]

의인법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빗대는 것이라면, 활유는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에 빗대는 것을 의미한다.

남녘 들판에 곡식이 뜨겁게 익고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지나해의 회오리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 소리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

김광규, '때' [05년 9평]

* 우듬지 : 나무의 꼭대기 줄기.

-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O, X) [05년 9평 21번 ④]

활유를 통해 숲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진갠가 보다.

이육사, '절정(絶頂)' [미래엔 I, 비상(박) I, 천재(김) I, 천재(정) II]

- 활유의 방식으로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O, X) [11년 수능 10번 <보기> 변형]

'북방'과 '고원'으로 나타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정'이라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화자의 절망감과 현실의 초극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변화법

개념

1. 도치법(倒置法) :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어 변화를 주는 것.
2. 대구법(對句法) : 유사한 통사구조와 대응한 만한 내용을 가진 구를 짝지어 놓은 것.
3. 생략법(省略法) : 문장 성분의 일부를 생략하여 변화를 주는 것.
4. 연쇄법(連鎖法) :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는 것.
5. 반어법(反語法) :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말하는 것.
6. 역설법(逆說法) :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이거나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

마인드 맵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김남조, '설일(雪日)' [05년 9평]

3연에서 1~2행과 3~4행이 동일한 문장 구조와 대응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를 '대구'라 할 수 있다. 1연의 1행, 4연의 1행, 5연의 2행의 경우에는 명사로 행이 종결되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서술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생략법'이 나타난다고 한다.

① 도치법

-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8년 6평 17번]
-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10년 6평 13번]
-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10년 수능 36번]
-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11년 6평 19번]
-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13년 수능 32번]
- 의인법과 도치법을 활용할 것. [쓰 : 12년 9평 7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한국어 문장의 전개이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사랑한다 당신을’과 같이 ‘주어+서술어+목적어’로 표현한다면 일반적인 문장 성분 전개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데, 이를 도치라고 한다. 도치가 나타날 경우 상대적으로 뒤 쪽의 내용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썩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오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회계,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김소월, '나의 집' [08년 6평]

-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O, X) [08년 6평 17번 ①]

3행에서 목적어의 위치가 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에서도 그 뒤의 내용이 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데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돌 곳 몸돌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김영랑, '거문고' [10년 6평]

* 기린 :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10년 6평 13번 ④]

자유가 없는 처지를 '기린(거문고)'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② 대구법

-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05년 수능 39번]
-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0년 9평 23번]
-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11년 6평 19번]
-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12년 6평 21번]
- (나)는 (가)에 비해 대구와 부드러운 어감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2년 수능 33번]
- 감각어를 활용한 대구적 표현 [쓰 : 09년 6평 10번]
- 의인화와 대구를 활용함. [쓰 : 10년 수능 10번]
- 폐휴대전화의 양면성을 대구의 형식으로 표현할 것 [쓰 : 11년 수능 10번]
- 비유와 대구의 표현 방법을 활용할 것. [쓰 : 12년 6평 9번]

대구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처럼 두 구를 대응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이때 두 구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 역시 서로 관련 있어야 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p>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p> <p>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p> <p>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p>	<p>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 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p> <p>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 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라</p> <p style="text-align: center;">이현보, ‘어부단가’ [10년 9평 / 미래엔 II]</p> <p>* 청하 : 푸른 연잎. / * 노적 화총 : 갈대와 물억새의 덩굴. * 일반 청의미 :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 * 제세현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p>
--	--

-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O, X) [10년 9평 23번 ③ 변형]

2, 3, 4수에 대구가 나타나 있다.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낮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A]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
자.

김동명, '파초' [12년 6평]

* 파초 :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쓴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B]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귀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12년 6평 / 두산Ⅲ]

* 망령된 :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추성 진호루 :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므음 호리라 : 무엇을 하려고.

- [A], [B]는 모두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O, X) [12년 6평 21번 ㉓ 변형]

[A], [B]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개념+

1.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 비슷한 통사(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으로, 대구가 되면 통사 구조의 반복이 반드시 나타나지만,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구라고 말할 수는 없음.

•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09년 수능 32번]

•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11년 수능 15번]

• <1>의 2연은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2>의 2연도 마찬가지이다.

[12년 수능 35번]

•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13년 6평 14번]

•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13년 수능 32번]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 사라지는 것 보여 주면서

김광규, '나뭇잎 하나' [09년 수능]

-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O, X) [09년 수능 32번 ①]

1, 2연에서는 '~가(이) 온통 ~ 때 그곳을 ~면서 나는 ~었다'라는 유사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한용운, '알 수 없어요' [13년 6평 / 비상(박) I, 신사고 II, 창비 I, 천재(김) I]

-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O, X)
 [13년 6평 14번 ①]

유사한 문장 구조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다양한 자연 현상에서 느끼는 절대자의 존재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붉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사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13년 수능]

-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O, X) [13년 수능 32번 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문장의 반복이 나타나 있다.

③ 생략법

-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 [06년 수능 19번]
- 조사와 구두점을 적절히 생략한다. [06년 수능 19번]
-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10년 6평 13번]
-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1년 9평 16번]
-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40번]
-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14년 예비 시행 B형 40번]
- 비유법과 생략법 활용하기 [쓰 : 11년 6평 9번]

일반적으로 시에서의 생략법은 서술어 전체를 생략하거나, 서술어의 일부를 생략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06년 수능 / 신사고 1.]

-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주고 있다. (O, X) [06년 수능 19번 ③ 변형]
- 조사와 구두점을 적절히 생략하고 있다. (O, X) [06년 수능 19번 ④ 변형]

마지막 행의 경우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으며, 3, 4, 8, 10, 12행에서 조사가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침표나 쉼표와 같은 구두점 역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옷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볍게나 가자 /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폄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06년 수능 / 두산Ⅱ, 비상(박)Ⅱ, 지학(권)Ⅱ, 지학(최)Ⅱ, 천재(고)Ⅱ, 천재(정)Ⅱ]

-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하여 운율감을 자아낸다. (O, X)
[14년 예비 시행 B형 40번 ④]

문장이 종결되지 않은 채 행이 바뀌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명사나 명사형의 시행 종결의 예는 찾을 수 없다.

④ 연 쇠 법

•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08년 9평 15번]

연쇄법이란 '원숭이 엉덩이는 빨게,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와 같이 앞 구의 꼬리를 뒤 구의 머리로 이으면서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골짜,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공각지, 공각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숙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말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읍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읍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훑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박용래, '월훈(月暈)' [08년 9평 / 천재(정) Ⅲ]

* 월훈 : 달무리.

•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다. (O, X) [08년 9평 15번 ㉔]

'마을'이라는 시어의 반복이 나타나고, '짚단, 짚오라기', '새, 새들'과 같은 반복과 연쇄가 나타나 있다.

⑤ 반 어 법

- **반어적**인 표현으로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06년 9평 20번]
- [A]는 **반어적**인 표현을, [B]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06년 수능 27번]
- ㉞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7년 9평 31번]
-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8년 수능 14번]
-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09년 6평 20번]
-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10년 수능 36번]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12년 6평 21번]
-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2년 9평 41번]
-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3년 9평 27번]
- ㉠ : 외로운 ‘술’을 씹었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준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6번, B형 35번]
-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40번]

반어란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말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을 망친 아들에게 엄마가 ‘잘 했다, 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어이다.

반어

반어(反語) 또는 아이러니(irony)는 표현된 언어의 표면적 뜻과 반대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적 기법이다. 즉, 아이러니는 말한 것(what is said)과 의미하는 것(what is meant) 사이의 긴장, 대조 혹은 갈등을 수반하는데,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모순·충돌하는 여러 요소들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한 문맥 속에 엮어 내는 과정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한 것(표현된 것)과 의미하는 것(숨겨진 것)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이중 구조를 끊임없이 추적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러니 시는 기지(奇智, wit)의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독자는 구조적 상충 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인 정신과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이러니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언어적 아이러니 : 화자가 의도하는 함축적인 의미와 그가 겉으로 주장하는 의미가 다른 진술 표현에서 나타나는 시적 효과로, “찾아오는 분은 / 항상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맥베드」에 나오는 구절을 예로 들 수 있다.
- (2) 구조적 아이러니 : 어떤 작품에서 아이러니가 단어나 구절 등에 머물지 않고,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 구조가 작품 전체에 걸쳐지는 경우를 말한다.
- (3) 극적 아이러니 : 결과가 예상한 것 혹은 알맞은 것과 다른 상황으로 되는 것으로, 상황적 아이러니라고도 한다. 희랍의 비극 특히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소포클레스 아이러니라고도 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원초적으로 계시된 운명 때문에 비극적인 종말로 상황이 치달게 된다.
- (4) 낭만적 아이러니 : 현실과 이상,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유한아(有限我)와 무한아, 자연과 감정 등 이원론적 대립의식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독일 낭만주의 문학에서 문화적 속물주의에 대한 예술적 반항으로 일어났으며, 리얼리즘 문학에서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 세계의 지향 정신으로 구현되기도 했다.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윤여탁, 최미숙, 유영희, 태학사, 2004) p.141-144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운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으레. 서방님은 바람 갈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 아니었올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 빛 임자가 아니었올까나.

박재삼, '수정가' [06년 9평 / 교학(조) 1]

- 반어적인 표현으로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O, X) [06년 9평 20번 ㉔]

'춘향전'에서 소재를 취하여 입을 그리워하면서도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춘향의 내면을 우물집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잣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굳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교학(윤) 1]

- 위 시가 대상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할 때, ㉠은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 X) [09년 6평 20번 ㉠ 변형]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현실의 모습을 '그'와 '어느 유명한 문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⑥ 역설법

-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07년 9평 31번]
-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8년 6평 14번]
-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8년 수능 14번]
-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10년 수능 32번]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2년 9평 31번]
- ㉡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군. [13년 6평 15번]
- 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 낸다. [14년 예비 시행 B형 40번]
- 역설법을 활용할 것. [쓰 : 13년 9평 10번]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은 거인이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말 그 자체에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나 만약 나폴레옹을 ‘작은 거인’이라고 한다면, 비록 키는 작았지만,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설은 이와 같이 진술 표면에는 모순이 나타나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말한다.

역설

마치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이 역설은 본질적으로는 진실하나 표면적으로 자가당착적인 진술을 말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진실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진술, 그것이 바로 역설인 것이다. ……

역설의 어원은 희랍어인 ‘para(넘어선)+doxa(의견)’로, 윤리에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

휠라이트(P. Wheelwright)는 역설을 크게 표층적 역설(surface paradox)과 심층적 역설(depth paradox)로 나누고 다시 심층적 역설을 존재론적 역설(ontological paradox)과 시적 역설(poetic paradox)로 나누어 세 종류로 파악하였다. 표층적 역설은 무언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사물 혹은 관념들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일종의 경이감과 충격, 즐거움을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심층적 역설은 그 말에 담긴 모순의 의미를 일상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역설이다. 그리하여 존재론적 역설은 삶의 초월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적 역설은 작품의 표면적 진술과 그것이 암시하는 내적 의미 사이에 구조적 모순을 담고 있다.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윤여탁, 최미숙, 유명희, 태학사, 2004) p.146-148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 날으는 새여

묵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달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묵인 이 가슴

김지하, '새' [07년 9평]

-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O, X) [07년 9평 31번 ㉠]

자유로운 새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화자의 처지가 대비되어 나타나 있다. ㉠은 낮의 밝음과 영혼의 침침해짐을 대조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옆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놓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12년 9평]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O, X) [12년 9평 31번 ㉢]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를 쓰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을 대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3 강조법

개념

1. 설의법(設疑法) : 의문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것.
2. 영탄법(咏嘆法) :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를 통해 감정을 강조하는 것.
3. 점층법(漸層法) : 어떠한 의미나 내용, 감정이 점점 커지는 것.
4. 반복법(反復法) : 같은 것을 두 번 이상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
5. 과장법(誇張法) : 실제보다 부풀려 강조하는 것.
6. 열거법(列擧法, 나열법) :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는 것.

마인드 맵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올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술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랴시고
두어라 우로(雨路)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들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실 하는지고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胡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이신의, '단가 육장' [11년 9평]

'효제충신 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인간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등은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설의법을 통해 '효제충신 밖에 할 일이 없다'. '인간에 유정한 벗은 명월 뿐이다'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즈버'와 같은 감탄사를 통한 영탄법이 나타나 있고, 비슷한 문장 형식들이 '반복법'을 통해 반복되어 나타나는 데, 이 모든 표현법은 해당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① 설 의 법

-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7년 9평 31번]
-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08년 9평 21번]
-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9년 6평 47번]
-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09년 9평 30번]
-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11년 수능 27번]
- [C]의 중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13년 9평 38번]
- 효과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 설의법을 사용할 것. [쓰 : 14년 예비 시행 A형 8번]

설의법은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p>(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花杜鵑)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퍼 놓은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裕餘)할사.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p>	<p>(나)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삐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가다네. 어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p>
<p>정극인, '상춘곡(賞春曲)' [08년 9평 / 미래엔Ⅱ, 신사고Ⅱ, 지학(권)Ⅰ, 해냄Ⅱ]</p>	<p style="text-align: right;">설장수, '어옹(漁翁)' [08년 9평] * 옥당 : 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의 별칭.</p>

-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O, X) [08년 9평 21번 ㉓]

(가)와 (나) 모두 마지막을 의문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각각 봄의 경치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어부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한 표현이다.

천심절벽(千尋絶壁) 첫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곡>

[C]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13년 9평]

* 어조 생애 :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 백조 : 모든 새. / * 내곳 : 내가.

- [C]의 중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X) [13년 9평 38번 ④]

위 작품은 총 4수의 시조로 제시되어 있는데, 각 시조는 총 3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행의 순서대로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한다. [C]의 중장의 경우 '의지하리'라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나타나지만 이는 갈 곳 없는 두견새의 처지를 강조한 표현이다.

② 영 탄 법

-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05년 수능 39번]
-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06년 수능 15번]
-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10년 수능 36번]
-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11년 6평 19번]
-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12년 9평 31번]
-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13년 9평 27번]
-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다. [13년 수능 32번]

영탄법은 ‘아아’와 같은 감탄사와 ‘~구나, ~어라’ 등의 감탄형 어미를 통해 구현된다.

어두운 방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11년 6평]

-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O, X) [11년 6평 19번 ㉔]

어린 시절 한겨울에 약을 구해 돌아온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4연의 ‘아’를 통해 나타난다.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킨*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06년 수능 / 천재(고) 1]

- * 삼킨 :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 덩그럭 불 :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 잠착하다 :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 책력 : 달력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 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어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끌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
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
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06년 수능]

- (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O, X)
[06년 수능 15번 ① 변형]

(가)는 겨울로 나타난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와 기다림에 대하여 담담하게 말하고 있고, (나)는 청산의 생명력과 그와 관련한 소망과 그리움을 반복적인 표현과 영탄법, 빠른 호흡 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③ 점층법

-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다. [07년 6평 17년]
-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7년 수능 52번]
- 주제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점층적으로 드러낼 것. [쓰 : 12년 6평 9번]
-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마무리할 것. [쓰 : 13년 수능 10번]

점층은 '수신(修身) - 제가(齊家) - 치국(治國) - 평천하(平天下)'와 같이 그 의미나 내용, 감정 등을 점차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계랑의 시조 [07년 수능 / 해냄!]

-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X) [07년 수능 52번 ③]

봄에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계절적 심상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김수영, '눈' [두산Ⅱ, 미래엔Ⅰ, 신사고Ⅱ, 지학(권)Ⅱ]

- 문장의 반복과 확장을 통한 의미의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X) [07년 수능 52번 ㉓ 변형]

'눈은 살아 있다'와 '기침을 하자'의 강조를 통해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갈망과, 부정적인 것은 버리겠다는 의지가 나타난다.

④ 반복법

- ㉔ : 반복을 통해 아버지의 등장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책임감을 부각하고 있다. [05년 6평 43번]
- ‘노오란 우산기’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05년 수능 19번]
-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07년 6평 17번]
-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07년 수능 29번]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7년 수능 52번]
- ㉔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8년 6평 16번]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08년 6평 17번]
-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08년 9평 15번]
-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08년 수능 14번]
-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09년 수능 32번]
-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10년 6평 13번]
-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10년 6평 13번]
-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0년 9평 23번]
-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10년 수능 35번]
-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12년 9평 31번]
- [B]는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12년 9평 41번]
- <1>, <2>, <3>의 각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 [12년 수능 35번]
-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13년 6평 14번]
-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13년 9평 27번]
- ‘~다면’, ‘~ 끝에’ 등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40번]

반복법은 어떠한 시어나, 시구, 시행, 또는 구조 등이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내용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운율이 형성된다.

<p>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p> <p>㉔ <u>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u>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p> <p>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p> <p>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p>	<p>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p> <p>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일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윤동주, ‘길’ [08년 6평 / 비상(유) 1]</p>
---	---

- ㉔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 X) [08년 6평 16번 ㉔]
- 화자 앞의 길은 자아성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돌이 연달아 있고, 담은 굳게 닫혀 있고, 풀 한 포기 없는 이러한 상황은 험난하고 고달픈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였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이 떼어났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빛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김기택, '멸치' [13년 9평 / 지학(권) 1]

-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O, X) [13년 9평 27번 ②]

생명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것이다'의 반복을 통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⑤ 과 장 법

• ㉞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07년 9평 31번]

과장은 어떤 일을 크게 부풀려 말하는 것으로 ‘할 일이 산더미 같다’라거나 ‘간이 콩알만해졌다’와 같은 표현이 그 예시에 해당한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이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㉞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뎛더랴*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어라

윤선도, ‘만흥’ [07년 9평 / 지학(최) 11]

* 하암 :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럴 : 부러워할. / * 삼공 : 삼 정승.
 * 만승 :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뎛더랴 : 약았더랴.

• ㉞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07년 9평 31번 ④]

천자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자신의 현재 처지와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⑥ 열 거 법

•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2년 수능 31번]

열거법은 말 그대로 서로 관련성 있는 단어나 구절을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얇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뱃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돌너 상시(常時)과저*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잣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요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고

이광명, '복찬가' [12년 수능]

* 꿈을 돌너 상시과저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 학발자안 : 머리가 하얗게 센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O, X) [12년 수능 31번 ㉔]

유배지에서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화자와 일부 자연물의 상황이 대조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소재의 열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 조각도
막대 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질*도 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 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수도 땀장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백석, '모닥불' [지학(권) I, 창비 I, 천재(김) I]

* 새끼오리 : 새끼줄의 가닥. / * 개니빠디 : 개의 이빨. / 질 : 깃털.

- 열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O, X)

1연에서는 모닥불 속에 타고 있는 대상들을, 2연에서는 그 모닥불을 쪼고 있는 대상들을 나열하여 소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4 기타 표현법

개념

1. 상징(象徵) :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2. 감정이입(感情移入) :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그 대상이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3. 대조(對照)·대립(對立)·상반(相反)·대비(對比) :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부각하여 표현하는 것.

마인드 맵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06년 6평]

'바다'가 많은 작품 속에서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위 시에서 '바다'는 '냉혹한 현실'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듯 어떤 시어의 경우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된다. '순수' 또는 '순진'을 상징하는 '나비'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위 시에서는 '청무우밭'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다'와 '청무우밭'은 대조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① 상 징

- ㉞ : 막내동이의 신발과 대비하여 가장의 무거운 책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05년 6평 43번]
-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07년 수능 29번]
-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08년 6평 15번]
-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08년 6평 16번]
- ㉡와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08년 6평 18번]
- [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08년 9평 16번]
- ㉢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09년 6평 22번]
-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09년 수능 30번]
-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년 9평 21번]
- [A]와 [C]에서 붉은 모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11년 수능 29번]
-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12년 6평 23번]
-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13년 6평 13번]
-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13년 9평 28번]
-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13년 9평 28번]

상징은 ‘대한민국’이나 ‘평화’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정서를 ‘무궁화’나 ‘비둘기’ 같은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상징은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작품 해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p>지상(地上)에는 / 아홉 켄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叟)가 다른 아홉 켄레의 신발을.</p> <p>㉞ 내 신발은 /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동아 귀염동아 / 우리 막내동아</p> <p>미소하는 /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여기는 /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p>	<p>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p> <p style="text-align: right;">박목월, ‘가정(家庭)’ [05년 6평]</p>
--	---

- ㉞ : 막내동이의 신발과 대비하여 가장의 무거운 책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O, X) [05년 6평 43번 ②]

생활인으로 살아야 하는 시인의 힘겨운 삶과 자식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 의식이 드러나 있다. ‘십구문반’이라는 화자의 신발 크기는 ‘육문삼’의 막내의 신발 크기와 대조를 이룬다.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웃소매에 스며들었다.

김광균, '수철리*' [12년 6평]

* 수철리 :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O, X) [12년 6평 23번 ㉔]

'동생의 가슴 우'에 내리는 '비', 쌓이는 '눈'과 '이마 우에서' 속삭이는 '별'은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와 함께 죽음의 적막함과 공허함을 상기하는 소재이다.

동풍이 건 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좇아 베개 말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땠다 여기실고.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걸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갓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고.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열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쓰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고.

정철, '사미인곡' [13년 6평 / 미래엔Ⅱ, 비상(유)Ⅱ, 신사고Ⅱ, 지학(권)Ⅱ]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O, X) [13년 6평 13번 ㉔]

매화, 옷, 청광, 양춘 등은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과 그리움을 상징한다.

개념+

1. 함축 : 어떤 낱말이나 대상에 사전적 의미 이외에 문맥이나 상황에 따른 암시적, 내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 ㉠~㉣ 중 ㉠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05년 9평 21번]
- ㉠와 ㉡에 함축되어 있는 화자의 심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06년 6평 58번]
-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07년 수능 30번]
-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08년 6평 15번]
-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08년 6평 16번]
-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08년 6평 18번]
- ‘아무일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08년 9평 14번]
-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08년 수능 17번]
-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10년 9평 22번]
- (다)의 ㉠~㉣ 중 함축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12년 수능 36번]

<p>나무는 자기 몸으로 /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의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p>	<p>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입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p> <p>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10년 9평 / 지학(권) I, 창비 II, 천재(고) I]</p>
---	---

-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O, X) [10년 9평 22번 ㉢]

겨울의 추위를 나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牀)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애서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 만(灣)*의 파선도
설롱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중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말에 엮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08년 9평 / 교학(윤) I, 지학(권) I]

* 노령 : 러시아의 영토. / * 자래운 : 키운.

* 아무을 만, 니코리스크 : 오희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 설롱한 : 춥고 차가운.

- '아무을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O, X)
[08년 9평 14번 ③]

2연의 내용에서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러시아 이곳 저곳을 다녀야했던 아버지의 삶의 모습과, 낯선 곳에서 임종을 맞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② 감 정 이 입

- ㉠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07년 6평 40번]
- ‘공산 촉루’,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 [07년 수능 54번]
-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입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07년 수능 54번]
- ㉠, ㉡는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08년 9평 24번]
-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10년 수능 37번]
- [A]는 감정 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12년 9평 41번]

똑같이 창 밖에서 새가 ‘ 짹짹’하고 있더라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새가 즐겁게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새가 구슬피 우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대상인 새에게 이입하여 그 대상이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감정 이입’이라고 한다. 감정 이입이 나타날 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닐 경우, ‘의인화’도 함께 나타난다.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짙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녀(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영킨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조으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거늘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에 벌였어라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송순, ‘면양정가’ [07년 6평 / 교학(조) 1]

* 산람 :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 경궁요대 :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옥해은산 : 눈 덮인 들판과 산.

- ㉠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O, X) [07년 6평 40번 ①]

‘면양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부근의 경관과 풍류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찮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A]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불가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 끝에 슬슬 풀려
삼동설한 쌓은 눈이 봄 춘 자 만나 슬슬 녹네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12년 9평 / 미래엔Ⅱ, 천재(김) I]

* 황연대각 : 환하게 모두 깨달음. / * 화용월태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 [A]는 감정 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O, X) [12년 9평 41번 ①]

덴동어미는 청춘과부에게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즐길 수 있을 때 즐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개념+

1. 객관적 상관물(정서 환기) : 화자가 주관적인 정서를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소재를 통해 그 정서를 환기하는 것.

- (다)는 지명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07년 6평 15번]
- [A]는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08년 9평 16번]
-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10년 수능 34번]
-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13년 9평 27번]

우리 집도 아니고 /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牀)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 만(灣)*의 파선도
설롱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중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 낮을 덮었다

[A] 우리는 머리말에 엮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08년 9평 / 교학(윤) I, 지학(권) I]

* 노령 : 러시아의 영토. / * 자래운 : 키운.

* 아무을 만, 니코리스크 : 오희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 설롱한 : 춥고 차가운.

- [A]는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O, X) [08년 9평 16번 ①]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면, 그 자연물은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다. 위 시에서 '풀벌레'의 소리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뱀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뱀꼭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뱀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뱀꼭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뱀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송수권, '지리산 뱀꼭새' [10년 수능]

* 길뜰 : 길이 덜 든. /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O, X) [10년 수능 34번 ㉔]

위 시에서 화자는 '설움'이 지리산에 숨어사는 한 마리 뱀꼭새의 울음인 것과, 그 울음에서 발원한 한줄기 강이 남해로 흘러 들어 무수한 섬을 생기게 했음을 깨닫는다. 또한 그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지리산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③ 대조 대립 상반 대비

-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 [05년 6평 39번]
- 윤선도 : 저는 이 선생님처럼 어부를 등장시키고,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나누어 보려 했지요. [05년 6평 40번]
- (나)와 (다) 모두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다. [05년 6평 41번]
- ㉞ : 막내동이의 신발과 **대비**하여 가장의 무거운 책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05년 6평 43번]
-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05년 9평 20번]
-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다. [05년 수능 37번]
-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통해 어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06년 9평 20번]
-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07년 6평 38번]
-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07년 9평 28번]
-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07년 9평 34번]
-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07년 수능 32번]
-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08년 6평 13번]
-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08년 9평 16번]
-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08년 9평 20번]
-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반복하고 있다. [08년 수능 14번]
-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09년 6평 23번]
-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09년 6평 47번]
-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09년 9평 28번]
-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0년 9평 21번]
-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10년 9평 26번]
-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10년 수능 32번]
-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10년 수능 32번]
- 2연의 ‘실제의 뽕꼭새’는 ‘여러 마리의 뽕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10년 수능 35번]
-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11년 9평 13번]
-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11년 9평 13번]
-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11년 9평 15번]
-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11년 수능 15번]
- [A]는 [C]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11년 수능 29번]
-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12년 6평 19번]
- 제2수의 명령된 ‘내 알’은 제3수의 ‘내 뜻’에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년 6평 24번]
-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12년 9평 31번]
-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2년 수능 31번]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12년 수능 31번]
-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13년 6평 14번]
- ㉠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13년 6평 15번]
-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13년 9평 27번]
-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13년 9평 28번]
-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5번]
- ㉡ : ‘파랑성’과 ‘진환’을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준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6번, B형 35번]
- (가)와 (다)는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13년 수능 46번]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견주되 그 대상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대조, 대립, 상반, 대비 등으로 부른다.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玉人金釵)* 비겼으니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빙자옥질(冰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과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누 있으리

안민영, '매화사' [07년 6평 / 해냄Ⅱ]

* 옥인 금차 : 미인의 금비녀. / * 척촉 : 철쭉. / * 백설 양춘 : 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

-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O, X) [07년 6평 38번 ④]

'두견화'는 '동각에 숨은 꽃'으로 매화와 달리 '백설 양춘'에 감히 필 수 없는 꽃이다.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연 바다로
배를 내어 밀 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갈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서정주, '추천사' [07년 9평 / 천재(고) 1]

-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O, X) [07년 9평 28번 ④]

춘향전을 모티프로 하여 지상적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열망을 노래하고 있다.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별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별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백석, '적막강산' [11년 9평]

* 벌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 덜거기 : 늙은 장끼.

-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O, X) [11년 9평 15번 ④]

'산'과 '벌'은 모두 온갖 새들의 소리로 시끄러운 공간으로, '적막강산'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과 상반을 이룬다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記)*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엿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맏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이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정철, '성산별곡' [13년 수능]

* 한기 : 책. /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씻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씻었다는 고사.
* 조장 : 기개 있는 품행. / * 풍입송 : 악곡 이름.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O, X) [13년 수능 46번 ②]

자연을 나타내는 대상들과 속세를 나타내는 대상들이 대조되어 있다.

개념+

1. 색채 대비 : 두 가지 이상의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

- 이현보 : 윤 선생님의 시에도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분명하던데, 제가 잘못 읽었나요? [05년 6평 40번]
- (나)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한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08년 9평 21번]
- (가)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11년 수능 27번]
-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13년 수능 32번]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삐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여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설장수, '어옹(漁翁)' [08년 9평]

* 옥당 : 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청의 별칭.

-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O, X) [08년 9평 21번 ②]

자연 속에서의 화자의 모습은 '푸른색'의 이미지로, 세속에서의 삶의 모습은 '붉은색'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다.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하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만은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 쏘냐

정극인, '상춘곡' [11년 수능 / 미래엔 II, 신사고 II, 지학(권) I, 해냄 II]

* 수가모옥 : 몇 칸 초가집. / * 울울리 : 우거진 숲.

-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O, X) [11년 수능 27번 ②]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흥겨움을 노래하고 있다. 세속을 의미하는 '홍진'에서 붉은 색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난다.

적용 문제

태양을 의논(議論)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흠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城)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신석정, '꽃덤불' [비상(유)Ⅱ, 창비Ⅱ]

(1) 직유법의 예시를 찾아 모두 적어 보자.

▶

(2) 반복법의 예시를 2연 찾아 모두 적어 보자.

▶

(3) 대구법이 드러난 연을 찾아 써 보자.

▶

(4) 위 시가 광복 직후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창작되었다고 할 때, '꽃덤불'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여 적어 보자.

▶

<정답>

(1) 달빛이 흠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2) '언제'와 '우리'라는 시어의 반복, '이야기하며'라는 시구의 반복, '가슴을 쥐어뜯으며'와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와 같은 변형된 반복 등이 나타남

(3) 3연

(4) 진정하고 온전한 민족 국가(혼란이 사라진 조국)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뜻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유치환, '깃발' [천재(고) I]

(1) 위 시에 나타난 표현법을 모두 찾아 써 보자.

▶

.....

.....

(2) '깃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모두 찾아 써 보자.

▶

.....

(3) '해원'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여 적어 보자.

▶

<정답>

- (1) 은유법, 직유법, 영탄법, 도치법, 생략법, 역설법
- (2)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 애수, 슬프고 애달픈 마음
- (3) 이상향

기출로 확인하기

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년 예비 시행 A형 40번]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쪽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이 사랑을 훑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14년 예비 시행 A형 / 신사고 I]

- ① '기다리리', '훑게 하리' 등의 서술어로 화자의 의지나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다면', '~끝에' 등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2.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년 수능 36번]

<p>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삐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든*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삐꼭새임을 / 알아냈다.</p> <p>지리산 하 [A]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꼭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p> <p>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p> <p>섬진강 섬진강 /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p> <p>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송수권, '지리산 삐꼭새' [10년 수능]</p> <p>* 길든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p>	<p>무등산 할 활개 뒀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B]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랴 내리랴 모이랴 흠으랴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뒀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굳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정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p> <p style="text-align: right;">송순, '면앙정가' [10년 수능 / 교학(조) I]</p> <p>*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p>
---	---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울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년 9평 28번]

<p>(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p> <p>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p> <p>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나</p> <p>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짚는다.</p> <p>어둠을 짚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p> <p>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p> <p style="text-align: right;">윤동주, ‘또 다른 고향’ [13년 9평 / 교학(조) I, 미래엔 II]</p>	<p>(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떤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오세영, ‘자화상·2’ [13년 9평] * 형형한 :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p>
--	---

[보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할 수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4. 다음 작품과 [보기]의 작가가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5년 6평 40번]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랴.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면 만첩(萬疊) 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이현보, '어부단가' [05년 6평 / 미래엔 II]

* 만경파 : 넓은 바다 물결.
 * 홍진 :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제세현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

— [보기] —

어와 저물어 간다 연식(宴息)*이 마땅토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흥(興)치며 걸어가서
 지국충(至菊叢) 지국충(至菊叢) 어사와(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峰)에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껴 있자.

윤선도, '어부사시사' [05년 6평 / 미래엔 II, 비상(유) I, 비상(박) I, 천재(정) I, 해냄 I]

* 연식 : 편안하게 쉬.

- ① 윤선도 :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시를 보면 푸른색, 흰색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 ② 이현보 : 윤 선생님의 시에도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분명하던데, 제가 잘못 읽었나요?
- ③ 윤선도 : 저는 이 선생님처럼 어부를 등장시키고,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나누어 보려고 했지요.
- ④ 이현보 : 윤 선생님은 흥(興)이라는 정서를 끌어냈는데, 저는 아직도 무심(無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⑤ 윤선도 : 이 선생님의 시에 나타나는 '없으니', '잊었거니', '더욱', '없으랴' 등의 시어에서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군요.

5. 기타

1 시적 긴장

-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적 긴장**을 높여 준다. [05년 9평 23번]
-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07년 수능 29번]
-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10년 6평 13번]
-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10년 수능 32번]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12년 6평 21번]
-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2년 수능 31번]

시적 긴장이란 시를 시답게 하는 것으로, 좋은 작품에서는 모두 이러한 긴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기출되는 시 작품의 경우 그 작품성을 인정 받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기출되는 모든 시 작품의 경우 시적 긴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시적 긴장

미국의 뉴 크리티시즘(New Criticism)의 비평가 테이트(A. Tate)가 문자적 의미(extension)와 비유적 의미(intention)에서 'ex'와 'in'을 떼어 버리고 'tension'만 남은 것을 문학의 특징으로 제시한 이래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문자적 의미는 바깥을 향하는 것이고, 비유적 의미는 작품 내부로 향하는 것이므로 작품 속에서 긴장이 생겨난다. 우리들은 좋은 작품에서 강한 긴장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품 속에 내포된 서로 반대되는 세력들의 밀고 당김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음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는 작품은 문학적 긴장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문학적 감동을 증폭시킨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158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 '교목(喬木)' [07년 수능 / 해냄 II]

-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O, X) [07년 수능 29번 ㉔]

'교목'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大地)의 고백(告白).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寂寞)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고은, '눈길' [비상(유) I, 지학(권) II]

-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O, X) [10년 6평 13번 ④]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눈 덮인 길을 바라보면서 느낀 평화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둠'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과 달리 위 시에는 내면 세계의 안정과 평화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 낮설게 하기

- ‘장벽에 /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낮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06년 수능 16번]

‘낮설게 하기’란 일상적이고 낯익은 것을 낮설게 바꾸어 그로 인해 대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문학적 용어이다.

낮설게 하기

일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이미지의 시적 사용은 독특한 의미론적 교체와 묘사된 대상을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로 이동시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시적 이미지는 습관적인 것을 새로운 견지에서 표현하거나 또는 그것을 예기치 않은 문맥 속에 넣음으로써 낮설게 만든다. 다시 말해 습관적이며 자동화된, 낯아 버린 사물에 대한 인식은 ‘낮설게’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표현되어야 한다. 시인의 ‘깃이겨지고 완곡하게 표현된 담론’은 우리들에게 세계에 대한 신선하고 천진난만한 비전을 부활시켜 준다. 이러한 형식주의들의 견해는 필연적으로 예술 작품에 있어서 기법(技法)에 대한 강조로 나아가게 된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164

노주인의 장벽(陽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킨*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06년 수능 / 천재(고) 1]

- * 삼킨 :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 덩그럭 불 :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 책력 : 달력

[보기]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록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와 잎사귀를 말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 이 있음.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 아무 때나.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 이미지 : ……
 - 특이한 표현 : ……

'장벽에 / 무시로 인동 삼킨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O, X) [06년 수능 16번 ②]

차를 마시는 일상적인 행동을 장벽에 인동 삼킨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으로 바꾸어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3 관습적 표현(관용 어구 사용)

- ⑥는 ③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08년 수능 15번]
- 제3수의 종장과 제4수의 초장에서는 일상적 관용 어구를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13년 수능 49번]

관습적 표현은 관용적 표현과 같은 말로 어떤 사회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을 말한다. 속담이나 고사성어, 또는 ‘입학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와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관습(慣習)

문학 작품 속에서 관습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속성을 지닌다. 첫째는 반복성(反復性)이다. 어떤 주제, 형식, 수사법은 문학사 속에서 다소의 변형을 거치면서 반복된다. <단군 신화> 속에서의 공의 변신이 이후 문학 작품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주제의 반복이며, 시조의 3장 6구 형식이 정착되고 변형되면서 현대시에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은 형식의 반복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임금의 은혜로 돌려 표현하는 고전 시가의 수사법은 조선 시기에 주로 사용된 수사법의 반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집단성(集團性)이다. 한 작품은 개별 작가의 창조로 존재하지만, 이는 후대의 작가들에게 모방과 극복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작가와 독자 양편의 머릿속에 저장되는 집단적 기억으로 굳어진다. 셋째는 자연스러움이다. 모든 사회적 약속은 작위적인 까닭에 오히려 작위성을 감추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형식을 창안해 낸다. 이러한 관습은 일반적으로 작가에 의해 창안되고 독자들에게 수용되면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역사적 흐름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이 고정 불변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창안에 의해 일부 혹은 전체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관습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문학의 변천사에서 일반적이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67-68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③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 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날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김광균, '와사등' [09년 6평]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荻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⑥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고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 제

5수>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08년 수능]
* 계교 : 서로 견주어 살펴봄. / * 부급동남 :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 ⑥는 ③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O, X) [08년 수능 15번 ②]

시간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는 것은 관습적인 표현이다.

벗님네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찌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인고
우리는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건 망혜(幘巾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
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창 달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라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제5수>

권섭, '독자왕유회유오영(獨子往遊戲有五詠)' [13년 수능]

* 흥동 : 흥영 겨워 다님. / * 승유편 :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 양신미경 :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 제3수의 종장과 제4수의 초장에서는 일상적 관용 어구를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O, X) [13년 수능 49번 ④]

제3수의 종장에서는 소박한 차림으로 자연을 즐기다 승유편을 지어 후세에 남기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며,
제4수의 초장에서는 남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은 봄나들이를 갈 것임을 말하고 있다.

2. 산문 문학(소설)

• 1. 개관 •

• 2. 내용 •

- 1) 인물
 - ① 인물의 종류
 - ② 인물의 성격
- 2) 사건
- 3) 갈등
 - ① 갈등의 종류
 - ② 갈등의 고조와 해소
- 4) 배경
 - ① 시간적 배경
 - ② 공간적 배경
 - ③ 시대적 배경

• 3. 형식 •

- 1) 서술자, 시점
 - ① 서술자
 - ② 시점
- 2) 문체, 제시 방법
 - ① 문체
 - ② 장면 제시 방법
- 3) 구성
 - ① 평면적 구성
 - ② 입체적 구성
 - ③ 병렬적 구성
 - ④ 액자식 구성

• 4. 기타 •

- 1) 병치
- 2) 복선, 암시
- 3) 의식의 흐름 기법

1. 개관

1. 정의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현실에 있을 법하게 구성하여 이야기로 표현한 언어 예술

2. 특성

- 1) 진실성 : 현실의 사실적 모습보다는 그 현실 속에 숨겨진 삶의 보편성이나 진리를 추구함
- 2) 허구성 : 현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소설가의 개성과 상상력에 의해 선택되고 재질서화 된 별개의 예술 세계임

3. 요소

- 1) 내용
- 2) 형식

2. 내용

1 인물 : 소설 속 행동의 주체

- 인물간의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05년 6평 53번]
-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심현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05년 6평 55번]
-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6년 6평 24번]
- 작중 인물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년 6평 25번]
- 관(官)의 힘에 기대어 위세를 부리는 인물을 풍자하고 있군. [06년 6평 27번]
- 돈의 힘을 알고서 능란하게 쓸 줄 아는 인물의 처세를 보여주고 있군. [06년 6평 27번]
- 줄표(—)와 줄임표(…)의 활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06년 6평 46번]
- ㉠을 통해서 동생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6년 6평 48번]
-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이 잘 드러난다. [06년 9평 31번]
- ㉡으로 보아 '사 급사'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06년 9평 35번]
- [A]의 '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년 9평 47번]
- (가)를 고려할 때, (나)의 '천자'의 처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06년 수능 51번]
- ㉢에 담긴 양소유의 심정을 시조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07년 6평 27번]
- 부정적 인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07년 9평 44번]
-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07년 수능 15번]
- ㉣ :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07년 수능 43번]
- 위 글의 내용을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07년 수능 45번]
-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08년 6평 23번]
- ㉤~㉥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년 6평 24번]
- '김덕령'에 대해 정리한 다음의 역사 기록을 참조하여,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년 6평 45번]
- 인물 특성을 과장한 것은 김덕령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08년 6평 45번]
- 위 글을 통해 '전우치'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년 9평 29번]
- 전우치의 태몽을 제시하여 인물의 신이성을 강화했군. [08년 9평 30번]
- 전우치의 득도 과정을 보여 주어 초월적 인물임을 강조했다. [08년 9평 30번]
- 전우치의 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역사적 실재성을 부각했군. [08년 9평 30번]
-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8년 9평 40번]
- ㉦와 ㉧를 바탕으로 '민 노인'의 예술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08년 수능 50번]
- 이야기 I의 특정 인물과 이야기 II의 특정 인물만 서로 갈등 관계를 맺도록 하여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09년 6평 31번]
- 인물A가 인물 B와 C의 입을 통해서만 인물D와 E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 II의 비중이 약화된다. [09년 6평 31번]

- 인물A가 이야기 II 속의 인물 D와 E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인물D와 E의 실상 규명과 관련되어 있다. [09년 6평 31번]
-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9년 6평 36번]
- 등장인물의 수를 늘려 설정된 사건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09년 6평 38번]
-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09년 수능 20번]
- ㉠ :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09년 수능 48번]
- ㉠~㉢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가 다른 하나는? [10년 6평 23번]
- ㉠에 담긴 '용왕'의 생각을 가질 잘 드러낸 것은? [10년 6평 45번]
-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10년 9평 40번]
-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둘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10년 수능 18번]
- 위 글의 등장인물이 했음직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년 수능 39번]
-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11년 6평 47번]
-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년 9평 35번]
- '화산댁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년 6평 25번]
- 새 인물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 [12년 6평 26번]
-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12년 9평 13번]
- 위 글의 인물 간 관계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년 9평 46번]
- 등장인물의 선악 대결과 삼각 관계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1번]
- 비유적 진술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2번]
- 작중 인물의 시각을 통해 인물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2번]
-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2번]
- '김 반장'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년 예비 시행 A형 38번]
-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년 예비 시행 B형 31번]
- ㉠ : 리듬감 있는 표현으로 인물들의 기대감을 노출시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2번]
- ㉡ : 관용적인 표현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물의 태도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2번]
- ㉢ : 사실적인 인물 묘사로 친근감을 유도하여 인물에 대한 동정심을 자아낸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2번]
- ㉣ : 인물이 제어할 수 없는 표현이 반복되어 상황을 회화화한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2번]
- 돈키호테와 놀부는 환상에 빠져 이상적 세계의 재건을 모색하는 인물이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3번]
- 돈키호테는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고, 놀부는 개인의 변혁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3번]
- ㉤ : '형식'은 개화된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7번]
- ㉥ : '병욱'은 타인의 일에는 관여하기를 싫어하는 냉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7번]
-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년 예비 시행 B형 39번]
-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13년 6평 26번]
-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13년 9평 47번]
- ㄴ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계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13년 9평 50번]
- ㄴ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13년 9평 50번]
- ㄴ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이군. [13년 9평 50번]
-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13년 수능 13번]

소설에서 '인물'은 인물 그 자체와 그 인물의 성격까지도 포함하는 말로, 소설가는 소설의 주제를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창조해낸다.

마인드 맵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몹쓸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天方地方) 다니다가 낙상(落傷)하기 쉽소. 이훈량은 오실라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임을 만나 만단정회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애고, 답답하여라!”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임을 생시에 본단 말가?”
문뜬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여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相思不見) 그린 임을 이리 쉬이 만날쏜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일러니, 이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13년 9평]

위 고전소설에서 춘향과 몽룡은 주인공에 해당하는 중심인물이 되고, 춘향의 모친은 주변인물이 된다. 그리고 춘향은 절개 있는 여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인물의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춘향은 절개를 소중히 여기는 당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 인물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도라는 불의에 항거하며, 이몽룡과 혼인을 이뤄낸다는 점에서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전 줄거리]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며 발악하는 아내를 피해 '나'는 집을 나온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경성역으로 갔지만, 돈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나와 이곳 저곳을 헤맨다.

나는 어디로 들입다 쓰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흥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이상, '날개' [08년 9평 / 비상(박)Ⅱ, 지학(권)Ⅰ, 창비Ⅰ, 천재(정)Ⅲ]

* 미쓰꼬시 :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 * 회탁의 : 회색의 탁한.

-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O, X) [08년 9평 40번 ㄹ]

현대인의 자아 분열과 내면에 대한 성찰을 그린 작품이다. '나'라는 인물이 미쓰꼬시 옥상에서 내려다 본 풍경에 대한 인상과 그에 대한 생각을 '금붕어 지느러미'에 비유하고 있다.

[이전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 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계연과 체 장수 영감이 떠난 뒤 성기는 앓아 눕는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귓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들여다나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리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리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이 빼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김동리, ‘역마’ [13년 9평 / 비상(유)II, 천재(김) I]

* 통정 : 통사정.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 * 명도 : माम을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보기]

ㄱ. 김동리는 「역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ㄴ. 「역마」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 ㄴ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O, X)

[13년 9평 50번 ④]

명도를 찾아가고 명도의 말을 믿는 행위는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인물의 종류

인물은 그 중요도에 따라, 성격 변화 양상에 따라, 특성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인물

인물의 유형은 공시적(共時的, synchronic) 관점과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공시적을 볼 때 인물은 우선 작품 속에서의 역할과 비중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사건을 주도해 가는 인물을 주인공(hero) 또는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 주인공에 맞서 나가는 반동 인물을 안타고니스트(antagonist),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조역이나 단역을 엑스트라(extra) 또는 트리타고니스트(tritagonist)라 한다. 또 서사물에서 인물이 변하지 않느냐 변화느냐에 따라 정적 인물(static character)과 동적 인물(dynamic or developmental character)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적 인물이 동적 인물보다 더 원시적 서사 형식에 특징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종종 같은 작품 속에서 마주치기 때문이다. 정적 인물의 특별한 경우는 한 유형(type)으로 불리는 경우인데, 예컨대 인색하기만 한 구두쇠처럼 인물의 속성들이 동일하게 유지될 뿐 아니라 그것들이 수적으로 아주 적고 종종 품질이나 결함의 최고 정도를 표현한다.

그리고 서사체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주요 인물(major character)과 부수적 기능만 허용되는 부수 인물(minor character)로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물론 두 개의 극단일 뿐이고 무수한 중간적 케이스가 존재한다.

공시적 인물 유형 가운데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인물을 복잡성(complexity)의 정도에 따라 평면적 인물(flat character)과 입체적 인물(round character)로 나눈 포스터의 구분일 것이다. 그에 의하면 평면적 인물이란 단일한 개념이나 성질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물로서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 …… 입체적 인물이란 한 작품 속에서 환경과 사건의 진전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물인데, 포스터는 한 인물이 평면적인지 입체적인지를 진단하는 방법을 다음처럼 제시하고 있다. “입체적 인물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 인물이 믿음직스러운 방법으로 독자를 놀라게 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다. 독자를 놀라게 하지 못하면 그는 평면적 인물이다.”

국어교육학 사전(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출판) p.630-631

㉠ 중심 인물 / 주변 인물

- (마)의 인물 간 대화는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굳은 결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05년 수능 56번]
- 인정세태를 그리기 위해서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기법을 사용했군. [06년 6평 27번]
-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 있다. [07년 6평 24번]
- 중심인물들이 상대를 공박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07년 6평 52번]
- ㉠ :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07년 수능 43번]
- 위 글은 <보기>에 비해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08년 6평 44번]
- 주인공의 능력을 보여 주는 수단이다. [08년 9평 31번]
- 주인공의 예언 능력을 보여 준다. [09년 6평 37번]
-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을 제시한다. [09년 6평 37번]
-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09년 6평 37번]
- 주인공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09년 6평 37번]
- 주인공의 영웅성과 함께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을 부각시켜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09년 6평 38번]
- 주인공의 시련을 좀 더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한편 주제를 심화시킨다. [09년 6평 38번]
- 선천적으로 초월적 힘이 주어진 경우보다 고난 극복에 대한 주인공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 [09년 6평 38번]
-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10년 6평 43번]
- ㉡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에 대해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11년 9평 23번]
- 주인공의 반복적 행위를 서술하여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11년 수능 40번]
- 달아나면 길할 것이라고 말한 '맹인'의 태도 때문에 주인공의 금지된 사랑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군. [11년 수능 49번]
- 초월적 인물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이 예고되어 있다. [12년 6평 40번]
-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13년 6평 36번]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13년 9평 20번]
-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3년 수능 13번]

인물은 그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인물을 중심 인물 혹은 주인공이라고 하며, 덜 중요한 인물을 주변 인물이라고 한다.

[중모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루루 날아나도 복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엮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썽움썽하니 정욱(程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 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막 늘여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이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밝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 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적벽가(赤壁歌) [07년 수능 / 비상(박) II, 지학(권) II, 천재(김) II]

- ㉠ :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O, X) [07년 수능 43번 ㉠]

조조는 싸움에 져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조그마한 메추리를 보고 놀라고, 정욱은 그런 조조에게 핀잔을 주고 있다.

[이전 줄거리] 형과 동생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형은 누워 있는 동생의 어깨를 안으며,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한다.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불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걷지덜,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의의 경비병들을 흘끔 결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별쪽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허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고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이호철, ‘나상(裸像)’ [11년 수능]

- 주인공의 반복적인 행위를 서술하여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O, X) [11년 수능 40번 ㉔]

우는 동생을 나무라면서 정작 본인이 울고 마는 형의 순수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위 작품에서 형은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천진만만한 ‘벌거숭이(나상) 인간형’으로 근원적 인간성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존재이다.

㉔ 평면적 인물 / 입체적 인물

-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05년 9평 25번]
-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얼핏 보면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09년 9평 22번]
- 다양한 체험의 나열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2번]
- (나)에 비해 (가)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13년 6평 27번]

인물은 성격 변화 양상에 따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눈다.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이고, 입체적 인물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을 말한다.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복에 두고 온 논밭 저당잡고 돈도 썩 달랠라.”
 입이 험한 그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목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05년 9평]

-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O, X)
 [05년 9평 25번 ㉔]

위 작품은 한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인한 서글픈 사회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위에 제시된 부분에서 인물의 성격을 일부 파악할 수 있지만,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전 줄거리] 어느 날 비렁뱅이 가객 하나가 저자 거리로 나타난다. 그는 '수추'였다. 그가 한 곡조를 부르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수추가 자신의 얼굴을 보여 주자, 사람들은 그에게 증오를 느끼게 된다. 가객 수추는 저자를 떠나 강을 건너간 뒤, 시냇가에서 음률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률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끊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다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얽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황석영, '가객' [13년 6평]

-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O, X) [13년 6평 27번 ④]

위 작품의 '나'는 온갖 시련을 겪은 후에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가객 '수추'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다.

㉔ 전형적 인물 / 개성적 인물

• 돈키호테와 놀부는 각각 중세 기사와 양반 지배층의 전형적 인물이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3번]

인물은 그 특성에 따라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형적 인물은 어떤 특정 부류나 계층의 보편적인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개성적 인물은 어떤 특정 부류나 계층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대부분 전형성과 개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다만 고전 소설의 인물들의 경우 전형성이 좀 더 강조되고, 현대 소설의 인물들의 경우 개성이 좀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출거리] 제비 다리를 고쳐준 뒤, 그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부자가 된 흥부의 이야기를 듣고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 뜨린다. 그리고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박을 켜지만 박을 켜 때마다 재산을 날리고, 매를 맞는다. 그러다 남은 두 통의 박 중 한 통을 따서 박을 켜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자, 그것으로 국을 끓여 먹는다. 그런데 그 국을 먹은 사람들은 말 끝마다 ‘당동’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놀부 딸도 당동, 아들도 당동, 며슴아이도 당동, 놀부 아주미도 당동, 온 집안이 모두 당동당동, 무슨 가야금 뜯고 풍류하는 것처럼 그저 당동당동, 서로 나무라며 당동당동, 이렇듯이 당동당동하니 담 너머 왕 생원이 들은즉 놀부 집에서 별별 아룀한 풍류 소리가 나거늘 왕 생원이 곧 놀부를 불러 묻는 말이,
 “여봐라 놀부야. 너희가 무엇을 먹었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놀부가 여쭙기를,
 “소인의 집에서 박을 심었더니 박이 열리어 국을 끓여 먹었더니 그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당동.”
 생원이 믿지 아니하여 왈,
 “네 말이 터무니없도다. 박국을 먹었기로 무슨 그러할 리가 있으랴. 그 국 한 사발만 떠 오너라.”
 놀부 국 한 그릇을 떠다 주니 생원이 받아 맛을 보매 국맛이 가장 아름다운지라. 그 국을 달게 먹고,
 “여봐라 놀부야. 그 국맛이 유명하구나 당동. 아차 나도 당동, 어쩌서 당동 하느냐? 당동.”
 하며 또 당동당동 소리가 절로 나거늘 생원이 국먹은 것을 뉘우쳐 놀부를 꾸짖고 당동당동 하며 제 집으로 돌아간 후 놀부 역시 신세를 생각하니,
 ‘부자가 될 양으로 박을 심었다가 많은 재산을 다 없애고 전후에 없는 고생과 매 맞은 일이며 끝에 와서는 온 집안사람이 당동 소리로 병신이 되니 이런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작자 미상, ‘흥부전’ [14년 예비 시행 B형 / 미래엔Ⅱ, 비상(박)Ⅱ, 신사고Ⅱ, 천재(정)Ⅱ, 해냄Ⅱ]

[보기]

17세기 초반에 창작된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중세의 기사도 이야기에 빠져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고 학대당하는 사람을 돕겠다고 모험에 나선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16세기 서구 사회에 유행한 기사도 이야기에서 사랑에 빠지고 모험에 나서던 기사를 패러디하고 있다. 여기서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을 고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 돈

키호테와 놀부는 각각 중세 기사와 양반 지배층의 전형적 인물이다. (O, X)
 [14년 예비 시행 B형 33번 ①]

‘돈키호테’는 과대 망상증에 빠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놀부’는 탐욕스러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인물의 성격

- 위 글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다. 판단의 내용과 근거가 가장 적절한 것은? [06년 9평 45번]
-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06년 수능 48번]
- **인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07년 9평 15번]
-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07년 수능 15번]
-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08년 수능 47번]
-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9년 6평 28번]
-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12년 수능 14번]
-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13년 6평 27번]
-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성격**을 회화화하고 있다. [13년 9평 20번]
- ㉠의 ‘향라 적삼’과 ‘고운 햇빛’은 모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13년 9평 49번]

소설에서의 인물의 성격은 단순히 그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의 ‘캐릭터’로서의 인물의 특성을 포괄한다.

[이전 줄거리] 서 참위가 운영하는 복덕방에는 박희완 영감과 안 초시가 함께 모여 있는 날이 많았다.

박희완 영감이란 세 영감 중의 하나로 안 초시처럼 이 복덕방에 와 자기까지는 안 하나 꽤 쏠쏠히 놀러 오는 늙은이다. 아니, 놀러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는 공부도 한다.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대서업(代書業) 운동을 한다고 「속수국어독본(速修國語讀本)」을 노상 끼고 와 그 「삼국지」 읽던 투로, “간—상 도코—에 유키이마스카.(김 선생, 어디 가십니까.)” / 어찌고를 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수국어독본」 뚜껑이 손때에 절고, 또 어떤 때는 목침 위에 받쳐 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때까지 새까맣게 절어 조선총독부편찬(朝鮮總督府編纂)이란 잔 글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도록, 대서업 허가는 의연히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너나 내나 다 산 것들이 업은 가져 뭘 하니. 무슨 세월에……. 흥!”

하고 어떤 때, 안 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때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완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독본」을 푼 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냥이나 걷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이태준, ‘복덕방’ [07년 9평 / 비상(유) I, 지학(최) I]

- 인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O, X) [07년 9평 15번 <보기> ㄱ 변형]

위에 제시된 부분에서는 대화와 인물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하는 부분을 통해 안 초시의 성격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 집으로 옮겨 갔을 때도, 아이들은 민 노인을 에워싸고 역시 성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우리 같은 줄개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올렸다.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 노인으로서 듣기 싫지 않았다.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 주는 말이기도 했다.

“얘들아. 꺼져 가는 떠돌이 북쟁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민 노인의 겸사에도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품이 다른걸요.”

“맞아요. 우리가 칠 때는 죽어 있던 북소리가, 팽가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니까요.”

“성규, 이번에 참 욱보았다.”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 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꽤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 옛날에는 없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이런 식 담합이,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 볼 수는 없었으되.

최일남, ‘흐르는 북’ [08년 수능 / 교학(윤) I, 신사고 II]

-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O, X)

[08년 수능 47번 ③]

‘성격과 행위의 괴리’는 어떤 인물의 성격과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날수록 커진다.

적용 문제

싸움, 간통, 살인, 도둑,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복녀의 부처는 (사농공상의 제 이위에 드는) 농민이었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경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예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솔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개울에서 멍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열 다섯 살 나는 해에 동네 홀아비에게 팔십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서방(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이십 년이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민으로 밭도 몇 마지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 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복녀를 판 팔십 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동네 노인의 주선으로 소작밭께나 얻어 주면 종자만 뿌려 둔 뒤에는 후치질도 안하고 김도 안매고 그냥 버려 두었다가는 가을에 가서는 되는 대로 거둬서 '금년에 흉년입네' 하고 전웃집에는 가져도 안가고 혼자 먹어 버리곤 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한 발을 이태를 연하여 부쳐 본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몇 해를 지내는 동안 그는 그 동네에서는 밥을 못 얻으리만큼 인심과 신용을 잃고 말았다.

[중략 줄거리] 결국 복녀 부부는 칠성문 밖 빈민굴로 쫓겨나게 된다. 그해 여름 복녀는 기차모 송충이 잡이 인부로 들어가게 되고, 감독의 눈에 들게 된다. 그 이후로 복녀는 작업 감독에게 매음을 하여 품삯을 받게 되고, 송충이 잡이가 끝난 뒤에도 매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서 살아간다. 어느 가을 왕서방네 밭에서 고구마를 훔치다가 들킨 복녀는 이를 계기로 왕서방에게 몸을 팔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왕 서방이 새색시를 들인다는 소문이 난다.

마침내 새색시가 오는 날이 이르렀다. 칠보단장에 사린교를 탄 색시가 칠성문 밖 채마밭 가운데 있는 왕서방의 집에 이르렀다. 밤이 깊도록 왕서방의 집에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별난 악기를 뜯으며 별난 곡조로 노래하며 야단이었다.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 서서 눈에 살기를 띠고 방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다.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두 시쯤 하여 돌아갔다.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녀는 왕서방의 집안에 들어갔다. 복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리어 있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눈만 정처없이 두룩두룩하였다. 복녀는 다시 한번 왕서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우리, 오늘은 일이 있어 못가.”

“일은 밤중에 무슨 일.”

“그래두 우리 일이…….”

복녀의 입에 여태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짓것!”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찼다.

“자, 가자우, 가자우.”

왕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왕서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는 그의 손에 얼른얼른하는 낫이 한 자루 들리어 있었다.

“이 되놈 죽어라. 이놈, 나 때렸니! 이놈아, 아이구 사람 죽이누나.”

그는 목을 놓고 쳐올면서 낫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따른 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리어 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갔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사이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 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십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사의 손에도 십원짜리 두 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 갔다.

김동인, '감자' [교학(조)Ⅰ, 비상(박)Ⅰ, 지학(최)Ⅱ]

(1) 위 소설에서 중심 인물을 찾아 적어 보자.

▶

(2) '복녀'를 입체적 인물로 볼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 보자.

▶

(2) '복녀 남편'의 성격을 파악하여 적어 보자.

▶

<정답>

(1) 복녀

(2) 어느 정도 도덕성을 가진 인물에서 도덕성을 잃은 인물로 성격이 변화함

(3) 게으르고 무능력하며, 아내의 죽음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물

[이전 줄거리] 조선 인조 때 이시백이라는 출중한 인물이 있었다. 이시백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박 처사의 딸과 정혼시킨다. 그러나 박씨는 천하의 박색으로 시백은 자신의 부인을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이에 박씨 부인은 시아버지에게 청하여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홀로 지내며, 비범한 재주로 남편을 장원급제시킨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부인이 허물을 벗고 절세 미인이 되자, 부부는 화목하게 지낸다. 이때, 청의 용골대 형제가 조선을 침략해 온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박씨의 피화당에 모인 사람들은 무사하였다. 이후 박씨는 신통력으로 용골대의 동생 용홀대를 죽이고, 이를 복수하러 온 용골대를 크게 혼낸다.

호장이 그제야 깨달아 가로되,
 “당초에 귀비 분부하시되 조선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부다 우의정 이시백의 집 후원을 범치 말라 하시거늘 우리 일찍 깨닫지 못하고 또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귀비의 부탁을 잊고 이곳에 와서 도리어 양화(殃禍)를 받아 십만 대병을 다 죽일 뿐 아니라 골대도 무죄히 죽고 무슨 면목으로 귀비를 뵈오리오. 우리 여차한 일을 당하였으니 부인에게 비스니만 같지 못하다.”
 하고 호장 등이 갑주를 벗어 안장에 걸고 손을 묶어 팔문진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며 가로되,
 “소장이 천하에 횡행하고 조선까지 나왔으되, 무릎 한 번 꿇은 바 없더니 부인 장막 아래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하며 머리 조아려 애걸하고 또 빌어 가로되,
 “왕비는 아니 뵈셔 가리이다. 소장 등으로 길을 열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무수히 애걸하거늘 부인이 그제야 주렴을 걷고 나오며 크게 꾸짖으며 왈,
 “너희 등을 씨도 없이 함몰하자 하였더니 내 인명을 살해함을 좋아 아니하기로 십분 용서하니네 말대로 왕비는 뵈셔 가지 말며 너희 등이 부득이 세자 대군을 뵈셔 간다 하니 그도 또한 천의를 좇아 거역지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하여 뵈셔 가라. 나는 앉아서 아는 일이 있으면 불연즉 내 장수와 병사들을 모아 너희 등을 다 죽이고, 북경에 들어가 국왕을 사로잡아 분풀이를 하고 무죄한 백성을 남기지 않으리니, 내 말을 거역하지 말고 명심하라.”
 하니 골대 다시 애걸 왈,
 “소장의 아우의 머리를 내어 주시면 부인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나이다.”
 부인이 대소 왈,
 “옛날 조양자(趙襄子)는 지백(知伯)의 머리를 옷칠하여 술잔을 만들어 이전 원수를 갚았으니 나도 옛날 일을 생각하여 골대 머리를 옷칠하여 남한산성에 패한 분을 만분 일이나 풀리라. 너의 정성은 지극하나 각기 그 임군 섬기기는 일반이라. 아무리 애걸하여도 그는 못 하리라.”
 골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하늘을 치미나, 골대의 머리만 보고 대곡(大哭)할 따름이요, 어쩔 수 없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니 부인이 다시 일러 왈,
 “행군하되 의주로 행하여 임 장군을 보고 가라.”
 골대 그 비계(秘計)를 모르고 속으로 생각하되,
 ‘우리가 조선 임군의 항서를 받았으니 서로 만남이 좋다.’
 하고 다시 하직하고 세자 대군과 장안 물색을 데리고 의주로 가니 갑혀가는 부인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왈,
 “박 부인은 무슨 복으로 환(患)을 면하여 고국에 편안히 있고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타국에 갑혀가고. 이제 가면 언제 어느 때에 고국산천을 다시 볼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 무수하더라.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외쳐 가로되,
 “인간 고락은 사람의 상사라. 너무 슬퍼 말고 들어가면 삼년지간에 세자 대군과 모든 부인을 뵈셔 올 사람이 있으니 부디 안심하여 잘 있으라.” / 위로하더라.
 작자 미상, ‘박씨전’ [두산 II, 지학(최) II, 천재(경) I]

(1) ‘박씨 부인’을 개성적 인물로 볼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 보자.

▶

(2) ‘용골대’의 성격을 파악하여 적어 보자.

▶

<정답>

- (1) 조선시대의 여성임에도 남자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나타나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
 (2) 청나라의 장군으로 박씨에게 동생이 죽자 복수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인물

기출로 확인하기

1. 다음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년 9평 36번]

“알겠습니다.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백삼십에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시다보니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심할 뿐, 이 정도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저쪽이 훨씬 약하니까요.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

“사무장도 말 좀 골라 뱌시오. 같은 말이라도, 환장이 뭐요? 물론 우리 집안 명예와 어머니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도 이걸 명심하십시오. 운전수네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운전수 쪽 가족 생각이, 이번 일은 돈에 시우 군이 팔린 게 아니라 주인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운전수 된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 성의 표시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은혜를 갚는 느낌이다. 운전수와 가족이 이런 생각을 갖게끔 사무장이 처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란 쓰기 나름이라 잘못 쓰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욕까지 먹게 돼요. 운전수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그들이 그 성의를 진실로 받아들이게끔 행동하란 말이예요.”

이 선생은 젊은 부사장의 설교조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중략)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중우 형 면회가 있고 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행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백팔십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두 공사판을 그 만두구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야간이라도 학교엘 나갈 수 있게 됐구. 참아 줘. 이걸 정말 면목이 없다만, 어떡하니. 그럴 수밖에 없잖니? 그저께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애길 했더랬어. 전생에 다시 갚지 못할 빚을 네게 졌다면서 말이야. 네가 출감하면 운전수든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고,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우리두 성공하여 옛말하구 살자꾸나. 정말 성공하여 남부럽잖게 될 때, 이 피눈물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위로하자…….”

멀찌감치 선 간수 귀를 피해 귀엣말로 중우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를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역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낄 때,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아침, 넉 달 동안 집 안방과 다름 바 없는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까닭 없이 마음이 설레 아침밥도 거르게 되고, 그게 공복과 더불어 한기를 가중시켰다. 시우는 연방 떨며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뱌인디 워찌 요렇게 차다냐. 이런 날은 개팔자가 짤이여.”

“글쎄 말이다. 동지도 그믂이모 열매 안 있어 새해 아닌가 말이다. 그라모 햇수로 일 년 넘기는 긴데, 헤헤. 그렇게 햇수로 따져서 내보내 준다 카모 나도 출감이 가까운데 말이다.”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가 시우 귀에 다습다. 몇 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될는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수감될는지 모를 다정한 얼굴을 시우는 눈여겨보았다. 강도·절도·사기·살인, 각각 이마뺨에 눈에 띄지 않는 풋말을 붙이고 그들은 겨울감을 즐기는 두더지 꼴로 엉겨 있었다.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긴 더 추울걸.”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떨어져 앉은 시우에게 말을 던졌다. 구레나룻 시커먼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 웃어 보이곤 다시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가 눈을 맞고 있었다. 시우는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그리고 형은 지금쯤 눈을 맞으며 저 어디 화곡동이나 봉천동 신흥 주택 지대를 싸돌며 식품점 벌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터였다. 그렇게만 되면 을숙이도 내년이면 맞춤 중학 교복을 입고 뽀뽀 터였다.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며 음료수, 채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점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고향 이름 그대로 백암 상회라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그 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 눈이 그에게 쏠렸다.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시우를 보며 시큰둥 한마디 했다.

“저건 웃는 게 아니구먼. 웃음도 여러 질이여. 저 상판 봐여.”

김원일, ‘잠시 늙는 풀’

- ① 부사장은 기만적인 인물이다.
- ② 시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 ③ 죄수들은 다른 죄수에게 관심을 보인다.
- ④ 사무장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종우는 시우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2.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9년 6평 36번]

세월이 물같이 흘러 웅의 나이 15세라. 골격이 웅장하고 기운이 뛰어나더라. 하루는 웅이 모친께 청했다. “소자 지금 나이 15세요, 이곳이 선경(仙境)인지라 가히 살만한 곳이지만, 대장부 세상에 처하매 한곳에서 늙을 것이 아니옵니다. 신선도 두루 돌아다녀 박람(博覽)*한다 하거늘 소자가 슬하를 잠시 떠나 산 밖에 나가 세상을 구경하고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하나이다.”

왕 부인이 매우 놀라며 말했다.

“천리 타향에 너는 나만 믿고 나는 너만 믿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늘 네 일시인들 내 슬하를 떠나며, 내 어찌 너를 내어 보내고 일시인들 잊을쏘냐. 네 어디를 갈 양이면 한가지로 할 것이라. 차후는 그런 마음 두지 말라. 매우 놀랍도다.”

웅이 다시 아뢰지 못하여 물러 나와 월경 대사와 의논했다.

“내 이제 세상에 나가도 남에게 화를 입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한 내 몸이 중이 아니라 오래 산 속에 있사오니 황성 소식도 모르고 나의 심중에 품은 일도 아득하와, 일전에 모친께 사정을 고하오니 도리어 꾸중하시는 바람에 다시 거역하지 못하였삽거니와, 대사께서는 저를 위하여 모친의 마음을 돌려 저의 뜻을 펴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대사가 말했다. / “공자의 말은 반반한 장부의 말이로다.”

하고 부인 앞에 가서 고공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공자의 품은 큰 뜻을 여쭙니 부인이 말했다.

“말은 당연하나 만리타국에 보내고 어찌 이 적막강산 사고무친한 곳에서 잠시라도 잊을 수 있으며 또한 저의 나이 어리고 세상사에 어리석은지라, 어지러운 세상에 나가 어찌 될 줄 알리오.”

“부인의 말씀도 일리가 있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공자를 어리다 하시거니와, 천병만마에 시석(矢石)*이 비 오듯 하여 살기(殺氣)가 충천한 곳에 넣어도 조금도 걱정할 바가 없을 것이니 부인은 어찌 사람의 운명을 의심하십니까? 흥문연 살기 중에 패공이 살아나고, 파강산 천경사의 부인이 살아났으니 어찌 천명을 근심하리오. 소승 또한 공자의 환란을 짐작하지 못하오면 어찌 출세함을 권하며, 공자 세상에 나가도 부인은 이곳에 계시오면 무슨 근심이 있으리까?”

이렇게 설득하니 부인이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다.

“만일 존사의 말씀과 같지 못하면 어찌하리오?”

“공자의 평생 영욕(榮辱)을 다 알았사오니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부인이 마지못해 허락하니 대사와 웅이 기뻐 이튿날 길을 떠났다.

(중략)

“십 년을 정성 들여 선생을 찾아왔는데 뵙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동자는 가신 곳을 가르쳐 주소서.” 동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무꾼이 기러기를 쏘아 맞이지 못하매 제 공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활과 살을 꺾어 버리니 그대도 나무꾼과 같도다. 그대 정성이 부족한 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이 없음을 원망하니 매우 우습도다. 다만 선생께서는 이 산중에 계시건만 산세가 워낙 험하니 그 종적을 어찌 알리오?”

다시 반나절을 기다렸으나 종적이 묘연한지라. 울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붓을 잡아, 못 보고 가는 뜻을 글로 쓰고 동자를 불러 하직하고 나오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러라.

이때 철관 도사가 산중에 그옥이 앉아 웅의 거동을 보더니 벽에 글을 쓰고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와 벽의 글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가
만 리 밖에서 찾아오도다.
못에서 웅이 날아오르려 하거늘
이 또한 정성이 모자람이라.

도사가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급히 동자를 산 밖에 보내 웅을 청하니 웅이 동자를 보고 물었다.

“선생이 왔더니까?”

“이제야 오셔서 청하시나이다.”

웅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사립문에 나와 웅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했다.

“험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였도다.”

하고 동자를 시켜 저녁밥을 재촉하여 주거늘 웅이 먹은 후 감사하며 말했다.

“여러 날 굶주린 배에 좋은 밥을 많이 먹으니 향기가 뱃속에 가득한지라 감사하여이다.”

“그대의 먹는 양을 어찌 알아 권하였으리오?”

하고 책 두 권을 주며, / “이 글을 보아라.”

하거늘, 웅이 무릎을 꿇고 펼쳐 보니 성현(聖賢)들이 쓴 책이라. 웅이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청하니, 도사가 웃고 『육도삼략』을 주거늘 받아 큰 소리로 읽었다. 도사가 더욱 기특하게 여겨 『천문도』 한 권을 주거늘 받아 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지라. 도사가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뜻이 넓어지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작자 미상, ‘조웅전’ [09년 6평 / 비상(박)II, 지학(최)II]

* 박람: 사물을 널리 봄.

* 시석: 전쟁에 쓰던 화살과 돌.

- ① 철관 도사는 조웅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
- ② 왕 부인은 조웅의 입신양명을 희망하고 있다.
- ③ 동자는 조웅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④ 월경 대사는 조웅의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 ⑤ 조웅은 어머니의 입장보다 자신의 포부를 앞세우고 있다.

2 사건 : 소설에서 벌어지는 일

- 집을 파는 **사건** 그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 [05년 6평 35번]
-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05년 수능 21번]
- **사건** 전개가 전기적(傳奇的)이고 우연적이다. [06년 9평 31번]
-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06년 9평 44번]
-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 [06년 수능 48번]
-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06년 수능 48번]
-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07년 6평 24번]
-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08년 9평 40번]
-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08년 수능 27번]
- ‘다음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09년 9평 47번]
- ◎는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10년 6평 24번]
- 전 회에서 서술된 **사건**을 부연·반복하여 앞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대목 [10년 9평 29번]
-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10년 9평 40번]
-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10년 9평 40번]
-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1년 6평 28번]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11년 6평 47번]
- 간접 인용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11년 수능 40번]
- 환상적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허구성을 강화한다. [12년 6평 26번]
-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12년 6평 26번]
-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치를 통해 **사건**을 지연시킨다. [12년 6평 26번]
- **사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2년 6평 40번]
- 위 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12년 수능 13번]
- (다)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12년 수능 25번]
- 한 집안을 배경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1번]
-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낸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7번]
- 제삼자의 시점에서 **사건**에 대해 치우침 없는 판단을 제시한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7번]
-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여 그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3년 6평 26번]
-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13년 9평 20번]

소설에서의 사건은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한다.

마인드맵

가게 앞에 서서, 씩씩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의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두 개의 웃저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도 당연히 런닝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샷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하내의 발길에 차여 버린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 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져 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 형, 김 형……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짹 짹 찍어 눌렀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 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려 버렸다.

“무,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 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끼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 셔츠가 틀림없는 몽달 씨였다. 아까는 워낙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짜식, 어디로 토끼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 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깃방을 향해 튀었다. 방은 따로이 바깥쪽으로 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 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 씨의 목덜미를 확 낚아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나오는 몽달 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런닝셔츠가 찌익, 이빨 새로 침을 뱉어 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벌겋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 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양귀자, '원미동 시인' [14년 예비 시행 A형]

위 소설의 일부분에서는 몽달 씨가 두 사내에게 구타를 당하는 사건과 몽달 씨가 김 반장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김 반장이 외면하는 사건과 전체 상황을 '나'가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 나타나 있다.

[이전 줄거리] 유 한림의 아버지인 유공은 사 급사 집에 주파를 보내 혼인할 뜻을 전하게 한다. 주파는 유공의 가문의 부귀함과 한림의 문채와 풍류가 빼어남을 자랑하고, 사 소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소저는 주파가 자신의 용모의 아름다움만을 칭찬하고 자신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덕을 칭찬하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며, 청혼을 거절하였다. 이 말을 들은 유공은 불쾌함을 느꼈으나 주파가 전한 내용을 듣고 지현을 찾아가 대신 사 급사 집을 방문하기를 청한다. 그리고서는 소저의 덕만을 칭찬할 것을 부탁했다.

이튿날 아침 지현이 도착하였다. 소저의 유모가 소공자 희랑을 품에 안고 나아가 지현을 영접했다. 유모는 객당 마루로 지현을 안내하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셨습니다. 어린 주인께서도 나이가 어려 아직 손님을 접대할 줄 모르십니다. 지현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왕림하셨습니까?”

지현이 말했다.

“다른 일이 아니지. 어제 유공께서 관아로 오셔서 내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네. ‘아들 혼사 때문에 처자가 있는 집을 찾은 바가 적지 않았으나 하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듣건대 사 급사 덕의 처자는 유한하고 요조하며 여사(女士)의 풍모가 있다 합니다. 이는 진정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사 급사의 청명(淸名)과 직절(直節)은 평소 흠양하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파를 보냈으나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파가 실언하여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고 말이지. 이제 나를 중매로 삼아 혼인을 맺으려 하신다네. 이는 좋은 일이지. 바라건대 부인에게 아뢰어 한 마디 승낙하신다는 말씀을 얻고자 하네.”

유모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지현께서 제 딸의 혼사를 위하여 누실(陋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바 유공 님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치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공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유공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吉日)을 택했다. 유 한림이 육례(六禮)*를 갖추어 친히 신부를 맞이했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06년 9평 / 미래엔 II, 비상(박) II, 신사고 I, 지학(권) I, 지학(최) I, 천재(김) II, 천재(정) I]

* 육례(六禮): 혼인의 여섯 단계 절차.

- 사건 전개가 전기적(傳奇的)이고 우연적이다. (O, X) [06년 9평 31번 ②]

사건 전개란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양태를 말하는 것이다. ‘전기적’이라는 것은 기이한 것을 말한다. 위에 제시된 부분에서는 유공이 사 급사의 집에 자신의 아들과 사 소저의 혼인을 청하는 내용과 사 소저의 현명함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전 줄거리]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훌륭한 선비로 추앙받는 북곽선생이란 자가 살고 있었다. 그 고을 동쪽에는 절개가 있다고 소문난 동리자란 과부가 살았는데, 그녀는 성이 각기 다른 다섯 아들을 두고 있었다. 어느날 밤, 북곽선생과 동리자가 한 방에 있는 것을 다섯 아들이 문틈으로 보게 된다.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능을 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머니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훑치고 킬킬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박지원, ‘호질’ [12년 수능 / 비상(유)Ⅱ, 창비Ⅱ, 해냄Ⅱ]

- (다)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O, X) [12년 수능 25번 ㉓]

(다)에서는 다섯 아들이 북곽선생처럼 어진 이가 과부의 방에 함부로 들어올 리가 없으며, 동리자와 함께 있는 북곽선생은 여우가 변신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우를 잡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등장한다. (라)에서는 다섯 아들에게 놀란 북곽선생인 도망치다가 똥이 가득한 구덩이에 빠지는 사건이 나온다.

적용 문제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다 된 광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 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로다.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 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 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쿠라* 양복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 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 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켕겼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뻘만 남은 얼굴에 6월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다 애걸하는 빛을 띠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고 모깃소리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그래도 김 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전장맛을 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 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 차가 열한 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두 점이던가.” / 라고 중얼거린다. “1원 50전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 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기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안으로 어떡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1, 제2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현진건, '운수 좋은 날' [미래엔 I, 천재(고) I]

* 고쿠라 : 학생복 등으로 많이 쓰인 두터운 바탕의 면직물. / * 노박이 : 줄곧, 계속하여

(1) 위 소설에 나타난 사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를 채워 보자.

- ▶ ① 김 첨지가 비오는 어느 날 ()를 물고 학교 문을 돌아 나온다.
- ② 학생이 () 정거장까지의 가격을 묻다.
- ③ ()이 구두도 채 신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뛰어 나온다.
- ④ 김 첨지가 계속 되는 ()에 잠시 주저하다.
- ⑤ 아내가 김 첨지에게 ()을 부탁하다.
- ⑥ 김 첨지가 인력거 샅으로 ()을 부른다.

(2) 위에 나타난 ①~⑥까지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자.

<정답>

(1) 인력거, 남대문, 학생, 행운, 나가지 말 것, 1원 50전

(2) ⑤ → ① → ③ → ② → ④ → ⑥

1. 다음 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12년 수능 13번]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허 오누?”
 “인전 어머니서꺼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낱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이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옴한 것, 옴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뺐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러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발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둑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현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딿으며 나라가 어딿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가 땅이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보지 않드라.”

이태준, ‘돌다리’ [12년 수능 / 교학(조) I]

- ①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하다.
- 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가다.
- ③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 ④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⑤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

3

갈등 : 두 대상이 대립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태

- 지섭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05년 6평 33번]
-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07년 6평 52번]
- [B]와 [C]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 [09년 9평 50번]
-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12년 수능 14번]
- 돈키호테는 세속적 가치를 내세워, 늘부는 정신적 가치를 거부하여 현실과 대립한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3번]
- (나)에서 인물이 겪는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13년 6평 27번]
-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3년 6평 35번]
- ㉞의 '버들가지'는 '또다시'와 연결되어 갈등이 재현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13년 9평 49번]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소설에서의 갈등이란, 어떤 대상과 대상이 대립하는 것 외에도,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얻지 못해 불만스러운 상황까지도 포함시킨다.

마인드 맵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고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 번 짹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중략)

그 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수면제의 일종).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 듯이 거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걸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구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구나.

이상, '날개' [08년 9평]

'중략' 이전에는 '나'와 아내의 갈등이 나오는데, 이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략' 이후 부분부터는 '나'의 내면 갈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정오 사이렌이 울리고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에서 다시 날개가 돋기를 바라면서, 아내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내면의 갈등은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줄거리] 어느 가을 날 노환으로 누워있던 석담 선생은 병석에 일어나자마자 종이와 붓을 찾아 글을 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죽 은 이러한 스승의 집착에 이유 없는 심화를 느껴 밖으로 나간다. 그러다가 문득 스승의 하는 일이 궁금해진다.

방에 돌아오니 석담 선생은 붓을 연적에 기대 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금방 쓰다가 그만둔 것인 듯 ‘만호제력(萬豪齊力)’ 낙 자 중에서 앞의 석 자만이 씌어져 있었다.

“소재(蘇齋)*는 일흔 여덟에 참깨 위에 ‘天下泰平(천하태평)’ 낙 자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일흔도 차지 않았는데 이 낙 자 ‘萬豪齊力’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탄식하는 석담 선생의 얼굴에는 자못 처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고죽은 그 말을 듣자 억눌렀던 심화가 다시 솟아올랐다. 스승의 그 같은 표정은 그에게는 처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함으로 비쳤다.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가 솟아오르며 향상(香象)*이 노니는들,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죽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 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은 드높은 경지는 글을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죽도 지지 않았다.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은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던 말이나?”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는들 무엇이든, 현묘(玄妙)함이 있는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도로 이름하면 백성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천고에 드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我]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낯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이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홀렸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엎드렸다. 노환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던진 것이다. 샘솟듯 솟는 피를 훑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늙은 스승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 왔다.

“내 일찍이 네놈의 천골(賤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갯거리에서 나앉아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뒷박은 후히 받을 게다…….”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이문열, ‘금시조’ [07년 6평 / 천재(경) 1]

* 소재 : 청나라 학자 옹방강의 호. / * 금시조 :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 / * 향상 : 상상의 큰 코끼리

•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O, X) [07년 6평 52번 ㉔]

서예에 천부적 자질을 타고난 고죽과 그의 스승 석담이 서로 다른 예술관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갈등을 통해 가치 있는 예술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① 갈등의 종류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 내적 갈등

- (다)의 ‘단 한 번’은 ‘오늘 밤도 또’와 대비되면서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05년 수능 56번]
-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06년 6평 46번]
-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내적 갈등을 고조한다. [12년 6평 26번]
-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로 인물의 내면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12년 6평 40번]
-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12년 수능 14번]
- (가)와 (나)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13년 6평 27번]

내적 갈등은 인물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을 말한다.

[이전 줄거리] 드팀전 장돌뱅이 허 생원은 오랜 친구인 조 선달과 동이와 함께 나귀를 몰고 다음 장으로 발을 옮기고 있다.

(나)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놓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꿎는 경분에 그것만은 이를 몰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빛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다.

(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는 없었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꼬집어 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효석, ‘매밀꽃 필 무렵’ [05년 수능 / 해냄 1]

- (다)의 ‘단 한 번’은 ‘오늘 밤도 또’와 대비되면서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O, X) [05년 수능 56번 ㉠]

허 생원의 ‘단 한 번’의 추억은 그리움의 대상으로 ‘오늘 밤도 또’ 그 추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흠뻑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줄거리] 화산택이는 서울에 사는 둘째 아들집에 오게 된다. 아들의 집은 크고 좋았지만,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아들 내외로 인해 속 상함을 느낀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흰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였다. 화산택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빛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눕는다. 건넌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조먼*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A] 그러나 잠 대신 화산택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넓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댕댕처럼 굵은 토벽, 메주 드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도리 벗은 채 제멋대로 굴러 자고, 썩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맏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킁고 있는 맏며느리, 화산택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 주고 며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눕는다.

'아무리 시에미가 시에미 같지 않기로니 침 보는 시에미에게 인사절도 없이, 본바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아들 돈 잘 벌고 하리갈레* 메뉴리 봤다고 부러하더라만, 시장시럽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앙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머고. 여태껏 땅 한 뼨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머고.' 화산택이는 눈꼬리만 따갑고 잠은 점점 멀어 갔다.

오영수, '화산택이' [12년 6평]

* 저거 조먼 : '자기네들끼리 좋으면'의 방언. / * 하리갈레 : 예전에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를 이르던 말.

- [A]는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으로 인물의 내적 갈등을 고조시킨다. (O, X)
[12년 6평 26번 ㉔ 변형]

[A]는 화산택이가 큰아들 내외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을 상상한 것으로 화산택이가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개인과 개인의 갈등

- 인물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다. [05년 6평 53번]
-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05년 9평 25번]
-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06년 9평 44번]
-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07년 수능 42번]
- 이야기 I의 특정 인물과 이야기 II의 특정 인물만 서로 갈등 관계를 맺도록 하여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09년 6평 31번]
-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10년 9평 40번]
-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11년 6평 28번]
- 어른들의 침묵을 통해 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12년 9평 15번]
-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12년 수능 14번]
-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다. [12년 수능 25번]
-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2번]
- (가)에서는 두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3년 6평 27번]
-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불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13년 수능 13번]

주로 주인공과 주인공과 대립적 위치에 있는 인물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한다.

[이전 줄거리] 계리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박봉을 받는 철호는 전쟁의 충격으로 앓아 누운 노모와 만삭의 아내, 상이군인인 동생 영호, 양 공주가 된 누이동생 명숙,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으로 늘 시달린다. 그는 가난하지만 양심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러나 동생 영호는 그런 것들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영호의 입가에는 좀 전에 파랑새 꿈초에다 불을 당기는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야릇한 웃음이 또 소리 없이 감돌고 있었다.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철호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 하고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들도 남처럼 다 벗어던지고 훌가분한 몸차림으로 달려 보자는 것이죠 뭐.”

“벗어던지고?”

“네. 벗어던지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던지고 말입니다.”

영호의 큰 두 눈이 유난히 빛나는가 하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고 들었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 “…….” / “너는, 너는…….”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 “그렇게나라니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흥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죽 뺏치고 입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어뜨렸다.

이범선, ‘오발탄’ [미래엔 1]

-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O, X) [05년 9평 25번 ①]

철호는 양심과 도덕을 중시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영호는 그런 것을 경시하는 인물로 나타나 있다.

그맘쯤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가객(歌客)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엇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데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으되, 고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또랑물 속으로 싸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부끼며 얹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꽃히더니 정수리에서 발뒤꿈치로 뚫고 들어와 땀몰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 위에 툇 걸쳐서는 이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뜻하게 덥히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몸에 싣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돌씩 끄집어내어지는 중이었다. 다리 위에서 비렁뱅이 가객은 거문고를 무릎에 올려 놓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땅 속에다 소리를 심고 있었다. 술 먹던 사람들과 수다쟁이 떡장수 아낙네며 나들이 나온 처자들이 모두 한두 발짝씩 모여들어 다리 위에는 음률에 끌린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소리로구나.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들었다.”

한 곡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제각기 허리춤을 끄르고 돈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잦아질 제 나는 새암과 선망으로 이를 악물었고 다음에는 저 신묘한 소리로 돈을 벌게 하는 거문고를 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

“하나 더 해라.”

“이번에는 긴 것을 해 보아라.”

사람들이 제각기 아우성을 치는데, 가객은 고개를 가슴팍에 확 처박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부지깽이처럼 길고도 여윈 손을 뻗쳐서 무릎 근처에 흩어진 돈들을 긁어모아서는 제 자리 밑에다 쓸어 넣는 것이었다.

“노래를 한 가지밖에 모르느냐.”

“얼굴을 들고 해라, 안 보인다.”

“고개를 들어라.”

내던진 밀천을 뿜으려고 주변에 웅기중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비렁뱅이 가객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만 재촉했다. 고개를 처박고 있던 그가 작심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제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한 바퀴 휘이 둘러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가객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더러운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씌워 사그라지고 말았다. 눈도 코도 입도, 제자리에 붙어 있지만, 어쩐지 얼굴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증오를 불러 일으키고, 증오는 곧 심한 역증이 나게끔 했다.

황석영, '가객' [13년 6평]

- 두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O, X) [13년 6평 27번 ①]

수추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만 그의 흉한 얼굴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㉔ 개인과 사회의 갈등

-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06년 6평 46번]

개인과 사회의 갈등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사회 윤리나 제도와의 갈등을 의미한다.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다. 헤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꽤 오래 지녀온 갈망이었다. 그러니까 헤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그 모든 동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무렵 그런 충동이 새로워진 것은 사실이었다.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일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화필과 물감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의 10분의 1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인간 근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절실했던 점은 지금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여 에덴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아벨이라든지 카인, 또 그 인간들이 지니고 의미하는 속성들을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곤 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전부를 긍정할 수는 없었다. 단세포 동물처럼 아무 사고도 찾아볼 수 없는 에덴의 두 인간과 창세기적 아벨의 선 개념, 또 신으로부터 영원한 악으로 단죄받은 카인의 질투—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항상 의지로서 신을 두렵게 했을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나타난 수많은 분화, 선과 악의 무한정한 배합 비율……. 그러나 감격으로 나의 화필이 떨리게 하는 얼굴은 없었다. 나는 실상 그 많은 얼굴들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헤인 이후 나는 벌써 어떤 얼굴을 강하게 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직은 내가 그것과 만날 수 없었을 뿐이었다. 동그스름한, 그러나 튀어 나갈 듯이 긴장한 선으로 얼굴의 외곽선을 떠 놓고(그것은 나에게 있어 참 이상한 방법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심만 하고 있었다.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06년 6평 / 비상(박) 1]

-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O, X)
[06년 6평 46번 ②]

위에 제시된 부분은 애인도 잃고 그리고자 하는 그림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가진 '나'의 생각과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줄거리] 홍길동은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난다.

길동이 점점 자라서 여덟 살이 되니, 총명함이 보통 사람을 능가하여 하나를 들으면 백을 알았다. 공이 더욱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겼지만 근본이 천한지라.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면 곧 꾸짖어 못하게 하였다. 길동은 열 살이 넘도록 감히 아버지와 형을 부르지 못하고, 하인들에게마저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하게 여겨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였다.

어느 가을 구월 보름날, 달빛은 밝게 비치고 맑은 바람은 쓸쓸하게 불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했다. 길동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든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며 말했다.

[A]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명을 본받지 못하면 차라리 병법을 외워, 대장군의 인장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등과 서로 정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로서 흔쾌히 할 일이다. 나는 어찌하여 한 몸이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있건만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어찌 원통하지 아니 하리오!”

허균, ‘홍길동전’ [교학(윤) I, 두산II]

- [A]에는 표면적으로 길동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만, 그 갈등의 원인이 사회 제도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다. (O, X)

홍길동은 입신양명의 꿈을 갖고 있지만, 적서차별이라는 사회 제도로 인해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㉔ 개인과 운명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은 개인의 삶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좌우되는 데에서 오는 갈등을 말한다.

화개장날만 책전을 펴는 성기(性驥)는 내일 장 불 준비도 할겸 하루를 앞두고 절에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다. 쌍계사에서 화개장터까지는 시오리가 좋은 길이라 해도, 굽이굽이 벌어진 물과 돌과 산협이 장려한 풍경이 언제 보다 그에게 길덜미를 내지 않게 하였다.

처음엔 글을 배우러 간다고 할머니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여 간 곳이 절이었고, 그 다음엔 손윗 동무들의 사랑에 끌려다니다시피쯤 하여 왔지만 이즘 와서는 매일같이 듣는 북소리, 목탁 소리, 그리고 그 경을 치게 회맑은 은행나무, 염주나무[菩提樹], 이런 것까지 모두 싫증이 났다.

당초부터 어디로 훨훨 가 보고나 싶던 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간다는 건 말만 들어도 당장에 두 눈이 시뻘개져서 역경을 내는 어머니였다.

“서방이 있나, 일가친척이 있나, 너 하나만 믿고 사는 이년의 팔자에 너조차 밤낮 어디로 간다고만 하니 난 누굴 믿고 사냐?” / 어머니의 낯두리는 인제 귀에 못이 박일 정도였다.

이러한 어머니보다도 차라리, 열 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중질을 시켰으니, 인제 역마살(驛馬煞)도 거진다 풀려 갈 것이라고 은근히 마음을 느끼시는 편이던 할머니는, 성기가 세살 났을때 보인 그의 사주에 시천역(時天驛)이 들었다 하여 한때는 얼마나 낙담을 했던 것인지 모른다. 하동 산다는 그 키가 나지막한 명주 치마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혹시 갑자을축을 잘못 짚지나 않았나 하여, 큰절(쌍계사를 가리킴)에 있는 어느 노장에게도 가 물어 보고 지리산 속에서 도를 닦아 나온다면 어떤 키 큰 영감에게도 다시 봐어 봤지만 시천역엔 조금도 요동이 없었다.

“천성 제 애비 팔자를 따라 갈려는 게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좀 비꼬아 하는 말이었으나 거기 깊은 원망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말엔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옥화는,

“부모 안 닮는 자식 없단다. 근본은 다 엄마 탓이지.” / 도리어 어머니에게 오금을 박고 들었다.

“이년아 에미한테 너무 오금박지 마라. 남사당을 붙었음, 너를 버리고 내가 그놈을 찾아갔냐, 너더러 찾아달라 성화를 댔냐?”

그러나 서른 여섯 해 전에 꼭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 가락에 반하여 옥화를 배게 된 할머니나,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가지게 된 옥화나 다같이 「화개장터」주막에 태어났던 그녀들로서는 별로 누구를 원망할 덕도 없는 어미 딸이었다.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탓이요,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질을 시켜서 살을 때우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질에서 못다푼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장사라도 시켜서 풀어 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성기로서도 불경(佛經)보다는 암만해도 이야기책에 끌리는 눈치요, 중질보다는 차라리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그러나 옥화는 꼭 화개장만 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그에게 책전을 내어 주기로 했던 것이었다.

김동리, 「역마」 [비상(유)Ⅱ, 천재(김)Ⅰ]

- 역마살이라는 운명과 그를 극복하려는 인물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O, X)

성기는 역마살을 타고난 인물로 그의 어머니 옥화는 자식의 역마살을 풀기 위해 절을 보내거나 책장사를 시키고 있다.

② 갈등의 고조와 해소

- 대화를 통해서 극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05년 9평 52번]
-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06년 9평 44번]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된다. [07년 9평 15번]
- [A]에 드러나 있는 **갈등**은 [B]에서 극적으로 **해소**된다. [07년 수능 16번]
-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07년 수능 42번]
- 주인공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09년 6평 37번]
- 창(唱)과 아니리가 교차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10년 6평 43번]
-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10년 9평 40번]
-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12년 9평 13번]
- 어른들의 침묵을 통해 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12년 9평 15번]
- (라)는 행위에 의해,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12년 수능 25번]
-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시하여 **갈등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1번]
- (가)에서는 두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3년 6평 27번]
- (가)와 (나)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13년 6평 27번]
-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13년 6평 34번]
-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3년 9평 20번]
- @ :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13년 수능 14번]

갈등은 사건의 진행에 따라 고조되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한다.

(나)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쭙움쭙하니 정욱(程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 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막 늘여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보라.”
 “눈치 밝소. 조그마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작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중략 줄거리] 적벽 싸움에서 죽은 군사들이 새가 되어 조조를 원망하여 지저귀다. 조조는 이 소리를 듣고
 탄식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다. 정욱이 기가 막혀 그 이유를 묻자, 주유와 공명을 비웃는다며 허풍을
 떠낸다.

(마) [엇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얼굴은 형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리 허리 곱의 팔, 녹포엄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네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아느냐 모르느냐? 조조는 달지 말고 창 받으라!”
 말 놓아 달려들어 등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달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 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덩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서 덩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덩기령 베고, 백송골이 꿩 차듯, 두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어갈 제, 피 흘러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적벽가(赤壁歌) [07년 수능 / 비상(박) II, 지학(권) II, 천재(김) II]

-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O, X)
 [07년 수능 42번 ㉓]

(나)는 도망 중에도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을 보이는 조조를 어리석은 인물로 나타내고 있으며, (마)는 조자룡
 의 등장으로 조조가 다시 위기에 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줄거리] 조용은 15세에 품은 뜻을 펼치기 위해 길을 떠난다.

“십 년을 정성 들여 선생을 찾아왔는데 뵈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동자는 가신 곳을 가르쳐 주소서.” 동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무꾼이 기러기를 쏘아 맞히지 못하매 제 공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활과 살을 꺾어 버리니 그대도 나무꾼과 같도다. 그대 정성이 부족한 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이 없음을 원망하니 매우 우습도다. 다만 선생께서는 이 산중에 계시건만 산세가 워낙 험하니 그 종적을 어찌 알리오?”

다시 반나절을 기다렸으나 종적이 묘연한지라. 울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붓을 잡아, 못 보고 가는 뜻을 글로 쓰고 동자를 불러 하직하고 나오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러라.

이때 철관 도사가 산중에 그윽히 앉아 웅의 거동을 보더니 벽에 글을 쓰고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와 벽의 글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A]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가
만 리 밖에서 찾아오도다.
못에서 용이 날아오르려 하거늘
이 또한 정성이 모자람이라.

도사가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급히 동자를 산 밖으로 보내 웅을 청하니 웅이 동자를 보고 물었다.

“선생이 왔더니까?”

“이제야 오셔서 청하시나이다.”

웅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사립문에 나와 웅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했다.

“험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였도다.”

하고 동자를 시켜 저녁밥을 재촉하여 주거늘 웅이 먹은 후 감사하며 말했다.

“여러 날 굶주린 배에 좋은 밥을 많이 먹으니 향기가 뱃속에 가득한지라 감사하여이다.”

“그대의 먹는 양을 어찌 알아 권하였으리오?”

하고 책 두 권을 주며, / “이 글을 보아라.”

하거늘, 웅이 무릎을 꿇고 펼쳐 보니 성현(聖賢)들이 쓴 책이라. 웅이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청하니, 도사가 웃고 『육도삼략』을 주거늘 받아 큰 소리로 읽었다. 도사가 더욱 기특하게 여겨 『천문도』 한 권을 주거늘 받아 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지라. 도사가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뜻이 넓어지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작자 미상, 조웅전 [09년 6평 / 비상(박)II, 지학(최)III]

- [A]는 주인공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O, X) [09년 6평 37번 <보기> ㄹ]

철관 도사를 만나지 못해 조용은 울적한 마음을 느껴 그 심정을 글로 남긴다. 철관 도사는 조용이 남긴 글을 보고 그를 급하게 부를 수 있게 된다.

적용 문제

[이전 줄거리] 6·25 전쟁 직후 삼팔선 접경 지대의 고향으로 돌아온 성삼은 어릴 때 단짝 친구였던 덕재가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의 호송을 자원한다.

(가)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구밖을 벗어났다.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담배 맛을 몰랐다.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했다.

(중략)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 고개는 해방 전전해, 성삼이가 삼팔이남 천태 부근으로 이사 가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 꼴 베러 넘나들던 고개다.

성삼이는 외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향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 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이리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 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이 자식아!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다. 그러나,

“농민 동맹 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고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고 잠복해 있던 거지?”

덕재는 말이 없다.

“바른 대로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고 숨어 있었냐?”

덕재는 그냥 잠잠히 걸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꼴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한 번 낯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들리지 않는다.

(나)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발명은 소용 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 대로 말이나 해 봐라.”

덕재는 그냥 외면한 채,

“발명은 하려구도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데다가 근농군이라구 해서 농민 동맹 부위원장이 됐던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나 땅파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어,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앓아 누웠다. 벌써 한 반 년 된다.”

덕재 아버지는 홀아비로 덕재 하나만 데리고 늙어 오는 빈농군이었다. 칠 년 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돋은 얼굴이었다.

(다) “장가 안 들었냐?”

잠시 후에, / “들었다.”

“누구와?” / “꼬맹이와.”

아니, 꼬맹이와? 거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아, 키가 작고 뚱뚱하기만 한 꼬맹이, 무던히 새침데기였다. 그것이 알미워서 덕재와 자기가 번번히 놀려서 올려주곤 했다. 그 꼬맹이한테 덕재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 애가 몇이나 되냐?” / “이 가을에 첫애를 낳는대나.”

성삼이는 그만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제 입으로 애가 몇이나 되느냐 묻고서도, 이 가을에 첫애를 낳게 됐다는 말을 듣고는 우스워 못 견디겠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몸에 큰 배를 한 아름 안고 있을 꼬맹이, 그러나 이런 때 그런 일로 웃거나 농담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며,

“하여튼 네가 피하지 않구 남아 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나두 피하려고 했었어. 이번에 이남서 쳐들어오든 사내란 사내 모조리 잡아 죽인다구, 열 일곱에서 마흔 살까지의 남자는 강제루 복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 나두 아버질 업구라도 피난 갈까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 놓은 농살 내버려 두구 어딜 간단 말이나구. 그래, 나만 믿구

농삿일루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마 내 손으로 감겨 드려야겠구, 사실 우리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간댕자 별수 있는 것두 아니구…….”

(라) 지난 유월달에는 성삼이 편에서 피난을 갔었다. 밤에 몰래 아버지더러 피난 갈 이야기를 했다. 그 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삿일을 늘어놓구 어디루 피난 간단 말이나.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 남쪽 어느 낯선 거리와 촌락을 헤매다니면서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게 맡기고 나온 농삿일이였다. 다행히 그 때나 이제나 자기네 식구들은 몸성히들 있다.

고갯마루를 넘었다. 어느 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 가을 햇별이 자꾸 이마에 따가왔다. 참, 오늘같은 날은 타작하기에 꼭 알맞은 날이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 쪽 벌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 떼였다. 소위 삼팔선 완충지대가 되었던 이 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동안에도 이들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 열 두어 살쯤 났을 때 일이였다. 어른들 몰래 들어서 올가미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이였다. 새끼로 날개까지 얹어매 놓고는 매일같이 들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안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했다. 그러한 어느 날이였다.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울서 누가 학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 무슨 표본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총독부의 허가까지 맡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돌이는 벌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였다. 그저 자기네의 학이 죽는다는 생각뿐이였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잡풀 새를 기어 학 발목의 올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끌었다.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 동안 얹매어 시달린 탓이라. 들어서 학을 마주 안아 공중에 후렸다. 불안간 총 소리가 들렸다. 학이 두서너 번 날개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 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 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둥그러미를 그리며 저 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였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땄 줄을 몰랐다.

(마) “얘, 우리 학 사냥이나 한 번 하구 가자.”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내 이걸루 올가미를 만들어 놀게, 너 학을 몰아 오너라.”

포승줄을 풀어 쥐더니, 어느 새 성삼이는 잡풀 새를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걷혔다.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저만치서 성삼이가 핵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왜 멍추같이 섰는 거야? 어서 학이나 몰아 오너라.”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황순원, ‘학’ [교학(조) I, 미래엔 I, 비상(박) I, 천재(김) I, 천재(정) II]

(1) 친구인 덕재를 호송해야 하는 성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소재를 (가)에서 찾아 써 보자.

▶

(2) 성삼과 덕재 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나)에서 찾아 적어 보자.

▶

(3) ‘학사냥’이 의미하는 바를 갈등의 고조와 해소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

<정답>

(1) 담배

(2) 덕재가 농민 동맹 부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3) 성삼이 덕재를 풀어주는 구실로, 성삼과 덕재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

기출로 확인하기

1.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년 수능 14번]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호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허 오누?”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낱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이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옅한 것, 옅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뺐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로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늘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경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려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논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이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리지 눈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구 땅이 뭔지도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에 보지 않드라.”

이태준, ‘돌다리’ [12년 수능 / 교학(조) I]

[보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 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된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2.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의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3년 6평 35번]

이때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왈,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늘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하더니 하인을 보하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이까.”
 송정이 분부 왈,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곧이들으리오.”
 하고 심상히 여기거늘, 하인 분부를 듣고 나와 부사의 말을 이르고 왈,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가벼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
 하더니 자연 삼일 만에 이르렀는지라. 대접하는 도리와 수응하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늘 사명당이 대로하여 객사에 좌기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송정을 잡아 계하에 꿇게 하고 이르되,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국 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어늘 네 한갓 벼슬만 딛고 국명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 내어 베어 국법을 엄히 하라.”
 하고 즉시 나라에 장문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하고 인하여 길을 떠날 새 순풍을 만나 행선하니라.

작자 미상, ‘임진록’ [천재(김) II, 천재(정) I]

- * 봉명 사신 :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신.
- * 선참후계 :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 ① 제삼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 ②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④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 ⑤ 사명당은 명분과 지위를, 송정은 신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4 배경 :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 시대적 상황

-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7년 9평 44번]
- [A]는 [B]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된다. [07년 수능 16번]
- 봄빛이 완연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07년 수능 41번]
- @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09년 수능 48번]
- 작품 혹은 각 회의 첫 장면이 시작되거나 배경이 바뀌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 이를 알리는 상투어 [10년 9평 29번]
- 환상적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허구성을 강화한다. [12년 6평 26번]
-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13년 수능 13번]

소설에서의 배경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으로, 작가는 주제를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는다.

마인드 맵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꼬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겹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척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줏집 통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05년 수능]

위 소설의 제시된 부분에서 시간적 배경은 달이 떠있는 밤이고, 공간적 배경은 메밀밭이 펼쳐진 대화까지 가는 길의 어느 중간이다. 그리고 ‘생원’이나 ‘선달’과 같은 호칭이나, ‘장’이 선다는 말이나, ‘물방앗간’과 같은 소재 등을 통해 비교적 과거에 벌어진 일임을 추측할 수 있다.

[중모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루루 날아나도 복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덕 떨어저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엮어지고 자빠지며 오름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썹움썹하니 정욱(程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 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막 늘여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보라.”
“눈치 밝소. 조그마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적벽가(赤壁歌) [07년 수능 / 비상(박)II, 지학(권)II, 천재(김)II]

- 봄빛이 완연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O, X) [07년 수능 41번 ①]

위나라 조조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와 싸우다가 대패하여 정욱을 비롯한 부하들과 도망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낙엽'은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려주는 소재이다.

[이전 줄거리] 이시백의 아버지인 상공은 우연히 박 처사를 만나 박 처사의 비범함을 알고 그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정혼시킨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촌이라.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 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꾀꼬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 궁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09년 수능 / 두산II, 지학(최)II, 천재(정)I]

* 환우성 : 벗을 부르는 소리

- ◎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O, X) [09년 수능 48번 ④]

상공이 자신의 아들인 이시백과 박 처사의 딸을 혼인시키기 위해 금강산으로 떠나는 장면이다. ◎에서는 주변 풍경에 대한 비유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박 처사를 찾지 못해 애가 타는 상공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① 시간적 배경

- 이야기 I 과 이야기 II의 시간적 배경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보편적 공감을 유도해 내고 있다. [09년 6평 31번]
- ‘그날 밤’과 ‘지금’(2)는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 [09년 9평 47번]

시간적 배경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대를 알게 하는 배경을 말한다. 시간적 배경은 어느 시대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하루의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재중숙은 아무래도 김만호 씨보다는 강 목사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다.
 “둘은 소학교와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지. 강 목사는 농업학교를 나온 후 이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밤이면 야학을 하였어. 나도 토요일이나 방학에 집에 와서는 그 일을 도와 드렸지.”
 그러는 사이에 강 목사와 김만호 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일본 말을 가르치는 일을 못마땅히 생각하였고, 한편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외면한 채 저 찰난 척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결국 한글 강습소는 문을 닫아야 하였고 강 목사는 고향을 떠나야 하였다.
 “이봐, 그때 그 한글 강습소를 폐쇄시킨 게 바로 김만호였어. 우리가 주재소에 가서 혼이 나도록 당한 것도 다 뒤에서 그 작자가 조종을 한 거야. 나도 학교를 마치지도 않고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떠나 버렸어. 귀찮은 일이 자꾸 따라다녔지.”
 재중숙은 그때 일을 바로 어제 일같이 말하였다.

[중략 줄거리] 재중숙은 김만호에 대해 악질적 면장이었다고 언성을 높여 이야기했다. 그리고 김만호가 ‘선구적인 시민상’을 받아서는 안된 다며 힘주어 말했다. ‘나’는 재중숙과 헤어져 김만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교장 어른을 만나러 갔다.

교장 어른은 아까 종갓집에서와는 다르게 나를 대하면서 벌써 찾아간 연유를 알고 있었다. 나는 신문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설명하고 나서,
 “할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그분과 오랜 교분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계시겠기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일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되도록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사실 나 자신 한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뚜렷한 생각도 잡혀지지 않은 처지라서 우선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 분이 일제 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였고 더구나 면장을 오랫동안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국에 누군들 면장을 해야 했을 거이고, 더구나 일본 사람이 면장을 했던 것보담야 훨씬 나았지. 나도 일제 시대 여남은 해 동안 교단에 서서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시비를 가릴 자격은 없어. 큰집에서 내가 좀 강경하게 말한 것은 자네 칠촌 말일세. 일본 가서 살아서 이곳 사정을 모르는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비위가 상했던 거야. 자기도 그곳에서 살았으면, 아니, 일본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고 독자청정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애국만 하며 살 수 있었겠단 말이네. 어림없어. 아마 먼저 더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살았을지 누가 알아. 사실 이곳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좋은 일 곳은 일 모두 겪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을 말아야 돼.”

현진건, ‘신열(身熱)’ [09년 6평]

- ‘나’가 재중숙이나 교장과 이야기하는 시간적 배경과 강 목사와 김만호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O, X) [09년 6평 31번 ㉠ 변형]

‘나’가 재중숙이나 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적 배경을 현재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을 하는 강 목사와 김만호의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과거라고 할 수 있다.

②

공간적 배경

- 감각적인 수사를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05년 9평 25번]
-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05년 9평 52번]
- 감각적 묘사를 통해 공간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06년 9평 44번]
- 배경이 되는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 [06년 수능 48번]
- 배경이 되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06년 수능 48번]
- 공간적 배경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07년 6평 24번]
-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다. [07년 9평 15번]
-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08년 6평 23번]
- 일제 강점기에 미쓰고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고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년 9평 41번]
- 위 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년 수능 48번]
- 이야기 I 과 이야기 II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09년 6평 31번]
- '지금'(1)과 '지금'(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09년 9평 47번]
-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09년 수능 20번]
-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국면이 전환된다. [10년 6평 43번]
-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10년 9평 40번]
- 위 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년 수능 40번]
- '꼬두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년 6평 30번]
- ㉞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㉞에 대해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11년 9평 23번]
- ㉠, ㉡는 ㉢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11년 9평 23번]
- '궁궐의 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년 수능 48번]
- ㉠ : 장 승상 댁 부인에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12년 6평 41번]
- ㉡ : 심청이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공간이다. [12년 6평 41번]
- ㉢ : 천달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공간이다. [12년 9평 14번]
-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3년 6평 34번]
-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13년 9평 47번]
-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13년 9평 47번]
- ㉠ : 막 씨의 당시 처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13년 수능 14번]
- ㉡ :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13년 수능 14번]

공간적 배경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을 이야기한다. 기출의 경우 공간적 배경의 역할과 이해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다.

(가) 정한담과 최일귀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천자께 여쭙오되, “폐하 즉위하신 후에 은덕이 온 백성에 미치고 위엄이 온 세상에 진동하여 열국 재신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번과 가달이 강포함만 믿고 천명을 거스리니, 신 등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남적을 항복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엄이 남방에 가득하고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하리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천자 매일 남적의 강성함을 근심하더니 이 말을 듣고 대희 왈,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라.” / 하시니라.

[중략 줄거리] 이 때 이말을 들은 유주부(유심)는 그에 대하여 반대하였지만, 한담과 일귀의 감언에 넘어간 천자는 유심을 유배보낸다. 유 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은 정한담의 박해로 고난을 겪다가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가 된다.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 적 십만 병을 한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씨 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에 월색이 희미하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紫微星)이 떨어져 변수 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왈,

“이게 웬 변이냐?”

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삐 올라 산호 채찍을 높이 들어 채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왈,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채질을 아니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의 조화라 제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 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채로 채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열린 지나 변수 가에 다다랐다.

작자미상, ‘유충렬전’ [06년 수능 / 미래엔 I, 지학(최) II]

- (가)에서는 배경이 되는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 (O, X) [06년 수능 48번 ③ 변형]
- (나)에서는 배경이 되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O, X) [06년 수능 48번 ③ 변형]

(가)의 공간적 배경은 천자가 있는 궁궐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공간적 배경은 금산성, 호산대, 황성 밖, 변수 가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이 일로 계연을 사랑하던 성기는 드러눕게 되고, 옥화는 성기에게 계연을 떠나보낼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모두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었다. 두릅회에 막거리 한 사발을 쪽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주.” /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뼈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선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빵해서 느릿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위목판에는 새하얀 옛가락이 반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김동리, '역마' [13년 9평 / 비상(유)II, 천재(김) I]

-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O, X) [13년 9평 47번 ④]

위 장면에서 공간적 배경은 화개장터로 나타나는데, 이 공간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시대적 배경

-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08년 수능 47번]
-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09년 수능 20번]
-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10년 6평 43번]
-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12년 6평 40번]
-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 주고 있다. [13년 6평 26번]

시대적 배경은 소설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적 배경을 말하는 것으로,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이야기라도 조선시대이나, 일제 강점기나, 2000년대나 따라 그 내용은 다르게 전개되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배경은 주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들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아니리)
 “제가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야.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거들랑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명을 내리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중머리)
 별주부가 울며 여쭙되,
 “토끼란 놈이 본시 간사하여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며는 조목금수(鳥木禽獸)라도 빈정거릴 터이요 맹획(孟獲)을 칠종칠금(七縱七擒)*하던 제갈량의 재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九族)을 멸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따 보시오.”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몹쓸 놈아. 왕명이 지중커늘 내가 어이 기만하라. 옛말을 네가 못 들었느냐. 하결(夏桀) 학정으로 용봉*을 살해코 미구(未久)에 망국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만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의 나라서 원귀 되고 너의 용왕 백 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 한낱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옛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내 보아라.”
 (아니리)
 “왜 이리 잔말이 심하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가 하릴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 경개가 장히 좋던가 보더라.

작자 미상, ‘수궁가’ [10년 6평 / 신사고 1, 천재(김) 1]

* 칠종칠금 :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 * 용봉 : 중국 하나라의 신화로, 걸왕에게 간언하다 죽임을 당함.

-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O, X) [10년 6평 43번 ②]

동물은 사람처럼 표현한 우화적 요소를 가진 판소리이므로 특정한 시대와 연관시키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어휘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상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오려면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던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가든 신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란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약으로 약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는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꺼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 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마.”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현진건, '고향' [비상(박) I, 천재(김) I, 교학(윤) II, 비상(유) III]

-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O, X) [09년 수능 20번 ①]

'동척(동양 척식 회사)', '소작인', '서간도' 등의 어휘를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1. 장면 : 같은 인물이 동일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광경.

- ㉠ : 이질적인 장면을 삽입하여 비극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05년 6평 34번]
- ㉡ : 장면을 전환하여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왔음을 보여 준다. [05년 6평 34번]
-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5년 9평 25번]
- 현재와 과거 장면의 교차가 빈번하다. [06년 9평 31번]
- 환상적 장면 묘사를 통해 탈속적 분위기가 조성된다. [06년 9평 31번]
- 장면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07년 6평 24번]
-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09년 9평 47번]
-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09년 수능 20번]
-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해 보이는 애착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10년 6평 25번]
- 작품 혹은 각 회의 첫 장면이 시작되거나 배경이 바뀌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 이를 알리는 상투어 [10년 9평 29번]
-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10년 9평 40번]
-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둘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10년 수능 18번]
-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1년 9평 35번]
-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12년 6평 26번]
-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내적 갈등을 고조한다. [12년 6평 26번]
-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13년 6평 34번]
-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13년 9평 47번]
- ㄱ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군. [13년 9평 50번]
- 심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13년 수능 17번]
-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13년 수능 17번]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항*으로 마음에 가뒤흔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입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희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희재언니가 고개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정말 주산을 놓지 않아도 주산 선생님은 그냥 지나간다. 부기 노트에 대차대조표를 그리지 않아도 부기 선생은 탓하지 않는다.

주산 시간에 국어 노트 뒷장을 펴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본다.

[C] ……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 이제 열입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기고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고.

신경숙, ‘외딴 방’ [10년 6평 / 지학(최)Ⅱ, 천재(정)Ⅱ]

* 이항 : 고향을 떠남.

- [C]는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해 보이는 애착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O, X) [10년 6평 25번 ⑤]

‘나’가 수업 시간에도,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기고 있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이전 줄거리] 사명당은 왜의 항복을 받기 위해 일본에 사신으로 간다.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왜왕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채만홍이 주왓,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불같이 달고 사명당을 태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옹계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든 후 백탄을 뒀듯이 쌓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불같이 달군 후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납관을 쓰고 조선 향산을 향하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녘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미하거늘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 하더니 홀연 벽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늬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을 분변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물이 불어 넘쳐 바다가 되고 성 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은 자 수를 아지 못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울이 아니 젖는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왓,
“처음에 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리이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선에 항복하여 백성을 평안히 함만 같지 못하나이다.”

작자 미상, '임진록' [13년 6평 / 천재(김)II, 천재(정)I]

-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O, X) [13년 6평 34번 ④]

'전기적'은 기이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명당이 왜에서 신비한 도술을 부리고 있는 장면은 전기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적용 문제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元求)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욱(東旭)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 때마다 원구에게는 으레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옥(東玉)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 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 오뇌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옥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었다.

(중략)

비 오는 날인 데다가 창문까지 거적때기로 가리어서 방 안은 굴속같이 칙칙했다. 다다미 여덟 장 깔리는 방 안은, 다다미 위에도 시멘트 종이로 장판 바르듯 한 것이었다. 한편 천장에서는 실 사이 없이 빗물이 떨어졌다. 빗물 떨어지는 자리에는 바께스가 놓여 있었다. 출렁출렁 쪼르륵 출렁, 빗물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음향을 남기며 바께쓰 안에 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덤 속 같이 이 방 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 주는 것은 그래도 빗물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 빗물 소리마저, 바께쓰에 차츰 물이 늘어 갈수록 우울한 음향으로 변해 가는 것이었다. 동욱은 별로 원구와 동옥을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 하지 않았다. 동욱은 젖은 옷을 벗어서 걸고, 런닝과 뺨스 바람으로 식사 준비를 할 터이니 잠깐만 앉아 있으라고 하고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부엌이라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옆방이었다. 다다미는 걸어서 벽 한구석에 기대어 놓아, 판장뿐인 실내에는 여기저기 빗물이 오줌발처럼 쏟아졌다. 거기에는 취사도구가 너저분하니 널려 있는 것이었다. 연기가 들어간다고 사잇문을 닫아 버리고 나서, 동욱은 풍로에 불을 피우느라고 부채질을 하며 야단이였다. 열시가 조금 지난 회중시계를 사잇문 틈으로 꺼내 보이며, 도대체 조반이나 점심이냐는 원구의 질문에, 동욱은 넉글넉글하며 자기들에게는 삼시의 구별이 없다고 했다. 언제든 배고프면 밥을 끓여 먹고, 밥 생각이 없는 날은 종일이라도 굶고 지낸다는 것이었다.

손창섭, '비 오는 날' [미래엔Ⅱ, 지학(최)Ⅱ]

(1) 위 소설에서 시간적 배경을 찾아 적어 보자.

▶

(2) 위 소설에서 공간적 배경을 찾아 적어 보자.

▶

(3) 위 소설에서 시대적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찾아 적어 보자.

▶

<정답>

- (1) 비 오는 날
- (2) 동욱 남매의 집
- (3) 다다미, 풍로

기출로 확인하기

1. 다음 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년 수능 48번]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 집으로 옮겨 갔을 때도, 아이들은 민 노인을 에워싸고 역시 성규 할아버지의 북소리는, 우리 같은 줄개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올렸다.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 노인으로서 듣기 싫지 않았다.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 주는 말이기도 했다.

“애들아, 꺼져 가는 떠돌이 북쟁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민 노인의 겸사에도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품이 다른걸요.”

“맞아요. 우리가 칠 때는 죽어 있던 북소리가, 팽과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니까요.”

“성규, 이번에 참 욱보았다.”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 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꽤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 옛날에는 없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이런 식 담합이,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 볼 수는 없었으되.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본 공연이 열리던 날 새벽에 민 노인은 성규에게 일렀다.

“아무리 단역이라고는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고는 못 나간다. 모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북채를 잡을 수 없어.”

“물론이지요.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 놓으세요. 제가 따로 가지고 갈게요.”

“두 시부터라고 했지?”

“네.”

“이따 만나자.”

일찍 점심을 먹고, 어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민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레임으로 흔들렸다.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춤판에 영감쟁이 하나가 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모처럼의 북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얽은 적막감도 씻어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젊은 훈길들이 뿜어내는 학교 마당에 서자 그런 머뭇거림은 가당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 속에 섞여 원진(圓陣)을 이루고 있는 구경꾼들을 대하자,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지 녹아 내렸다. 그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었다. 노장이 나오고 취발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목중들이 춤을 추며 걸쭉한 음담패설 등을 쏟아 놓을 때마다, 관중들은 까르르 웃었다. 민 노인의 북은 요긴한 대목에서 뚝뚝 울렸다. 찌지는 소리를 내는 팽과리며 장구에 파묻혀 제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 노인에게는 전혀 과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기운도 가세하여,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북소리는 툭 툭 꽃혔다. 그새 입에서는 얼씨구! 소리도 적시에 흘러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착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뭇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녀들 체면 깎았나.”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최일남, ‘흐르는 북’ [08년 수능 / 교학(윤) I, 신사고 II]

- ① ‘막걸리 집’은 ‘민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 ② ‘춤판’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려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③ ‘춤판’은 ‘구경꾼들’이 공연 내영에 반응하며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 ④ ‘춤판’은 ‘민노인’이 신명 나게 북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 ⑤ ‘집’은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다.

3. 형식

1 서술자, 시점

개념

1. 서술자(敍述者) : 소설 속에서 사건의 진행을 전달하는 사람.
2. 시점(視點) :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입장이나 관점.

마인드 맵



교장 어른은 몸소 써서 만든 ‘반야심경’ 열 폭 병풍 앞에서 한복 차림으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나를 반갑게 맞았다. 나는 그분에게서 곱게 늙고 있는 행복한 서민의 모습을 보았다. 육십 평생을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만 살다 정년퇴임한 지 몇 해가 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선생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방 한편 구석 문갑 위에 있는 한란 분이 그 어른의 기품과 어울리는 것 같았다. 새배꾼들이 다녀갔는지 방석들이 즐비하니 널려 있었다.

교장 어른은 아까 종갓집에서와는 다르게 나를 대하면서 벌써 찾아간 연유를 알고 있었다. 나는 신문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설명하고 나서,

“할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그분과 오랜 교분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계시겠기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일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되도록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사실 나 자신 한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뚜렷한 생각도 잡혀지지 않은 처지라서 우선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일제 시대 관리 노릇을 하였고 더구나 면장을 오랫동안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국에 누군들 면장을 해야 했을 거이고, 더구나 일본 사람이 면장을 했던 것보담야 훨씬 나았지. 나도 일제 시대 여남은 해 동안 교단에서 서서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시비를 가릴 자격은 없어. 큰집에서 내가 좀 강경하게 말한 것은 자네 칠촌 말일세. 일본 가서 살아서 이곳 사정을 모르는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비위가 상했던 거야. 자기도 그곳에서 살았으면 아니, 일본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고 독야청청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애국만 하며 살 수 있었겠냐 말이네. 어림없어. 아마 먼저 더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살았을지 누가 알아. 사실 이곳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좋은 일 굶은 일 모두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말아야 돼.”

재종숙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교장 어른에게서도 새로운 김만호의 면모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현길언, ‘신열(身熱)’ [09년 6평]

위 소설의 제시된 부분에서 서술자는 ‘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는 ‘교장 어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장 어른과의 대화를 통해 ‘김만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다.

① 서 술 자

- 줄표(—)와 줄임표(…)의 활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06년 6평 46번]
-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이 함께 기술되고 있다. [06년 9평 44번]
-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09년 9평 47번]
-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09년 수능 20번]
-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09년 수능 20번]
- ㉠은 [B]에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여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10년 6평 24번]
-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10년 수능 38번]
- 서술자는 ㉡을 ‘주체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10년 수능 41번]
-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12년 9평 13번]
- (나)에 비해 (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 [12년 수능 25번]
-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13년 6평 26번]
-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13년 6평 26번]
-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3년 수능 13번]

서술자는 소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시에서의 ‘화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서술자는 작품 안에 등장하기도 하며, 작품 외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습다. 생변*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寺內)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사 돈 물 것이 똑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들고……. 하하하.” /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그런 별이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중략)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별안간에 육객의 한 떼가 또 왁자하고 들이 밀려오기에 나는 그만 듣고 몸을 훑치기 시작하였다.
 스물두셋쯤 된 책상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여야 다만 심심 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 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염상섭, ‘만세전’ [06년 9평 / 미래엔Ⅱ, 비상(박)Ⅱ, 지학(권)Ⅱ, 지학(최)Ⅱ, 창비Ⅱ, 천재(김)Ⅱ, 천재(정)Ⅱ]
 * 생변 : 교화되지 않은 야만인. / * 요보 : 일제 시대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을 얕잡아 부르던 말.

-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이 함께 기술되고 있다. (O, X) [06년 9평 44번 ㉠]

제시된 부분은 ‘나’가 서울로 오는 길에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민족의 현실에 대하여 자각하는 장면이다.

그런 중에도 웅점이는 조금 달랐다. 그네들의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던 거였다. 굶다 못해 이불솜을 빼다 팔아 겨울에도 흠이불을 덮는다든가, 변변한 옷가지는 죄 팔아먹어 주저골이 것처럼 비렁뱅이 꼴이라는 거였다. 그렇다면서 전재민만 오면 어머니를 졸라 무엇이든 한 가지는 알아주도록 꺾하던 것이다.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면,

“옥상, 오꼬시 사 먹소.”

하며 들어붙던 절름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본에서 건너오다 처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라는 거였다.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 전디겠수.”

웅점이가 어머니한테 하던 말이다.

과자를 먹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웅점이는 서슴지 않고,

“쭉쟁이 보리 한 종발 주구 옥상헌티 샀지.”

했다. 옥상에게 곡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녀가 내게 굳것질을 시킨 이유는, 옥상이라고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혹한 뜻이 없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서 내가 가장 깨닫기 수월했던 말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다. 어떡하는 것이 주체 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함이 예사이고, 말을 얹으면 병신 대접 받기 십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체 의식이나 주체성이란 말을 외래어보다도 막연하게, 개나 걸이나 지껄여 대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터여서, 그 천한 말을 웅점이는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써 보여 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이문구, ‘관촌수필’ [10년 수능 / 교학(윤) I, 두산 II]

-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O, X) [10년 수능 38번 ①]

어린 시절 웅점이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한 뒤, 웅점이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다.

개념+

1. 서술자의 직접 개입(편집자적 논평) : 서술자가 소설 내용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05년 6평 53번]
- (가)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논평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05년 수능 56번]
-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06년 6평 24번]
-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06년 수능 48번]
-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06년 수능 48번]
-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07년 9평 44번]
-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08년 6평 44번]
-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8년 수능 27번]
-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08년 수능 47번]
-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가 들어난 논평 [10년 9평 29번]
-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1번]
-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작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6번]
-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성격을 회화화하고 있다. [13년 9평 20번]

이때, 함경도 곡산 땅에 한 사람이 있되, 성은 김(金)이요 명은 덕령(德齡)이라. 힘은 능히 삼천 근을 들고 신장은 구척이요, 검술과 육도삼략이 옛날 황석공의 도술을 당하는지라. 아깝도다. 이때는 부친의 초토(草土)* 중에 있고, 모부인을 섬겨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들으니 왜적이 백 리 안에 온다 하거늘 모부인에게 여쭙오되,

“국운이 불행하여 왜적이 산과 들에 가득 찼사오니, 소자가 비록 초토에 있사오나 지금은 국사가 망국하오니 신민의 도리로 어찌 편안하오리이까? 나아가 도적을 물리치고 즉시 돌아오리이다.”

부인이 책망하여 왈,

“너는 어찌 무지한 말로 어미를 놀라게 하느냐? 공자(公子)는 구 년 거상(居喪)이요, 군자(君子)는 육 년 거상이요, 대부(大夫)는 삼 년 거상이라. 네 어찌 무슨 지략으로 사정에 어두운 말을 하느냐? 만일 내 말을 거역하면 모자지(母子之義)를 끊으리라.”

작자 미상, ‘임진록’ [08년 6평 / 천재(김) II, 천재(정) I]

* 초토 : 거적자리와 흙 베개라는 뜻으로, 상중에 있음을 이르는 말.

[보기]

남원부 사람으로 전에 참봉을 지냈던 변사정이 의병을 모집하여 영남으로 가려고 할 때, 최척은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기 때문에 의병에 뽑혀서 동행하게 되었다. 최척은 진중에 있으면서 옥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다.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소장(訴狀)을 올려 휴가를 청하자, 의병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이 어느 때인데 감히 혼사에 대해 말하느냐? 임금께서도 난리를 당하여 피난을 가서 풀숲을 방황하고 계시니, 이러한 때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창을 베고 잘 겨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의병장은 이렇게 꾸짖으며 끝내 최척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옥영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날을 헛되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O, X) [08년 6평 44번 ④]

위 글에서는 서술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보기]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십량은 교씨를 위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로는 한림이 교씨에게 푹 빠져 종전의 모습을 잃었다. 사씨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 수 없어 그냥 두고 보았다. 교씨는 사씨를 시기하여 한림에게 여러 번 비방을 했지만 여의치 못하자 조바심이 들어 다시 십량을 불러 물었다.

“나의 이러한 재주와 용모로 남의 첩이 되어 장차 앞길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사씨를 없애면 은혜를 후하게 갚으리라.”

십량이 한참 만에 말했다.

“이 일이 참으로 난처하니 다른 묘책이 없는지라. 장주 공자가 병들기를 기다려 여차여차 하옵소서. 다급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교씨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십량이 만들어 준 방자*에 쓰이는 요망한 물건들을 사방에 두루 묻고 납매를 불로 음모의 절차를 자세히 일러 주었다.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니 집안에서는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었다. 장주가 감기에 걸려 때때로 토하며 놀라는 증세를 보였다. 십량이 말한 계책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장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림이 백자당에 오자 교씨가 울며 말했다.

“장주가 감지가 병에 걸려 크게 앓으니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옵니다. 증세를 보니 예사 병이 아니라 분명 집안 누군가가 장주를 저주하여 생긴 병인가 하나이다.”

한림이 교씨를 위로하고 나서 장주의 병세를 보니 증세가 가볍지 않았다. 매우 걱정하면서 약을 지어 먹였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한림은 걱정하고 교씨는 곁에서 즐기치게 울었다.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

김만중, ‘사씨남정기’

[14년 예비 시행 A형 / 미래엔Ⅱ, 비상(박)Ⅱ, 신사고Ⅰ, 지학(권)Ⅰ, 지학(최)Ⅰ, 천재(김)Ⅱ, 천재(정)Ⅰ]

* 방자 : 남이 못되거나 재앙을 받도록 귀신에게 빌어 저주하는 술법.

-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O, X) [14년 예비 시행 A형 31번 ②]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과 감정이 드러난 부분이 나타나 있다.

② 시 점

- ㉠ : 서술 시점을 바꿔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를 준다. [05년 6평 34번]
-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를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08년 6평 25번]
-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09년 9평 47번]
-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09년 수능 20번]
- 전지적 작가 시점을 유지하여 서술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7번]
-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7번]
-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13년 6평 26번]
-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13년 6평 26번]
- ㉢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3년 9평 48번]
-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3년 수능 13번]

서술자는 여러 입장으로 소설 속 사건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시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서술자의 시점은 4가지로 나뉜다. 소설 속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 속 ‘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 밖 누군가가 등장인물들을 관찰하고 표면적인 사건만을 전달해 주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 밖 누군가가 표면적인 사건 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심리까지도 이야기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그것이다. 만약 소설에서 ‘나’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대명사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1인칭 시점이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3인칭 시점이 된다.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 전지적 시점인지는 소설의 일부 부분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대 기출에서는 시점을 자세하게 따져 묻지 않거나 명확한 부분만을 묻고 있다.

집에서 나온 것이 아홉 시쯤, 그래서 김 반장도 가갯방에 놓은 흑백텔레비전으로 저녁 뉴스를 시청하느라고 내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가들면 색시가 컬러텔레비전을 해올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고물 텔레비전으로 견디어 내는 김 반장의 등허리를 흘끗 쳐다보고 나는 신발까지 벗고 의자 위에 냉큼 올라 앉았다. 잠이 오면 탁자에 엎드려 한숨 졸고 있어 볼 생각으로 나는 가물가물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거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한산했고 지물포나 사진관도 일찌감치 아크릴 간판에 불을 꺼 둔 채였다. 우리정육점은 휴일인지 셔터까지 내려져 있었다. 그 옆의 서울미용실은 경자 언니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홉 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을 꺼 버린 채였다. 형제슈퍼에서 공단 쪽으로 난 길은 공터가 드문드문 박혀 있어서 원래 칠흑같이 어두웠다. 한 블록쯤 가야 세탁소가 내비치는 불빛이 짙은 새어 나올 뿐이고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소방 도로 옆으로는 자갈이며 벽돌 따위가 쌓여 있었다.

[A] 바로 그때 공단 쪽으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뭔가 비명 소리도 같고 욕지기를 참는 안간힘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 왔다. 아니, 그때 나는 비몽사몽 졸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분명 잠에 흠뻑 취해 있었음이 분명했다.

양귀자, '원미동 시인' [14년 예비 시행 A형 / 교학(운) 1]

- 전지적 시점을 유지하여 서술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O, X) [14년 예비 시행 A형 37번 ①]
-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O, X) [14년 예비 시행 A형 37번 ③]

일곱 살 소녀인 '나'를 통해 원미동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가) 그맘쯤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가객(歌客)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엇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데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으되,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 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또랑물 속으로 싸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부끼며 얹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꽃히더니 정수리에서 발뒤꿈치로 뚫고 들어와 땀뭍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 위에 턱 걸쳐지는 이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듯하게 덥히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몸에 싣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꼬집어내어지는 중이었다.

[중략 줄거리] 저자 사람들은 가객 '수추'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흥취한 수추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증오 를 느끼고 떠나갔다. 수추는 저자를 떠너 강을 건너간 뒤, 시냇가에서 음률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나)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 보았지만, 음률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걸을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황석영, '가객' [13년 6평]

-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O, X) [13년 6평 26번 ③]

(가)에서는 작품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수추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작품 외적 서술자가 수추의 내면 심리까지 직접 서술하고 있다.

개념+

1.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 : 다른 인물의 심리 등은 드러내지 않고 특정 인물의 심리만을 드러내는 것.

-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06년 수능 56번]
-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08년 수능 47번]
-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11년 6평 28번]
-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 [11년 9평 35번]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총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릿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복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복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뇌들 체면 깎았냐.”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다닥 문을 닫고 나갔다.

최일남, ‘흐르는 복’ [08년 수능 / 교학(윤) I, 신사고 II]

-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O, X)
[08년 수능 47번 ㉔]

제시된 부분의 경우, 주로 민 노인의 시각에서 서술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줄거리] 운전기사로 일하던 시우는 사모님이 낸 사고를 대신 낸 것처럼 하되,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장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종우 형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백팔십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도 공사판을 그만두구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야간이라도 학교엘 나갈 수 있게 됐구. 참아 줘. 이건 정말 면목이 없다만, 어떡허니. 그걸 수밖에 없잖니? 그저께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애길 했더랬어. 전생에 다시 갚지 못할 빚을 네게 졌다면서 말이야. 네가 출감하면 운전수든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구,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우리두 성공하여 옛말하구 살자꾸나. 정말 성공하여 남부럽잖게 될 때, 이 피눈물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위로하자…….”

멀찌감치 선 간수 귀를 피해 귀엣말로 종우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역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낄 때,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김원일, '잠시 늙는 풀' [11년 9평]

-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 (O, X) [11년 9평 35번 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시우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반응과 그의 심리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적용 문제

이년! 이 백번 꺾에도 쌀 년! 앓는 남편두 남편이지만, 어린 자식을 놔두구 그래 도망을 가? 것두 아들놈 같은 조수 놔두구서…… 그래 지금 한창 나이란 말이다? 그렇다구 이년, 내가 아무리 늙구 병들었기루서니 거랑질이야 할 줄 아니? 이녀언! 하는데, 옆에 누웠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가이! 하였으나 송 영감은 꿈속에서 자기 품에 안은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가이! 하고 부르는 것으로 알며, 오냐 데건 네 에미가 아니다! 하고 꼭 품에 껴안는 것을 옆에 누운 어린 아들이 그냥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 잠고대에서 송 영감을 깨워 놓았다.

송 영감은 잠들기 전보다 더 머리가 무겁고 언짢았다. 애가 종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오, 오, 하며 송 영감은 잠고대 속에서처럼 애를 끌어안았다. 자기의 더운 몸에 별나게 애의 몸이 찻다. 벌써부터 이렇게 열리어서 될 말이나고, 송 영감은 더 바싹 애를 껴안았다. 그리고 훌쩍이는 이제 일곱 살 난 애를 그렇게 안고 있는 동안 송 영감은 다시 이 어린 것을 두고 도망간 아내가 새롭게 괴심했다. 아내와 함께 여드름 많던 조수가 떠올랐다. 그러자 그 아들 같은 조수에게 동년배 사내가 느끼는 어떤 적수감이 불길처럼 송 영감의 괴로운 몸을 휩쌌다.

송 영감 자신이 집중* 잡히지 않는 병으로 앓아누웠기 때문에 조수가 이 가을로 마지막 가마에 넣으려고 거의 혼자서 지어 놓다시피 한 중옹 통옹 반응 머썩기 같은 크고 작은 독들이 구월 보름 가까운 달빛에 마치 하나하나 도망간 조수의 그림자같이 느껴졌을 때, 송 영감은 벌떡 일어나 부채 방망이를 들어 모조리 깨부수고 싶은 충동을 받았으나, 다음 순간 내일부터라도 자기가 독을 지어 한 가마 채워 가지고 구워 내야 당장 자기네 부자가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면서는, 정말 그러한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지그시 무거운 눈을 감아 버렸다.

날이 밝자 송 영감은 열에 뜬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일어나 앉아, 애더러는 흙 이길 뺨손이*를 부르러 보내 놓고, 뺨손이 올 새가 바빠서 자기 손으로 흙을 이겨 틀 위에 올려놓았다. 송 영감의 손은 자꾸 떨렸다. 그러나 반쯤 독을 지어 올려, 안은 조마구* 밖은 부채 마치*로 맞두드리며 일변 발로는 틀을 돌리는 익은 솜씨만은 알아놓기 전과 다를 바 없는 듯했다.

뺨손이가 와 흙을 이겨 주는 대로 중옹 몇 개를 지어 냈다. 그러나 차차 송 영감의 솜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 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혀지지 않을 것이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뺨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천재(고) I, 천재(김) I]

* 집중 : 병의 증세를 알아내는 일. / * 뺨손이 : 흙 반죽하는 사람. / * 조마구 : 작은 주먹을 귀엽게 또는 알잡아 이르는 말.

* 부채 방망이 : 도자기의 몸을 늘일 때 쓰는 방망이. / * 전 : 독이나 화로 따위의 위쪽 가장자리가 약간 넓게 된 부분.

(1) 위 소설에서 서술자는 누구인지 찾아 써 보자.

▶

(2) 위 소설의 시점을 적어 보고, 그 특징을 적어 보자.

▶

(3) 위 소설에서 서술의 초점이 '송 영감'에 맞춰져 있다고 할 때, 그 효과를 생각하여 적어 보자.

▶

<정답>

(1) 3인칭 작가

(2) 전지적 작가 시점 : 모든 등장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음

(3) 송 영감의 심리에 독자들이 공감하도록 유도함

“관청색(官廳色) 불러 다담상(茶啖床)을 올려라! 육고자(肉庫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禮房) 불러 고인(鼓人)을 대령하고, 승발(承發) 불러 차일(遮日)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잡인(雜人)을 금하라!”

이렇듯 요란할 제, 기치군물(旗幟軍物)이며 육각 풍류(六角風流) 반공(半空)에 떠 있고, 녹의홍상(綠衣紅裳) 기생들은 백수(白手) 나삼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두덩실’ 하는 소리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원님 전에 여쭙어라! 먼 데 있는 걸인이 좋은 잔치에 당하였으니 술 안주 얻어먹자고 여쭙어라!”

저 사령 거동 보소.

“어느 양반이간다? 우리 안전(案前)님 걸인 혼금하니, 그런 말은 내도 마오!”

등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官)인가. 운봉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걸인이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손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하는 말이.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하니 ‘마는’ 소리 뒷입맛이 사납겠다. 어사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랏줄은 네가 저라!’

운봉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듚시래라!”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堂上)의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넓게 퍼질 때, 어사또 상(床)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채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거리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작자 미상, ‘춘향전’ [지학(최)Ⅱ, 교학(윤)Ⅰ, 천재(고)Ⅰ, 해냄Ⅰ]

* 차운 :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지음, 또는 그런 방법.

(1) 위 소설에서 서술자는 누구인지 찾아 써 보자.

▶

(2) 위 소설의 시점을 적어 보자.

▶

(3) 위 소설에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모두 써 보자.

▶

<정답>

(1) 3인칭 작가

(2) 전지적 작가 시점

(3)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기출로 확인하기

1.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9년 수능 20번]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여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그날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똑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이었다. 나란 높은 아마 알 수 없는 농민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쪽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옮겨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쳐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쳐는 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김승욱, '역사' [09년 수능 / 비상(유)II, 비상(박)II]

- 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③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면서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 ④ 현학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2. ㉠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3년 9평 48번]

[앞의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 주 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빠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 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 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마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마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꺾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꺾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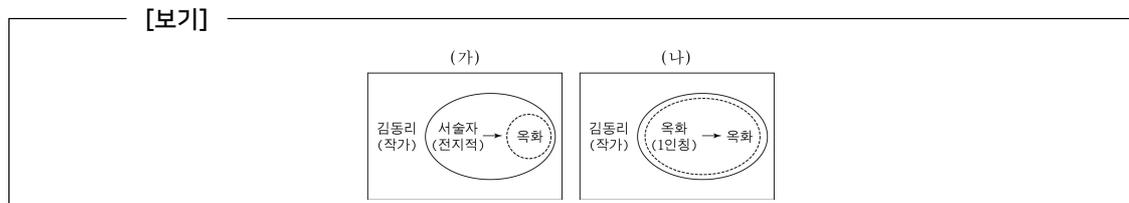
옥화는 잠시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물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김동리, ‘역마’ [13년 9평 / 비상(유)Ⅱ, 천재(김)Ⅰ]

* 향라 적삼 : 명주, 모시, 무명실 따위로 된 한 겹의 윗도리.
* 통정 : 통사정.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 * 명도 :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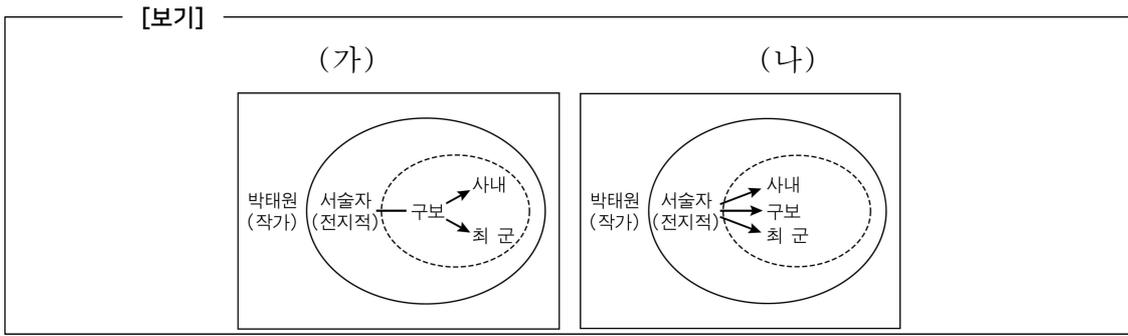
- ①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②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③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④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⑤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어머니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3.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08년 6평 25번]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반스 센터멘털」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소리가, 구포 씨 아니오— 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이삼 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에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게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꼬떡하여 보이고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내가 또 한 번,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좀 안 오시료,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싶은 것을 눈치 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구포 씨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08년 6평 / 신사고 I, 지학(권) I, 지학(최) II, 천재(경) I, 해냄 II]



- ①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 ②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감을 맛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 ③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 ④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 ⑤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 문체, 제시 방법

개념

1. 문체(文體) : 문장에 나타나는 작가의 개성적 표현으로 서술, 묘사, 대화가 문체의 3요소를 이룸.
2. 제시 방법(提示 方法) : 인물이나 장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적 제시 방법과 간접적 제시 방법이 있음.

마인드 맵



다음날 아침, 명희 어머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집을 헐었다. 어머니가 십오만 원을 갚았다. 두 부인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아무 말도 못 했다.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희네 집을 실었다. 명희 어머니가 치마를 올려 눈물을 닦았다.

“에유, 정이란 원지!”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정이란 게 이렇게 더러운 게라우.”

그 말이 우리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용달차가 집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왼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때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렌즈를 지키는 일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년 이태까지 뭘 배웠니?”

아버지가 말했다.

(중략)

나는 돌멩이를 집어 다시 방죽을 향해 던졌다. 어머니도 기진해 다른 말을 못 했다. 형이 어머니의 등을 밀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백여 채의 집이 헐리고 남은 것은 몇 채 안 되었다. 우리도 영희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철거일을 어겨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 꽃 두 송이뿐이었다. 나는 좀 큰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05년 6평]

위 소설의 제시된 부분의 경우 비교적 한 문장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체를 간결한 문체라고 한다. 그리고 명희네가 이사가는 날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나’의 대화가 등장한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의 모습이 요약적 서술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요약적 서술은 직접적 제시 방법에 해당한다.

① 문 체

- **간결한 문체**로 사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05년 9평 52번]
-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군. [06년 6평 46번]
-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06년 9평 44번]
- ㉠ :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6년 수능 59번]
- **짧고 감각적인 문장**이 반복된다. [07년 9평 15번]
- ㉡는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10년 6평 24번]
-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10년 9평 40번]
-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12년 6평 40번]
- **심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13년 수능 17번]

작가나 작품은 저마다 특징적이고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는데, 역대 기출에서는 주로 간결한 문체와 감각적 문체에 대하여 묻고 있다.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번 맺어진 문장을 **출문장**이라고 하는데, **출문장**이 많을수록 간결한 문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청각·후각·촉각·미각 등의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문장이 많을수록 감각적 문체라고 한다. 이번 수능의 경우 ‘**긴 문장**’을 활용한 문체에 대하여 물었는데 이는 간결한 문체와 반대되는 것으로 **겹문장**이 많이 나타나는 문체를 말한다.

주머니에는 단돈 십 전, 그도 안경다리 고친다고 벌써 세 번쨌가 네 번째 딸에게서 사오십 전씩 얻어 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 보내고 말던 최후의 십 전, 안 초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내었다. 백통화 한 푼을 엮은 야윈 손바닥, 가만히 떨리었다. 서 참위(徐參尉)의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갈망스러운 손이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따금 술잔은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건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먹는 서 참위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다. 그래도 언제든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낮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쳐 보려니 믿어졌다.

초시는 전에 어떤 관상쟁이의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늘 그렇게 쥐노라고는 했지만 문즉 생각이 나 내려다볼 때는. 으레 엄지손가락이 알뎀도록 밖으로만 쥐어져 있었다. 그레 드팀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그레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었다가도 그만 화재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다.

“이놈의 엄지손가락아, 안으로 좀 들어가아, 젠—장.”

하고 연습 삼아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넣고 아프도록 두 주먹을 짝 쥐어 보았다. 그리고 당장 내어 보낼 돈이면서도 그 십 전짜리를 그렇게 쥔 주먹에 단단히 넣고 담배 가게로 나갔다.

이태준, ‘복덕방’ [07년 9평 / 비상(유) I, 지학(최) I]

* 장전 : 장롱과 찬장을 파는 가게.

- **짧고 감각적인 문장**이 반복된다. (O, X) [07년 9평 15번 <보기> ㄴ]

길이가 긴 만연체의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전 줄거리] 광복 직후,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 모두에 환멸을 느낀다.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된 명준은 석방 과정에서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를 타고 제삼국으로 떠난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 데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뺏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 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곳에 모으고, 콧 밭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 있게 밭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뿐, 우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 북도로 나선다. 북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 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흥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 본다. 이 배가 밧아 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 잡고, 해도 위를 재 보는 시늉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 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최인훈, '광장' [06년 수능 / 두산Ⅱ, 비상(박)Ⅰ, 비상(유)Ⅱ, 지학(권)Ⅱ, 창비Ⅱ, 천재(김)Ⅱ, 천재(정)Ⅱ]

- ㉠은 인물의 행동을 짚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 X)

[06년 수능 59번 ㉠ 변형]

㉠의 경우 그(명준)의 행동이 단문인데다가, 주어까지 생략된 채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결하고 짧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실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싶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차 뭇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실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농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

박태원, '천변풍경' [13년 수능]

- 심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O, X) [13년 수능 17번 ㉡]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소년이 바라보는 여러 대상과 장면들이 심표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기출에서는 이러한 특정 문체의 특징 보다는 문체의 구성 요소인 ‘서술, 묘사, 대화’에 대한 문제가 대다수라 할 수 있다.

㉠ 서술

- ‘달’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현실 개혁의 방법을 제시한다. [05년 6평 36번]
-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05년 9평 25번]
- (나)의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은 이후에 서술될 ‘인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05년 수능 56번]
-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06년 6평 46번]
- ㉠ :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6년 수능 59번]
-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08년 수능 27번]
- ㉠은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10년 6평 24번]
-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10년 6평 43번]
- 전 회에서 서술된 사건을 부연·반복하여 앞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대목 [10년 9평 29번]
-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11년 6평 28번]
-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 [11년 9평 35번]
-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11년 수능 40번]
- 주인공의 반복적 행위를 서술하여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11년 수능 40번]
- 사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2년 6평 40번]
-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12년 9평 13번]
- (나)에 비해 (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 [12년 수능 25번]
-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2번]
-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낸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7번]
- 현재 ‘나’의 시각으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7번]
- 일상적 구어체에 가까운 산문적인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6번]
-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여 그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3년 6평 26번]
-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13년 6평 26번]
-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13년 수능 13번]

서술은 광의의 의미로는 소설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학자에 따라 서술 방식 안에 서술, 묘사, 대화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의 서술은 묘사나 대화와 비교되는 것으로 ‘그는 10년 동안 미국에서 고생하며 돈을 벌었다.’와 같이 비교적 긴 시간의 이야기를 압축하여 사건의 경과를 나타내는 ‘요약적 서술’을 주로 말한다.

[이전 줄거리] 학교에 나가기 실행하는 '나'에게 선생님은 반성문을 써 오라고 시킨다. '나'는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와 그동안의 서울 생활에서 느낀 점을 반성문에 쓰기 시작한다.

나는 주산 놓기도 싫고 부기책도 싫으며 지금은 오로지 마음속에 남동생 생각뿐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반성문은 노트 삼분의 일은 되게 길어진다.

반성문을 다 읽은 선생님이 말한다.

“너 소설을 써 보는 게 어떻겠냐?”

내게 떨어진 소설이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다. 소설을 써 보라는 말.

그는 다시 말한다.

“주산 놓기 싫으면 안 놓아도 좋다. 학교에만 나와. 내가 다른 선생들에게 다 말해 놓겠어. 뭘 하든 니가 하고 싶은 걸 하거라. 대신 학교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는 내게 한 권의 책을 건네준다.

“내가 요즘 최고로 잘 읽은 소설이다.”

표지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써어 있다.

(중략)

[B]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항*으로 마음에 가뒤했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일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희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희재언니가 고개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신경숙, '외딴 방' [10년 6평 / 지학(최)II, 천재(정)III]

* 이항 : 고향을 떠남.

- [B]에서는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O, X) [10년 6평 24번 ③ 변형]

[B]에서는 간결한 문장을 통해 소설 쓰기의 계기가 된 최홍이 선생님과 만남, 즉 열일곱 시절의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하루는 유 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석 낭중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내 남쪽 지방이 동청이란 자를 천거했다. [A] 동청이란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떠돌며 무뢰배와 어울려 주색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로 나와 대갓집에 빌붙어 살았다.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자제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석 낭중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고, 낭중도 동청의 정체를 알고는 괴로워하던 중이었다. 낭중이 마침 외직으로 부임하는 차에 동청의 허물을 감추고 유 한림에게 소개한 것이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14년 예비 시행 A형 / 미래엔II, 비상(박)II, 신사고I, 지학(권)I, 지학(최)I, 천재(김)II, 천재(정)I]

-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O, X) [14년 예비 시행 A형 32번 ⑥]

[A]에서는 동청이란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그의 바르지 못한 성품이 형성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묘사

-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05년 9평 52번]
-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로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06년 6평 24번]
-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군. [06년 6평 46번]
- 환상적 장면 묘사를 통해 달속적 분위기가 조성된다. [06년 9평 31번]
- 감각적 묘사를 통해 공간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06년 9평 44번]
- 주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을 드러낸다. [06년 수능 48번]
-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7년 9평 44번]
-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07년 수능 15번]
- @ :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07년 수능 43번]
-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로 독자의 상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09년 6평 28번]
- © :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09년 수능 48번]
- @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09년 수능 48번]
- 두 사람이 연주한 곡조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묘사되었다. [10년 9평 28번]
-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를 맞출 필요가 있겠군. [10년 수능 18번]
-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활용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10년 수능 38번]
- 담담하나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1년 6평 28번]
-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11년 9평 35번]
-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11년 수능 40번]
-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12년 6평 40번]
-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2번]
-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7번]
- © : 사실적인 인물 묘사로 친근감을 유도하여 인물에 대한 동정심을 자아낸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2번]
- ㉠ : '선형'은 현실 도피를 꿈꾸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B형 37번]
-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13년 6평 34번]
-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13년 수능 13번]

묘사란 마치 그림을 그리듯 인물이나 배경, 장면 등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 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였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였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들 다들 거둬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김유경, '만무방' [07년 수능 / 두산II]

-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O, X) [07년 수능 15번 ④]

응오와 응칠이 형제의 성격과 특성에 대하여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전 줄거리] 이시백의 아버지인 상공이 금강산에서 박 처사를 만나 자신의 아들과 박 처사의 딸을 혼인시키기로 결정한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촌이라. ㉠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펴펴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꾀꼬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가기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09년 수능 / 두산Ⅱ, 지학(최)Ⅱ, 천재(정)Ⅰ]

* 환우성 : 벗을 부르는 소리

- ㉠ :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O, X)
[09년 수능 48번 ㉠]

'좌우 산천 바라보니'의 시선은 바로 등장 인물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

1. 내면 묘사 :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상세하게 드러내는 것.

-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05년 9평 52번]
- ㉠ : 죽음을 앞둔 안 초시의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07년 9평 18번]
-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08년 수능 27번]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10년 9평 40번]
-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11년 6평 47번]

민(閔) 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하였다. 특히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중략)

손님이 또 물었다.

“영감님은 신선도 보았소?”

“보았지”

“신선은 어디에 있소?”

“집이 가난하나 자가 바로 신선이라오. 부자들은 늘 속세를 그리워하는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속세를 싫어하니, 속세를 싫어하는 게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박지원, ‘민옹전(閔翁傳)’ [05년 9평]

-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O, X) [05년 9평 52번 ㉠]

‘민 영감’이라는 인물에 대한 요약적 서술과 손님과 민 영감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전 줄거리] 동경 유학생이던 김희준은 학자금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인 원터 마을로 돌아 온다.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 지도자가 되어 동네 마름과 대결해 나간다.

원터 뒷산에 아득한 솔숲이 우중충하게 그늘진 밑으로 마을의 초가집들은 선경과 같이 은은히 안겨 있다. 조각달은 어느덧 서천에 기울어졌는데 딱따구리는 뒷산에서 울고 소쩍새는 동구 앞 느타나무 속에서 운다. 고요한 이 밤에 한 줄기 시냇물은 은파를 번득이며 들 가운데로 감돌아 흐르는데 큰 내의 여울물은 바다같이 흰하게 남쪽으로 트여 있다.

“소쪽! 솟소쪽!……”

소쩍새는 처량하게 밤을 새워 올려는가!

홀로 가는 희준이는 적적한 들 가운데를 접어들며 마음속에 고독을 느꼈다. 그의 외로운 그림자가 논둑길 밑으로 따라온다. 넓은 들과 같이 마음속에도 공허를 가져왔다. 그는 동무들을 격려하며 일을 보다가도 가끔 이와 같은 적막을 느꼈다. 그런 때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함께 웃고 떠들어도 자기만은 산중에 홀로 있는 사람같이 의식의 간격을 자아낸다.

‘이까짓 일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담!’

그는 자기의 생활이 무의미한 것 같았다. 인간이란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가소로운 생각도 난다. 그는 금시로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서 만사가 무심해졌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 농들은 모두 조그만 사육에 사로잡혀서 제 한 몸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말로나 글로는 강한 소리를 하지만 뱃속은 돼지같이 꿀꿀거리는 동물이야! 그것들과 같이 일을 해 보겠다는 나 자신부터 같은 위인이 아닐까?’

그러다가도 어떤 박자로 열이 올라서 다시 일에 열중할 때는 금시로 그는 어떤 희망에 날뛰어서 낙관을 하게 했다.

‘그렇다! 그들도 사람이 아닌가. 잘 지도하면 된다.’

마치 그는 숨 죽었던 모닥불이 한동안 검은 연기만 토하다가 별안간 불길을 확 내솟듯이 청년의 왕성한 ‘열정’이 모든 곤란을 무찌르고 일었었다.

이기영, ‘고향(故鄉)’ [미래엔 II]

-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O, X) [08년 수능 27번 ②]

농민들을 계몽시키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에 대해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끼면서도 다시 희망을 갖는 김희준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다.

㉔ 대화

- **대화**를 통해서 극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05년 9평 52번]
- (마)의 인물 간 **대화**는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굳은 결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05년 수능 56번]
- 진실성 없이 겉과 속이 다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두었군. [06년 6평 27번]
-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06년 6평 46번]
-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06년 수능 48번]
- 격조 있는 표현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07년 6평 24번]
-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7년 6평 52번]
-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07년 9평 44번]
- (나)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07년 수능 42번]
-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08년 수능 27번]
-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9년 6평 28번]
- ㉔ : **대화** 속에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09년 수능 48번]
- ㉔는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10년 6평 24번]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10년 9평 40번]
-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11년 6평 28번]
-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11년 6평 47번]
-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로 인물의 내면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12년 6평 40번]
- **대화**와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12년 9평 13번]
- (라)는 행위에 의해,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12년 수능 25번]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13년 9평 20번]
-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13년 수능 13번]
-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3년 수능 17번]

소설에서 대화란 일반적으로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의미한다.

백호산군이 왈,

“대개 만물의 경중을 알고자 할진대 저울만 같음이 없고, 송사의 곡직을 알진대 양쪽의 말을 들음만 같음이 없나니, 한 쪽의 말만 듣고 선불선(善不善) 가벼이 판결치 못할지라. 소진*의 말로써 진나라를 배반함이 어지 옳다 하며 장의*의 말로써 진나라를 섬김이 어찌 그르다 하리오. 소장(訴狀) 양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야 중형을 쾌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옥으로 내리고 서대쥐를 즉각 잡아 와서 상대한 연후에 가히 밝게 분변하리라.”

하고 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졸로 하여금 서대쥐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명을 듣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왈,

“내 들으니 서대쥐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매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버르던 바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이놈을 잡아 우리를 괘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고 또 소송한 쪽 전례는 위에서야 아는 바라. 수백 냥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호호탕탕한 기분을 발호하고 예기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괘동에 이르러 토굴 밖에서 소리 높여 부르며 가로되,

“서대쥐 고소를 담함에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패자(牌子)*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쥐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축이 성화 같은지라.

(중략)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쥐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쥐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툭툭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에 술 마시고 놀며 희롱하리오. 관령이 엄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일배 박주에 팔려 형장(刑杖)이 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수풀 사이에 앉아 종시 들어가지 않는지라. 서대쥐 이 말을 듣고 오소리더러 너구리를 청하라 권하매, 오소리 나아가 너구리를 이끌어 가로되,

“서대쥐 이처럼 간청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하리오. 잠깐 들어가 동정을 봄이 좋도다.”

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이르니, 너구리 그제야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각이 굉장한지라. 전각에 올라 서대쥐와 더불어 좌정 후에 다람쥐 송사한 일을 두어 마디 수작하더니 얼마 안 되어 안으로서 주찬이 나오는지라.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06년 6평]

* 패자: 지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글.

- 진실성 없이 겉과 속이 다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두었군. (O, X) [06년 6평 27번 ①]

우화적 기법이 나타난 소설이다. 너구리는 서대쥐로부터 재물을 받아 내기 위해 거짓으로 노한 척하고 있다.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相思不見) 그린 임을 이리 쉬이 만날쏜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일러니, 이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라.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설워 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쏘냐?”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의 큰 가뭄에 백성들이 비 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自盡)턴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략) 만수운환(漫垂雲鬢) 흐트러진 머리 이렇저렇 걸어 엮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샅군인 척 달려들어 둘러업고 우리 들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芙蓉堂)의 적막하고 요격한 데 누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殮襲)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돌라 말고 육진장포(六鎭長布) 다시 염하여 조출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제,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다가 선산(先山)발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守節冤死)* 춘향지묘(春香之墓)’라 여덟 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伸冤)*이 나 하여 주오. 애고 애고 내 신세야.”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13년 9평 / 교학(조) I, 비상(유) I, 창비 II]

* 수절원사 :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음. / * 신원 :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O, X)
[13년 9평 20번 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춘향이가 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으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몽룡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신세 한탄, 소망 등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념+

1. 독백과 내적 독백 : 독백은 등장 인물의 혼잣말이며, 내적 독백은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마음을 독백처럼 서술하는 것을 말함.

-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하여 소설 내의 시간을 느리게 진행시킨다. [09년 6평 28번]
-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11년 6평 47번]
-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11년 수능 40번]
-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로 인물의 내면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12년 6평 40번]
- 대화와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12년 9평 13번]
-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13년 9평 47번]

[이전 줄거리] 뱃사공 삼바우는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 용팔과 마을 청년 두칠, 천달을 배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다. 얼마 후 두칠은 부상 을 입어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용팔과 천달에게서는 아직 소식이 없다.

첫서리가 보얇게 내린 어느 날 아침나절, 읍으로부터 오는 길에 멀리 자전거가 한 대 나타났다. 삼바우는 나룻배를 몰아 물가에 갔다 대 놓고, 가까워 오는 자전거를 기다렸다. 그것은 안면이 있는 자전거였다. 빨간 자전거였다. 편지가 오는구나, 삼바우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용팔이한테서나…… 자전거에서 내리는 배달부는 낯이 선 사람이었다.

“여보이소, 저 마을이 강동리 이구 맞지요?” / “아, 맞구마. 편지 어디서 왔능교?”

“양봉재라는 사람 있는게?” / “야, 있구마, 천달이 저거 어르신네구마. 어디서 왔능교?”

“에에…….”

배달부는 편지를 뒤집는다.

“천달이한테서 왔능교?” / “아니요, 군수한테서 왔구마.”

“군수라니요?” / “군수도 모르능게? 고을 원님 말이구마.”

“구운수?”

삼바우의 두 눈은 통방울처럼 휘둥그레진다.

[중략 줄거리] 군수에게서 온 편지의 내용은 천달의 사망 소식이었다. 며칠 뒤 천달의 유골 상자를 마을로 들어오게 된다.

빌어먹을 세상이지, 하필 와 남의 집 외동아들을 잡아가노 말이다. 이런 소리를 주워섬기는 노인도 있고, 어떤 노파는 관شم보사알 하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기도 했다. 갑분이의 탐스런 얼굴에도 그늘이 서리었고, 두칠이의 도깨비 같은 얼굴도 오늘은 거기 섞여 있었다. 그러나 두칠이만은 입 언저리에 알곳은 웃음을 띠고 있다. 흥, 유골이라! 저 안에 든 것이 천달이 빠다귀라 그 말씀이지, 흥! 흥! 목덜미로 흘러내린 뺨들뺨들한 살점이 곧장 실룩거리다. 누렁이란 놈도 물가에 내려서서 주둥이를 하늘로 쳐들고 킁킁 킁킁 짚어 댄다.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는 잠시 견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양 생원의 손목을 가서 붙잡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하고 한숨을 짓는 노인. 위로를 한답시고 떠들어 대는 노파들. 순녀의 울음을 달래며 짙짙 짙짙 눈물을 짜는 아낙네가 있는가 하면, 웃고름에 물코를 푸는 큰애기가 있고, 우는 아이가 있고, 짓는 개가 있고……. 그러나 두칠은 연방 얼굴을 실룩거리며, / “머 보통이지, 보통이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하나 남은 눈썹에도 눈물은 어리어 있었다.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12년 9평]

- 대화와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이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O, X) [12년 9평 13번 ①]

제시된 부분 중 전반부에서는 뱃사공 삼바우 영감과 우체부와의 대화, 후반부에서는 천달의 사망 소식을 대하는 두칠이의 독백이 나타나 있다.

재종숙은 아무래도 김만호 씨보다는 강 목사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다.
 “둘은 소학교와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지. 강 목사는 농업학교를 나온 후 이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밤이면 야학을 하였어. 나도 토요일이나 방학에 집에 와서는 그 일을 도와 드렸지.”

그러는 사이에 강 목사와 김만호 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일본 말을 가르치는 일을 못마땅히 생각하였고, 한편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외면한 채 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결국 한글 강습소는 문을 닫아야 하였고 강 목사는 고향을 떠나야 하였다.

“이봐, 그때 그 한글 강습소를 폐쇄시킨 게 바로 김만호였어. 우리가 주재소에 가서 혼이 나도록 당한 것도 다 뒤에서 그 작자가 조종을 한 거야. 나도 학교를 마치지도 않고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떠나 버렸어. 귀찮은 일이 자꾸 따라다녔지.”

재종숙은 그때 일을 바로 어제 일같이 말하였다.

“그 일뿐이 아니라고. 참으로 못할 짓 많이 하였지. 그런데 내가 해방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어디 숨어 있는 줄 알았던 그가 아주 요란스럽게 행세를 하고 있었어. 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 재종숙의 말은 자꾸 헛갈렸다.

현진건, ‘신열(身熱)’ [09년 6평]

-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하여 소설 내의 시간을 느리게 진행시킨다. (O, X)
 [09년 6평 28번 ㉔]

제시된 부분에서는 ‘나’와 ‘재종숙’의 대화를 통해 ‘김만호 씨’와 ‘강 목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나타낸다.

[이전 줄거리] 깡패인 아버지와 애꾸눈 어머니 사이에서 ‘나’가 태어난다. ‘나’의 가족은 셋방살이에서 벗어나 산동네에 집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 집은 내 흥분에 보답할 만큼 썩 훌륭한 편이 못 되었다. 나는 집 담벽 블록 틈바구니에 시멘트가 엉성하게 채워져 있는 것에 무척 신경 쓰였다.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았고,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그 틈바구니로 바람이 송송 새어 들 것 같았다. 방문을 열어 보니 더욱 가관이였다. 방 안은 괴뢰한 곰팡이 냄새에 절어 있었고, 벽지 삼아 발라 놓은 신문지는 군데군데 뜯어진 채 축 늘어져 있었다. 꼭 귀신이 나오는 흥가 꼴이었다.

(중략)

겨울 방학이 시작되었고, 산동네에도 지겨운 겨울이 왔다. 그리고 새해가 지나자, 내 아홉 살도 끝났다. 물론 아홉 살이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마저 끝난 것은 아니다. 인생에는 죽는 순간까지 단절이 없다. 그냥 주욱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낭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욕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과장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리라 착각할 필요는 없다. 기쁨 때문에, 슬픔 때문에, 낭만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욕망 때문에, 좌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증오 때문에…… 또는 과거 때문에, 현재 때문에, 미래 때문에…… 혼자만의 울타리를 쌓으려 드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것이다. 못된 거인이 정원에 울타리를 쌓자 봄이 오지 않았던가!

나 또한 내 아홉 살에 울타리를 치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다. 내 인생은 아홉 살에서 끝난 게 아니므로, 그리하여 우리는 또 다시 인생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꺼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열 살이 되었다.

위기철, ‘아홉 살 인생’ [지학(최) 1]

-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O, X)

아홉 살의 어린이인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 있다.

② 장면 제시 방법

-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9년 6평 28번]
- 추상적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06년 6평 46번]
-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방편이다. [08년 9평 31번]
-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13년 6평 34번]
- [A]의 인물 제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년 예비 시행 A형 32번]

소설에서 장면 제시 방법은 크게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들려주기’ 또는 ‘말하기’라고도 하는 직접적 제시 방법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신속하게 전개되지만,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거나 추상적인 설명으로 흐르기 쉽다. 간접적 제시 방법은 ‘보여주기’라고도 하는데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사건 전개에 추이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이다. 생생한 느낌을 주거나,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독자의 자의적 판단이 발생할 수 있고, 사건 전개가 늘어지게 된다.

앞서 배운 문체 구성 요소 중 주로 ‘서술’이 직접적 장면 제시 방법이 되고, ‘묘사’와 ‘대화’는 간접적 제시 방법이 된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되, 사건이 요약적으로 나타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었다. 헤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싶어졌다. 사실 내가 모든 사물에 앞서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꽤 오래 지녀온 갈망이었다. 그러니까 헤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그 모든 동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무렵 그런 충동이 새로워진 것은 사실이었다.

(중략)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설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을 것이다. 형이 불쑥 나의 화실에 나타났다. 그는 낮부터 취해 있었다. 숯제 나의 일은 체쳐 놓고 학생들에게 매달려 있는 나에게 형이 시비조로 말했다. “흠! 선생님이 그리는 사람은 외롭구나. 교합 작용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으니…….” 얼굴의 윤곽만 떠 놓은 나의 화폭을 완성된 것에서처럼 형은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 요리조리 뜯어보고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형을 바라보았다.

“그건 아직 시작인걸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다 된 그림일 수도 있는걸…….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아들일지도 몰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눈과 입과 코…… 귀를 주면 달라질 테지—한데, 선생님은 어느 편이지?”

형은 그림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이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줄을 알고 있는 눈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다.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06년 6평 / 비상(박) 1]

-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O, X) [06년 6평 46번 ㉔]

위에 제시된 부분의 전반부에는 추상적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이 나타나 있고, 후반부에는 인물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가 주로 나타나 있다.

[이전 줄거리] 정한담과 최일귀가 천자에게 토번과 가달을 칠 것을 요청하자 천자가 허락한다. 그러나 주부 유한림이 이 말을 듣고 반대하고, 이에 정한담과 최일귀는 천자에게 유한림을 모함하여 그를 죽이고자 한다.

(가) 한림 학사 왕광렬이 유심 죽인단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왓,

“주부 유심은 선황제 개국 공신 유기의 자손이라. 위인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직하오니 남적을 치지 말자는 말이 사리에 당연하옵거늘, 그 말을 죄라 하와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 안에 유 상공을 배향하였으니 춘추로 제사 지낼 때에 무슨 면목으로 보이며, 유심을 죽이면 직간할 신하 없사옵 것이니, 황상은 생각하와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자 이 말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 한담이 여쭙오되,

“유심을 죄하실진대 만 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나 공신의 후예이오니, 죄목대로 다 못하오나 정배나 하사이다.”

천자 / “옳다.” / 하시고,

“황성 밖에 멀리 유배 보내라.”

[중략 줄거리] 유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은 정한담의 박해로 고난을 겪다가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가 된다.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서 적 십만 병을 한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씨 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에 월색이 희미하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紫微星)이 떨어져 번수 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왈,

“이게 웬 변이냐?”

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삐 올라 산호 채찍을 높이 들어 채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왈,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히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채질을 아니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의 조화라 제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 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채로 채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얼른 지나 번수 가에 다다르니,

작자 미상, ‘유충렬전’ [06년 수능 / 미래엔 I, 지학(최) II]

- (가)는 (나)보다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 (O, X) [06년 수능 48번 ①]

요약적 서술이 나타날 경우 보여주기보다 상대적으로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

적용 문제

두찬이와 광석이는 스물네 살이었다. 그러나 ㉠ 두찬이 편이 네댓 살은 더 들어 보였다. 흰칠하게 큰 키에 알맞게 뚱뚱한 것이며, 검은 얼굴에 뒤룩뒤룩한 눈, 두꺼운 입술, 술 사발이나 들어가면 둔하게 왁자지껄하지만 여느 대는 통히 말이 없었다. 광석이는 키는 큰 편이나 조금 여위었고 까무잡잡한 바탕에 오뎅 선 콧대, 작은 눈, 얇은 입술에 실 새 없이 날름거리는 헛바닥 하며, 홀가분한 걸음걸이 진득한 데라고는 두 눈을 씻고 보자 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원이는 나보다 한 살 밀이어서 열여덟 살이었다. 어디서나 입을 헤에 벌리고 있곤 했다.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바람에 무턱대고 배 위에 올라타긴 했으나, 도시 막막하던 것이어서 바다 위에서 우리 넷이 만났을 땐 사실 미칠 것처럼 반가웠다.

야하 너두 탕구나, 너두, 너두.

㉡ 배 칸에서 하루 저녁을 지나. 이튿날 아침에는 부산 거리에 부리어졌다. 넷이 다 타향 땅은 처음이라, 마주 건너다보며 어리둥절했다. 마을 안에 있을 땐 이십 촌 안팎으로나마 서로 아접* 조카 집안끼리였다가 것이 이 부산 하늘 밑에선 새삼스러웠던 것이다.

“야하, 이제 우리 넷이 떨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다, 죽는 날이야.” / 광석이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지껄이곤 했다.

이력저력 한 달쯤 무사히 지났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다.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된 것은(배포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들을 타할 수만 없는 일이었다. 쉽사리 고향으로 못 돌아갈 바에는 늘 이려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달리 변통을 취해야겠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얽매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자연 우리 사이는 차츰 데면데면 해지고, 흘끔흘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끔 됐다.

㉢ 광석이는 애당초가 주책이 없다 할까 주변이 있다 할까 엉빙덩빙 토박이 반원들과 얼려 막걸이 사발이나 얻어 마시곤 했고, 구변 좋게 보탬을 해서 북쪽 얘기를 해 쌀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 땐 어느덧 반원들은, 나나 두찬이니 하원이와는 달리, 광석이만은 오래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처럼 손을 맞잡고는,

㉣ “나왔나!” / “오냐, 느 형님 여전히시다.”

“버르장머리 문 쓰겠다. 누구보고 형님이라카노?” / “자네 언제부터, 말버르장머리하곤, 허 요새 세상이 이래 노니.”

농담조로 수인사가 오락가락했으니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는 광석이의 이런 꼴을 멀끔히 남 바라보듯 바라다봐야 했다. 광석이는 차츰 반원들과 얼려 왁자지껄하는데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고, 날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다.

그 꼴사나운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더더구나 주변 없고 무뚝뚝하고 외양보다 실속만 자란 두찬이는 부두 안에서 양생이*를 해도 다만 밥 두 끼 값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주는 법이 없이, 일판만 나오면 혼자 부두 앞 틈 사이 새길을 허청허청 돌아다녔다. 이런 두찬이는 으레 술이 동백 취해 화챗간*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하원이는 자주 울먹거렸다.

“야하,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 하고 애스럽게 지껄이곤 했다.

이호철, ‘탈향(脫鄕) [미래엔 II]

* 아접 : 아저씨. / * 양생이 : 남의 물건을 조금씩 슬쩍슬쩍 훔쳐 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 화챗간 : ‘화물열차’를 줄여 이르는 말.

(1) ㉠, ㉡, ㉣에 나타난 각각의 문체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적어 보자.

▶

(2) ㉣에 나타난 인물의 제시 방법이 무엇인지 적어 보자.

▶

(3) 위 소설에서 ‘하원’이란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을 찾아 적어 보자.

▶

<정답>

(1) ㉠ : 묘사 / ㉡ : 서술 / ㉣ : 대화

(2) 직접적 제시

(3) 하원이는 자주 울먹거렸다.

기출로 확인하기

1. [A]의 인물 제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년 예비 시행 A형 32번]

하루는 유 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석 낭중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내 남쪽 지방이 고향인 동청이란 자를 천거했다.

[A] 동청이란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을 떠돌며 무뢰배와 어울려 주색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로 나와 대갓집에 빌붙어 살았다.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자제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석 낭중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고, 낭중도 동청의 정체를 알고는 괴로워하던 중이었다. 낭중이 마침 외직으로 부임하는 차에 동청의 허물을 감추고 유 한림에게 소개한 것이다.

유 한림은 마침 마땅한 사람을 구하던 차였다. 동청을 만나 보니 말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고 품모도 반듯하여 흔쾌히 서사(書士)*의 직분을 맡겼다. 동청은 재주가 있고 눈치가 빨라서 매사를 한림의 뜻대로 챙기는 신임이 두터웠다.

이를 본 사씨가 한림에게 말했다.

“척이 듣기로 동청은 정직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다 하옵니다. 그러니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소서.”

유 한림이 말했다.

“동청을 머물게 하는 것은 단지 글을 구함이지 벼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오. 무슨 상관이 있겠소?”

사씨가 말했다.

“비록 벼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연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안에 두어 법도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이옵니다. 이런 사람을 집안에 두어 법도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이옵니다.”

한림이 말했다.

“부인의 말씀이 옳지만 남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소. 혹 동청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을 수 있으니 두고 보면 자연히 알리라. 부인은 걱정 말고 집안 하인들이나 다스려 법도가 어지럽지 않게 하오.”

김만중, ‘사씨남정기’

[14년 예비 시행 A형 / 미래엔Ⅱ, 비상(박)Ⅱ, 신사고Ⅰ, 지학(권)Ⅰ, 지학(최)Ⅰ, 천재(김)Ⅱ, 천재(정)Ⅰ

* 서사 : 문서를 정리하거나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 ① 다양한 체험의 나열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비유적 진술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의 시각을 통해 인물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년 수능 13번]

막 씨 졸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러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였더니, 십 삭에 미치는 산점*이 있어 초막(草幕)에 엎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땀 때에 아궁이에 들이쳤더니, 닷새 후에 헤쳐 본즉 금방울이 튀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씩씩하고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 없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칩떠 나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문혀 오되 그 텅터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보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 남의 방아를 찼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뉘눌거니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흠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 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神通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히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A]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몽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며 공이 주야 병축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 “첩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가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증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며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찢으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히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씩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집에 가 재생지은(之再生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연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금령(金鈴)’이라 했다.

작자 미상, ‘금방울전’

* 산점 : 해산의 기미. /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 ①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불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⑤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3 구성 : 작품의 짜임새

- 집을 비워 주어야 할 시기와 영희의 가출 시기를 맞물리게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05년 6평 33번]
- 위 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09년 6평 31번]

문학 작품에서의 ‘구성(plot)’이란 작품의 짜임새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건과 사건을 인과 관계에 의해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마인드 맵



어둠이 짙어질수록 밤하늘에는 별들이 빙판(氷板)에 얼어붙은 구슬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발밑으로 떨어져 흩날렸다. 그는 지금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다. 그는 즈봉 포켓 속에 구겨 넣은 신문지를 다시금 손으로 구겨 쥐었다. 어머니— 그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순간 ‘아래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신한 노모’라는 신문 구절과 함께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 얼굴과 겹쳐서 떠올랐다. 그러나 곧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다.’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덮고 지나갔다.

‘이미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만이 있는 몸이다. 지금의 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더 보람 있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지.’

약 이 개월 전 일이었다. 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결사에서는 한 사람을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계획된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겨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클락슨 소리가 짧게 밖에서 또 한 번 울려 오고 있었다. 정각에서 삼십 분 전. 야광 초침이 파란 빛깔을 그으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동그란 원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클락슨 소리가 다시 짧게 울렸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들고 어둠과 마주 섰다.

“연기는 안 돼. 생각해 봐.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나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는 경우엔 이미 우리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은 삼이라는 성공 숫자 앞에 와 있다. 알겠지? 어머니는 우리가 맡을테다. 조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우리들이 아니냐.”

나직하면서도 몹시 초조한 음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오상원, ‘모반’ [09년 9평]

위에 제시된 부분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 ‘그’가 가로수에 기대어 바지 주머니 속에 구겨 넣은 신문지를 다시금 구겨 쥐며 어머니를 떠올리는 장면이 나타난 뒤 ‘약 이 개월 전’ ‘그날 밤’ ‘그’가 소속된 비밀결사에서 한 사람을 암살하기로 하던 날 그의 어머니가 숨겨 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약 이 개월 전’의 회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상으로 볼 때, ‘약 이 개월 전’이 ‘지금’보다 앞에 해당하므로 시간의 역전이 일어났다고 하거나, 입체적 구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날 밤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이만 원에 사는 것을 이십오만 원씩 주고 모두 다 사버렸다. 그날 밤에도 영희는 팬지 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영희는 팬지 꽃 두 송이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이십오만 원이 분명하죠?”

어머니가 물었다. 사나이를 따라온 나이 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계약을 썼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가 든 봉투와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金不伊’라고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 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하게 싸 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식칼 자국이 난 표찰, 아침 수저를 놓고 가슴을 세 번 치게 한 철거 계고장, 집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 생전 처음 내본 인감 증명 두 통, 미리 서명해 두었던 명의 변경 신청서, 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가 차례대로 적혀 있는 주민 등록 등본 두 통. 마당가 팬지 꽃 앞에 있던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사나이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뒤로 물러앉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꼭 삼 초 동안 들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 들었다.

(중략)

나는 돌맹이를 집어 다시 방죽을 향해 던졌다. 어머니도 기진해 다른 말을 못 했다. 형이 어머니의 등을 밀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백여 채의 집이 헐리고 남은 것은 몇 채 안 되었다. 우리도 영희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철거일을 어겨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 꽃 두 송이뿐이었다. 나는 좀 큰 돌맹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05년 6평 / 교학(윤)Ⅱ, 비상(박)Ⅱ, 지학(권)Ⅱ, 지학(최)Ⅱ, 천재(고)Ⅱ, 천재(정)Ⅰ]

- 집을 비워 주어야 할 시기와 영희의 가출 시기를 맞물리게 구성하였다. (O, X)

[05년 6평 33번 ⑤ 변형]

입주권이 팔리던 날, 팬지 꽃 앞에서 기타를 치던 영희는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시기에 기타와 팬지 꽃을 들고 사라져 버렸다. 두 시기를 맞물리게 구성한 것은 그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① 평면적 구성

-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고 있다. [07년 6평 52번]
-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08년 6평 23번]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08년 수능 27번]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11년 6평 28번]
-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3년 9평 20번]

평면적 구성은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순행적 구성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유 한림은 두(杜)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큰 잔치를 열어 전별하려는 것이었다. 두 부인은 그 자리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는 온종일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마침내 한림에게 말했다.

“오라버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조카님을 의지해 지내 왔네. 이제 만 리 먼 작별을 앞두고 내가 한 마디 부탁을 하려고 하네.”

유 한림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사씨 문제라네. 사씨는 오라버니께서 아끼던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근실하고 신중하네. 그에게 죄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백 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말게. 설혹 그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 주게.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두 부인은 이어서 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디 계시냐? 내 직접 가 보아야겠다.”

시비는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깔고 있어 보기에조차 참했다. 나무 비녀와 베치마에 다복썩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했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08년 수능 / 미래엔Ⅱ, 비상(박)Ⅱ, 신사고Ⅰ, 지학(권)Ⅰ, 지학(최)Ⅰ, 천재(김)Ⅱ, 천재(정)Ⅰ]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O, X) [08년 수능 27번 ④]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자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를 찾아 내려가고 있는 참이었다. 허황하기조차 한 그녀의 녀두리를 좇아 이렇듯 추운 한겨울밤을 완행열차에 흔들리며, 떠나온 지 십삼 년이 넘은 고향으로 향하게 되리라고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처 상상조차 못 했던 것이다. 이 느닷없는 귀향길은 어찌 보면 어처구니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결행된 셈이었다. 아내의 말마따나 제정신이 아닌 짓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이날 오후였다. 휴일이 아닌데도 그는 담배꽂초만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아 가며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지 않은 줄로만 여겼는지, 아내는 되도록 그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눈치였다. 이날 아침 그는 기어이 사표를 써서 집 앞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다.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은 고사하고라도 몇 달째 밀린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누렇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결국 그는 또다시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으로 꼭 두 번째였다. 신문사를 나온 후, 오 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에 겪었던 처참함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아내는 다시 예전처럼 방 한 칸이 달린 구멍가게 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변두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으리라. 그나마 남아 있던 쥐꼬리만 한 돈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전세금을 줄여 가며 변두리로만 이사를 다니다가 급기야 월세방 처지로 주저앉게 된 지도 벌써 이태째였다. 하지만 그는 이젠 도저히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용기도 아니,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만 듯한 느낌이었다.

임철우, '눈이 오면' [11년 6평 / 지학(권) 1]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O, X) [11년 6평 28번 ①]

'그'는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고 꼬두메로 내려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자신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②

입체적 구성

-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05년 9평 25번]
- ⊕ : 책을 매개로 하여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05년 6평 34번]
-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06년 6평 24번]
-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06년 수능 56번]
-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07년 수능 15번]
-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08년 9평 40번]
-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10년 수능 38번]
-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11년 수능 40번]
-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12년 9평 13번]
-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1번]
- 현재 '나의 시각으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7번]
-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 주고 있다. [13년 6평 26번]
-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3년 수능 17번]

입체적 구성은 평면적 구성과 달리 시간의 순서가 뒤바뀌는 구성으로 역순행적 구성으로도 불리며, 주로 회상을 통해 나타난다.

“호숙 예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경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 했다. 그러잖아도 언젠고 꼭 알려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알려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래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경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벌판의 발머리에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든가 이상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에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박완서, ‘엄마의 말뚝’ [05년 9평]

-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O, X)

[05년 9평 25번 ④]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음은 곧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으로의 '회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서술자 '나'는 현재 어머니가 아파 누워있는 시점에서 과거 오빠의 죽음과 화장을 회상하고 있다.

남다른 눈썹미로 한 번 보면 못 내는 시늬가 없었고, 손속 또한 유별났으니 애써 가르친 바가 없어도 음식 맛깔과 바느질 솜씨는 어머니도 나무랄 수 없음을 진작에 선언한 정도였다.

동냥을 주면 종구라기가 넘치고 개밥을 주어도 구유가 좁게 손이 컸다.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번 시에미 눈 밖에 나리…….”

어머니의 걱정처럼 그녀는 오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오죽잡은 짓을 가장 싫어했고,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뒹들어 싸워 주며, 부지런하려 들기로도 남보다 뒤처짐이 없었던 것이다.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징발됐던 것도 남의 집 뒷수쇄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이니, 온갖 들의 들무새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

“말고랑지 파리가 천 리 가더라구 웅젼이가 그렇당께.”

부락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유하였고, 그녀는 그녀대로 그런 말 듣게 된 자신을 대견스레 여기는 것 같았다.

그녀가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안팎 동네의 머슴이나 품일꾼, 그리고 어리전이나 드팀전을 보아 제 몫은 하던 장돌뱅이 총각들의 눈독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총각들은 장차 그녀를 아내로 맞고 싶어서 그러던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았다. 그 시절만 해도 혼사에 있어서만은 으레 근본의 어머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양반 찌꺼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鄕品輩)*와 꼬트머리만 되어도 집안이 이렇고 저러함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교전비(轎前婢)*와 난봉난 행랑것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분은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아무리 소견이 들어 뒹뒹이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변연하게 외던 근동 사람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않을 판이었다.

이문구, '관촌수필' [10년 수능 / 교학(윤) I, 두산III]

* 향품배 : 지방의 낮은 벼슬아치들. / * 교전비 : 혼례 때에 신부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

-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O, X) [10년 수능 38번 ②]

위에 제시된 부분은 전체가 현재시점에서 과거의 응점이에 관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반복 교차한다는 것은 '과거-현재-과거-현재'와 같이 과거와 현재가 여러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③ 병렬적 구성

- 여러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05년 9평 52번]
- 사건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06년 수능 48번]
-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07년 6평 52번]
-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07년 수능 15번]
-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10년 9평 40번]
-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11년 9평 35번]

보통의 이야기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면, 병렬적 구성은 여러 이야기들이 세로로 늘어져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적 구성의 경우 각 이야기들의 인과성은 없거나 떨어지게 된다. 병렬적 구성은 ‘삽화식 구성’이라는 말로도 불린다.

손님이 또 물었다.
 “영감님은 신선도 보았소?” / “보았지.”
 “신선은 어디에 있소?”
 “집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신선이라도. 부자들은 늘 속세를 그리워하는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속세를 싫어하니, 속세를 싫어하는 게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영감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내가 오늘 아침 숲 속에 들어갔더니, 두꺼비와 토끼가 제각기 나이가 많다고 다투더군. 토끼가 두꺼비더러, ‘내가 팽조와 동갑이니까, 너 같은 자야말로 후생(後生)*이다.’
 하고 말하니까,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고 훌쩍훌쩍 읊디다.
 토끼가 깜짝 놀라서, / ‘왜 그리 슬퍼하냐?’
 물었더니, 두꺼비가 이렇게 말합디다.
 ‘나는 저 동쪽 이웃집 어린아이와 동갑인데, 그 아이는 다섯 살 때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단다. 그는 아득한 옛날 천황씨(天皇氏) 때에 태어나서 인년(寅年) 역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왕(王)과 제(帝)를 거쳤으며, 주(周)나라에 이르러 왕통이 끊어지자 책력(冊曆)* 하나를 이루었지. 진(秦)나라 때에 윤달이 들었고, 한(漢) 당(唐)을 거쳐 마침엔 송(宋)나라가 되었다가 저녁엔 명(明)나라가 되었지. 모든 사변을 겪으면서 기쁜 일, 놀라운 일, 죽은 이를 슬퍼하는 일, 가는 이를 보내는 일 등으로 지루한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야. 그런데도 오히려 귀와 눈이 밝아지고, 이와 털이 나날이 자란단 말이야. 저 아이처럼 나이 많게 살았던 자는 없을 거야. 그런데 팽조는 겨우 팔백 살을 살다가 일찍 사라졌다니, 그는 세상을 겪은 것도 많지 못하고, 일을 경험한 것도 오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거지.’
 결국 토끼가 두 번 절하고 뒷걸음질치면서,
 ‘네가 내 할아버지뻘이다.’ / 합디다. 이로써 본다면 글 많이 읽은 자가 가장 목숨이 긴 거라우.”
 “그럼 영감님은 가장 훌륭한 맛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하현달이 되어서 썰물이 물러나면, 바닷가의 흙을 평평하게 해서 염전을 만들거든. 그 갯벌을 구워서 성긴 것으로는 수정염을 만들고, 고운 것으로는 소금을 만들지. 온갖 맛을 조화시키면서, 소금 없이 어찌 맛을 내겠소?”

박지원, ‘민옹전(閔翁傳)’ [05년 9평]

* 후생 : 뒤에 태어난 사람. / * 책력 : 일 년동안의 월일,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적은 책.

- 여러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O, X) [05년 9평 52번 ④]

손님들과 민 영감의 여러 가지 대화들이 차례대로 서술되어 있다.

[이전 줄거리] 천하의 난봉꾼이라 알려진 응철이 동생 응오의 집을 방문한다. 이때 소작농인 응오는 차일피일 벼추수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부터 응오네 벼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이 일로 자신이 벼도둑으로 오해를 살까 걱정된 응철은 도둑을 잡기 위해 응오네 논 주변에 숨게 된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뭘지 헝겊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뭇이 뺑소니를 놓는다.

그러자 응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향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데굴데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굴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띠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걸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동맛은 바람만 공중에서 복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핵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데통스러이 내뺄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 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김유정, '만무방' [07년 수능 / 두산II]

-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O, X) [07년 수능 15번 ㉔]

응철이와 응오 형제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④ 액자식 구성

- 사건이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06년 수능 48번]
-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는 주인공이 서술한 것이어서~ [11년 수능 49번]

액자식 구성은 어떤 이야기(외부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내부 이야기)가 액자처럼 존재하는 구성 방식을 말한다.

정한담과 최일구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천자께 여쭙오되,
 “폐하 즉위하신 후에 은덕이 온 백성에게 미치고 위엄이 온 세상에 진동하여 열국 제신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번과 가달이 강포함만 믿고 천명을 거스리니, 신 등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남적을 항복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엄이 남방에 가득하고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하리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천자 매일 남적이 강성함을 근심하더니, “이 말을 듣고 대희 왈,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라.” / 하시니라.
 이때 유 주부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천자 앞에 들어가 엎드려 주왈,
 “듣사오니 폐하께옵서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기병하신단 말씀이 옳으니이까?”
 천자 왈, / “한담의 말이 여차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주부 여쭙오되, /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였습니까?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름과 같고 드는 토끼를 놓침이라. 한낱 새알이 천 근의 무게를 견디리까? 가련한 백성 목숨 백 리 사장(沙場)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인들 아니 적악(積惡)이리요.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기병치 마옵소서.”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한담과 일귀 일시에 합주하되,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니, 오국 간신과 같은 무리로소이다.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개미 무리를 대국에 비하고 한낱 새알을 폐하에게 비하니, 일대의 간신이요 만고의 역적이라. 신 등은 저어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 치게 하니 가달과 동심하여 내용이 된 듯하니 유심의 목을 먼저 베고 가달을 치사이다.”
 천자가 허락하니,
 한림 학사 왕공렬이 유심 죽인단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왈,
 “주부 유심은 선황제 개국 공신 유기의 자손이라. 위인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직하오니 남적을 치지 말자는 말이 사리에 당연하옵거늘, 그 말을 죄라 하와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 안에 유 상공을 배향하였으니 춘추로 제사 지낼 때에 무슨 면목으로 보이며, 유심을 죽이면 직간할 신하 없사울 것이니, 황상은 생각하와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자 이 말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 한담이 여쭙오되,
 “유심을 죄할실진대 만 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나 공신의 후예이오니, 죄목대로 다 못하오나 정배나 하사이다.”
 천자 / “옳다.” / 하시고,
 “황성 밖에 멀리 유배 보내라.”

작자 미상, ‘유충렬전’ [06년 수능 / 미래엔 I, 지학(최) II]

- 사건이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O, X) [06년 수능 48번 ②]

제시된 부분의 경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모든 것을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온종일 흠바람이 불어 돌 앞엔 살구꽃이 터져 나오는 어느 봄날 어스름 때였다.
색다른 나그네가 대문 앞에 닿았다. 동저고리 바람에 패랭이를 쓰고 그 위에 명주 수건을 잘라맨, 나이 한 쉰 가까이 되어 보이는, 체수도 조그만 사내가 나귀 고삐를 잡고서고, 나귀에는 열에닐곱쯤 나뒀는, 날빛이 몹시 파리한 소녀 하나가 안장 위에 앉아 있었다. 남자 하인과 그 상전의 따님 같아도 보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 사내는,

“이 여아는 소인의 여식이옵는데, 그림 솜씨가 놀랍다 하기에 대감의 문전을 찾았삽니다.”

소녀는 흰 옷을 입었고, 옷빛보다 더 새하얀 그녀의 얼굴엔 깊이 모를 슬픔이 서리어 있었다.

“아기의 이름은?”

“.....”

“나이는?”

“.....”

주인이 소녀에게 말을 건네 보았으나, 소녀는 굵은 두 눈으로 한 번 그를 바라보았을 뿐 입을 떼려고 하지는 않았다.

아버가 대신 입을 열어,

“여식의 이름은 낭이(娘伊), 나이는 열일곱 살이옵고.....” 하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며,

“여식은 가는귀가 좀 먹었습니다.” 했다.

주인도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사내를 보고, 며칠이든지 묵으며 소녀의 그림 솜씨를 보여 달라고 했다.

그들 아버 딸은 달포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며, 그림도 그리고 자기네의 지난 이야기도 자세히 하소연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들이 떠나는 날에, 이 불행한 아버 딸을 위하여 값진 비단과 충분한 노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나귀 위에 앉은 가련한 소녀의 얼굴에는 울때나 조금도 다름없는 처절한 슬픔이 서려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소녀가 남기고 간 그림—이것을 할아버지께서는 ‘무녀도’라 불렀지만—과 함께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경주읍에서 성 밖으로 오 리쯤 나가서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여민촌 혹은 잡성촌이라 불리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 한 구석에 모화(毛火)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모화서 들어온 사람이라 하여 모화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머리 찌그러져 가는 목은 기와집으로, 지붕 위에는 기와버섯이 퍼렇게 뻗어 올라 역한 흠 냄새를 풍기고, 집 주위는 앙상한 돌담이 군데군데 헐리인 채 옛성처럼 꼬불꼬불 에워싸고 있었다. 이 돌담이 에워싼 안의 공지같이 넓은 마당에는 수채가 막힌 채, 빗물이 괴는 대로 일 년 내 시퍼런 물이끼가 뒤덮여 늘쟁이, 명아주, 강아지풀, 그리고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잡풀들이 사람의 키도 문힐 만큼 거뭇게 엉키어 있었다. 그 아래로 뱀같이 길게 늘어진 지렁이와 두꺼비같이 늙은 개구리들이 구물거리며 웅철거리며, 항시 밤이 들기만 기다릴 뿐으로, 이미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벌써 사람의 자취와는 인연이 끊어진 도깨비굴 같기만 했다.

이 도깨비굴같이 낡고 헐리인 집 속에 무녀 모화와 그 딸 낭이는 살고 있었다. 낭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경주읍에서 칠십 리 가량 떨어져 있는 동해변 어느 길목에서 해물 가게를 보고 있는데, 풍문에 의하면 그는 낭이를 세상에 없이 꿈쩍이 생각하는 터이므로, 봄-가을철이면 분 잘 핀 다시마와 조출한 꼭지미역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가곤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 옥이(昱伊)가 돌연히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도깨비굴 속에 그녀들을 찾는 사람이라야 모화에게 곳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과 봄 가을에 한 번씩 낭이를 찾아 주는 그녀의 아버지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왕래도 없이 살아가는 쓸쓸한 어미, 딸이었을 것이다.

김동리, ‘무녀도’ [천재(고) 1]

- ‘무녀도’라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액자식 구성으로 나타나 있다. (O, X)

낭이와 그 아버지가 ‘나’의 집을 찾는 외부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무녀도’를 그린 낭이에 대한 내부 이야기는 3인칭 시점으로 나타나 있다.

적용 문제

(가) 날이 밝자 또 걸었다. 어제보다도 쉬는 도수가 잦아 갔다.

김 일등병도 군복 바지와 군화마저 벗어 버렸다. 맨발로 산길을 걸기가 힘든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우선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내배었다. 그렇다고 돌부리 아닌 고운 땅만 골라 밟을 수만도 없었다.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가 아닌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 없는 굴곡뿐이요, 귀에는 것처럼 갈망하고 있는 아군의 풋소리 대신 한없이 먼 데까지 퍼져 나간 고즈넉함과 김 일등병의 몰아쉬는 거칠은 숨소리뿐이었다.

그래도 주 대위는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어떤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번은 주 대위가 저리 가 물을 마시고 가자고 했다. 김 일등병은 어디 물이 있는가 싶었다. 그러나 주 대위가 말하는 데로 가보니, 바위틈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루 종일 걸은 것이 겨우 십릿길도 못 되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신사고 II]

(나) 아침에 깨어 보니 온 누리엔 수북하게 첫눈이 내렸는데, 대문 옆 블록 담 위에 웬 흰 남자 고무신짝 하나가 얇전하게 놓여 있었다. 얼마 안 신은 듯한 거의 새 고무신짝이었다.

아내와 나는 다 같이 깨름칙한 느낌에 휩싸였다.

“웬일일까. 누가 장난을 했나.”

내가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중얼거리자,

“아무리, 장난으로 저랬을라구요.”

아내는 어쩐지 뽀루통해지면서 말하였다. 아내는 현대 여성이어서라기보다는 본시부터 이런 일에는 대범한 편이었는데, 요즘 조금은 나를 닮게 된 모양이었다.

사실은 이런 일에는 내 쪽에서 훨씬 소심하고 예민한 편이어서 아내는 이런 나를 어지간히 구질구질하게 여겨 왔던 것이다. 간밤에도 근처 어느 집에서 굶을 하는 듯, 팽과리 소리가 요란했다. 텔레비전 안테나가 무성해 있고 젊은 샬러맨 부부가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도, 웬일인지 한밤 중이면 굶하는 팽과리 소리가 가끔 멀리 가까이 들리곤 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 마을 서쪽 멀리 청(靑)빛의 마식령 줄기가 가로 뻗어 갔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큰 산'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내 경우 이 '큰 산'은 그곳에 그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만으로 항상 나의 존재의, 나를 둘러싼 모든 균형의, 어떤 근원을 떠받들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태어난 후, 가장 먼저 익숙해진 것은 어머니 젖가슴이었겠지만, 두 번째로 익숙해진 것은 그 '큰 산'이었을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우리 집에서 정면으로 건너다 보이던 그 '큰 산', 문만 열면 서쪽 하늘 끝에 웅장하게 덩더쿵이 솟아 있던 그 청빛 큰 산. 그 '큰 산'에서부터 산과 골짜기들이 곤두박질을 치듯이 내려오다가 서서히 길게 뻗으면서 골짜기 하나가 갑자기 흰 치맛자락 퍼듯이 큰 내를 이루며 내려오는 가에 미루나무 숲이 우거지고, 우리 마을이 앉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마을 앞에서부터 좁은 들판이 시작된다. 이 들판은 더욱 퍼지면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 두 야산 끝머리의 한 머리는 원산 거리 쪽으로 달고, 한 머리는 비옥한 안변평야의 북쪽 끝으로 가 닿는 것이다.

바람도 없이 비는 패연히 쏟아졌고 저녁답이라, 들판은 행하게 비어 있었다. 옷 보매기 마을로 올라가는 길과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갈림길까지는 빈 달구지 서넛이 가고 있어, 그런 대로 나도 심심치는 않았다. 달구지꾼들은 늙수그레하였고, 소 엉덩이 뒤에 바싹 붙어 앉아 웅송그리고 있었는데 싸릿대로 엮은 샷갓을 쓰고 쉬임없이 웅얼거리고들 었었다. 비를 맞고 가는 어린 나더라도 저희들 빈 달구지에 올라타라고 했을 법도 한데, 어쨌선가 그날따라 하나같이 모두가 냉랭하였다. 나도 그날따라 웬일지 그들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접어 생각하면서, 무리를 해서까지 굳이 올라타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다) 그것은 여(余)가 만주를 여행할 때 일이었다. 만주의 풍속도 좀 살필 겸 아직껏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들의 사이에 퍼져있는 병(病)을 조사할 겸해서 일 년의 기한을 예산하여 가지고 만주를 시시콜콜이 다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는 XX촌이라 하는 조그만 촌에서 본 일을 여기에 적고자 한다.

XX촌은 조선사람 소작인만 사는 한 이십여 호 되는 작은 촌이었다. 사면을 둘러보아도 한 개의 산도 볼 수가 없는 광막한 만주의 벌판 가운데 놓여있는 이름도 없는 작은 촌이었다.

몽고사람 종자(從者)를 하나 데리고 노새를 타고 만주의 촌촌을 돌아다니던 여가 그 XX촌에 이른 때는 가을도 다 가고 어느덧 광포한 북극의 겨울이 만주를 찾아온 때였다.

만주의 어느 곳이나 조선사람이 없는 곳은 없지만 이러한 오지(奧地)에서 한동네가 죄 조선사람만으로 되어있는 곳을 만나니 반가웠다. 더구나 그 동네는 비록 모두가 만주국인의 소작인이라 하나, 사람들이 비교적 온량하고 정직하여, 장성한 이들은 그래도 모두 천자문 한 권쯤은 읽은 사람이었다. 살풍경한 만주, 그 가운데서 살풍경한 살림을 하는 만주국인이며 조선사람의 동네를 근 일년이나 돌아다니다가 비교적 평화스런 이런 동네를 만나면, 그것이 비록 외국인의 동네라 하여도 반갑겠거늘, 하물며 우리 같은 동족임에랴. 여는 그 동네에서 한 십여 일 이상을 일없이 매일 호별 방문을 하며 그들과 이야기로 날을 보내며, 오래간만에 맛보는 평화적 기분을 향락하고 있었다.

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익호'라는 인물을 본 것이 여기서이다.

익호라는 인물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XX촌에서 아무도 몰랐다. 사투리로 보아서 경기 사투리인 듯하지만 빠른 말로 재재거리는 때에는 영남 사투리가 보일 때도 있고, 싸움이라도 할 때는 서북 사투리가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런지라 사투리로써 그의 고향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쉬운 일본말도 알고, 한문글자도 좀 알고, 중국말은 물론 꽤 하고, 쉬운 러시아말도 할 줄 아는 점 등등, 이곳 저곳 솔하게 주워먹은 것은 짐작이 가지만 그의 경력을 똑똑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김동인, '붉은 산'

(1) (가)의 구성 방식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 적어 보자.

▶

(2) (나)의 구성 방식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 적어 보자.

▶

(3) (다)의 구성 방식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 적어 보자.

▶

[보기]

평면적 구성, 입체적 구성, 병렬적 구성, 액자식 구성,

<정답>

- (1) 평면적 구성
- (2) 입체적 구성
- (3) 액자식 구성

기출로 확인하기

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년 6평 52번]

그런데 그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이미 가끔씩 노환으로 자리보전을 하던 석담 선생은 그날도 병석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종지와 붓을 찾았다. 그것도 그 무렵에는 거의 쓰지 않던 대필(大筆)과 전지(全紙)였다. 벌써 몇 달째 종지와 붓을 가까이 않던 고죽은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 모를 심화를 느끼며 먹을 갈기 바쁘게 스승 곁을 물러나고 말았다. 어딘가 모르게 스승의 과장된 집착에는 제자의 방향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뜰을 서성이는 사이에 그는 문득 늙은 스승의 하는 양이 궁금해졌다.

방에 돌아오니 석담 선생은 붓을 연적에 기대 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금 쓰다가 그만둔 것인 듯 ‘萬毫齊力(만호제력)’ 낙 자 중에서 앞의 석 자만이 씌어져 있었다.

“소재(蘇齋)*는 일흔여덟에 참깨 위에 ‘天下泰平(천하태평)’ 낙 자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일흔도 차지 않았는데 이 낙 자 ‘萬毫齊力’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탄식하는 석담 선생의 얼굴에는 자못 처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고죽은 그 말을 듣자 억눌렀던 심화가 다시 솟아올랐다. 스승의 그 같은 표정은 그에게는 처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함으로 비쳤다.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가 솟아오르며 향상(香象)*이 노닐들,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죽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 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 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죽도 지지 않았다.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던 말이나?”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은들 무엇이며, 현묘(玄妙)함이 있은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도로 이름하면 백성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천고에 드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我]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낯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지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 주지도 못했고 험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홀렸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엎드렸다. 노한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던진 것이다. 샘솟듯 솟는 피를 훔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늙은 스승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 왔다.

“내 일찍이 네놈의 천골(賤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갓거리에 나앉아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뒷박은 후히 받을 게다…….”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의 집을 나선 고죽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입관된 뒤였다.

벌써 삼십여 년 전의 일이건만 고죽은 아직도 희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 어름을 만져 보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

“아버님, 김 군이 왔습니다.”

다시 추수의 목소리가 그를 끝 모를 회상에서 깨나게 하였다. 이어 방문이 열리며 초헌(草軒)의 둥글넓적한 얼굴이 나타났다. 대할 때마다 만득자(晩得子)를 대하는 것과 같이 유별난 애정을 느끼게 하는 제자였다. 사람이 무던하다거나 이렇다할 요구 없이 일 년 가까이나 그가 없는 서실을 꾸러 가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글씨 때문이었다. 붓 쥐는 법도 익히기 전에 행서(行書)를 휘갈기고, 점획 결구(點劃結構)도 모르면서 초서(草書)며 전서(篆書)까지

그러 대는 요즈음 젊은이들답지 않게 초헌은 스스로 정서(正書)로만 삼 년을 채웠다. 또 서력(書歷) 칠 년이라고는 하지만 칠 년을 하루같이 서실에만 붙여 산 그에게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닌데도 그 봄의 고죽 문하생 합동전에는 정서 두어 쪽을 수줍게 내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서투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힘으로 충만돼 있어, 고죽에게는 남모를 감동을 주곤 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윽하게 느껴지는 스승 석담의 서법을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07년 6평 / 천재(정) 1]

* 소재 : 청나라 학자 옹방강의 호. / * 금시조 :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 / * 향상 : 상상의 큰 코끼리

- ① 중심인물들이 상대를 공박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 다음 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09년 6평 31번]

재종숙은 아무래도 김만호 씨보다는 강 목사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다.

“둘은 소학교와 농업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지. 강 목사는 농업학교를 나온 후 이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밤이면 야학을 하였어. 나도 토요일이나 방학에 집에 와서는 그 일을 도와 드렸지.”

그러는 사이에 강 목사와 김만호 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일본 말을 가르치는 일을 못마땅히 생각하였고, 한편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외면한 채 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결국 한글 강습소는 문을 닫아야 하였고 강 목사는 고향을 떠나야 하였다.

“이봐, 그때 그 한글 강습소를 폐쇄시킨 게 바로 김만호였어. 우리가 주재소에 가서 혼이 나도록 당한 것도 다 뒤에서 그 작자가 조종을 한 거야. 나도 학교를 마치지도 않고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떠나 버렸어. 귀찮은 일이 자꾸 따라다녔지.”

재종숙은 그때 일을 바로 어제 일같이 말하였다.

“그 일뿐이 아니라고. 참으로 못할 짓 많이 하였지. 그런데 내가 해방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어디 숨어 있는 줄 알았던 그가 아주 요란스럽게 행세를 하고 있었어. 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재종숙의 말은 자꾸 헛갈렸다.

김만호 씨는 면 농회 근무 3년 만에 서른이 안 된 나이로 면장이 됐다. 재종숙은 아마 그가 제일 악질적인 면장이었을 거라고 말하였다. 더구나 용서하지 못할 일은, 그가 가장 면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제 할 일은 다 했다는 점이였다. 그는 젊은 면장으로서 이 제주 섬에서 가장 도사(島司)의 신임을 얻은 면장이 되었다. 재종숙의 말투는 점점 과격하여 갔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아무리 뼈에 사무친 일이라 하더라도 이 나이쯤이면 모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었다.

“생각해 보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선구적인 시민상’을 주어. 나라를 팔아먹는 데, 권력의 종노릇 하는 데 선구적이었어. 그건 김만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여. 신문사 문제만도 아니고, 작은 문제가 아니여. 그 사람이 상을 타면 세상 사람의 본이 되는 건데, 아니 모두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여? 안 되여. 안 돼.”

그는 언성을 높였다. 바로 교장 어른을 상대하여 말하는 투였다.

그와 헤어져 거리로 나오자 이번에는 교장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역시 그에게서는 재종숙과는 정반대의 말을 들을 것이 뻔하지만, 재종숙에게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네가 날 찾아올 줄 알았지.”

교장 어른은 몸소 써서 만든 ‘반야심경’ 열 폭 병풍 앞에서 한복 차림으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나를 반갑게 맞았다. 나는 그분에게서 곱게 늙고 있는 행복한 서민의 모습을 보았다. 육십 평생을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만 살다 정년퇴임한 지 몇 해가 되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선생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방 한편 구석 문갑 위에 있는 한란 분이 그 어른의 기품과 어울리는 것 같았다. 세배꾼들이 다녀갔는지 방석들이 즐비하니 널려 있었다.

교장 어른은 아까 종갓집에서와는 다르게 나를 대하면서 벌써 찾아가던 연유를 알고 있었다. 나는 신문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설명하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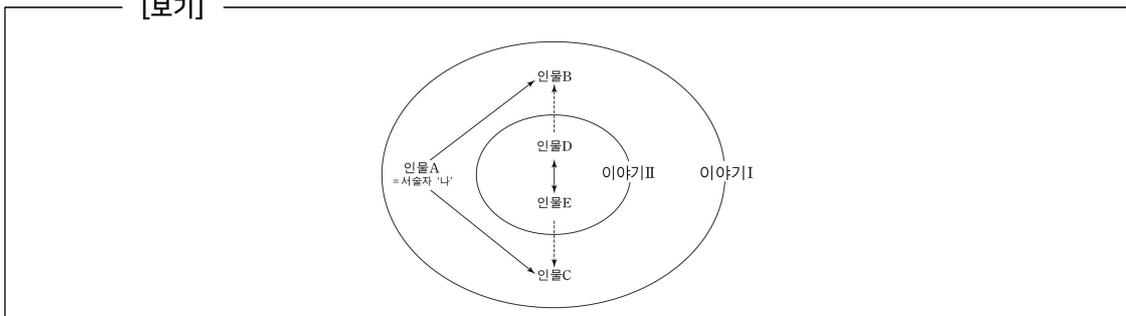
“할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그분과 오랜 교분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계시겠기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일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되도록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사실 나 자신 한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뚜렷한 생각도 잡혀지지 않은 처지라서 우선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일제 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였고 더구나 면장을 오랫동안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국에 누군들 면장을 해야 했을 거이고, 더구나 일본 사람이 면장을 했던 것보담야 훨씬 나았지. 나도 일제 시대 여남은 해 동안 교단에서 서서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행적에 대하여 시비를 가릴 자격은 없어. 큰집에서 내가 좀 강경하게 말한 것은 자네 칠촌 말일세. 일본 가서 살아서 이곳 사정을 모르는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비위가 상했던 거야. 자기도 그곳에서 살았으면 아니, 일본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고 독야청청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애국만 하며 살 수 있었겠냐 말이네. 어림없어. 아마 먼저 더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살았을지 누가 알아. 사실 이곳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좋은 일 굵은 일 모두 겪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을 말아야 돼.” 재종숙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교장 어른에게서도 새로운 김만호의 면모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현길언, ‘신열(身熱)’

[보기]



- ① 이야기 I 과 이야기 II 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이야기 I 과 이야기 II 의 시간적 배경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보편적 공감을 유도해 내고 있다.
- ③ 이야기 I 의 특정 인물과 이야기 II 의 특정 인물만 서로 갈등 관계를 맺도록 하여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인물 A가 인물 B와 C의 입을 통해서만 인물 D와 E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 II 의 비중이 약화된다.
- ⑤ 인물 A가 이야기 II 속의 인물 D와 E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인물 D와 E의 실상 규명과 관련되어 있다.

4. 기타

1 병치 : 둘 이상의 것을 나란히 둠

-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시켜 사건을 전개한다. [05년 6평 53번]
-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치를 통해 사건을 지연시킨다. [12년 6평 26번]
-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13년 9평 47번]

‘병치’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나란히 두는 것을 의미한다. 역대 기출에서는 공간과 사건의 병치에 대하여 묻은 바 있다.

청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전후 지낸 일이 다 정한 운명인 줄 알고, 더욱 슬퍼하여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전쟁 최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마는, 지나간 고생과 지금 병든 아비가 굶주리고 슬퍼하여 죽게 될 일을 생각하니 간장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하니, 용왕이 말하기를,

“이제는 너의 고생이 다 끝나고 이후에 무궁한 복을 누릴 것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시녀를 명하여 다과를 내와서 먹이라 하니, 얼마 후에 시녀가 붉은 소반에 차를 내오는데 백옥 잔에 안개 같은 차와 대추 같은 과일이었다. 청이 받아먹으니 정신이 맑아져서 전생의 일이 분명히 기억났다. 부왕(父王)의 용안을 새롭게 알아보며, 좌우 시녀가 전생에 자기 앞에서 심부름하던 무리인 줄 아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중략)

이때 심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딸이 문을 나가 어디로든 가는 모양이나 보려 하나 눈이 감겼으니 어찌 볼 수가 있겠는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문득 기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웃 사람들이 그 형편을 참혹히 여겨 붙들어 손발을 주무르고 더운물을 입에 떠 넣어 구호하니,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려 손으로 벽을 치며 통곡했다.

심청전(경판본) [05년 6평 / 미래엔 I, 지학(최) I, 천재(고) II, 천재(정) III]

-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시켜 사건을 전개한다. (O, X) [05년 6평 53번 ㉟]

용궁에서 심청이 전생의 부친인 용왕을 만나는 장면과 현실에서 심청의 현생의 부친인 심현이 고통을 겪는 장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때 용궁은 고통이 없는 비현실적 공간이나, 심현이 살고 있는 현실은 고통이 가득한 공간이기 때문에 두 공간은 대립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흰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댁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빛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눕는다. 건넌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조먼* 그만이지.’ 도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A] 그러나 잠 대신 화산댁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땃잎처럼 굵은 토벽,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도리 벗은 채 제멋대로 굴러 자고, 썩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맏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깎고 있는 맏며느리, 화산댁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 주고 며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 눕는다.

‘아무리 시에미가 시에미 같지 않기로니 침 보는 시에미에게 인사절도 없이, 본바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아들 돈 잘 벌고 하리갈레* 매누리 봤다고 부러하더라만, 시장시럽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앙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머고. 여태껏 땅 땀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머고.’ 화산댁이는 눈꼬리만 따갑고 잠은 점점 멀어 갔다.

오영수, ‘화산댁이’ [12년 6평]

* 저거 조먼 : ‘자기네들끼리 좋으면’의 방언. / * 하리갈레 : 예전에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를 이르던 말.

- [A]는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치를 통해 사건을 지연시킨다. (O, X) [12년 6평 26번 ④]

[A]는 화산댁이의 상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 볼 수 없다.

2

복선, 암시 :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넌지시 알려주는 것

- ‘행복동’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상 세계가 현실에서도 가능한 것임을 암시한다. [05년 6평 36번]
- 형이 동생의 그림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얼굴 모습을 암시한다. [06년 6평 49번]
- 동생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형의 의식을 암시한다. [06년 6평 49번]
-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07년 9평 44번]
- ㉠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07년 수능 43번]
-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09년 6평 37번]
- ‘다음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09년 9평 47번]
- 각 회의 첫머리에 놓여서 이후에 전개될 서사를 암시하는 제목 [10년 9평 29번]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11년 6평 47번]
-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11년 6평 47번]
- ㉠ :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12년 9평 14번]
- 석 시량은 장차 닦칠 수 있는 어려움을 암시하며 백 소부를 설득하고 있다. [12년 9평 45번]
-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시하여 갈등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형 31번]

복선은 뒤에 일어나는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나중에 있을 사건에 대해 미리 넌지시 비쳐두는 기법을 말한다. 암시는 넌지시 알려주는 것으로서 복선을 만들어 내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복선과 암시는 그 의미는 유사하지만, 암시보다 복선의 경우에 필연성이 더 강조된다.

[이전 줄거리] 뱃사공 삼바우는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 용팔과 마을 청년 두칠, 천달을 배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다. 얼마 후 두칠은 부상을 입어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용팔과 천달에게서는 아직 소식 없다. 어느 날 용팔이의 편지를 기다리는 삼바우에게 우편 배달부가 와서 천달이의 집을 묻는다. 군수가 보낸 편지라고 했다.

서운했다. 그러나 삼바우는 노를 저으면서도, 군수한테서 편지가 오다니, 양생원 인제 팔자 고치는 거 아니냐? 곧장 감격스러웠다.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양 생원한테 군수라니……. 너무 당치가 않아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다.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물론 양 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끓였다. 대열이도 덩달아 뻘뻘이 소리를 질렀다. 천달이가 뭐 어찌고……. 빠다귀가 뭐 어찌고 저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속닥거렸다. 마을은 ㉠ 밤이 되어도 뒤송송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 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임없이 울락한이 없었다. 뒤 언덕 도토리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양 생원네는 강을 건너 읍내로 들어갔다. 삼바우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엄마야, 우이 어디 가노?” / “읍내 간다.”

“읍내가 머꼬?” / “……”

“양? 엄마.” / “읍내가 읍내지 뭐까 봐. 저어기 가면 읍내라고 있다.”

“머 하로 가노?” / “……”

“양?” /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12년 9평]

- ㉠은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O, X) [12년 9평 14번 ㉠ 변형]

자식을 잃은 양 생원 댁의 슬픔이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교씨는 사씨가 동청을 배척하는 것을 알고 납매와 함께 동청과 은밀히 만나면서 계책을 의논하였다.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십량은 교씨를 위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로는 한림이 교씨에게 푹 빠져 종전의 모습을 잃었다. 사씨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 수 없어 그냥 두고 보았다. 교씨는 사씨를 시기하여 한림에게 여러 번 비방을 했지만 여의치 못하자 조바심이 들어 다시 십량을 불러 물었다.

“나의 이러한 재주와 용모로 남의 첩이 되어 장차 앞길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사씨를 없애면 은혜를 후하게 갚으리라.”

십량이 한참 만에 말했다.

“이 일이 참으로 난처하니 다른 묘책이 없는지라. 장주 공자가 병들기를 기다려 여차여차 하옵소서. 다급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교씨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십량이 만들어 준 방자*에 쓰이는 요망한 물건들을 사방에 두루 묻고 납매를 불러 음모의 절차를 자세히 일러 주었다.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니 집안에서는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었다. 장주가 감기에 걸려 때때로 토하며 놀라는 증세를 보였다. 십량이 말한 계책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장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림이 백자당에 오자 교씨가 울며 말했다.

“장주가 갑자기 병에 걸려 크게 앓으니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옵니다. 증세를 보니 예사 병이 아니라 분명 집안 누군가가 장주를 저주하여 생긴 병인가 하나이다.”

한림이 교씨를 위로하고 나서 장주의 병세를 보니 증세가 가볍지 않았다. 매우 걱정하면서 약을 지어 먹였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한림은 걱정하고 교씨는 곁에서 즐기치게 울었다.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

김만중, ‘사씨남정기’

[14년 예비 시행 A형 / 미래엔 II, 비상(박) II, 신사고 I, 지학(권) I, 지학(최) I, 천재(김) II, 천재(정) I]

* 방자 : 남이 못되거나 재앙을 받도록 귀신에게 빌어 저주하는 술법.

-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시하여 갈등의 심화를 암시하고 있다. (O, X)

[14년 예비 시행 A형 31번 ⑤ 변형]

십량의 계책이 장주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으로 실현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사건이 진전될수록 갈등이 심화되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3 의식의 흐름 기법

-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08년 수능 47번]
-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1년 9평 35번]
-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12년 9평 13번]
-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3년 9평 47번]

의식의 흐름 기법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그대로 써 내려가는 것으로, 앞서 배운 내적독백이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뼈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솔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해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김동리, ‘역마’ [13년 9평 / 비상(유)II, 천재(김) I]

-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O, X) [13년 9평 47번 ③]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몸을 웅크리고 가마니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돌덩어리처럼 차다. 허영계 흑벽마다 서리가 얇은 깊은 움 속, 서너 길 높이에 통나무로 막은 문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한가지지,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익다.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농들의 사수(射手)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뺨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정치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소. 출신 계급을 탓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오.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한 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를 거요.

몽롱한 의식 속에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던 눈, 그리고 따발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서 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움 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삼삼히 아른거린다. 한 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독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좋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찌면 농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흘랑 빨가벗겨서 걷게 할지도 모른다(찢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빛깔이 제 빛인 미(美) 전투복이니까…….)

오상원, '유예' [두산II, 천재(김) I]

- 의식의 흐름을 통해 총살을 당하게 될 '나'의 내면 심리가 나타나 있다. (O, X)

위 작품은 6·25 전쟁 중 인민군의 포로가 된 국군 소대장이, 인민군의 전향 회유를 거부한 뒤 처형을 기다리는 한 시간의 유예 시간 동안의 심리를 의식의 흐름으로 나타낸 소설이다.

3. 기타 문학 (수필, 희곡, 시나리오)

• 1. 수필 •

• 2. 희곡 •

- 1) 대사
 - ① 대화
 - ② 독백
 - ③ 방백
- 2) 지시문
- 3) 사건
- 4) 연기 지시, 무대 구성
- 5) 장면 전환
- 6) 소도구

• 3. 시나리오 •

- 1) 장면, 장면 전환
- 2) 플롯
- 3) 대사, 지시문
- 4) 촬영 지시, 촬영 기법

1. 수필

1. 정의 :

‘아무나’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 없이 쓴 언어 예술.

2. 특성

- 1) 비전문성 :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음.
- 2) 개성적 :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과 심성이 생생하게 드러남.

- (가)와 (나)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05년 6평 16번]
- 생활 주변의 소재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05년 9평 43번]
-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05년 수능 39번]
- 감탄적인 어조로써 ‘덕보’에 대한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07년 6평 42번]
- (다)의 ‘질화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년 수능 56번]
- 글의 중간 중간에 ‘따름’의 여러 측면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였다. [12년 9평 39번]
-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13년 9평 35번]

수필의 경우 앞서 시나 소설과 관련한 개념 이해가 잘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수필의 글감이 되는 제재나 주제, 표현법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단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조지훈, ‘멋 설(說)’ [05년 수능]

-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O, X) [05년 수능 39번 ①]

감탄사를 사용하거나 감탄형 어미가 나타나면 영탄적인 어조라고 할 수 있다.

그날 황혼 천하에 공지(空地) 없음을 한탄하며 뉘 집 이층에서 저물어 가는 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실로 덕수궁 연못 같은, 날만 따뜻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영성한 공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훌륭한 공지를 하나 발견하였다.

○○보험회사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서한 높다란 판장(板障)으로 둘러막은 목산(目算)* 범 천 평 이상의 명실상부한 공지가 아닌가.

잡초가 우거졌다가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아 빛으로 덮인 실로 황량한 공지인 것이다. 입추의 여지가 가히 없는 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인외경(人外境)의 감을 풍기는 적지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닐 수 없다.

인마(人馬)의 발자취가 끊인 지 — 아니 그건 또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 오랜 이 공지에는 강아지가 서너 마리 모여 석양의 그림자를 끌고 회롱한다. 정말 공지 — 참말이지 이 세상에는 인제는 공지라고는 없다. 아스팔트를 깐 뽀얀길도 공지가 아니다. 질편한 논밭, 임야, 석산, 다 아무개의 소유답이요, 아무개 소유의 산갈*이요, 아무개 소유의 광산인 것이다. 생각하면 들에 나는 풀 한 포기나 공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치대로 하자면 우리는 소유자의 허락이 없이 일 보의 반 보를 어찌 옮겨 놓으리오. 오늘 우리가 제법 교외로 산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세상 인심이 좋아서 모두들 묵허(默許)를 해 주니까 향유할 수 있는 사치다.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던 차에 이런 공지다운 공지를 발견하고 저기 가서 두 다리 쪽 뽀고 누워서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보험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았다. 다만 이 건조물은 콘크리트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것과 달라 잡초가 우거진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 '조춘점묘(早春點描)' [06년 수능 / 비상(유) 1]

* 목산 : 눈으로 어림셈함. / * 산갈 : 산갈. 산림의 의미.

[보기]

현대인이 신경증을 앓는 까닭은 자신이 만들어 낸 바로 그 문명 때문일 것이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욕망의 창고에는 오히려 빈 구석만 더욱 늘어 간다. 그리고 그 빈 구석을 메우고 타오르는 것은 율화의 불길이다.

[보기]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미루어 짐작할 때, 화자는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O, X) [06년 수능 28번 ⑤ 변형]

[보기]는 현대 문명이 가져다주는 욕망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위의 작품은 이러한 현대적 삶이 가져다주는 휴식과 안식의 부재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에 대한 기저에는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경(目不識丁)*인 것이 철천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로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陶), 당국 당(唐)’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意)를 삽(挿)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히,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꼬끼요 도’는 없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의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경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이나

양주동, '질화로' [07년 수능]

* 목불식경 :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 * 의의를 삽한즉 : 의문을 제기하니.

• ‘질화로’는 정감이 넘치는 풍경을 연상시키고 있다. (O, X) [07년 수능 56번 ④]

늦둥이를 얻은 부부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따뜻한 애정을 질화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적용 문제

나는 그믐달을 몹시 사랑한다. 그믐달은 너무 요염하여 감시 손을 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감쪽하게 어여쁜 계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가 숨어버리는 초승달은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독부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만 그믐달은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怨婦)와 같이 애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보름에 둥근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 같은 달이지만 그믐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초승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만 그믐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객창한등에 정든 임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은 무슨 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 주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든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이 머리를 풀어뜨리고 우는 청상(靑孀)과 같은 달이다. 내 눈에는 초승달 빛은 따뜻한 황금빛에 날카로운 쇠소리가 나는 듯하고 보름달을 쳐다보면 하얀 얼굴이 언제든지 웃는 듯하지만 그믐달은 공중에서 번뜻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푸른빛이 있어 보인다. 내가 한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 있는 사람만 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돌아가는 술주정꾼과 노름하다 오줌 누러 나온 사람도 보고 어떤 때는 도적놈도 보는 것이다. 어쨌든 그믐달은 가장 정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는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 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 준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 하면 그믐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나도향, '그믐달' [천재(고)Ⅱ, 천재(정)Ⅰ]

(1) 위 수필의 제재를 적어 보자.

▶

(2) 위 수필의 주제를 적어 보자.

▶

(3) 위 수필에 나타난 표현법을 적어 보자.

▶

<정답>

(1) 그믐달

(2) '나'가 그믐달을 사랑하는 이유(그믐달을 사랑하는 마음)

(3) 의인법, 직유법

기출로 확인하기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5년 9평 43, 45번]

찰찰하신* 노(老)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孫兒)*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

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룩누룩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로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 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였다.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억조창생(億兆蒼生)이 다 비를 맞아야…….”

만지지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랗게 뜬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꼼꼼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결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층 나무도 되고 오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홍예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해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재공(才功)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층 나무 오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一顧之惠)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력무력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여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조각,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이태준, '화단'

* 찰찰하다 :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하다. / * 손아 : 손주를 일컫는 말.
* 벌벌 : 식물의 가지 따위가 옆으로 벌어진 모양. / * 채반 : 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를 엮어 만든 바구니.

◦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태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생활 주변의 소재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예스러운 어투가 사용되어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④ 글쓴이의 체험을 상징화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 ⑤ 화초를 가꾸는 노인에 대한 글쓴이의 분명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

◦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 ② 자연은 그것 자체로 최선이다.
- ③ 자신을 망치는 것은 욕심이다.
- ④ 인생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 ⑤ 자연에서 배우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2.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년 수능 50번]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훌훌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솔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갑남을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 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이양하, '신록예찬'

* 문법 : 문법 강의 시간. /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움.

- ① '특권'은 신록을 누리는 글쓴이의 기쁨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군.
- ② 신록이 '고고'한 모습을 지닌다는 점에서, '나의 자리'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월적 공간으로 보아야겠군.
- ③ '기쁨의 노래'는 신록의 속성을 비유한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부각한 것이다.
- ④ 글쓴이는 사람 곁을 떠나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군.
- ⑤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대상과 동화하려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2. 희곡

1. 정의

: 연극의 대본이 되는 글.

2. 특성

- 1) 현재화된 인생의 표현 :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인생을 표현.
- 2) 무대 상연 :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량이나 구성에 있어 많은 제약과 관습이 존재함.

- <보기>는 ‘연철’과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년 수능 38번]
-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09년 9평 38번]
- ㉠~㉢의 음향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년 9평 49번]

희곡은 경우 인물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사건을 벌인다는 측면에서 소설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설과 마찬가지로 등장 인물이나 배경 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네 사람, 우르르 몰려가 연철을 에워싼다.

곰치 : 그래 얼마나 울렸어?

도삼 :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 줘사 쓸 것 아니라고! 자네 기다리다가 지쳤어! (기대에 찬 얼굴로) 어서 어서 말이나 해 보게!

성삼 : 석 장은 올랐제?

구포덕 : 저 사람 무담씨 장난치고 싶음께는 일부러 쌍다구 딱 찡그리고 말 않는 거 봐! 그라제? (수선스럽게 웃어댄다.)

연철 :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으며 침통하게) 놀러라우? 맘이 기뻐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

곰치 : (영문을 몰라) 문 소리여? (와락 연철의 팔을 붙들고) 아니, 문 소리여? 영?

연철 : (처절하게) 다, 다 뺏겼오! 아무 것도 없이 다 뺏겼오!

일동 : (비명처럼) 뭣이라고?

곰치 : (미친 사람처럼) 뺏기다니? 뺏기다니? 뭣을 누구한테 뺏겼단 말이여? 영?

연철 : (처절하게) 빛에 싹 잡혔지라우! 그것도 빛은 이만 원이나 남고……. (절규하듯) 문 도리로 막는단 말이요?

성삼 : (주먹을 불끈 쥐곤) 죽일 놈!

도삼 :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버리며) 아아!

구포덕 : (손바닥을 철썩 철썩 때려 가며) 그렇게 됐어? 뺏겼어? (신음하며) 허어!

천승세, ‘만선’ [08년 수능 / 교학(조) I, 비상(박) I, 신사고 I, 창비 II]

- 연철은 전달해야 할 내용을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O, X)
[08년 수능 38번 ㉢ 변형]

연철은 ‘다 뺏겼다’, ‘빛에 잡혔다’, ‘그러고도 이 만원의 빛이 남았다’ 등의 정보를 분할하여 제공하고 있다.

파수꾼 가 :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파수꾼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듯하게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파수꾼 가 :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 갔다.

파수꾼 다 :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파수꾼 나 : 보렴, 방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파수꾼 다 :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날을 단 한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파수꾼 나 :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파수꾼 다 : 오히려 이리가 있다구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구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중략)

촌장 :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습디다.

파수꾼 나 :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 저쪽요, 저쪽. 짚레 덩굴 밀이던가요…….

파수꾼 나 : 드디어 잡는군요!

이강백, ‘파수꾼’ [09년 9평 / 교학(조)Ⅰ, 두산Ⅱ, 지학(권)Ⅰ, 천재(고)Ⅱ, 천재(김)Ⅱ, 천재(정)Ⅰ]

-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O, X) [09년 9평 38번 ②]

위에 제시된 부분의 공간적 배경은 파수꾼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망루’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 대 사

- 희곡에서 **대사**는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며, 무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06년 9평 52번 보기]
- **대화**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08년 수능 37번]
- **대사**에는 **대화**, **방백**, **독백** 등이 있다. 대화는 등장인물 간에 주고받는 대사로 ~ [10년 9평 48번]

희곡에서의 대사는 대화, 독백, 방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대화 : 두 사람 이상의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말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네 사람, 우르르 몰려가 연철을 에워싼다.

곰치 : 그래 얼마나 올렸어?
도삼 :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 줘사 쓸 것 아니라고! 자네 기다리다가 지쳤어! (기대에 찬 얼굴로) 어서 어서 말이나해 보게!
성삼 : 석 장은 올랐제?
구포덕 : 저 사람 무담씨 장난치고 싶으께는 일부러 쌍다구 딱 찡그리고 말 않는 거 봐! 그라제? (수선스럽게 웃어댄다.)
연철 :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으며 침통하게) 놀러라우? 맘이 기빠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
곰치 : (영문을 몰라) 므 소리여? (와락 연철의 팔을 붙들고) 아니, 므 소리여? 영?
연철 : (처절하게) 빛에 싹 잡혔지라우! 그것도 빛은 이만 원이나 남고……. (절규하듯) 므 도리로 막는단 말이요?
성삼 : (주먹을 불끈 쥐곤) 죽일 놈!
도삼 :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버리며) 아아!
구포덕 : (손바닥을 철썩 철썩 때려 가며) 그렇게 됐어? 뺏겼어? (신음처럼) 허어!
연철 : (사립문 쪽을 가리키며) 쉬잇!
천승세, '만선' [08년 수능 / 교학(조) I, 비상(박) I, 신사고 I, 창비 II]

- 대화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O, X) [08년 수능 37번 ①]

풀이 죽은 연철이나 연철이가 빛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과 놀람이 모두 간결한 대사로 처리되고 있다.

② 독백 : 대화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하는 말

[이전 줄거리] 초설(初雪)이 내리는 어느 밤 절을 나가던 도념과 나무를 하고 내려가던 길인 초부가 만나 대화를 나눈다. 도념은 스님 몰래 절을 나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초부 : 어머니 아버질 찾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두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구,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

도념 :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냥 달라고 하니깐 방문 열구 웬 부인이 쌀을 퍼 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구 있드니 별안간 ‘도념아, 내 아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맨발바닥으로 뛰어 내려오든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초부 : 가려거든 빨리 가자. 퍽퍽 쏟아지기 전에. 이 길루 갈테니?

도념 : 비탈길루 가겠어요.

초부 : 그럼 잘—가라. 난 이 길루 가겠다.

도념 : 네, 안녕히 가세요.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랑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도념 :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등걸 구멍에다 봐 둔 것을 제가 아침이면 몰래 꺼내 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구요. 동지선달 긴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무십시오. (산문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적.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염불 소리만 청정히 들릴 뿐. 눈은 점점 퍽퍽 내리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함세덕, ‘동승’ [10년 9평 / 교학(조) |, 천재(고) |]

[보기]

대사에는 대화, 방백, 독백 등이 있다. 대화는 등장인물 간에 주고받는 대사로, 인물들의 관계를 알려 주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기능을 한다. 방백이 관객을 청자로 상정한 대사라면, 독백은 배우가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 촉발된 혼잣말이다. 독백은 사건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배우가 내면 심리를 직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연극의 서사에 시적 분위기를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

• 도

념이 초부와 헤어진 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는 심리적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독백을 한 것이군. (O, X) [10년 9평 48번 ③]

• 도념의 독백은 절을 떠나는 사건을 지연하고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군. (O, X) [10년 9평 48번 ④]

도념이 초부와 헤어진 후에 혼잣말로 주지 스님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독백이 나타나면 사건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사건이 지연되며, 시적 분위기가 첨가되기 때문에 서정적 분위기가 강화된다.

③ 방백 : 관객에게는 들리나 상대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대사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한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잠시 후 새 소리, 닭 우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장녀 : (관객들에게)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의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 (교수를 깨운다.) 아버지, (교수, 눈을 비비며 머리를 든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 드리겠어요.

이근삼, '원고지' [06년 9평 / 미래엔Ⅱ, 비상(유)Ⅰ, 비상(박)Ⅰ, 지학(권)Ⅰ, 지학(최)Ⅱ, 천재(김)Ⅰ, 천재(정)Ⅰ, 해냄Ⅱ]

- 장녀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O, X)
[06년 9평 49번 ④]

장녀는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아버지는 이런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다. 무대와 객석은 분리된 공간이지만, 만약 무대에서 관객에게 말을 건네게 되면 그 분리가 사라지게 된다.

2 지 시 문

-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08년 수능 37번]

지시문은 대화 사이에 짝막하게 넣어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상태 등을 설명하거나 조명, 효과음을 지시하는 글을 말한다.

임제순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들어온다. 그 뒤로 야릇한 표정의 범쇠 따라 들어와선 눈길을 땅에 박은 채, 뒷짐을 쥐고 마당을 서성댄다. 긴장해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네 사람.

임제순 : (능글맞게 웃음을 흘리며) 곰치! 오늘 잘 했어! 자네가 제일 많이 했어! 거 참 멋있거든!

곰치 : (건성으로) 예에! 예에!

임제순 : 부서 때도 몇 십 년 만이지만 부서 크기도 처음이여! 죄다 허벅다리 같은 놈들이니……. (갑자기 불만스러운 얼굴을 해 가지곤) 그라제만 나는 손해여! 이익이 없그등! 천상 널린 돈 거둔 것뿐잉께……. 그나마도 일부분만 거뒀으니……. (속상하다는 듯이) 진장칠 놈의 것,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이자만 키웠어도……. 예잇! 쫓쫓!

범쇠 : (여전히 마당을 서성대며) 아암!

임제순 : 곰치!

곰치 : (뉘 빠고 서선, 헛소리처럼) 예에! 예에!

(중략)

임제순 :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것네! 묶것어!

곰치 : (기겁할 듯 놀라) 예에? 아니 배, 배를 묶어라우?

성삼·연철·도삼 : 배를 묶다니?

구포덕 : (떨쩍 뛰며) 왔따! 큰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으라우? 예에?

임제순 : (단호하게)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치 : (애걸조로)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임제순 : (손을 저으며) 더 말 말어! (몇 걸음 걸어 나가며)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어! 배 빌려 달란 사람이 밀린단 말이여!

곰치 : (따라가며) 영감님! 사나흘 안으로 빚 갚지랍녀! 요참 물만 안 놓치면 되고 말고라우! 제발 배는 풀어 주씨요! 제발!

임제순 : (곰치를 떠밀며) 안 돼! 안 된다면!

천승세, '만선' [08년 수능 / 교학(조) I, 비상(박) I, 신사고 I, 창비 II]

-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O, X)
[08년 수능 37번 ⑤]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3 사건

- 희곡에서 대사는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며, 무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06년 9평 52번]
-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09년 9평 38번]
- ㉠~㉡을 통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관객에게 전달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년 수능 38번]

희곡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사건의 경우 무대 안에서 일어나느냐, 무대 밖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무대 내의 사건, 무대 밖의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관객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무대’란 현재 극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 줄거리] 파수꾼 가, 나, 다는 이리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이리 떼가 나타나면 북을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운반인을 시켜 촌장에게 편지로 이 사실을 알리려 한다. 그리고 얼마 후 촌장이 나타나 ‘파수꾼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혼자 남은 ‘파수꾼 다’에게 말을 건넨다.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파수꾼 다’에게 보인다.

촌장 : 이것, 네가 보낸 거니?
 파수꾼 다 : 네, 촌장님.
 촌장 :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 올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난 나 혼자만을 와 달라구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파수꾼 다 :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 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있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파수꾼 다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파수꾼 다 :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 난 알고 있지.
 파수꾼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텃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이강백, ‘파수꾼’ [09년 9평 / 교학(조) I, 두산II, 지학(권) I, 천재(고) II, 천재(김) II, 천재(경) I]

-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O, X) [09년 9평 38번 ㉢]

촌장은 편지를 가져와서 편지를 운반한 사람이 도중에 편지를 읽었으며,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전 줄거리] 복조의 송장이 동리 사람들에 손에 의해 집으로 돌아온다. 복실과 분 어미를 비롯한 가족들이 이를 보고 울고, 동리 사람들 역시 소리를 낮춰 운다. 복조의 아버지인 노어부는 애써 담담한 반면, 복조의 어머니인 ‘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처 : 내가 맑은 물 떠 놓고 수신께 빌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조 아니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섬 동녘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새가 향기롭지. 그리고 백옥 같은 모래가 깔렸지. 거기서 팔다리 쪽- 뽕고 눈감았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완연히 보이는 걸. 복조 배 위로 무지갯빛 같은 고기가 썩-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는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게 (시늉을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다문 입이 너무도 쓸쓸해.

간(間), 울음소리

통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몰라. 아니야 꼭 올 거야. 저녁물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면 모레 아침물. 산수자리를 골라 놓고 동쪽을 보고 기대려야지. (일동을 보고 픽 웃으며) 뒷 때문에 울어들? (괘이를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석이 :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 얼른 얼른 아버지.

노어부 : 내 알 것 아니야.

석이 :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 (멀리서 처의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노어부 : (일어서며) 윤 침지, 복망산으로 가지.

복실 : 촛불 하나 안 키고 관도 없이 어델 가요?

분 어미 : (일어서며) 난 항구로 가겠다. 더 있는댔자 가슴만 졸이지. 울며 웃으며 한세상 살다 그럭저럭 줄을 때 되면 죽지. (언덕을 넘어 퇴장)

노어부 :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왜, 과부 수절하기가 싫으냐?

석이 : (울면서 등장) ㉠ 어머니가 갯가에서 괘이로 물을 파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별안간 허파가 끊어진 것처럼 웃으며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어머니는 한세상 정말 헛사셨다. 왜 우리는 밤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단든?

함세덕, ‘산허구리’ [12년 수능]

- ㉠은 무대 밖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청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O, X) [12년 수능 38번 ㉢]
-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알려 주지만, ㉠과 연관되면서 무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환기하기도 한다. (O, X) [12년 수능 38번 ㉣]

㉠의 경우 무대 밖으로 나간 ‘처’의 소리가 계속 들리게 설정함으로써 처가 계속 웃고, 울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은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어머니의 동작을 전달해주는 내용이므로, 관객들은 이전에 일어났던 처의 행동과 관련하여 전달 내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4 연기 지시, 무대 구성

- 연출자가 ㉠~㉢에 대해 연기를 지시를 할 때, 지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년 9평 54번]
- 위 글을 공연하려고 할 때, 연출자가 지시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년 6평 32번]
- 연출자가 <보기>와 같이 ㉠~㉢을 해석한 후 연기를 지시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년 수능 39번]
- [A]를 연극으로 상연하기 위해 두 명의 연출가가 [A]의 첫 장면의 무대 구성을 <보기>와 같이 짜 보았다. 연출 의도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년 9평 34번]

희곡은 무대에서의 공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출이나 무대 구성 등 희곡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모시 적삼을 입은 한영덕이 오른쪽 무대 아래에서 허리를 굽힌 채 염을 하고 있다. 수술 장면에서 사용했던 환자용 마네킹이 그대로 이용된다. 허름한 옷차림의 강 노인, 관을 들고 등장. 차트를 넘긴다.—‘1972년 서울’. 강 노인은 망치를 관 위에 올려놓고 소주병을 관 옆에 둔다. 조용히 엎드려 잠을 청한다. 이때 여학생 교복을 입은 한혜자, 조심스럽게 걸어 나와 한영덕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무대 위로 올라간다.

한혜자 : (중이쪽지를 보며)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허리를 앓거나 날마다 폭음을 하던 술꾼이라는 기억뿐이에요. 아버지는 식구들과 말도 건네지 않고 항상 골이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술이 깨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서 숨으로 두 귀를 꼭 틀어막고 지냈었죠. 나는 자라는 동안, 양친의 일가친척 집에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어느 쪽에서도 혈육의 대접을 기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의사 노릇을 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난 아버지가 의사인 줄도 몰랐으니까요.

한영덕 : (염을 끝내고 흰 천을 씌우면서) 자, 이제 염은 끝났소. 이승에서 못다 한 일, 저승에 가서라도 꼭 이루시오. (천천히 강 노인이 엎드려 있는 관 쪽으로 걸어간다.)

강 노인 : (인기척에 잠을 깨며) 일은 다 끝났수?

한영덕 : 예

강 노인 : 내가 깜박 잠이 들었나 보구만. (한영덕이 관 옆에 앉아 소주를 마신다.)

한혜자 :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는 아무 얘기도 없이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황석영 원작, 김석만·오인두 각색, ‘한씨연대기’ [08년 6평]

- 위 글을 공연하려고 한다면, 한혜자는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해설을 하듯이 말하는 것이 좋겠군. (O, X) [08년 6평 32번 ①]
- 위 글을 공연하려고 한다면, 한영덕과 강 노인의 의상은 깔끔한 모시 적삼으로 준비해야겠군. (O, X) [08년 6평 32번 ②]

강 노인과 한영덕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한혜자는 관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다. 한영덕의 경우 첫부분에 모시 적삼을 입고 있다고 했지만, 강 노인은 허름한 차림으로 관을 들고 등장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전 줄거리] 궁에서 쫓겨난 평강 공주는 대사와 함께 절로 가던 길에 온달을 만나 결혼한다. 10년 후 온달과 함께 궁으로 돌아온 공주는 온달이 장군이 되도록 돕는다. 온달은 전쟁터에서 반역자들의 손에 죽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나 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공주가 나타나 죽은 온달을 달래자 관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다. 공주는 평양성으로 가 반역자들을 없애기로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장과 장수들은 자신들이 온달을 죽인 것이 탈로 날까봐 걱정하며 회의를 하고 공주를 찾아 온다.

장교 : (공주에게) 자, 걸으시오.

공주 : 네가 정녕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장교 : 내 말을? 왕명을 받들고 온 사람에게?

공주 : 이놈이 정녕 실성했구나. 내가 돌아가면 어찌 될 줄을 모르느냐? 나는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이미 아버님께도 여쭙고 오는 길, 누가 또 나를 지시하던 말이나? 정 그렇다면 근일 중에 내가 궁에 갈 것이니 오늘은 물러가라.

장교 : 정 안 가시겠소?

공주 : (분을 누르며) 내가? 말을 어느 귀로 듣느냐? (타이르듯) 내가 아마 잘못 알고 온 것이니, 그대로 돌아가면 오늘의 허물을 내가 과히 묻지 않으리라.

장교 : (들은 체를 않고) 정 소원이라면 평안하게 모셔 오라는 명령이었다. 잡아라.

병사들, 공주의 팔을 좌우에서 잡는다.

공주 : 어머니. / 장교 : 편하게 해 드러라.

병사1, 칼을 뽑아 공주를 앞에서 찌른다. 공주, 앞으로 쓰러진다. 붙잡았던 병사들, 서서히 땅에 놓인다.

장교, 손으로 지시한다.

병사들, 공주를 들고 퇴장. 장교, 뒤따라 퇴장. 공주의 살해에서 퇴장까지의 동작은 마치 의전(儀典) 동작처럼. 기계적으로 마디 있게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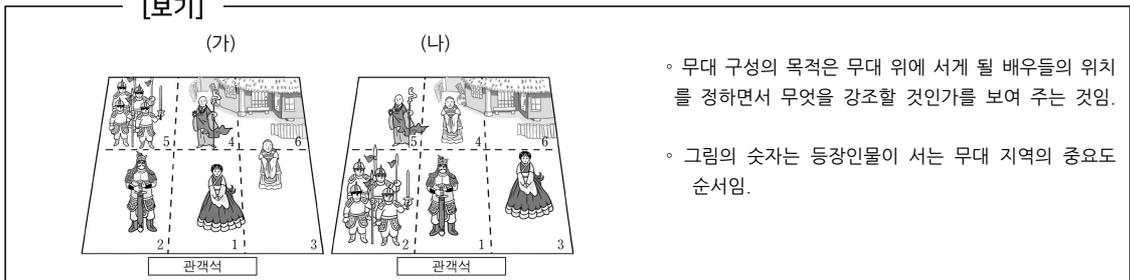
대사 : 공주. 좋은 세상에서 또다시 만납시다.

온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모두 퇴장한 다음 무대 정면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온다.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11년 9평 / 교학(윤) 1]

* 온모 : 온달의 어머니.

[보기]



(가)에서는 장교를 2번 지역에 배치하여 (나)에 비해 장교가 극적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겠군. (O, X) [11년 9평 34번 ②]

• (가)에서는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온모를 다른 인물에 가리지 않게 함으로써, 움직이지 않고 사건을 지켜보는 온모의 역할을 (나)에 비해 더 잘 드러낼 수 있겠군. (O, X) [11년 9평 34번 ④]

'장교'의 경우 무대 앞 가운데에 있을 때 그 역할의 중요성을 더 부각할 수 있다. '온모'의 경우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나)에서는 장교에 의해 온모가 가려질 수 있지만 (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장면 전환

• 무대 장치의 전환 없이 조명을 통해 장면이 바뀌고 있다. [06년 9평 49번]

무대에서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변할 때, 등장 인물이 달라질 때,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 장면이 전환된다. 이때는 주로 무대 장치를 바꾸어 관객에게 장면 전환을 인식시키게 된다.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몰끄러미 바라본다.

교수 : (한참 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야.
 천사 :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 언제 이렇게 해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요.
 교수 :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 사고(思考)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事故)가 난 걸요.
 교수 :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당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한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잠시 후 새 소리, 닭 우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이근삼, '원고지' [06년 9평 / 미래엔Ⅱ, 비상(유)Ⅰ, 비상(박)Ⅰ, 지학(권)Ⅰ, 지학(최)Ⅱ, 천재(김)Ⅰ, 천재(정)Ⅰ, 해냄Ⅲ]

• 무대 장치의 전환 없이 조명을 통해 장면이 바뀌고 있다. (O, X) [06년 9평 49번 ②]

무대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으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6 소 도 구

- 소도구를 활용하여 주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06년 9평 49번]
- <보기>의 ㉠~㉣ 중 [A]의 ‘갱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년 수능 39번]

희곡에서 소도구는 단순히 등장하는 사물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소재의 경우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녀 : (관객들에게)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 드립니다. (교수를 깨운다.) 아버지. (교수, 눈을 비비며 머리를 든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 드리겠어요.

교수 : (하품을 하며) 그래, 읽어다오.

장녀 : (신문을 읽는다.) 비가 많이 왔어요.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이에요. 또 살인입니다.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요.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요. 아버지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 책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씨가 또 당선됐답니다.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군요. 끔찍도 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대요.

교수 : 하룻밤 상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야 어디 살 수 있겠니.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

장녀 : 이거요?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장녀 : 뭘 번역을 하세요?

교수 :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그대로 번역을 한다.

장녀 : 아버지두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에요.

교수 : (신문을 보더니)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러구 했지.

시계가 여덟 번을 친다. 교수는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철쇄를 바꾸어 맨다.

이근삼, ‘원고지’ [06년 9평 / 미래엔Ⅱ, 비상(유)Ⅰ, 비상(박)Ⅰ, 지학(권)Ⅰ, 지학(최)Ⅱ, 천재(김)Ⅰ, 천재(정)Ⅰ, 해냄Ⅱ]

- 소도구를 활용하여 주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O, X) [06년 9평 49번 ①]

‘철쇄’는 일상 생활을 노예처럼 살아가는 교수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이때 동리 사람들, 들것에 복조 송장을 태워 들어온다. 물이 똑똑 떨어진다. 복실과 분 어미, 의아하여 잠시 보고 있더니 달려들어 목 놓고 운다. 동리 사람들, 소리를 낮춰 힐끔힐끔 운다.

간(間)

처 : (부엌에서 나오며) 왜들 우니?

분 어미와 복실 : 어머니, 복조예요.

동리 사람 3 :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틈에 껴습디다.

처 : 물에서 죽은 놈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장담해. (아무 관계없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노어부를 석이와 윤 침지가 양편에서 짝 붙들고 들어온다.)

노어부 : 놔. 두고 볼 거 아니야.

윤 침지 : 참어. 참는데 복이 있다네. 그저 참는 것이 제일이야.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석이 : (그제야 들것과 사람들을 보고) 누나, 이것이 작은형이요? (붙들고 운다.)

윤 침지 : 찾았으니 다행이군. (눈물을 씻는다.)

노어부 :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서러운 소리로 똑똑히) 몇 해 전에는 배도 서너 척 있었고, 그물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졌드랬지.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덩이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못해서 다리 한쪽 뺏겼지.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윤 침지…….

윤 침지 : …….

[A] 노어부 :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두고 보고 바랄 것이 인제는 하나도 없어. (별안간 부엌 뒤로 퇴장. 들어가더니 ‘괘이’를 들고 나온다. 뒤따라 처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부지깽이로 노어부의 머리를 후려 때린다. 노어부 쓰러진다.)

처 : (괘이를 잡아 뺏으며) 이 괘이가 무슨 괘인 줄 알아?

노어부 : (덤비려다가 처의 너무도 험쵸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복조를 붙들고 운다.)

처 : 내가 맑은 물 더 놓고 수신크 빌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조 아니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섬 동녘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새가 향기롭지. 그리고 백옥 같은 모래가 깔렸지. 거기서 팔다리 쪽- 뺏고 눈감았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완전히 보이는 걸. 복조 배 위로 무지갯빛 같은 고기가 쑥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는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게 (시늉을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다문 입이 너무도 쓸쓸해.

간(間), 울음소리

통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몰라. 아니야 꼭 올 거야. 저녁물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면 모레 아침물. 산수자리를 골라 놓고 동쪽을 보고 기대려야지. (일동을 보고 픽 웃으며) 뭣 때문에 울어들? (괘이를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석이 :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 얼른 얼른 아버지.

노어부 : 내 알 것 아니야.

함세덕, ‘산허구리’ [12년 수능]

- [A]의 ‘괘이’는 ‘처가 ‘노어부’와 충돌하게 만드는 매개체 구실을 한다. (O, X)
[12년 수능 39번 ㉓ 변형]

‘처’는 괘이를 잡아 뺏고 노어부는 그것을 다시 뺏으려다가 멈추고 하는 행동을 통해, 갈등이 유발된다.

적용 문제

[이전 줄거리] 온갖 부정 부패와 술책으로 부자가 된 이중생은 그동안의 잘못이 들통나 전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한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재산을 사위인 송달지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거짓으로 죽은 척한다. 그리고 그의 거짓 장례식이 치러진다.

제3막

㉠ 전(前) 막에서 삼사일 후 저녁, 같은 장소. 다다미방에는 거꾸로 둘러친 병풍 끝이 보인다. 향이 피어오르고 북소리와 함께 독경 소리가 높으락낮으락 들려온다. 독경은 우리들이 일상 레코드로 듣던 저 경쾌하고도 유머가 있는 축원경이다. 바깥사랑과 후원 정자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 도무지 초상집답지 않다. 막이 열리면 굴건제복을 한 상주 송달지가 혼자 온돌방에서 꾸벅꾸벅 즐기고 있다.

(중략)

김 의원 : (그냥 달지에게) 보건 시설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선생이 의사라구 하시니 말씀입니다만…….

최 변호사 : 보건 시설?

김 의원 : 네, 우리나라처럼 보건 시설이 불충분한 나라도 없지요. (이중생, 펄쩍 뛴다.) 그야 그럴 것이, 지금꺼정은 저마다 도회지에서만 개업할라구 주사 한 대두 돈 있는 이만 맞게 생겼구, 돈 몇 환 있구 없구루 귀중한 생명이 왔다갔다하지 않았습니까. 무료루 치료해 주는 국립 병원이 있지만, 아주 시설이 불충분하거든요.

송달지 : (의외로 흥분하며) 그렇습니다. 내가 의사 공부를 시작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죠. 의사란 상업이 아닙니다.

김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판결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경솔히 말할 수 없으나 송 선생의 생각을 관계 당국에 보고해서 고인의 재산일랑은 특별히 이 방면에 쓰시게 하시죠? (이중생, 곤두박질한다.)

최 변호사 : 고, 고인의 재산을 어디다 써요. 헤헤……. 아니올시다. 고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찬찬히 의논해 가지구설랑 결정하시지……. 헤헤!

김 의원 : 그야 물론 당국에서 가부간 집행할 일이지 여기서 결정지를 성질의 것이 아니죠.

최 변호사 : 아, 아니올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구 고인의 가족, 이를테면 고인의 마누라……. 그러니까 바로 여기 앉은 상속인인 송 선생의 장모두 계시구 그의 딸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송 선생의 부인두 있구, 아들두 있구 안 그렇습니까. 그 가족들의 생각두 알아봐야죠. 그렇게 됐지, 아마 송 선생?

송달지 : 네, 제 의견만으론…….

최 변호사 : 암, 그렇구 말구. 가족의 의사두 참작해야지.

김 의원 : 잘 아실 분이 일부터 오해하시는 것 같구먼요. 사기, 배임, 공금 횡령, 탈세, 공문서 위조 등을 법적으로 청산 하면 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두 남지 않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최 변호사 : 그렇겠지만 개인 재산이야 침해할 수 없잖아요. 더욱이 이 양반에게 양도된 이상…….

김 의원 : 그렇기에 우리는 이중생 자신이 이미 자기 죄를 자각하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였으므로 고인의 소유였던 재산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우선 상속자인 송 선생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만일 가족 가운데 불만이 계시면 자기 죄과를 자인하고 입증하는 고인의 유설랑은 없애 버리구 이중생을 다시 살려 내 가지구 상속자인 송달지 씨를 걸어 고소라두 하시죠.

이중생, 옆방에서 “㉢ 그럴 법이!” 하고는 제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송과 최, 어쩔 줄을 모른다.

김 의원 : …….

최 변호사 : 아, 아니올시다. 제 목소리가 갈려서……. (헛기침을 하고) 그럴 법이 있겠습니까, 헤헤. 그럼 이중생이가 다시 살아야 상소라두 해 볼 여지가 있단 말씀이죠?

김 의원 : 다시 살아날 수도 없지만 기적적으로 부활한다 해도 유서를 자신이 번복할 수가 있겠소? 저지른 자기의 죄과는 어떻게? 사기, 배임, 횡령, 탈세…….

최 변호사 : 가, 가 가만.

김 의원 : 농담은 그만하시구, 하하……. 그럼 송 선생님의 의견이 그러시면, 진정서라구 할까 의견서라구 할까? 특위에 한 통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무료 병원 설립은 정부의 방침과도 합치되니까요. 그럼…….

최 변호사 : 잠, 잠깐만……. 김 선생.

김 의원 : 매우 불만이신 모양이군요. 선생은 상속법의 권위시니까, 법적으로 따지고 싶은 모양이시니 그럼 법적 장소에서 정식으로 뵙죠. 실례합니다. (최, 어안이 병병해 있다. 임표운, 전송하다. 김이 하수로 나가자 이중생 튀어나온다.)

오영진,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비상(유) I]

(1) ㉠을 근거로 하여 '제2막'에서 '제3막'으로 장면이 전환된 이유를 적어 보자.

▶

(2) ㉡의 이유를 찾아 적어 보자.

▶

(3) ㉢을 방백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적어 보자.

▶

(4) 다음 [보기]는 위 희곡을 공연하기 위해 토의한 것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의견 2개를 찾아 그 이유를 적어 보자.

▶

.....

[보기]

- ① 송달지는 김 의원과 대립하는 인물이니, 김 의원과 대화할 때는 격양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
- ② 병풍 뒤의 이중생의 모습을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병풍을 설치하도록 하자.
- ③ 최 변호사는 김 의원의 말에 당황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게 연기하도록 하자.
- ④ 김 의원은 대화 중간 중간에 이중생이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드러나는 표정을 짓도록 하자.

<정답>

(1) 시간이 지남

(2) 이중생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3) ㉢의 소리를 관객 뿐 아니라 다른 등장 인물 역시 듣고 반응함

(4) ㉠ : 오히려 송달지는 김 의원의 의견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음

④ : 김 의원이 이중생이 살아있음을 눈치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기출로 확인하기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8년 수능 37~39번]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 네 사람, 우르르 몰려가 연철을 에워싼다.

곰치 : 그래 얼마나 올랐어?
 도삼 :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 줘사 쓸 것 아니라고! 자네 기다리다가 지쳤어! (기대에 찬 얼굴로) 어서 어서 말이나 해 보게!
 성삼 : 석 장은 올랐제?
 구포댁 : 저 사람 무담씨 장난치고 싶으께는 일부러 쌍다구 딱 찡그리고 말 않는 거 봐! 그라제? (수선스럽게 웃어댄다.)
 연철 : (㉡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으며 침통하게) 놀러라우? 맘이 기빠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
 곰치 : (영문을 몰라) 큰 소리여? (㉢ 와락 연철의 팔을 붙들고) 아니, 큰 소리여? 엉?
 연철 : (처절하게) 다, 다 뺏겼오! 아무 것도 없이 다 뺏겼오!
 일동 : (비명처럼) 뭣이라고?
 곰치 : (미친 사람처럼) 뺏기다니? 뺏기다니? 뭣을 누구한테 뺏겼단 말이며? 엉?
 연철 : (처절하게) 빛에 싹 찍혔지라우! 그것도 빛은 이만 원이나 남고……. (절규하듯) 큰 도리로 막는단 말ियो?
 성삼 : (주먹을 불끈 쥐곤) 죽일 놈!
 도삼 :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버리며) 아아!
 구포댁 : (손바닥을 철썩 철썩 때려 가며) 그렇게 뺏어? 뺏겼어? (신음처럼) 허어!
 연철 : (사립문 쪽을 가리키며) 쉬잇!

임제순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들어온다. 그 뒤로 아릿한 표정의 범쇠 따라 들어와선 눈길을 땅에 박은 채, 뒷짐을 쥐고 마당을 서성댄다. 긴장해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네 사람.

임제순 : (능글맞게 웃음을 흘리며) 곰치! 오늘 잘 했어! 자네가 제일 많이 했어! 거 참 멋있거등!
 곰치 : (건성으로) 예에! 예에!
 임제순 : 부서 떼도 몇 십 년 만이지만 부서 크기도 처음이여! 죄다 허벅다리 같은 놈들이니……. (갑자기 불만스러운 얼굴을 해 가지곤) 그라제만 나는 손해여! 이익이 없그등! 천상 날린 돈 거둔 것뿐잉께……. 그나마도 일부분만 거뒀으니……. (속상하다는 듯이) 진장칠 놈의 것,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이자만 키웠어도……. 예잇! 쫓쫓!
 범쇠 : (여전히 마당을 서성대며) 아암!
 임제순 : 곰치!
 곰치 : (넋 빼고 서선, 헛소리처럼) 예에! 예에!

(중략)

임제순 :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것네! 묶것어!
 곰치 : (기겁할 듯 놀라) 예에? 아니 배, 배를 묶어라우?
 성삼·연철·도삼 : 배를 묶다니?
 구포댁 : (떨쩍 뛰며) 왔따! 큰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으라우? 예에?
 임제순 :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치 : (애걸조로)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임제순 : (손을 저으며) 더 말 말어! (㉣ 몇 걸음 걸어 나가며)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어! 배 빌려 달란 사람이 밀린 단 말이며!
 곰치 : (따라가며) 영감님! 사나흘 안으로 빚 갚지랴! 요참 물만 안 놓치면 되고 말고라우! 제발 배는 풀어 주씨요! 제발!
 임제순 : (㉤ 곰치를 떠밀며) 안 돼! 안 된다면!

천승세, '만선' [08년 수능 / 교학(조) I, 비상(박) I, 신사고 I, 창비II]

◦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②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인물의 직업과 공간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보기]는 '연철'과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연철은 ㉠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 연철의 첫 대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또한 연철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 연철은 전달해야 할 내용을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누가 빼앗아 갔느냐는 물음에는 끝까지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 연철은 그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을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빼앗아 간 자의 정체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이후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연출가가 [보기]와 같이 ㉠~㉤을 해석한 후 연기를 지시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배우의 움직임은 상대와 접촉하려는 욕망이나 상대를 회피하려는 욕망을 표현합니다. 움직임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 심리, 태도 등을 드러내는데, ㉠, ㉡, ㉢, ㉣은 접촉하려는 욕망으로, ㉤은 회피하려는 욕망으로 해석해 봅시다.

- ① ㉠ :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② ㉡ :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착잡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③ ㉢ : 상대를 질책하는 태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 ④ ㉣ :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⑤ ㉤ :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척해야 합니다.

3. 시나리오

1. 정의 :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 되는 글.

2. 특성

1) 영화 촬영 : 예정된 시간 안에 상영될 수 있도록 장면과 인물의 행동, 대사가 결정되며, 영화 제작상의 기교를 염두해 두고 플롯을 구성하기 때문에 특수 용어가 사용됨.

2) 종합 예술 : 그 자체로서 문학 작품이 되지만 배우의 연기와 배경 음악, 감독의 예술성, 과학 기술 등 여러 장치들을 통해 표현되는 예술 장르임.

-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0년 수능 27번]
-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년 수능 28번]
- 시간적 배경에 의해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12년 6평 37번]
- '서찰'과 관련지어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년 6평 38번]
- 위 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3년 6평 39번]

시나리오의 경우 희곡에서 그랬듯이 기본적으로 인물이나 배경, 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S# 29 궁궐 외각의 작은 문(밤)

보쌈 한 박 나인을 들고 가는 일단의 나인들. 역시 은밀하고 기민한 동작이다. 불안한 얼굴로 보자기를 하나 들고 뒤따라가는 한 나인.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몸도 마음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

S# 30 산 계곡 은밀한 곳(밤)

보쌈을 풀고 나오는 박 나인. 나인 하나가 눈과 입을 풀어 주면 앞의 전경이 보인다. 가운데 최고 상궁인 최 상궁이 떡 버티고 서 있고 옆엔 기미 상궁, 그리고 나인들 예닐곱 명이 서 있다. 그 가운데 불안한 눈빛의 최 나인, 그리고 한 나인, 또 한 나인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벗긴 술병까지. 이윽고 바닥에 꿰러지는 박 나인. 박 나인,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 나인.

박 나인 : (영문을 모르는 채 두려움에 떨고)

최고 상궁 : 네 죄를 인정하겠느냐?

박 나인 :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고 상궁 : 다시 묻겠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박 나인 : (더욱 안타까워) 마마님, 무엇이옵니까? 무슨 연유로 이리 하시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한 나인 : …….

김영현, '대장금' [12년 6평 / 신사고Ⅱ, 천재(고)Ⅱ, 천재(김)Ⅱ]

- 시간적 배경에 의해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O, X) [12년 6평 37번 ③]

'고즈넉한'은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말한다. 위에 제시된 부분의 경우 모두 시간적 배경이 밤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전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홍 기자 :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몰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올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열하루째 지하 1천5백미터 아래서 구출의 손길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5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 위원회 회장으로서 동진 광업소 소장인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

소장 : (마이크 앞에 선다) 예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홍 기자 :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와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홍 기자 :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립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

윤대성, '출세기' [13년 6평 / 해냄 I]

* 인터셉트 :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 홍 기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달하고 있군. (O, X) [13년 6평 39번 ①]
- 소장은 취재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군. (O, X) [13년 6평 39번 ②]

홍 기자의 경우 '감격'과 같은 자신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소장은 홍 기자의 취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

장면, 장면 전환

- 시나리오에서는 장면(scene)과 장면을 연계할 때,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 요소를 상정한다. [10년 수능 29번]
-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12년 6평 37번]

희곡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도 장면과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장면과 장면을 연결할 때는 매개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8. 동만네 집 전경(밤)

동만 모의 진한 핏빛 울음소리 들리는데 빗속에 누워 있는 동만네 집 전경. 끝없이 쏟아지는 장맛비. 장맛비. (F.O.)

#29. 건지산 전경

(F.I.) 한고비 숨을 돌려 보슬비 뿌리는 하늘. 멀리 회색빛 웅자를 자랑하는 건지산의 자태.

#30. 동만네 마당

완두콩 소쿠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뒷마루에 나와 앉은 외할머니. 부엌에서 이모가 밥상을 들고 힘겹게 나온다. 일손 멈추고 멍하니 건지산을 바라보는 외할머니.

이모(길자) : 진지 드세요.

친할머니 : (밥상 받으며) 사부인은 좀 드셨는가?

이모 : 통 안 드세요. 한 숟갈두…….

친할머니 : 에휴 쫓쫓…….

(밥상을 받고 사르르 문을 닫는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또 한상 들고 나오는 이모.)

이모 : (외할머니 앞에 멍더니) 그래 진지 안 드세요?

(그저 넋 나간 듯 앉아 있는 외할머니. 이모 밥상을 들고 건넌방으로 간다.)

윤삼육 각색, '장마' [10년 수능]

[보기]

시나리오에서는 장면(scene)과 장면을 연계할 때,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 요소를 상정한다. 매개 요소란 장면 A의 말미와 다음 장면 B의 서두를 이어 주는 '형식적 고리'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매개 요소는 두 장면 사이의 공통성이나 대립성을 활용한다. 공통성과 대립성은 인물의 성격, 연기(행위), 대사, 빛과 음향, 분위기 등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28에서 #29로 바뀔 때, 장맛비의 긴장과 보슬비의 이완을 대립적인 매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O, X) [10년 수능 29번 ①]

• #28에서 #29로 바뀔 때, 빛의 어두워짐과 밝아짐이라는 대립적 매개 요소를 활용하여 시간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있다. (O, X) [10년 수능 29번 ②]

#28에서 세차게 내리던 장맛비가 #29에서 보슬비로 바뀌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밤이었던 #28에서 '건지산의 자태'가 보이는 새벽 또는 아침으로 #29로 장면이 바뀌면서 하룻밤이 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S# 47 암자 안(밤)

들어오는 천수, 보면 박 나인이 한삼으로 입을 막은 채 토약질을 하고 있다. 얼른 들어와,

천수 : 막지 마시오! 토약질을 해야 살아난다고 했소.

하고는 얼른 박 나인의 옆으로 가 등을 쓰다듬고, 두드려 주며 토약질을 돕는다. 한삼을 그려고 나니, 잠시 토약질을 멈추는 박 나인. 힘없이 누우려는데, 박 나인이 누웠던 곳에 작은 쪽지 하나가 있다. 쪽지를 발견하는 천수. 박 나인에게 말없이 쪽지를 건넨다. 박 나인, 받아 들어 펴 본다. 수라간에서 급히 썼는지, 종이에 간장으로 쓴 한 나인의 옛 한글 서찰이다. 보는 박 나인의 눈에 금방 눈물이 맺히고, 천수도 같이 보게 되나 천수의 얼굴은 복잡하다.

한 나인 : (E*) 명이야, 살았느냐? 살았느냐? 지금 너를 죽일 약병을 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S# 48 수라간(회상*, 밤)

급히 들어오는 한 나인. 이리저리 휘돌아보다가 선반 옆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급히 찾는다.

한 나인 : (E) 순간,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이야…….

이윽고 녹두물 그릇을 찾은 듯 급히 품에 넣고 나간다.

김영현, '대장금' [12년 6평 / 신사고Ⅱ, 천재(고)Ⅱ, 천재(김)Ⅲ]

- * E : 'Effect'의 약자로서 보통 효과음을 말함. 이 극본에서는 말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를 가리킴.
- * 회상 :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말함. 이 극본에서는 지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찰 내용의 재현을 가리킴.

-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O, X) [12년 6평 37번 ㉔]

S# 47이 현재 상황이라면 S# 48은 '서찰'을 매개로 한 회상 장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순행적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2 플롯

•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09년 수능 39번]

‘플롯(plot)’은 ‘구성’이라는 뜻으로 소설·희곡·각본 등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줄거리 또는 줄거리에 나오는 여러 사건을 하나로 짜는 작업과 그 수법을 말한다. 플롯의 경우 그 비중에 따라 주 플롯과 부 플롯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 플롯은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부 플롯은 부수적인 이야기를 뜻한다.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었던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화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 엄마 영환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

영호 :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집입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 (빙긋 웃고)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얘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둘러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홍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09년 수능 / 비상(유) 1]

* 다운 :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몽타주 :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보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_1, M_2, \dots, M_k, \dots, M_n$ 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_1, S_2, \dots, S_k, \dots, S_n$ 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_1 \rightarrow S_1 \rightarrow M_2 \rightarrow S_2 \rightarrow M_k \rightarrow S_k \rightarrow M_n \rightarrow S_n$ 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 에서 S_k 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 와 S_k 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O, X) [09년 수능 39번 ②]

-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O, X)

[09년 수능 39번 ④]

위에 제시된 부분에서 주 플롯은 난쟁이 가족이 집 철거를 앞두고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이 되고, 부 플롯은 영희가 우철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다. 두 플롯은 고기를 먹는다는 유사성과 '불이의 집'과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장소의 대조점을 통해 장면을 교차하여 보여 주고 있다.

3 대사, 지시문

• 행위나 표정 등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대사에 비해 지시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14년 예비 시행 A, B형 43번]

대사는 앞서 희곡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화, 독백, 방백을 말하며, 지시문은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심리 상태 등을 설명하거나 조명, 효과음을 지시하는 글을 말한다.

[이전 줄거리] 30대 중반의 정원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진사이다. 이제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어느날, 정원은 단속 사진을 인화하러 온 주차 단속원 다림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서서히 끌리게 된다.

S# 56. 사진관 촬영실

사진기의 까만 프레임 내부에 다시 비모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거꾸로 상이 맺혀 있는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화면 밖에서 정원의 소리가 들린다.

정원 : 얼굴을 조금 왼쪽으로, 조금만 더, 턱 좀 내리고…….

그때마다 다림은 조금씩 움직인다.

정원 : 살짝 웃으면 더 예쁘겠는데.

다림, 애써 웃으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어색하다. 그래도 잠시 동안 화면을 보고 웃는데 정원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른다.

S# 57. 상가 거리 (밤)

화장품 가게 안의 다림.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이것저것을 신중하게 고르다 주인에게 값을 묻고는 선택을 망설인다. 끝내는 아무것도 사지를 못하고 화장품 가게를 나온다. 길가에 늘어선 옷가게들의 쇼윈도를 보면서 걷는 다림. 신사복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남자 옷을 바라다보는 다림. 그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S# 78. 사진관 안 (저녁)

다림 문을 열고 들어오면 텅 빈 사진관. 소파에 앉는 다림. 곧 일어선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기 시작한다. 정원이 비닐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다림을 보고 놀라는 정원. 다림이는 평소의 옷차림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원 : 화장했네?

다림 : 왜, 보기 싫어요?

정원 : 아니.

다림 : …….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오승욱 · 허진호 · 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14년 예비 시행 A, B형 / 비상(유) I, 천재(김) I]

• 행위나 표정 등에 집중하기 위하여 대사에 비해 지시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O, X)
[14년 예비 시행 A, B형 43번 ⑤]

위 작품의 경우 인물의 말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 보다는 행동과 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촬영 지시, 촬영 기법

-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95'를 지문 내용에 충실하게 촬영하려고 한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9년 수능 38번]
- ㉠~㉢ 중 <보기>의 촬영 기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2년 6평 39번]
- S#81을 위 글에 제시된 대로 영화화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4년 예비 시행 A, B형 45번]

시나리오는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카메라 촬영 기법이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내용에 대한 촬영 계획 관련 문제들이 출제되게 된다.

#95. 불이의 집

굉광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면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어 온다. ㉡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은 먼지의 마당.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담을 댄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홍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09년 수능 / 비상(유) 1]

- ㉠의 경우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O, X) [09년 수능 38번 ②]
- ㉡의 경우 담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거야. (O, X) [09년 수능 38번 ③]

㉠은 담장 안에서 불이 가족들이 밖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담벽 안쪽에 위치시켜야 한다. ㉡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담벽 바깥 쪽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S# 29 궁궐 외각의 작은 문(밤)

㉠ 보쌈 한 박 나인을 들고 가는 일단의 나인들. 역시 은밀하고 기만한 동작이다. 불안한 얼굴로 보자기를 하나 들고 뒤따라가는 한 나인.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몸도 마음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

S# 30 산 계곡 은밀한 곳(밤)

보쌈을 풀고 나오는 박 나인. 나인 하나가 눈과 입을 풀어 주면 앞의 전경이 보인다. 가운데 최고 상궁인 최 상궁이 떡 버티고 서 있고 옆엔 기미 상궁, 그리고 나인들 예닐곱 명이 서 있다. 그 가운데 불안한 눈빛의 최 나인, 그리고 한 나인, 또 한 나인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벗긴 술병까지. 이윽고 바닥에 풀러지는 박 나인. 박 나인,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 나인.

박 나인 : (영문을 모르는 채 두려움에 떨고)

㉡ 최고 상궁 : 네 죄를 인정하겠느냐?

박 나인 :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고 상궁 : 다시 묻겠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박 나인 : (더욱 안타까워) 마마님, 무엇이옵니까? 무슨 연유로 이리 하시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한 나인 : …….

김영현, '대장금' [12년 6평 / 신사고Ⅱ, 천재(고)Ⅱ, 천재(김)Ⅱ]

[보기]

양각(仰角, Low-angle) : 주로 인물의 권위나 위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를 인물보다 아래쪽에 설치하여 올려 찍는 기법.

• ㉠

보다 ㉡에 [보기]의 촬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O, X) [12년 6평 39번 ①, ② 변형]

㉡은 '최고 상궁' 바닥에 풀려져 있는 박 나인을 내려다보며 죄를 추궁하는 장면이므로, 박 나인의 시각에 맞추어 '최고 상궁'의 모습을 올려 찍으며 그 위세가 잘 드러나게 된다.

참고

<역대 기출에 등장한 촬영 기법>

- (S#) : 장면의 번호를 나타냄.
- 몽타주 :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09년 수능]
- (F.O.) : 화면이 차차 어두워지는 것을 말함. [10년 수능]
- (F.I.) : 화면이 차차 밝아지는 것을 말함. [10년 수능]
- E : 'Effect'의 약자로서 보통 효과음을 말함. [12년 6평]
- 양각 : 주로 인물의 권위나 위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를 인물보다 아래쪽에 설치하여 올려 찍는 기법. [12년 6평]
- 인터셉트 :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13년 6평]

* ()안의 내용은 시험지 내에 직접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은 촬영 기법임

적용 문제

S# 26. 격리 수용 병원

일반 병원과는 다른, 야전 병원이나 포로수용소의 분위기의 독특한 격리 수용 입원실. 사람들이 줄지어 누워 있고, 구석 쪽 비닐 커튼 속에 이중 격리된 강두가 있다.

특수 마스크로 무장한 의료진, 강두의 체온을 재고 맥박을 재고 온갖 조사를 하며.....

희봉 : 저기..... 집에는 언제쯤 갈 수 있는겨?

의사 : 집에 못 갑니다.

강두 : (겹이 벌컥) 아빠! 나 죽는 거야?

희봉 : 입방정 떨지 말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

강두 : 등이 자꾸 가려워. (긁으며) 등이 이상해! 안에 뭔가 있는 거 같어.....

희봉 : 너 목욕 안 해서 그런 거여.

간호사 : 조용히 하시구요..... 움직이지 마시구요...... (체온계를 귀에 대고 쓴다.) 박강두 썬 검사할 게 많으니까요..... 아침까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되구요.....

S# 27. 동(同). 시간 경과

누군가의 냉장고에서 콜병이 캔을 몰래 꺼내는 강두.

모두 자고 있는 새벽의 병동, 고요한 정적 속에 가슴기 수증기만 무럭무럭 퍼지고.....

회전식 캔 따개로 깡통을 따려는 강두, 도구를 잘 쓸 줄 몰라 헛손질로 버벅댄다.

침대에서 자던 희봉,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강두 손에서 깡통을 뺏더니, 반대쪽으로 휙 뒤집는데, 그쪽에는 손쉬운 원터치 캔 손잡이가 있다.

눈을 감은 채 뚜껑을 딱 따 주고 다시 쓰러져 자는 희봉, 마치 몽유병 환자 같다.

맨 손가락으로 콜병이를 꺼내 먹는 강두, ㉠ 클로즈업된 콜병이의 다소 징그러운 형태들.

강두, 등짝이 계속 간지럽고 이상한지 환자복을 들춰 자신의 등을 벽거울에 비춰 본다.

근직한 액체가 주욱— 떨어지는 콜병이 덩어리의 이미지.

거울에 비친 강두의 등뼈를 향해 카메라 서서히 ㉡ 줌 인 하는데.....

순간, 갑자기 지—이—익 진동 소리.....

격리 비닐 커튼 사이로, 강두의 휴대 전화가 진동에 떨며 뱅그르르—도는 모습이 보인다.

아리송한 표정으로 휴대 전화를 받는 강두, 순간.....

휴대 전화 : (지지지직) (지직) 아빠! 아빠야?

강두 :!!

휴대 전화 : (지지직) 아빠, 나 현서!

강두 : 헉.....으!

휴대 전화 : (울먹) 아빠..... 나 여기 (지직) 짹짹한 하수구 같은 텐데.....

강두 : 어, 어디? 어디라구?

충격에 턱이 덜덜 떨리는 강두, 침착하려 애쓰는데 맘처럼 되지가 않고.....

휴대 전화 : 몰라, 아빠..... (지직)..... 여기 괴물이..... (지직) 되게 큰 하수구 같은..... 아주 큰! (지직).....오아양.

강두 : 현, 현서야. 울지 말구!

휴대 전화 : 아빠! 휴대 전화가 자꾸..... 빨리 좀.....(지직).

봉준호 외, 괴물 [지학(최) I, 창비 I]

(1) S# 26에서 S# 27로 장면이 전환될 때의 두 장면의 매개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 보자.

▶

(2) ㉠, ㉡에 사용된 촬영 기법의 효과는 무엇인지 적어 보자.

▶

<정답>

(1) 공통점 : 장소 동일 / 차이점 : 시간 지남

(2) 관객 집중, 강조, 긴장감 조성

기출로 확인하기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년 예비 시행 A, B형 43~45번]

[이전 줄거리] 30대 중반의 정원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진사이다. 이제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어느날, 정원은 단속 사진을 인화하러 온 주차 단속원 다림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서서히 끌리게 된다.

S# 56. 사진관 촬영실

사진기의 까만 프레임 내부에 다시 네모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거꾸로 상이 맺혀 있는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 화면 밖에서 정원의 소리가 들린다.

정원 : 얼굴을 조금 왼쪽으로, 조금만 더, 턱 좀 내리고…….

그때마다 다림은 조금씩 움직인다.

정원 : 살짝 웃으면 더 예쁘겠는데.

다림, 애써 웃으려 하지만 잘 안되고 어색하다. 그래도 잠시 동안 화면을 보고 웃는데 정원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른다.

S# 57. 상가 거리 (밤)

화장품 가게 안의 다림.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이것저것을 신중하게 고르다 주인에게 값을 묻고는 선택을 망설인다. 끝내는 아무것도 사지를 못하고 화장품 가게를 나온다. 길가에 늘어선 옷가게들의 쇼윈도를 보면서 걷는 다림. 신사복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 남자 옷을 바라다보는 다림. 그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S# 78. 사진관 안 (저녁)

다림 문을 열고 들어오면 텅 빈 사진관. 소파에 앉는 다림. ㉢ 곧 일어서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기 시작한다. 정원이 비닐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다림을 보고 놀라는 정원. 다림이는 평소의 옷차림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원 : 화장했네?

다림 : 왜, 보기 싫어요?

정원 : 아니.

다림 : …….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중략)

다림 :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월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원 : …….

다림 : 도널드 인형 쓰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애예요.

정원 : 그거 굉장히 더울 텐데…….

다림 : ○○월드 가면 개가 공짜로 표 얻어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원 : 근데?

다림 : 그냥 그렇다구요. 언제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 말이죠.

정원과 다림 잠시 말이 없다.

S# 79. 놀이 공원 - 롤러코스터 (낮)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정원과 다림. 정원과 다림의 아우성치는 모습.

㉔ 정원의 시점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보이는 풍경. 심하게 흔들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고속 촬영으로 흔들림과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며 화면도 어두워진다.

S# 80. 벤치 (낮)

정원과 다림은 하드를 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다. ㉕ 사이를 두고 앉은 둘의 모습은 어색해 보인다.

S# 81. 학교 운동장 (낮)

멀리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정원과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다림과 정원. 정원은 얼마를 못 가서 자리에 멈춰 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다. 정원을 뒤에 두고 달리는 다림. 혼자서 운동장을 달리는 다림. 운동장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정원. 다림, 정원 옆으로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다.

오승욱·허진호·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14년 예비 시행 A, B형 / 비상(유) I, 천재(김) I]

◦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이라는 매개물이 두 인물의 관계 형성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연속된 장면들을 인과적 관계로 배열하여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사진관, 상가 등 일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배치하여 그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행위나 표정 등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대사에 비해 지시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 ㉔~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화면 속 '다림'의 모습과 화면 밖 '정원'의 목소리의 병치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시된다.
- ② ㉔ : '다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이 암시된다.
- ③ ㉕ : '다림'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정원'을 향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 ④ ㉕ : '정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드러난다.
- ⑤ ㉕ : '정원'과 '다림'의 물리적 거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을 주저하는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 S# 81을 위 글에 제시된 대로 영화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 운동장 장면과 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이 겹쳐지도록 공간을 설정한다.
- ② 활기찬 '다림'과 병약해 보이는 '정원'이 대비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 ③ 조연들이 운동장을 함께 뛰는 가운데 주인공들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다림' 역을 맡은 배우는 흐트러짐 없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달리기를 마치도록 한다.
- ⑤ 화면 속 날씨는 '흐린 날'로 설정하여 두 인물의 우울한 상황이 드러나도록 한다.

4. 문학 일반

• 1. 문학의 장르 (문학 I) •

• 2. 문학 감상법 •

- 1) 표현론적 관점
- 2) 반영론적 관점
- 3) 효용론적 관점
- 4) 절대주의적 관점 (구조론적 관점)
- 5) 종합주의적 관점

• 3. 한국 문학의 범위와 특질 (문학 II) •

-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 2) 한국 문학의 특질
- 3) 한국 문학사
- 4)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문학 II)
 - 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②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관련 양상

1. 문학의 장르(문학 I)

1. 언어 형태에 따른 갈래

- 1) 운문(韻文) 문학 : 운율이 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학.
가사 문학을 포함한 시 형식의 문학을 이룸.
- 2) 산문(散文) 문학 : 율격과 같은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문장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학작품을 이르는 말. 소설, 수필 따위가 있음.

2. 언어 전달 방식에 따른 갈래

- 1) 구비(口碑) 문학 :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오는 문학.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따위가 있음.
- 2) 기록(記錄) 문학 : 문자 언어로 기록되어 전승되는 문학.

3. 표현 양식에 따른 갈래

- 1) 3분법 : 서정, 서사, 극
- 2) 4분법 : 서정, 서사, 극, 교술
 - (1) 서정 문학 : 운율, 함축, 심상 등을 통해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
예) 향가, 한시, 고려 속요, 시조, 개화 가사, 창가, 신체시, 현대시 등
 - (2) 서사 문학 :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서술자가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 배경으로 드러내는 문학
예) 설화(신화, 전설, 민담), 소설, 판소리 등
 - (3) 극 문학 : 공연이나 상영을 전제로 하여, 인물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문학
예) 탈춤, 인형극, 연극(희곡), 영화·드라마(시나리오) 등
 - (4) 교술 문학 : 작가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깨달음이나 감동을 전달하는 문학
예) 설(說), 기(記), 악장, 수필 등

2. 문학 감상법

문학 작품은 생산자인 작가, 수용자인 독자, 생산된 작품이 그리고 있는 대상 체계, 그리고 생산된 실체로서의 작품이 서로 관련을 맺고 존재한다.

작가 측면에서 문학을 감상하게 되면 '표현론'이 되고, 독자 측면에서 문학을 감상하게 되면 '효용론'이 되며, 대상 체계 즉, 작품에 반영된 사회나 현실 측면에서 문학을 감상하게 되면, '반영론'이 된다. 그리고 작품 그 자체만을 두고 문학을 감상하게 되면 '절대론'이 된다.

문학 감상

에브람스(M. H. Abrams)는 『거울과 램프(The Mirror and the Lamp)』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문학에 관련된 여러 요인들 중에서 작품(work)·작가(artist)·독자(audience)·세계(universe)의 네 항목을 중심으로, 그 관련 양상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도식에서 먼저 모방론(mimetic theory)은 작품과 세계와의 관련 양상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다. 즉 작품과 현실 세계의 모방이라는 관점에서 그 관계를 밝히는 문학관이다. …… 문학을 모방으로 보려는 문학관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근대에는 반영론(reflection theory)으로 발전한다. 반영론에 의한 문학관은 근대 이후의 리얼리즘(realism)으로 대표되는 데, 이 관점에 의하면 작품은 세계의 충실한 반영이다. …… 물론 여기서 반영은 작가의 관점(세계관 또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굴절된 세계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다. ……

이에 비하여 표현론(expressive theory)은 작품과 작가의 관련 양상에 초점을 맞춘 문학관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작품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즉 작품의 본질을 작가의 내면 세계가 표현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

다음으로 효용론(pragmatic theory)은 작품과 독자와의 관련 양상에 초점을 맞춘 문학관이다. …… 이 관점에 의하면 문학은 독자에게 심미적 쾌락이나 교훈을 주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닌다. ……

객관적 존재론(objective theory)은 작품 자체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학관이다. …… 작품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작품의 객관적인 언어, 운율, 이미지 등과 같은 구조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이런 네 가지 문학관은 각기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문학에 관련된 네 가지 문학관이 창작이나 비평에 독자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그것대로의 편견을 낳을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취해야 할 관점은 바로 통합적인 문학론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더불어 세계, 작가, 독자 등 작품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윤여탁, 최미숙, 유명희, 태학사, 2004) p.14~17

1 표현론적 관점

1. 개념 :

문학 작품을 작가의 체험·사상·감정 등의 표현으로 보는 관점

2. 연구 방법

- 1) 작품 창작 의도에 대한 연구
- 2) 작가에 대한 전기적(傳記的) 연구 : 성장 배경, 가계, 생활 환경 등
- 3) 작가의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수영, '사령(死靈)' [08년 수능]

[보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출근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O, X) [08년 수능 17번 ①]

-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O, X)

[08년 수능 17번 ③]

-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O, X)

[08년 수능 17번 ④]

위 작품은 화자인 ‘나’와 ‘벗’의 대화를 기본 설정으로 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까지도 답답함을 호소하며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자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활자인데, 그 활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는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을 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비겁함과 소심함을 자책하는 한 시대의 지성인의 양심이 잘 드러나 있다.

2 반영론적 관점

1. 개념 :

문학 작품을 현실 세계의 반영으로 보는 관점

2. 연구 방법

- 1) 작품이 대상으로 삼은 현실 세계에 대한 연구
- 2) 작품에 반영된 세계와 대상 세계를 비교·검토
- 3) 작품이 대상 세계의 진실한 모습과 전형적 모습을 반영했는지 검토

하루는 유 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석 낭중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내 남쪽 지방이 고향인 동청이란 자를 천거했다. 동청이란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떠돌며 무리배와 어울려 주색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로 나와 대갓집에 빌붙어 살았다.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자제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석 낭중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고, 낭중도 동청의 경체를 알고는 괴로워하던 중이었다. 낭중이 마침 외직으로 부임하는 차에 동청의 허물을 감추고 유 한림에게 소개한 것이다.

유 한림은 마침 마땅한 사람을 구하던 차였다. 동청을 만나 보니 말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고 풍모도 반듯하여 흔쾌히 서사(書士)*의 직분을 맡겼다. 동청은 재주가 있고 눈치가 빨라 매사를 한림의 뜻대로 챙기니 신임이 두터웠다.

이를 본 사씨가 한림에게 말했다.

“첩이 듣기로 동청은 정직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다 하옵니다. 그러니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소서.”

유 한림이 말했다.

“동청을 머물게 하는 것은 단지 글을 구함이지 벼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오. 무슨 상관이 있겠소?”

사씨가 말했다.

“비록 벼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연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안에 두어 법도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이옵니다.”

한림이 말했다.

“부인의 말씀이 옳지만 남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소. 혹 동청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을 수 있으니 두고 보면 자연히 알리라. 부인은 걱정 말고 집안 하인들이나 잘 다스려 법도가 어지럽지 않게 하오.

김만중, ‘사씨남정기’

[14년 예비 시행 A형 / 미래엔Ⅱ, 비상(박)Ⅱ, 신사고Ⅰ, 지학(권)Ⅰ, 지학(최)Ⅰ, 천재(김)Ⅱ, 천재(정)Ⅰ]

* 서사 : 문서를 정리하거나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보기]

문학 작품은 시대적 이념이나 당대 사회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당대의 세태와 관습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계, 지배적 이념 등에 대한 가치관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낭중이 ‘유 한림’에게 ‘동청’을 소개한 정황으로 보아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O, X) [14년 예비 시행 A형 33번 ㉠]

• ‘유 한림’이 ‘사씨’를 대하는 태도를 보아 남녀의 역할과 위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확인할 수 있군.

(O, X) [14년 예비 시행 A형 33번 ㉢]

‘유 한림’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만연해 있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사씨’는 지혜롭게 생각하여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여자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3 효용론적 관점

1. 개념 :

문학을 독자에게 미적 쾌감·교훈·감동 등의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

2. 연구 방법

- 1) 독자의 감동이 무엇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작품의 어떤 면에서 촉발되는가를 검토
- 2) 그 시대 최고의 지성과 정신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 도입 필요

[이전 줄거리] 사향의 모함으로 숙향은 승상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표진강이라는 큰 강에 다다른 숙향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다가 물 속으로 뛰어든다.

이때 숙향이 물에 뛰어들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향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엽주를 바베 저어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어 숙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둘은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여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벼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항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러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다까?”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를 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트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에 내치시매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 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 상서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김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작자 미상, ‘숙향전’ [07년 9평 / 비상(유) II]

* 김 상서 : 숙향의 아버지. / * 소아 : 달나라에 사는 선녀. 숙향의 전생의 이름.

* 적강 : 죄를 지어 인간계로 쫓겨남. / * 태을 : 숙향의 장래 배우자인 이선의 전생의 이름.

[보기]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고난의 해결은 초현실적이다. 당시 독자들이 숙향과 같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숙향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던 당시 독자들은 숙향의 패배와 죽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 숙향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월적 존재를 설정한 까닭이다. 요컨대, 숙향의 고난에 동화된 사람들은 고난에 공감하면서 비감(悲感)을, 숙향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 ‘숙향전’에 여러 고난이 반복되는 것은 향유층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향의 적강은 당시 독자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군. (O, X) [07년 9평 46번 ①]

- 숙향이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은 당시 독자의 비감을 증대시키려는 것이군. (O, X) [07년 9평 46번 ③]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을 읽는 독자들이 겪었음직한 현실적인 경험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숙향이 여러 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독자의 동질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4 절대주의적 관점(구조론적 관점)

1. 개념 :

문학 작품을 고도의 형상적 언어로 조직된 자율적인 체계로 보는 관점

2. 연구 방법

- 1) 작품을 그 자체로 독립적 세계로 인식
- 2) 작품의 언어적 구조 중시

[이전 줄거리] 관촌 부락에서 등성이를 끼고 돌면 요가티라는 작은 부락이 있었는데, 해방 이듬해부터 전재민들이 들어오면서 전재민촌이 라는 새 이름이 붙었다. 관촌 사람들은 전재민촌을 도둑놈 소굴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냉대하였다. 하지만 웅점이만큼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면,

“옥상, 오꼬시 사 먹소.”

하며 들어붙던 절름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본에서 건너오다 처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라는 거였다.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 견디겠슈.”

웅점이가 어머니한테 하던 말이다.

과자를 먹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웅점은 서슴지 않고,

“쭉쟁이 보리 한 종발 주구 옥상헌티 샀지.”

했다. 옥상에게 곡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녀가 내게 굳것질을 시킨 이유는, 옥상이라고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혹한 뜻이 없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서 내가 가장 깨닫기 수월했던 말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다. 어떡하는 것이 주체 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연비가 난무함이 예사이고, 말을 얹으면 병신 대접 받기 십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체 의식이나 주체성이란 말을 외래어보다도 막연하게, 개나 걸이나 지껄여 대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터여서, 그 천한 말을 웅점은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써 보여 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웅점의 태도를 주체 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 한 정신 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에 나와 벌어먹게 된 뒤로는 몇 사람 외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문구, '관촌수필' [10년 수능 / 교학(윤) I, 두산III]

[보기]

「관촌수필」은 전(傳)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은 한 인물의 행적을 짚막하게 서술한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이다. 대개 ‘인물 소개-주요 행적-인물평’의 순서로 구성된다. ㉠ 서술 대상은 주로 충신, 효자 등 모범적인 덕목을 지닌 인물이었는데, 그중에는 하층민도 포함되어 있다. 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물평인데, 인물의 행적 요약, ㉡ 본받을 만한 덕목 제시, 작가의 최종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덧붙여지곤 한다. 인물평은 행적 부분과 구별되는 진술 방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점이가 ㉠이 된 이유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때문이다. (O, X) [10년 수능 41번 ㉡]

- 서술자는 ㉡을 ‘주체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O, X) [10년 수능 41번 ㉢]

웅점의 행동은 천성이 착하기 때문인 것이지, 이를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로 보기는 어렵다. 서술자는 웅점이가 일찍이 진정한 주체 의식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후하게 평가하고 있다.

5 종합주의적 관점

1. 개념 :

작품의 총체적이고도 통일적인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표현론적·반영론적·효용론적·절대주의적 관점을 통합하여 보는 관점

2. 연구 방법

- 1)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 통합
- 2) 네 가지 관점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일
- 3)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 유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06년 수능 / 천재(고) I] * 삼긴 : 삼긴. 물에 삶아 우려냄. / * 덩그럭 불 :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 책력 : 달력.
---	---

[보기]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록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와 잎사귀를 말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 이 있음.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 아무 때나.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 이미지 : ……
 - 특이한 표현 : ……

• 창

작 시기와 제목이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O, X) [06년 수능 16번 ①]

-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O, X) [06년 수능 16번 ④]

추위로 표현된 당대의 시대적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노주인'은 시간을 초월하여 인내하고 있다.

기출로 확인하기

1.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 속의 '예술가·작품·사회·수용자'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년 6평 29번]

그맘쯤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가객(歌客)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엇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데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으되, 고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또랑물 속으로 싸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부끼며 얹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꽃치더니 정수리에서 발뒤꿈치로 뚫고 들어와 땀몰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 위에 털 걸쳐서는 이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듯하게 덥히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 몸에 신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고집어내어지는 중이었다. 다리 위에서 비렁뱅이 가객은 거문고를 무릎에 올려 놓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땅속에다 소리를 심고 있었다. 술 먹던 사람들과 수다쟁이 떡장수 아낙네며 나들이 나온 처자들이 모두 한두 발짝씩 모여들어 다리 위에는 음률에 끌린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소리로구나.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들었다.”

한 곡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제각기 허리춤을 끄르고 돈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잦아질 제 나는 새암과 선망으로 이를 악물었고 다음에는 저 신묘한 소리로 돈을 벌게 하는 거문고를 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

“하나 더 해라.”

“이번에는 긴 것을 해 보아라.”

사람들이 제각기 아우성을 치는데, 가객은 고개를 가슴팍에 콕 처박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부지깽이처럼 길고도 여윈 손을 뻗쳐서 무릎 근처에 흩어진 돈들을 긁어모아서는 제 자리 밑에다 쓸어 넣는 것이었다.

“노래를 한 가지밖에 모르느냐.”

“얼굴을 들고 해라, 안 보인다.”

“고개를 들어라.”

내던진 밀천을 뿔으려고 주변에 웅기중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비렁뱅이 가객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만 재촉했다. 고개를 처박고 있던 그가 작심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제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한 바퀴 휘이 둘러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가객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더러운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씩씩 사그라지고 말았다. 눈도 코도 입도, 제자리에 붙어 있건만 어쩐지 얼굴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증오는 곧 심한 역증이 나게끔 했다.

[중략 줄거리] 가객 '수추'는 저자를 떠나 강을 건너간 뒤, 시냇가에서 음률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률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얽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황석영, '가객' [13년 6평]

[보기]

예술 작품의 수용은 예술가와 작품, 예술가와 수용자, 작품과 사회,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와 작품 자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다리 아래에서 '수추'의 첫 노래를 들은 '나'는 수용자로서 작품 자체에 자극받아 예술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군.
- ② '수추'의 첫 노래를 듣고 저자 사람들이 돈을 내던지는 것을 본 '나'는 작품이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깨닫고 있군.
- ③ '수추'의 얼굴을 보고난 뒤에 그의 두 번째 노래를 들은 저자 사람들은 작품을 예술가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군.
- ④ 강을 건너간 뒤에 노래를 부르는 '수추'는 자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사회에 대해 수용자가 보인 반응을 의식하고 있군.
- ⑤ 강을 건너간 뒤에 거문고를 부숴 버린 후, '수추'는 예술가인 자신의 용모와 자기 작품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군.

2. [보기]의 관점에서 [A], [B]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년 수능 18번]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실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싶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A] “아버지, 우리,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차 뭇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실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할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농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

(중략)

[B]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울을 놓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썩이나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걱정이 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인진댄,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출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박태원, ‘천변풍경’ [13년 수능]

* 임바네스 : 남자용 외투의 일종. / * 걱정이 : 거지.

[보기]

문학 작품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 ① [A] : 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특징을 주목하여, 이 작품의 인물 유형을 분류해 본다.
- ② [A] : 소년과 아버지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갈등이 작품 전체의 주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추론해 본다.
- ③ [A] : 여러 인물이 한 공간에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단서로 삼는다.
- ④ [B] : 작품 속 인물들의 외양에 주목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창작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 ⑤ [B] : 천변의 생활상에 주목하여, 당시 서울의 세태가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본다.

3. 한국 문학의 범위와 특징

(문학 II)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1. 한국 문학의 정의 :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인 감정, 사상을 담아 한국어로 생산한 문학

2. 한국 문학의 범위

- 1) '한국인'의 범위의 문제 : 한국인이란 과거의 한민족이었던 사람들과 북한 국민, 재외 국민과 동포를 아우름
 - (1) 고조선, 고구려 등 한반도 이북 만주 지역까지의 영토를 보유했던 나라들의 사람
 - (2) 현재 남북한 국민들
 - (3) 해외 이주 재외 국민과 동포
- 2) '한국어' 범위의 문제 : 한국어란 한국 말과 한국 글 포함함
 - (1) 구비 문학
 - (2) 향찰 : 한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한국어의 특성 고려
 - (3) 한문 : 근대 이전에는 동아시아의 공동문어(共同文語)였음

2 한국 문학의 특징

1. 한(恨)과 신명

- 1) 한 :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으로 그것을 삭여나가며 승화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함
- 2) 신명 : 흥겨운 신이나 멋으로 응어리를 풀어내는 과정

2. 해학(諧謔)과 풍자(諷刺)

- 1) 해학 : 인물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웃음
- 2) 풍자 :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남의 결점을 빗대어 공격하는 웃음

3. 낙관적 사고와 행복한 결말 :

고전 서사 문학의 경우 행복한 결말을 맺는 작품들이 많음

4. 현실 중심 :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그리는데 관심을 갖고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소재로 함

5. 인간 중심의 문학 :

인간이 겪는 사건과 인간의 정서를 다루고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아냄

6. 자연 친화 :

인간과 조화를 이룬 자연을 노래함

3 한국 문학사

㉠ 원시·고대문학 (원시시대~삼국시대초기)

<원시·고대 시대의 특징>

국가의 성립과 제천 의식, 집단 정서 강조 → 건국신화 → 집단적 서사 문학(이후 개인 서정으로 분화)

운문문학 ◀

1. 고대가요

1) 개념 :

원시시대부터 고대국가 성립 초기 시기까지의 노래를 통틀어 부르는 말

2) 형식

(1) 주술적 노래 : 환기 - 명령 - (의문) -가정 - 위압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 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구지가(龜旨歌) [교학(윤)II, 비상(박)II, 비상(유)II, 지학(최)II, 천재(김)II, 천재(정)II]

(2) 서정적 노래 : 체념적 의문형으로 노래를 끝맺음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늬와 함께 돌아갈꼬

유리왕 <황조가>

3) 특징

- (1) 구전되어 오다가 한역(漢譯)되어 전해짐
- (2) 배경설화 존재(서정·서사의 미분리)

4) 성격의 변모 :

주술적(집단적) → 서정적(개인적)

산문문학 ◀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신성성, 숭고미	진실성, 비장미	흥미, 해학미
주인공	신적 인물	비범한 인간	평범한 인간
행위	초능력 발휘	비극적 결말	운명 개척
배경	신성한 장소 태초의 시간	구체적 장소 시간	막연한 장소 시간
증거물	포괄적	구체적	보편적
전승범위	민족 국가	특정 지역	전 세계적
특징	신화적 질서	전설적 좌절	민담적 가능성
예	단군 신화	연오랑 세오녀	김현감호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계에 내려가 다스리고자 원하였다. 그러자 환인이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세상에 내려 보냈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와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하였다. 그 때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환웅에게 사람되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이 신령한 쑥과 마늘을 주며 이것만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몸을 삼간 지 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몸을 삼가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웅녀)는 혼인한 상대가 없어 소원을 또 빌었는데 환웅이 임시로 변하여 웅녀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단군신화 [두산II, 비상(박)II, 비상(유)II, 지학(권)II, 지학(최)II, 창비II, 천재(김)II]

신라 제 8대 아달라(阿達羅)왕 때, 동해 바닷가에는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랑이 바다에 나가 해조(海藻)를 따고 있을 때 바위 하나가 나타나 연오랑을 등에 싣고 일본으로 가 버렸다. 이를 본 일본사람들은 '이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하고 연오랑을 왕으로 삼았다. 남편을 기다리던 세오녀가 바닷가로 나갔는데 다시 바위가 나타나 세오녀를 태우고 일본으로 가 연오랑을 만나게 되었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신라를 떠난 후 해와 달은 광채를 잃게 되었고 왕은 일본에 사람을 보내 그들을 다시 데려 오게 했다. 그러자 연오랑은 세오녀가 짝 비단을 주어 돌려보냈다, 왕은 이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니 해와 달이 다시 경기를 찾았다, 이에 그 비단을 국보로 삼아 귀비고(貴妃庫)라는 창고를 지어 보관하였다.

<연오랑 세오녀>

신라 시대 서울 남녀들이 흥륜사 탑을 도는 풍습이 있었다, 김현은 탑을 돌다가 한 처녀를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자신을 따라오기를 거부하는 처녀를 억지로 따라간 김현은 그 처녀가 호랑이임을 알게 된다. 그 때 세 마리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자 처녀는 김현을 숨겼다. 이 때 하늘에서 호랑이 중 하나를 죽여 생물을 함부로 죽인 호랑이들의 잘못을 징계하겠다고 하자 처녀는 자기가 대신하여 그 벌을 받겠다고 하였다. 처녀는 김현을 불러 호랑이로 변한 자신을 죽여 높은 벼슬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 성 안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니,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벼슬을 주겠다고 하였다. 김현이 그때 나타나 자신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하고 미리 처녀와 약속한 숲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처녀는 김현의 칼을 빼앗아 자결하고 곧 호랑이의 모습이 되었다.

김현감호 [교학(윤)II, 미래엔II, 비상(박)II, 해님I]

㉔ 중세전기문학 (삼국시대~고려시대전기)

<중세 전기 시대의 특징>
 단일 민족 국가의 기틀 마련(신라의 삼국통일, 고려의 내부적 통합), 한자 수용 → 귀족의 노래 多

운문문학 ◀

1. 한시

1) 개념 :

한자로 지은 시

2) 형식

- (1) 한 행 : 5글자(오언[五言])나 7글자(칠언[七言])로 함.
- (2) 전체 구조 : 4행(절구[絶句])이나 8행(율시[律詩])으로 함

霜天月照夜河明(상천월조야하명) 容子思歸別有情(객자사귀별유정) 厭坐長宵愁欲死(염좌장소수욕사) 忽聞隣女擣衣聲(홀문인녀도의성) 聲來斷續因風至(성래단속인풍지) 夜久星低無暫止(야구성저무잠지) 自從別國不相聞(자중별국불상문) 今在他鄉廳相似(금재타향청상사)	가을 하늘에 달 비취고 옥류스 치하니 나그네는 <향찰표기법> 음차(音借) : 음을 빌림, 훈차(訓借) : 뜻을 빌림 긴긴 밤 홀연 들려 선 화 공 주 주 은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고 별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고국을 떠난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	--

양태사 <야청도의성 [06년 수능]>

2. 향가

1) 향찰로 포기된 우리말 노래

2) 형식

- (1) 4구체 : ‘민요, 동요, 무가’가 문자로 정착된 초기의 형식

善化公主主隱(선화공주주은) 他密只嫁良置古(타밀지가량치고) 嚳童房乙(서동방을) 夜矣卯乙抱遺去如(야의묘을포견거야)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시집가 두고 맛동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	---

서동요(嚳童謠) [미래엔 II]

- (2) 8구체 : 4구체가 두 번 연속으로 이어진 형식으로 4구체에서 10구체로 넘어가는 과도기형식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살아 계시지 못하여 우울 이 시름.
 전각(殿閣)을 밝히 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 가도다.
 눈의 돌음 없이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낭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복 굴형에서 잘 밤 있으리.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지학(최) II]

- (3) 10구체 : 8구체 형식에 ‘낙구(2구)’가 붙여진 형식으로 향가의 완성된 형태
cf) 낙구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 → 시조의 형식과 연결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08년 6평 / 교학(윤)Ⅱ, 미래엔Ⅱ, 천재(고)Ⅱ, 해냄Ⅱ]>

산문문학 ◀

1. 전설, 민담의 발전

- 1) 영웅이야기 : 미천한 인물이 투지를 발휘해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됨
- 2) 고승이야기 : 신이한 능력을 가진 고승이 등장

㉔ 중세후기문학 (고려시대후기~조선시대전기)

<중세 후기 시대의 특징>

성리학 전래, 한글 창제 → 유교적 질서 강조, 국문 문학의 시작

운문문학 ◀

1. 고려속요

- 1) 개념 : 고려 때 서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
- 2) 형식 : 3음보, 분절(연)마다 후렴구가 붙음
- 3) 남녀 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아쉬움 등을 노래함
- 4) 궁중에서 재편됨(새로운 내용 추가)

가시리 / 가시리잇고 / 나눈 → 3음보

바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 새롭게 추가된 내용

근거 : 노래 전체는 이별의 슬픔을 다루고 있는데 후렴구는 태평성대를 노래함

날러는 엇디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잡사와 두어리마나눈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셜은 님 보내압노니 나눈

가시난 닷 도셔 오쇼셔 나눈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가시리 [교학(조) I, 천재(고) I]

2. 경기체가

- 1) 구체적 사물을 나열하면서 객관적인 설명을 가하는 교술 장르
- 2) 형식 : 3음보, 매 장은 전후 양절(전대절/후소절)로 나뉘어짐, 후렴 존재
- 3) 신홍사대부의 포부와 자신감이 드러남

원순문(元淳文) 인노시(仁勞詩) 공노스륙(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단한림(陳翰林) 상운주필(雙韻走筆)

통기대척(沖基對策) 광균경의(光鈞經義) 량경시부(良鏡詩賦)

위 시경(試場) 景(景) 괴 엇더하니잇고 → '경(京) 괴'에서 '경기체가'가 유래함

(葉) 금혹스(琴學士)의 옥순문칭(玉筭門生) 금혹스(琴學士)의 옥순문칭(玉筭門生)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한림별곡(翰林別曲) [교학(윤) II, 두산 II, 비상(박) II, 비상(유) II, 지학(최) II]

3. 시조

- 1) 개념 :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기간에 정제된 갈래
- 2) 형식 : 각 장 4음보(전체 12음보) 3·4조 또는 4·4조, 전체 45자 내외
* 종장의 첫 구는 반드시 3자이어야 함

3 4 3 4
이몸이 / 죽고 죽어 / 일백번 / 고쳐 죽어 → 초장 : 4음보

3 4 4 4
백골이 / 진토되어 / 닳이라도 / 있고 없고 → 종장 : 4음보

3 6 4 3
임 향한 / 일편단심이야 / 가실줄이 / 있으라 → 종장 : 4음보
↳ 반드시 3글자

정몽주, 단심가(丹心歌) [지학(권) I]

- 3) 사대부들의 작품은 주로 임금에 대한 충성과 자연 친화를 주제로 삼음

4. 악장

- 1) 개념 : 국가적 행사에 사용하던 음악의 가사로 조선의 창업과 문물제도를 송축하거나 왕덕을 기리는 노래가 대부분임
- 2) 형식 : 2절 4구 형식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썩 곶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브르매 아니 그흠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교학(윤) II, 두산 II, 비상(유) II]

5. 가사

- 1) 개념 : 고려 말, 경기체가가 쇠퇴하면서 나타난 문학장르로, 조선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창작되어 주로 사대부 사회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문학
- 2) 형식 : 4음보 연속체, 행수의 제한은 없음, 3·4조(4·4조), 마지막 행은 시조의 종장 음수율
cf)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처럼 되어 있는 가사를 '정격(正格) 가사', 그렇지 않은 것을 '변격(變格) 가사'라고 함
- 3) 운문과 산문의 중간 - 운문의 형식에 산문적인 내용을 담은 장편의 노래
- 4) 양반사대부들이 주 창작자로 강호한정이나 연군지정을 읊음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중략)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玉海) 은산(銀山)이 안저(眼底)에 벌었어라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송순, '면양정가' [07년 6평, 10년 수능 / 교학(조) I]

1. 가전체

- 1) 개념 :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의 형식으로 지은 풍자서사문학
 - 2) 풍자적, 교훈적, 우의적
 - 3) 도입-전개-비평의 구성방식(가계-행적-사관의 평가)
 - 4)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 역할
- (1) 가전체는 작가의 예술적 상상력을 동원한 허구적 개인 창작물
 - (2) 설화에 비해 인물, 사건, 갈등과 같은 이야기 구성요소를 갖춤
 - (3) 서술적 형상화 미흡으로 소설로 보기는 어려움

수양산에 은거하다가 황제 때부터 기용된 공방의 조상 이야기가 발단이다. 방(方, 엽전)의 인품은 동글고 가운데 구멍이 네모나고 임기응변에 능통하여 역대에 출사(出仕)를 잘 하여 높은 벼슬에 오른다. 그러나 탐욕이 지나쳐 절조가 없고 백성과 이익을 다투며 물가를 오르내리게 하고 곡식을 천히 여기는 등 행실이 나빠 후일에는 뇌물받은 죄로 죽음을 당한다.

임춘, '공방전(孔方傳)' [두산Ⅱ, 미래엔Ⅰ, 비상(박)Ⅱ, 신사고Ⅱ, 지학(권)Ⅰ, 창비Ⅱ, 천재(정)Ⅱ]

2. 한문소설

- 1) 개념 : 한문으로 지은 소설
 - 2) 특징
- (1) 대부분 전기적
 - (2) 권선징악의 주제가 많고 행복한 결말로 끝남
 - (3) 구성이 평면적이고 사건 전개에 우연성이 많음

평안도 관찰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관찰사는 자신의 생일날 어린 기생 하나를 추천받아 아들과 짝을 지어 춤을 추게 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도령과 어린 기생 자란(옥소선)은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6년 후 관찰사가 관직에서 물러나 한양으로 떠나게 되자, 두 사람도 이별을 하게 되었다. 과거를 위해 절에서 공부를 하던 도령은 자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하고 절을 떠나 자란의 집으로 찾아간다. 하지만 이미 자란은 사또 아들의 첩으로 들어간 뒤여서 만날 길이 없었다. 이에 도령은 아전의 도움을 받아 사또의 집 마당을 쓰는 인부로 위장하여 마당에 쌓인 눈을 쓰는 척하면서 자란과 해후하게 된다. 도령을 본 자란은 기뻐하며 사또 아들을 속이고 사또 집을 빠져 나와 결국 두 사람은 상봉을 하게 된다. 그 뒤 두 사람은 마을에 도망쳐 깊은 산골로 가서 살림을 차린다. 자란은 도령이 계속 공부에 전념할 것을 권하고, 도령은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른다. 이들의 사연을 들은 왕은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행복하게 산다.

소설 '인규옥소선'

㉔ 근대이행기문학 (조선시대후기)

<근대 이행기 시대의 특징>

임진왜란, 실학, 서민의식 성장 → 형식적 틀 파괴, 현실비판, 다양한 주제

운문문학 ◀

1. 시조

1) 양식의 변화

- (1) 향유계층 : 사대부에서 평민층으로 확대
- (2) 형식 - 4음보의 경형성 파괴, 시조의 장형화, 사설시조의 출현
- (3) 내용 - 관념적 유교적 내용에서 탈피, 다양한 현실적 삶을 표현

2) 특징

- (1) 시조 창작층 확대
- (2) 남녀 간의 사랑, 현실 비판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시조 등장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 예어 사창(紗窓)
여윈 잠을 싹들히도 깨우는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의 내 뜻 알 이는 저뿐인가 하노라

작자미상, 사설시조 [06년 6평 / 미래엔 I]

2. 가사

1) 양식의 변화

- (1) 향유계층 - 평민과 부녀자까지 확대
- (2) 형식 - 장편화, 산문화(리듬감의 약화), 변격 가사가 출현
- (3) 내용 - 서정적 관념에서 벗어나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

2) 특징

- (1) 전대의 양반 가사에서 평민, 내방가사로 범위가 확대
- (2) 실학의 영향으로 장편기행 가사와 유배가사가 등장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오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작자미상, '덴동어미화전가' [12년 9평 / 미래엔 II, 천재(김) I]

3. 잡가 :

직업적인 소리패가 부르며 흥행을 하던 공연종목. 민요에 원천을 두고 사설시조와 밀접한 관련.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여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중략)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되어 나로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작자미상, '춘면곡(春眠曲)'

산문문학 ◀

1. 박지원의 한문소설

- 1)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적 태도 : 무너져 가는 중세 봉건사회의 역사적 변환을 직시함
- 2) 새로운 인간형 제시 : 평범한 사람 혹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
- 3) 인간 평등 사상 : 남녀 귀천에 관계없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이 나타남
- 4) 사실주의적 기법 : 당대 평민층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

대호(大虎)가 사람을 잡아 먹으려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었다. 의사를 잡아 먹자니 의심이 나고 무당의 고기는 불결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청렴한 선비의 고기를 먹고자 하였다. 이때 고을에 도학(道學)으로 이름이 있는 북곽선생(北郭先生)이라는 선비가 동리자(東里子)라는 젊은 과부와 경을 통하였다. 그녀의 아들들이 북곽선생을 여우로 의심을 하여 몽둥이를 들고 어머니의 방을 습격하였다. 그러자 북곽선생은 허겁지겁 도망쳐 달아나다가 그만 어두운 밤이라 분뇨구덩이에 빠졌다. 겨우 머리만 내놓고 발버둥치다가 기어나오니 이번에는 큰 호랑이가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더러운 선비라 탄식하며 유학자의 위선과 아침, 이종인격 등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북곽선생은 정신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만 살려주기를 빌다가 머리를 들여보니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아침에 농사일을 하러 가던 농부들만 주위에 서서 그의 행동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농부에게, 자신의 행동이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조심하는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박지원, '호질(虎叱)' [12년 수능 / 비상(유) II, 창비 II, 해냄 II]

2. 국문소설

- 1) 광해군 때 「홍길동전」이 창작된 이후 본격적인 국문소설 시대가 열림
- 2) 창작층·향유층의 확대, 주제의 다양화

임진왜란이 끝난 선조 34년, 선비 유영은 안평대군의 사저였던 수성궁에 놀러갔다가 잠이 든다. 그러다 깨어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고 그들은 유영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은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났다. 그러던 어느날 김진사가 수성궁을 방문하여 시를 짓는데 옆에서 벼루 시중을 들던 운영을 사모하게 된다. 그들은 다른 궁녀들과 김진사의 하인인 '특'의 도움으로 서로 사랑을 키워가게 된다. 그러다 김진사와 운영은 자신들의 관계를 대군에게 들킬 위기에 처한다. 이에 운영은 궁을 벗어날 궁리를 하지만 '특'의 배신으로 인해 두 사람의 밀회는 탄로나고 만다. 화가 난 대군은 운영을 별궁에 가두고 운영은 그곳에서 목을 매어 죽는다. 운영이 죽자 김진사도 따라 죽는다.

작자미상, '운영전(雲英傳)' [11년 수능 / 지학(권) I, 지학(최) II, 천재(고) I]

㊤ 개화기 문학 (1894~1910년대)

<개화기 시대적 특징>

근대식 교육기관 설립, 신문·잡지 발행 → 지식인의 계몽 의식 확산

운문문학 ◀

1. 개화가사

1) 새로운 시대의 출발과 함께 신문이나 잡지가 간행되면서 새로운 시대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문학으로 발생

2) 전통적인 가사체인 4.4조의 율격 + 자주독립과 애국심 고취, 항일정신

아세아에 대조선이 자주 독립 분명하다

(합가) 애야애야 애국하세 나라 위해 죽어 보세.

분골하고 쇠신토록 중군하고 애국하세.

(합가) 우리 정부 놓퍼 주구 우리 군면 도와 주세.

깊흔 잠을 어서 깨여 부국 강병 진보하세.

(합가) 남의 천대 받게 되니 후해 막급 업시하세.

합심하고 일심되야 서세 동점 막아보세.

(합가) 사농공상 진력하야 사람마다 자유하세.

남녀 업시 입학하야 세계 학식 배화 보자.

(합가) 교육해야 개화되고, 개화해야 사람되네.

팔괘 국기 높히 달아 룩대주에 횡행하세.

(합가) 산이 높고 물이 깊게 우리 마음 맹세하세.

이필균, '애국하는 노래' [창비Ⅲ]

2. 창가

1) 대한제국시대에 독립, 애국, 개화의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지은 단형의 국문가사

2) 주로 학교의 교가나 교회의 찬송가 등 서양음악의 곡조에 가사를 지어 붙인 것.

3) 율격 : 7.5조 6.5조 8.5조 등 다양한 율격 - 노래로 가창 (서양음악, 민요가창방식 등의 영향)

우렁타게 토하난 기덕(汽笛) 소리에

남대문을 등디고 떠나 나가서

빨니 부난 바람의 형세 갓흐니

날개 가딘 새라도 못 따르켓네.

늪은이와 뚝은이 석겨 안젓고

우리네와 외국인 갓티 탕으나

내외 틈소(親疏) 다갓티 익히 디내니

도고마한 탄 세상 덜노 일윗네.

최남선, '경부철도가' [지학(최)Ⅱ, 천재(정)Ⅱ]

3. 신체시

- 1) 개화가사와 창가가 가지고 있던 정형적 율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용을 담은 시 형태
- 2) 개화의식, 자주독립과 민족정신, 신교육, 남녀평등 등의 사상, 계몽성과 교훈성이 강함
- 3) 개화가사나 창가와 달리 7.5조 내지 3.4.5조의 새로운 형식을 취함, 부분적으로 정형시의 흔적이 남아있음

처.....ㄹ씩, 처.....ㄹ씩, 척, 싹.....아.
따린다, 부순다, 무너 바린다.
태산 같은 높은 뒀.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나나, 모르나나, 호통까지 하면서
따린다, 부순다, 무너 바린다.
처.....ㄹ씩, 처.....ㄹ씩, 척, 튼르릉, 짹.

처.....ㄹ씩, 처.....ㄹ씩, 척, 싹.....아.
내게는, 아모 것도,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 아모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모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처.....ㄹ씩, 처.....ㄹ씩, 척, 튼르릉, 짹.

최남선,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 [두산II, 비상(박)II, 비상(유)II]

산문문학 ◀

1. 신소설

- 1) 고전소설과 현대 소설로서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님
- 2) 고전소설적 특징 : 유연성
- 3) 현대소설적 특징 : 연문일치체 추구(불안전함), 묘사 중심, 서술적 역전 현상(현-과-현)

청일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평양에서 일곱 살 난 옥련은 부모를 잃고 헤매다가 부상을 당한다. 그 뒤 일본인 군의관 이노우에에게 구출되고 일본에 있는 그의 부인에게 보내져 학교도 다닌다. 그러나 이노우에가 전사하자 개가를 꿈꾸는 부인은 옥련을 구박한다. 집을 나와 방황하던 옥련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유학가려던 구완서라는 청년을 만나 함께 미국으로 간다.

한편 모란봉 근처에서 남편과 딸을 잃고 헤매다가 실의에 빠진 옥련 어머니는 대동강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했으나 구출되고, 아버지는 구국을 위해 외국으로 유학간다. 옥련은 미국에서 고등소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자신의 기사를 본 아버지와 만난 뒤 구완서와 약혼한다. 평양의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로부터 편지를 받고 기뻐한다.

이인직, '혈의 누' [비상(박)II, 비상(유)II, 지학(최)II]

㊦ 1920년대 문학

<1920년대 시대적 특징>

- 3·1 운동 — 정치적 좌절감
 - 출판의 자유 일부 허용
 - 서구 문예 사조 유입
 - 계급주의 사상 등장

시 ◀

1. 병적 퇴폐적 낭만주의 : 3.1 운동의 실패로 인한 민족 전체의 깊은 절망감을 감상적으로 표현
박종화 「사의예찬」, 홍사옹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상화 「나의 침실로」

—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꿈 속에만 있어라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련도다.
아, 너도 먼동이 뜨기 전으로 수밀도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돈나’ 오려무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여라.

(중략)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고평려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내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네아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 물결도 찾아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이상화, 「나의 침실로」 [지학(최) 11]

2. 전통의 계승과 창조

1)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와 가락의 표현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해냄 11]

2) 전통적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초극의지 표현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처럼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찢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기에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일인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은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힘싸고 돕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09년 수능 / 두산II, 미래엔 I, 해냄II]

3. 계급주의 문학 :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 농민의 궁핍한 삶, 계급 간의 대립 등을 다룬
-임화 「네 거리 순이」, 「우리 오빠와 화로」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무늬 질화로가 깨어졌어요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날'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永男)이가
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독기 속에서
어린 몸을 잠그고 사 온 그 거북무늬 화로가 깨어졌어요

그리하여 지금은 화젓가락만이 불쌍한 우리 영남이하구 저하구처럼
똑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가 나란히 걸렸어요

(중략)

오빠-- 그래서 저도 영남이도
오빠와 또 가장 위대한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을 때
저는 제사기(製絲機)를 떠나서 백 장의 일전짜리 봉통(封筒)에 손톱을 뚫어트리
영남이도 담배 냄새 구멍을 내쫓겨 봉통 공무늬를 뚫습니다
지금-- 만국지도 같은 누더기 밑에서 코를 고을고 있습니다

오빠-- 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영남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던 쇠 같은 거북무늬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어요
그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눈물나는 우리 오빠 동모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사랑스런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

1. 근대 사실주의 소설의 확립 :

인생과 사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림

-김동인 「감자」, 현진건 「운수 좋은날」, 염상섭 「만세전」

조선에 만세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 겨울 동경에 유학 중이던 '나'에게 김천에 살고 있는 형에게 전보가 온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것이다. '나'는 조선에 가기 위해 시모노세끼 역에 들렀다가 일본인 헌병을 만나 검색을 당한다. 그리고 배에 오른 뒤 목욕탕에 갔다가 조선인 노동자를 매매하는 일본인들의 말을 듣고 분개한다. 그리고 일본인들과 일본인 행세를 하는 조선인 형사에게 짐을 조사당한다. 배가 떠나기 직전에 풀려난 '나'는 망국인의 비애를 새삼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부산항에 내려서도 파출소로 끌려가 심문을 당한다. 힘들게 김천역에 도착한 '나'는 형을 만난다. 형은 국민학교 훈도로 돈을 많이 모아 첩까지 두고 있다. '나'는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생각하고 형에게 불쾌감을 느끼고 묘지 문제로 형과 다투게 된다. 형과 다투고 경성행 열차에 오른 '나'는 그곳에서 비참한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고 조선은 공동묘지라고 느낀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죽어 있고 '나'는 형에게 자식의 양육을 맡긴 채 다시 동경으로 떠난다.

염상섭, 「만세전」 [06년 9평 / 미래엔 II, 비상(박) II, 지학(권) II, 지학(최) II, 창비 II, 천재(김) II, 천재(정) II]

2. 계급주의 소설 등장 :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피폐해진 농촌과 도시 노동자들의 실상을 다룸

-최서해 「탈출기」, 이기영 「고향」

'나'는 5년 전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간도(間島)로 갔다. 그곳에만 가면 농사를 지어 배불리 먹고 무지(無知)한 농민을 가르쳐 이상촌(理想村)을 만들겠다는 부푼 꿈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에는 빈 땅이 거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소작인 노릇을 해보지만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노력하지만 빈곤은 날로 심해만 갔다.

어느 날, 임신한 아내가 꿀꺽질을 주워 먹는 것을 보고 '나'는 심한 갈등과 자책감에 빠졌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순사에게 잡혀 매를 수없이 맞았다.

'나'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제도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까지 버리고 xx단에 가입하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자신이 xx단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자신의 신념을 친구인 김군에게 편지로 이야기한다.

최서해, 「탈출기」

⊙ 1930~40년대 문학

<1930~40년대 시대적 특징>

- 1931년 만주사변 → 우리 민족에 대한 수탈과 탄압 증가
 - 검열 체계와 사상 통제 강화(카프 강제 해산)
 - 조선어 폐지

시 ◀

1. 시문학파 :

시의 예술적 기교나 음악성을 중시하는 순수시 추구

-김영랑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내 마음 아실 이」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돌쳐 오르는 아침날 빛이 뻗질한
은결을 도도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찢출엔 듯
마음이 도르도르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김영랑,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지학(최) 1]

2. 모더니즘 :

도시적 감각과 시의 회화성 추구. 주지주의

-김기림 「바다와 나비」, 정지용「유리창1」, 김광균 「와사등」, 「외인촌」, 이상 「오감도」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 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갑초인 양 형클어진
사념 덩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아둑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김광균, '와사등' [08년 수능]

3. 생명파 :

인간의 원죄 의식에 대한 표현, 강인한 생명 의지 추구

-유치환 「깃발」, 「생명의 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흐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꺾대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유치환, '깃발' [천재(고) 1]

4. 전원파 :

현실 도피적 성향의 시로 자연친화적이고 관조적임

-신석정 「들길에 서서」,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不絶)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어니.....

신석정, '들길에 서서' [07년 수능]

5. 전통적 현실주의 :

식민지 시대의 생활 현실과 정서를 나타냄. 민중들의 삶을 노래함

-백석 「여승」, 이용악 「낮은 집」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날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女僧)」 [09년 6평]

6. 저항시 :

일제 하 지식인의 고뇌와 일제에 대한 치열한 대결정신 표현

-이육사 「광야」, 「교목」, 윤동주 「서시」, 「참회록」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 「교목(喬木)」 [07년 수능 / 해냄III]

7. 청록파 :

자연을 공통적인 소재로 삼아 노래함

-박목월 「나그네」, 박두진 「해」, 「청산도」, 조지훈 「승무」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뚱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뭇 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뻐꾸기…….

(중략)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너머, 골 너머,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박두진, 「청산도」 [06년 수능]

1. 모더니즘소설 :

현대 도시 문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부정적 세태를 지식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비판함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유진오 「김강사와 T교수」, 이상 「날개」,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와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구보는 집을 나와서 천변길을 걷고 다방에서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욕망과 행복에 대해 생각한다. 삶의 활력소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경성역에서도 구보는 고독을 느낀다. 다시 다방으로 가 시인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사회부 기자가 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보는 권태로움을 느낀다. 그는 벗과 헤어져 종로 네거리 주변에 친구가 하는 다료에 들린다. 주인인 벗이 없자 그는 기다리며 고독과 권태 이상의 애처로움을 느낀다. 벗이 돌아오자 거리로 나와 건다가 잠시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벗은 볼 일을 보러 간다.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구보'를 항상 '구포'라고 부르는 중학 선배인 생명보험의 외교원을 만난다. 구보의 독자라며 추켜 세우주는 것에 쓸쓸함을 느끼다가 친구가 와서 함께 나온 그는 거리를 걸으면서 친구의 가난한 다료 운영자로서의 설움을 듣기도 하고, 애인이 갖고 싶지 않냐는 벗의 질문에 '애인, 아내, 딸'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한다.

구보는 새벽 두 시의 비오는 밤길을 걸으며 늦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릴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혼인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면 다시는 물리치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는 벗에게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하면서 헤어져 집으로 향한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08년 6평 / 신사고 I, 지학(권) I, 지학(최) II, 천재(경) I, 해냄 II]

2. 농촌소설, 농민소설 :

지식인들의 농촌 계몽을 이야기하거나 농촌의 궁핍한 실상을 사실적으로 다룸

-심훈 「상록수」, 김정한 「사하촌」

모내기를 할 무렵부터 날이 가물기 시작해 곳곳에서 물싸움이 벌어진다. 특히 저수지 가까이 있는 보광리(중마울)에서 물을 독점하는 바람에 성동리 사람들은 여간 애를 먹지 않는다. 어느날 밤, 들깨와 철한이는 서로 뜻을 합해서 밤 사이에 보광리 쪽 물꼬를 트고 봇물을 죄다 성동리의 논에다 흘려보낸다. 이 사실을 모르는 보광리 사람들은 이것이 전날 물 문제로 다투었던 고서방의 소행이라고 추측하고 그를 주재소에 넘겨버린다.

가뭄이 연일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올리기로 의견을 모은다. 그러나 그것도 헛일 이 된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기우불공조차 영험이 없고 가뭄은 끝끝내 계속되었다.

어느날, 보석정이를 하러 산에 들어갔던 마을 아이들이 보광산 산지기 영감에게 쫓기다 그만 가동할멈의 손자인 상학이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마는 사건이 생긴다. 가동할멈은 유일한 피붙이를 잃고는 영영 미처 버리고 말지만, 주재소에서 나온 순사는 오히려 상학이가 남의 산에 침입한 죄가 나쁘다며 할멈을 꾸짖고 간다.

드디어 가을걷이가 시작되고 보광사에서는 간평(看坪)을 나왔다. 가뭄이 심했던 한해를 생각하면 소작료 책정에도 사정을 두리라는 농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터무니없이 높은 결정을 통보받는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을 곳곳에서는 입도차압(立稻差押)의 팻말이 나붙고, 빚을 갚을 길 없는 고서방은 야반도주를 하고 만다.

어느날 아침,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여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 보광사로 떠난다.

김정한, 「사하촌」 [비상(유) I]

3. 순수소설 :

한국의 토속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본질과 운명을 탐구

-황순원 「학」, 「소나기」,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조 선달과 왼손잡이인 허 생원이 강을 거두고 주막에 들렀을 때 벌써 먼저 온 동이가 주막 계집을 가로채고 농탕 치고 있었다. 허 생원은 괜히 화가 나서 기어코 그를 야단쳐서 쫓아내고 말았다. 그런데 뜻밖에 그는 얼마 후 되돌아와서 허 생원의 나귀가 발광을 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허생원은 동이에게 내심 고마움을 느꼈다.

그날 밤 허 생원은 조 선달과 동이와 함께 나귀를 몰고 다음 장으로 발을 옮겼다. 봉평장으로 가기 위해서다. 달이 환히 밝았다. 달밤이면 항상, 허 생원은 젊었을 때 봉평에서 겪었던 옛일을 이야기했다.

달 밝은 여름 밤, 허생원은 먹을 감을 양으로 옷을 벗으러 방앗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울고 있는 성 서방네 처녀를 만나서 어찌다가 정을 맺었던 것이다. 그는 오늘도 기이한 인연에 얽힌 이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다 동이가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난 사생아임을 알게 된다. 더욱이 그의 어머니의 고향은 봉평이었다. 허 생원에게는 맺히는 것이 있었다. 동이 어머니가 제천에서 홀로 산다는 말을 듣자 그는 놀라 개울에 빠지게 된다. 이튿날 그는 동이를 따라 제천으로 가 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문득, 그는 나귀를 몰고 가는 동이의 채찍이 동이의 왼손에 잡혀 있음을 똑똑히 본다.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05년 수능 / 해냄 1]

◎ 해방직후 문학

<해방직후 시대적 특징>

8·15 해방 → 친일파 청산 문제, 토지 문제 제기 → 좌·우익 이념 갈등

시 ◀

1. **경향시** : 사회주의 성향을 드러냄
2. **순수시** : 이념과 상관없이 순수 서정의 세계를 노래

소설 ◀

1. 해방 전후 모습 그리기 :

해방 전후의 모습을 리얼리즘적으로 묘사

-이태준 「해방전후」, 채만식 「논 이야기」, 염상섭 「두 파산」

해방이 되자, 정례 어머니는 별 수입도 없이 정치를 합네 하고 돌아 다니는 남편을 믿고 있을 수 없게 되자 문방구 가게를 열기로 결정한다. 남편에게 졸라 집문서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빚을 얻어내어 국민학교 앞에 가게를 차린다. 그러나 돈이 떨어져서 물건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못하면서 장사가 어렵게 되고, 할 수 없이 옛날 동창생인 김옥임에게 빚을 얻어 가게를 운영한다.

그러나 남편의 새로운 사업 실패로 옥임에게 진 빚의 이자마저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 된다. 문학을 사랑하고 여성 해방 운동을 찬양하면서 꿈 많던 처녀 시절을 보낸 옥임이는 이전 돈놀이에 몰두하여 성격 파산자로 변모하여 경제적으로 파산한 정례 모친에게 길거리에서 심한 창피를 준다.

옥임은 정례 모친에게 자신이 교장에게 자신이 진 빚을 대신 갚으라고 말하고, 교장은 정례 모친을 찾아와 빚 독촉을 한다. 이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정례 모친은 문방구를 처분하여 빚을 갚고는 허탈감에 얹어 눕는다. 그러나 옥하는 성미를 가진 남편은 어수룩한 자동차로 옥임이에게 사기 칠 궁리를 한다.

염상섭, 「두 파산」 [비상(유)II]

2. 순수소설 :

당대의 시대적 특수성과 상관 없이 문학의 보편성 추구

-김동리 「역마」, 황순원 「목님이 마을의 개」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꾸려 가며 사는 옥화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쌍계사에 보내 생활하게 하고 장날에만 집에 와 있으면서 장터에서 책을 팔게 한다.

어느 날 체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와 옥화의 주막에 맡기고 장삿길을 떠난다. 옥화는 계연을 성기와 결혼시켜 역마살을 막아 보려는 심정에서 성기와 계연이 가깝게 지내도록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계연의 귤바퀴에 난 사마귀를 보고 옥화는 계연과 자신이 서로 이복 자매이진 않을까 의심하게 되고 체장수 영감이 돌아옴으로써 예감은 사실로 증명된다. 서체장수 영감은 계연을 데리고 떠나고 성기는 중병을 앓게 된다. 성기는 병이 낫자 역마살을 따라 옛판을 꾸려 집을 떠난다.

김동리, 「역마」 [13년 9평 / 비상(유)II, 천재(김)I]

⊗ 1950년대 문학

<1950년대 시대적 특징>

한국전쟁 → 이승만 정권의 독재 및 부패 만연 → 반공이데올로기 심화

시 ◀

1. 전쟁 체험의 형상화 :

전쟁의 비극성과 민족에 대한 연민 등을 노래
-유치환 「보병과 더불어」, 조지훈 「역사 앞에서」

여기는 외금강 온정리 경거장
기적도 끊이고 적군도 몰려가고
마알간 정적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빈 들에
먼저 온 우군들은 낮잠이 더러 들고
코스모스 피어있는 가을별에 서량이면
눈썹에 다달은 금강의 수려한 본연에
약착한 전쟁도 의미를 잃노니
시방 구천 밖으로 달아나는 적을 향해
일제히 문을 연 여덟 개 포진은
찌릉찌릉 지각을 찢어 그 모독이
첩첩 영봉을 울림하여 아득히 구천으로 돌아들고
봉우리 언저리엔 일 있는 듯 없는 듯
인과처럼 유연히 감도는 한자락 백운(白雲)

유치환, '보병과 더불어'

2. (후기) 모더니즘 시 :

현대적 도시 감각과 지적 태도 중시. 1930년대 모더니즘에 대해 내용적 발전은 있었으나 기교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짐
-박인환 「목마와 숙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박인환, '목마와 숙녀' [지학(최) II]

3. 전통적 서정시 :

기존 시인들에 새로운 시인들이 합세하여 개인의 정서를 읊음

-박재삼, 김현승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꼬,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박재삼, '추억에서' [미래엔 II, 신사고 II, 지학(권) II, 천재(김) I]

소설 ◀

1. 전후소설 :

전쟁의 비극적 체험과 상처와 한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문학에 반영

-오상원 「유예」, 선우휘 「불꽃」, 전광용 「사수」, 하근찬 「수난시대」,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오발탄」

‘나’는 병원에서 눈을 떠 B와의 마지막 대결을 회상하며 어쩌면 지금도 자신이 B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연히 B와의 첫 대결이 있던 뒤 ‘나’와 B는 항상 경쟁하게 된다. 그 경쟁은 둘이 모두 경희를 좋아하게 되며 극을 달한다. 그러던 중 6.25가 발발하고 ‘나’는 새로 전속된 부대에서 B를 만나게 된다. 경희의 소식을 묻는 ‘나’에게 B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휴가에서 돌아오던 ‘나’는 우연히 B의 아내가 된 경희를 만난다. ‘나’는 B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다 ‘나’는 신문에서 B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게 되고 B의 구명 운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 결국 B의 사형 집행수 중 하나로 ‘나’가 지목되고 ‘나’는 끝끝내 B를 쏘지 못하고 의식을 잃는다.

전광용, '사수(射手)'

2. 순수소설 :

인간의 본질적 삶의 문제 다룸

-오영수 「갯마을」

동해의 H라는 조그만 갯마을에 사는 해순이는 나이 스물 셋의 청상(靑孀)이다. 해녀의 딸인 해순이는 열아홉 살 되던 해 성구에게 시집을 가고, 어머니는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로 가 버린다. 그러나 성구가 칠성네 배를 타고 고등어잡이를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되자, 해순이는 물뿔을 입고 바다로 나가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부양한다. 어느 날 밤 잠결에 상고머리 사내에게 몸을 빼앗긴 해순이는 그것이 상수였음을 알게 된다. 그는 2년 전 상처하고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모집에 와서 일을 거들고 있었다. 해순이와 상수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돈다. 시어머니는 성구 제사를 지내고 해순이를 상수에게 개가시킨다. 해순이가 떠난 쓸쓸한 갯마을에 고된 보릿고개가 지나고 또다시 고등어 철이 돌아온다. 두 번째 제사를 앞두고 해순이는 시어머니를 찾아온다. 상수가 징용으로 끌려간 뒤 산골에서 견디다 못한 해순이는 흰허 트인 바다를 그리 워하던 끝에 매구흔이 들렸다고 무당굿을 하는 틈을 타 마을을 빠져 도망쳐 온 것이다. 달음산 마루에 초아흐렛 달이 걸리고 달 그림자를 따라 멀치 떼가 든다. 드물게 보는 멀치 떼였다.

오영수, '갯마을'

㊦ 1960년대 문학

<1960년대 시대적 특징>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산업화 → 자유와 평등의 가치 지향 →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식 팽배 → 인구의 도시 집중, 농촌의 궁핍화, 인간 소외

시 ◀

1. 참여시 :

문학의 현실 참여성 강조

-김수영 「푸른 하늘을」, 「풀」, 「사령」 신동엽 「껍테기는 가라」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이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郊外)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수영, '사령(死靈)' [08년 수능]

2. 순수시 :

참여시의 성향에 반대하여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 강조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 '꽃' [교학(윤) I, 천재(정) II]

소설 ◀

1. 새로운 전후소설 :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넘어서 분단 문제에 성찰과 치유 방안 성찰
-최인훈 「광장」, 윤희길 「장마」

이명준은 철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자기만의 밀실에 들어앉아 현실을 편협하게만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는 북한에 살면서 대남 방송(對南放送)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를 빌미로 이명준은 경찰서에 불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형사들은 그를 빨갱이로 몰아붙인다. 이를 계기로 그는 남한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월북한다.

그러나 이명준의 비판적 눈에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굳어진 공식인 명령과 복종만이 보일 뿐이며, 활기차고 정의로운 삶은 찾을 수가 없었다. 즉, 진정한 삶의 광장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명준은 남과 북에서 이념의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명준은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이념의 무의미함을 다소나마 보상받지만, 그것은 개인적 삶의 한정된 행복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광장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전쟁에 뛰어들지만 그곳에서도 새로운 삶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포로가 된다.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이나 북이나 선택의 갈림길을 맞게 된 그는 중립국을 택한다. 이제 그가 나설 광장은 남쪽과 북쪽 어느 곳에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을 싣고 가는 인도의 상선(商船) 타고르호(號)가 남지나해를 지나 항해하는 어느 날 이명준은 하늘로 날아오른 두 마리의 갈매기를 은혜와 딸의 환영으로 보고 바다야 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푸른 광장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바다에 몸을 던진다.

최인훈, '광장' [06년 수능 / 두산II, 비상(박) I, 비상(유) II, 지학(권) II, 창비II, 천재(김) II, 천재(정) II]

2. 사실주의 소설 :

4.19를 통해 성장한 도시민의 형성과 의식, 좌절, 변모를 다룸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통영(현 충무)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무작정 상경한 길녀는 착하고 아담한 처녀로, 처음에는 을지로 4가 국도극장 옆의 일식집에 있었으나 금방 그 옆의 다방 레지로 옮긴다. 그러다 다방 주방에서 일하는 기상현이라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 이후로 기상현의 치근덕거림을 계속 당한다. 길녀는 결국 서린동 골목에 방을 하나 얻어 저녁이고 낮이고 사내를 받는 직업 여성으로 전락한다. 그녀의 손님 중에는 의사, 의대생, 운전기사, 말단 공무원, 제대 군인 등 별별 사람이 다 있었다. 그러다 남동표라는 이북 피난민과 정이 든다. 그런데 어느 날 기상현이 길녀의 집을 찾게 되고 길녀는 서소문 개천 옆으로 이사를 간다. 이 중에 남동표는 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도 못할뿐더러, 기상현이 길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가 기상현의 돈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한다.

그럭저럭 세월은 흐르고 길녀는 친구 미경이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아 준 뒤에 길녀도 이놈의 서울 못 살 데라고, 곧장 시골로 떠나 버린다.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3. 내성적 기교주의 소설 :

소설의 내용 보다 감각을 중시하며 형식적인 면에 우위를 둠

-김승옥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화가인 나는 형 친구의 소개로 한때 화실에 나왔던 헤인에게서 청첩장을 받는다. 헤인은 나를 좋아했으나 나보다 장래가 확실한 의사를 배우자로 택한 것이다. 나는 무기력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림은 진전이 없다.

의사인 형은 6·25 때 패잔병으로 낙오되었다가 동료들을 죽이고 탈출했다는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20여 년 동안 외과 의사로 실수 한 번 없던 그가, 달포 전 수술을 한 어린 소녀가 죽자 병원 문을 닫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나는 형의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형이 쓴 소설을 보게 된다.

형의 소설에서 표독한 이등 중사 오관모, 신병 김 일병, 그리고 서술자인 '나'(형)는 패주중이다. 김 일병은 팔이 잘려 나가 썩어 가고 있고, 그들은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낸다. 오관모는 전부터 김 일병을 남색(男色)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김 일병의 상처에서 나는 역한 냄새로 그 짓이 불가능해지자 김 일병을 죽이려 한다.

형의 소설은 거기서 멈춰 있다. 나는 형 대신에 오관모가 오기 전에 형이 김 일병을 쏘아 버린다는 소설의 결말을 써 나간다. 형은 내가 쓴 결말을 읽고는 병신, 머저리라고 욕을 한다. 그리고는 오관모가 김 일병을 죽이고, 뒤따라간 자신이 오관모를 총으로 쏘 죽이는 것으로 끝맺는다. 그리고 헤인의 결혼식에서 오관모를 만나게 된 형은 돌아와 자신의 소설을 태워 버린다. 그 일이 있은 후, 형은 건강한 생활인으로 돌아가 다시 병원 문을 연다.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06년 6평 / 비상(박) 1]

㉮ 1970년대 문학

<1970년대 시대적 특징>

박정희 정권 →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 →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 인구의 도시 집중, 빈부의 갈등 → 민주화 운동, 반독재 투쟁

시 ◀

1. 민중적 시 :

참여시의 계보를 따르고 있으며 현실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을 하는 리얼리즘적 시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신경림 「농무」

신 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욱 소리 흐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 오는 삶의 아픔
살아 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 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후략)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비상(유) II, 천재(김) II]

2. 도시적 시 :

순수시 계보를 따르고 있으며 도시적 황폐성과 그에 따른 인간 삶의 피폐성을 다룬 모더니즘적 시
-정호승, 이하석, 황지우, 김광균, 최승호, 이성복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뽀뽀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최승호, '북어' [06년 6평 / 교학(윤)II, 천재(경)I]

3. 서정시 :

전통 서정시의 계승

-황동규, 정현중, 강은교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과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디는
몇 송이 눈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06년 수능 / 신사고 I]

1. 분단소설 :

분단시대를 살아온 자기 체험의 객관화 노력

-윤홍길 「장마」, 현기영 「순이 삼촌」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외할머니는 국군 소위로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이후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받는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할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노발대발한다. 그것은 곧 빨치산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더러 죽으라는 저주와 같았기 때문이다.

빨치산 대부분이 소탕되고 있는 때라서 가족들은 대부분 할머니의 아들, 곧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고 믿지만, 할머니는 점쟁이의 예언을 근거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고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예언한 날이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실의에 빠져 있는 할머니, 그 때 난데없이 구렁이 한 마리가 애들의 돌팔매에 쫓기어 집안으로 들어온다. 할머니는 불안간 졸도한다. 집안은 온통 썩대밭이 되는데, 외할머니는 아이들과 외부인들을 쫓아 버리고 감나무에 올라앉은 구렁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할머니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붙여 그을린다. 그 냄새에 구렁이는 땅에 내려와 대밭으로 사라져 간다. 그 후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일주일 후 숨을 거둔다. 장마가 그친다.

윤홍길, '장마'

2. 리얼리즘 소설 :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도시 노동자들의 삶과 농촌 현실을 그림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이문구 「관촌수필」

난쟁이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영수, 영호, 영화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의 소외 계층이다. 실낱 같은 기대감 속에서 천국을 꿈꾸지만 통장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 계고장을 받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

영수네 동네인 낙원구 행복동 주민들 역시 야단법석이다. 어느 날, 철거는 간단히 끝나 버리고, 그들의 손에 아파트 딱지만 주어진다. 입주권이 있어도 입주비가 없는 마을 주민들은 시에게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을 더 받고 거간꾼들에게 입주권을 판다.

그동안 난쟁이 아버지가 채권 매매, 칼 갈이, 건물 유리 닦기, 수도 고치기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어느 날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머니는 인쇄 제본 공장에 나가고 영수는 인쇄소 공무부 조역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간다. 영호와 영화도 몇 달 간격으로 학교를 그만둔다.

투기업자들의 농간으로 입주권의 값이 뛰어 오르고 영수네도 승용차를 타고 온 사나이에게 입주권을 판다. 그러나 명희 어머니에게 전세값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영화는 집을 나간다. 영화는 승용차를 타고 온 그 투기업자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에게 순결을 빼앗긴 영화는 투기업자가 자기에게 했듯이 그의 얼굴에 마취를 하고 가방 속에 있는 입주권과 돈을 가지고 행복동 동사무소로 향한다. 서류 신청을 마치고 가족을 찾으러 이웃에 살던 신애 아주머니를 찾아간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에서 자살했음을 알게 된 영화는 큰오빠인 영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 버려."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05년 6평 / 교학(윤)II, 비상(박)II, 지학(권)II, 지학(최)II, 천재(고)II, 천재(정)I]

4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문학Ⅱ)

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1.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1) 보편성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인류 전체에 보편적인 감동을 주는 것
- 2) 특수성 : 자국의 문학에만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

2.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1) 보편성 : 근대 이전,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면서 동아시아 문학의 보편성을 구현하였음
- 2) 특수성 : 한국의 특수한 시대 상황(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 등)을 기반으로 함

3.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관계

- 1) 보편성을 강조하는 견해 : 한국 문학은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획득하여야 함
- 2) 독자성을 강조하는 견해 : 한국 문학은 그 특수성으로 세계문학에 참여할 뿐임
- 3) 상호 포용성을 강조하는 견해 : 양자는 연관 아래 보편성과 독자성을 공유하는 관계임

②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관련 양상

1. 근대 이전

- 1)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함
- 2) 한자 사용(한글 창제 이후에는 한글과 한자 사용)

2. 근대

- 1) 서구 문학의 직접적 영향을 받기 시작함
- 2) 일제강점기를 통해 민족 문학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됨

3. 해방 이후

- 1)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문학 작품등을 통해 제3세계 문학 주도
- 2) 세계 문학 적극 수용

기출로 확인하기

1. 다음 글을 [보기]와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4년 예비 시행 B형 33번]

놀부가 생난리를 한바탕 치르고 정신을 차려 또 동산으로 치달아 보니 박 두 통이 그저 남았거늘 한 통을 또 따 가지고 내려와 껌보를 달래는 말이,
“이애 껌보야, 내 일을 불쌍히 여겨라. 재물을 얻으려 하다가 많은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구나. 설마 박통마다 그러하라. 이번은 무슨 수가 있을 듯하니 아무 말도 말고 켜 보자.”
껌보 응낙하고 박을 켜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겨 주소 톱질이야. 이 박은 켜거든 금은보화가 함부로 나와 흥부같이 살아 보리라.”
놀부 계집이 섰다가 하는 말이
“다른 보화는 많이 나오되 흥부 아주버니같이 첩은 행여 나오지 마옵소서.”
놀부 꾸짖는 말이,
“가산 탕진하고 상거지가 된 인물이 샘이 어디서 나오는고? 소사스러이* 굴지 말고 한편 구석에 가 있으라.”
하고 밀거니 당기거니 슬근슬근 타며 귀를 기울이고 들이니 이번은 아무 소리도 없는지라 놀부가 대희(大喜)하여 껌보더러 왈,
“이번은 다 켜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 아마 수가 있는 박이라.”
하고 급히 타며 보니 박 속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평평한 박뿐이어늘 놀부 대희할 즈음에 껌보가 생각하니, ‘여러 통마다 탈이 났으니 이 박인들 어찌 무사하라.’
하고 소피하러 가는 체하고 동망질하니 놀부가 껌보를 기다리가다 못하여 박통을 도끼로 쪼개 놓고 보니 아무것도 없고 허연 박속이 먹음직하거늘 제 아내를 불러 왈,
“이 박은 먹음직하니 우선 배고픈데 국이나 끓여 집안 식구들과 먹고 기운 나거든 남은 박은 우리 둘이 타 볶세. 옛사람이 이르기를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하였으니 그만치 굶기었으니 필경은 좋은 일이 있지 하늘 뜻이 무심할 리가 있다. 솔한 재물을 얻을진대 초년고생은 면하기 어려운 것이니 어서 국이나 끓이소.”
놀부 계집이 기뻐하여 박속을 송덩송덩 썰고 양념을 갖추어 큰술에 물을 넉넉히 붓고 통장작을 지피어 쇠옹우리* 고듯이 반나절을 무르녹게 끓인 후 온 집안 식구대로 한 사발씩 달게 먹은 후 놀부는 배가 붕긋하여 게트림*을 하며 계집더러 하는 말이,
“그 국맛이 매우 좋다 당동.”
놀부 계집이 대답하되,
“글쎄요. 그 국이 매우 유명하오 당동.”
놀부 자식들이 어미를 부르면서,
“이 국맛이 좋소 당동.”
놀부 하는 말이,
“그 국을 먹더니 말끝마다 당동당동하니 가장 고이하도다 당동.”
“오냐, 글쎄 그러하다 당동.”
놀부가 꾸짖어 왈,
“너는 요망시리 구지 마라 당동. 무슨 국을 먹었다고 당동하리 당동.”
놀부 계집은, / “그 말이 옳소 당동.”
놀부 딸도 당동, 아들도 당동, 며슴아이도 당동, 놀부 아주미도 당동, 온 집안이 모두 당동당동, 무슨 가야금 뜯고 풍류하는 것처럼 그저 당동당동, 서로 나무라며 당동당동, 이렇듯이 당동당동 하니 담 너머 왕 생원이 들은즉 놀부 집에서 별별 야릇한 풍류 소리가 나거늘 왕 생원이 곧 놀부를 불러 묻는 말이,
“여봐라 놀부야. 너희가 무엇을 먹었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놀부가 여쭙기를,

“소인의 집에서 박을 심었더니 박이 열리어 국을 끓여 먹었더니 그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당동.”
 생원이 믿지 아니하여 왈,
 “네 말이 터무니없도다. 박국을 먹었기로 무슨 그러할 리가 있으랴. 그 국 한 사발만 떠 오너라.”
 놀부 국 한 그릇을 떠다 주니 생원이 받아 맛을 보매 국맛이 가장 아름다운지라. 그 국을 달게 먹고,
 “여봐라 놀부야. 그 국맛이 유명하구나 당동. 아차 나도 당동, 어째서 당동 하느냐? 당동.”
 하며 또 당동당동 소리가 절로 나거늘 생원이 국 먹은 것을 뉘우쳐 놀부를 꾸짖고 당동당동 하며 제 집으로
 돌아간 후 놀부 역시 신세를 생각하니,
 ‘부자가 될 양으로 박을 심었다가 많은 재산을 다 없애고 전후에 없는 고생과 매 맞은 일이며 끝에 와서는
 온 집안사람이 당동 소리로 병신이 되니 이런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작자 미상, ‘홍부전’ [14년 예비 시행 B형 / 미래엔Ⅱ, 비상(박)Ⅱ, 신사고Ⅱ, 천재(정)Ⅱ, 해냄Ⅱ]

* 소사스럽다 : 보기에 행동이 좀스럽고 간사한 데가 있다.

* 쇠옹두리 : 소의 경강이빠. / * 게트림 : 거만스럽게 거드름을 피우며 하는 트림.

[보기]

17세기 초반에 창작된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중세의 기사도 이야기에 빠져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고 학대당하는 사람을 돕겠다며 모험에 나선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16세기 서구 사회에 유행한 기사도 이야기에서 사랑에 빠지고 모험에 나서던 기사를 패러디하고 있다. 여기서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을 고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 ① 돈키호테와 놀부는 각각 중세 기사와 양반 지배층의 전형적 인물이다.
- ② 돈키호테와 놀부는 환상에 빠져 이상적 세계의 재건을 모색하는 인물이다.
- ③ 돈키호테는 사회의 혁신을 추구하고, 놀부는 개인의 변혁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 ④ 돈키호테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여, 놀부는 세속적 욕망에 빠져 풍자의 대상이 된다.
- ⑤ 돈키호테는 세속적 가치를 내세워, 놀부는 정신적 가치를 거부하여 현실과 대립한다.